

용역보고서 2025-07

발간등록번호  
11-1092000-1000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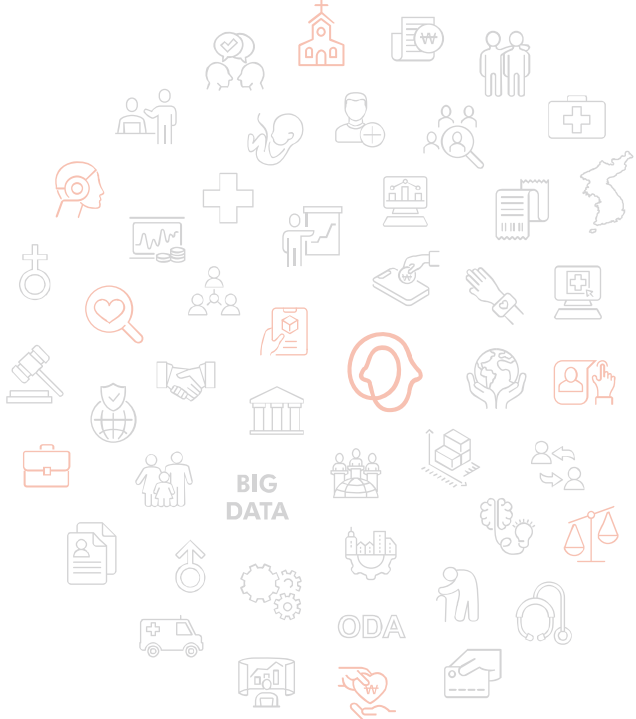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세정

고혜진·김기태·김동진·김성아·오욱찬·이아영·이혜정·임덕영·신영규·하은솔·한겨레·김근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제출문

##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실과 용역계약(2024.3.12.)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요 약 .....	1
<b>제1장 서론 .....</b>	<b>35</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7
제2절 주요 진행 경과 .....	39
<b>제2장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개요 .....</b>	<b>41</b>
제1절 조사 방법 .....	43
제2절 조사 내용 .....	52
제3절 표본 설계 .....	62
제4절 가중치 및 모수 추정 .....	69
<b>제3장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 .....</b>	<b>75</b>
제1절 청년의 일반적 특성 .....	77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	87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	145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	183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	192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	252
제7절 청년의 사회 인식·미래 설계 실태 .....	282
제8절 청년의 경제 실태 .....	353
<b>제4장 결론 및 제언 .....</b>	<b>369</b>
제1절 2024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	371
제2절 조사 발전을 위한 검토 .....	405



제3절 제언 ..... 441

**참고문헌** ..... **451**

**부록** ..... **455**

부록 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분포 ..... 455

부록 2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 ..... 456



〈요약 표 1〉 통계청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6
〈요약 표 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결과	33
〈표 1-1-1〉 청년정책의 과제 수 및 예산 현황(2021년~2024년)	38
〈표 1-1-2〉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진행 과정	40
〈표 2-1-1〉 의견 조회를 요청한 부처 및 위원회	43
〈표 2-1-2〉 교육 내용 구성	48
〈표 2-1-3〉 조사원 교육 일정	48
〈표 2-2-1〉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A. 일반 사항	54
〈표 2-2-2〉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B. 주거	55
〈표 2-2-3〉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C. 건강	56
〈표 2-2-4〉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D. 교육·훈련	57
〈표 2-2-5〉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E. 노동_1	58
〈표 2-2-6〉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E. 노동_2	59
〈표 2-2-7〉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F. 관계 및 참여	60
〈표 2-2-8〉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G. 사회 인식·미래 설계	60
〈표 2-2-9〉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H. 경제	61
〈표 2-3-1〉 모집단 현황(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2
〈표 2-3-2〉 19~34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3
〈표 2-3-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64
〈표 2-3-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64
〈표 2-3-5〉 층화 방법	64
〈표 2-3-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65
〈표 2-3-7〉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66
〈표 2-3-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67
〈표 2-3-9〉 세부 층별 표본추출 가구 수	68
〈표 2-3-10〉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인구총조사, 2023년도)	71
〈표 2-3-11〉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인구총조사, 2023년도)	71
〈표 2-3-12〉 통계청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73
〈표 3-1-1〉 가구 형태 구분	78
〈표 3-1-2〉 인구사회학적 특성	79
〈표 3-1-3〉 혼인 상태	81

〈표 3-1-4〉 가구원 수 .....	81
〈표 3-1-5〉 가구 형태별 청년 .....	82
〈표 3-1-6〉 한부모 가구, 자립 준비 청년 .....	84
〈표 3-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경험 .....	85
〈표 3-1-8〉 돌봄 가구원 유무 .....	86
〈표 3-1-9〉 주 돌봄 여부 .....	86
〈표 3-2-1〉 부모 동거 여부 .....	87
〈표 3-2-2〉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	89
〈표 3-2-3〉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	90
〈표 3-2-4〉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	92
〈표 3-2-5〉 부모 비동거 이유 .....	94
〈표 3-2-6〉 독립한 기간 .....	95
〈표 3-2-7〉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 .....	97
〈표 3-2-8〉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	98
〈표 3-2-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	100
〈표 3-2-10〉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	101
〈표 3-2-11〉 현재 주거 점유 형태 .....	103
〈표 3-2-12〉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	104
〈표 3-2-13〉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	105
〈표 3-2-14〉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	107
〈표 3-2-15〉 현재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 .....	108
〈표 3-2-16〉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	109
〈표 3-2-17〉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 .....	110
〈표 3-2-18〉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엌) .....	111
〈표 3-2-19〉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	113
〈표 3-2-20〉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	114
〈표 3-2-2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	115
〈표 3-2-22〉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	116
〈표 3-2-23〉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	118
〈표 3-2-24〉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	119
〈표 3-2-25〉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	120



〈표 3-2-26〉 점유 유형별 주거비 실태 .....	123
〈표 3-2-27〉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	124
〈표 3-2-28〉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	126
〈표 3-2-29〉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2순위) .....	127
〈표 3-2-30〉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	128
〈표 3-2-31〉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	129
〈표 3-2-32〉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률 .....	130
〈표 3-2-33〉 기숙사, 향토학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	132
〈표 3-2-34〉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	134
〈표 3-2-35〉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	135
〈표 3-2-36〉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	137
〈표 3-2-37〉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 .....	138
〈표 3-2-38〉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	140
〈표 3-2-39〉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	141
〈표 3-3-1〉 현재 흡연을 .....	146
〈표 3-3-2〉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중복 응답) .....	148
〈표 3-3-3〉 현재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률 .....	149
〈표 3-3-4〉 최근 1년간 음주 경험 문항 변경 내용 .....	150
〈표 3-3-5〉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	151
〈표 3-3-6〉 월간 폭음률 .....	152
〈표 3-3-7〉 규칙적인 운동 빈도 .....	153
〈표 3-3-8〉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 .....	155
〈표 3-3-9〉 외식 및 매식 빈도 문항 변경 내용 .....	156
〈표 3-3-10〉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157
〈표 3-3-11〉 최근 1달 동안 함께 식사한 사람 .....	158
〈표 3-3-12〉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	159
〈표 3-3-13〉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	161
〈표 3-3-14〉 우울 증상 유병률 .....	162
〈표 3-3-1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164
〈표 3-3-16〉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	165
〈표 3-3-17〉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	166

〈표 3-3-18〉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167
〈표 3-3-19〉 평생 약물 사용 경험 .....	169
〈표 3-3-20〉 평생 약물 사용 경험자의 최근 1년간 약물 사용 경험 .....	170
〈표 3-3-21〉 약물 오·남용 경험 .....	171
〈표 3-3-22〉 주관적 건강 인식 .....	172
〈표 3-3-23〉 활동제한 .....	173
〈표 3-3-24〉 미충족 의료 경험(병의원 진료) .....	174
〈표 3-3-25〉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175
〈표 3-3-26〉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176
〈표 3-3-27〉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여부 .....	178
〈표 3-3-28〉 피임 결정 주체 .....	180
〈표 3-4-1〉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	183
〈표 3-4-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84
〈표 3-4-3〉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	185
〈표 3-4-4〉 대학생 및 대졸자의 주 전공 계열 .....	186
〈표 3-4-5〉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87
〈표 3-4-6〉 교육이나 훈련받고 싶은 영역(1순위) .....	189
〈표 3-4-7〉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	190
〈표 3-4-8〉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91
〈표 3-5-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193
〈표 3-5-2〉 일시 휴직 여부 .....	195
〈표 3-5-3〉 일시 휴직 이유 .....	196
〈표 3-5-4〉 복수 일자리 여부 .....	197
〈표 3-5-5〉 복수 일자리 수 .....	198
〈표 3-5-6〉 일자리 경험(첫 번째 일자리) .....	200
〈표 3-5-7〉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	201
〈표 3-5-8〉 종사 산업 분야 .....	203
〈표 3-5-9〉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	205
〈표 3-5-10〉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에서의 재직 기간 .....	207
〈표 3-5-11〉 고용계약(예상) 기간 .....	208



〈표 3-5-12〉 보수 및 계약 형태 .....	209
〈표 3-5-13〉 보수 및 상품의 가격 결정 .....	211
〈표 3-5-14〉 지난주 36시간 이상 근로 여부 .....	212
〈표 3-5-15〉 주당 추가 근무 횟수 및 추가수당 수급 비율 .....	213
〈표 3-5-16〉 지난주 추가 근로 희망 여부 .....	215
〈표 3-5-17〉 지난주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	216
〈표 3-5-18〉 업무 자율성 정도: 일하는 시간 및 장소 .....	218
〈표 3-5-19〉 업무 자율성 정도: 일의 양 및 내용 .....	219
〈표 3-5-20〉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실직 관련 .....	220
〈표 3-5-21〉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기술 변화 관련 .....	222
〈표 3-5-22〉 (미취업자) 지난 4주간 구직 경험 .....	223
〈표 3-5-23〉 (미취업자) 구직활동 기간 .....	225
〈표 3-5-24〉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주 직장(일) 희망 여부 .....	226
〈표 3-5-25〉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 .....	228
〈표 3-5-26〉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	229
〈표 3-5-2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1
〈표 3-5-28〉 과거(이전) 취업 경험 및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	233
〈표 3-5-29〉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234
〈표 3-5-30〉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	236
〈표 3-5-31〉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	238
〈표 3-5-32〉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	240
〈표 3-5-3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	241
〈표 3-5-3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 작동 여부 .....	243
〈표 3-5-35〉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	245
〈표 3-5-36〉 개정된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	249
〈표 3-5-37〉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1차 개정: 분류 항목 개편 .....	250
〈표 3-5-38〉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1차 개정: 분류 항목 기준 개편 .....	250
〈표 3-5-39〉 조사표 변경 내용 .....	251
〈표 3-6-1〉 다섯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및 도움 가능 및 도움 희망 여부 문항 예시 .....	253
〈표 3-6-2〉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	256
〈표 3-6-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	257

〈표 3-6-4〉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	259
〈표 3-6-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	259
〈표 3-6-6〉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	261
〈표 3-6-7〉 외출 빈도 .....	262
〈표 3-6-8〉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	263
〈표 3-6-9〉 거의 집에만 있는 사유 .....	264
〈표 3-6-10〉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들의 비율 .....	265
〈표 3-6-11〉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의 은둔 기간 .....	265
〈표 3-6-12〉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	266
〈표 3-6-13〉 정치, 사회 참여 경험[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	269
〈표 3-6-14〉 정치, 사회 참여 경험[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	270
〈표 3-6-15〉 정치의 내적 효능감[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271
〈표 3-6-16〉 정치의 외적 효능감[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72
〈표 3-6-17〉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75
〈표 3-6-18〉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 ..	275
〈표 3-6-19〉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76
〈표 3-6-20〉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	277
〈표 3-6-21〉 도움이 필요한 다섯 상황에서 공공기관 도움 가능 생각 비율과 도움 희망 비율 .....	281
〈표 3-7-1〉 삶의 만족, 삶의 행복감 정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평균) ..	283
〈표 3-7-2〉 갈등 인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	285
〈표 3-7-3〉 갈등 인식: 부유층과 서민층 .....	286
〈표 3-7-4〉 갈등 인식: 수도권과 비수도권 .....	288
〈표 3-7-5〉 갈등 인식: 남성과 여성 .....	290
〈표 3-7-6〉 갈등 인식: 내국인과 외국인 .....	291
〈표 3-7-7〉 한국 사회 위협 인식: 불평등 .....	293
〈표 3-7-8〉 한국 사회 위협 인식: 저출생·고령화 .....	295
〈표 3-7-9〉 한국 사회 위협 인식: 기술·산업구조 변화 .....	296
〈표 3-7-10〉 한국 사회 위협 인식: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	298
〈표 3-7-11〉 한국 사회 위협 인식: 기후변화 .....	300
〈표 3-7-12〉 주관적 계층 인식 .....	301
〈표 3-7-13〉 불평등과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평균) .....	304



〈표 3-7-14〉 공정성 인식: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	306
〈표 3-7-15〉 공정성 인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	307
〈표 3-7-16〉 공정성 인식: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하다	309
〈표 3-7-17〉 공정성 인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하다	310
〈표 3-7-18〉 바라는 삶의 요소: 연애	312
〈표 3-7-19〉 바라는 삶의 요소: 결혼	314
〈표 3-7-20〉 바라는 삶의 요소: 자녀 출산과 양육	315
〈표 3-7-21〉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학력 수준	317
〈표 3-7-22〉 바라는 삶의 요소: 내가 원하는 일자리	318
〈표 3-7-23〉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320
〈표 3-7-24〉 바라는 삶의 요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321
〈표 3-7-25〉 바라는 삶의 요소: 사회 기여	323
〈표 3-7-26〉 바라는 삶의 요소: 명예와 권력	324
〈표 3-7-27〉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	326
〈표 3-7-28〉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경제력	328
〈표 3-7-29〉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교육 수준	329
〈표 3-7-30〉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교육 수준	331
〈표 3-7-31〉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노력	332
〈표 3-7-32〉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334
〈표 3-7-33〉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335
〈표 3-7-34〉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경제력	337
〈표 3-7-35〉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교육 수준	339
〈표 3-7-36〉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교육 수준	340
〈표 3-7-37〉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노력	342
〈표 3-7-38〉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343
〈표 3-7-39〉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345
〈표 3-7-40〉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346
〈표 3-7-41〉 현재 연애 여부	348
〈표 3-7-42〉 향후 결혼 계획	348
〈표 3-7-4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349

〈표 3-8-1〉 월평균 가구 생활비 .....	354
〈표 3-8-2〉 항목별 월평균 가구 생활비 .....	355
〈표 3-8-3〉 연간 총소득 .....	358
〈표 3-8-4〉 청년 개인의 소득원천별 연간 소득 .....	360
〈표 3-8-5〉 공적 급여 수급 경험 .....	361
〈표 3-8-6〉 부채 .....	363
〈표 3-8-7〉 재산 .....	365
〈표 4-2-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소득 항목별 무응답 수 .....	408
〈표 4-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소득 항목별 '0' 응답 혹은 음수 응답자 수 .....	409
〈표 4-2-3〉 맞춤형 급여 수급자 규모 .....	412
〈표 4-2-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득 정의 .....	413
〈표 4-2-5〉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가구 유형별 분포 .....	414
〈표 4-2-6〉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가구 유형별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	415
〈표 4-2-7〉 월평균 가구 생활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19
〈표 4-2-8〉 가구 연간 소득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0
〈표 4-2-9〉 청년(개인) 연간 소득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1
〈표 4-2-10〉 가구 부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1
〈표 4-2-11〉 청년(개인) 부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2
〈표 4-2-12〉 가구 재산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2
〈표 4-2-13〉 청년(개인) 재산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	423
〈표 4-2-1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분포 .....	424
〈표 4-2-15〉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 .....	424
〈표 4-2-16〉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	425
〈표 4-2-17〉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학력 분포 .....	426
〈표 4-2-18〉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혼인 상태 분포 .....	426
〈표 4-2-19〉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	427
〈표 4-2-20〉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	428
〈표 4-2-2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근속 기간 분포 .....	428
〈표 4-2-2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구직 기간 분포 .....	429
〈표 4-2-23〉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수도권 여부 분포 .....	429
〈표 4-2-2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17개 시도 분포 .....	431



〈표 4-2-25〉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분포 .....	432
〈표 4-2-26〉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가구원 수 분포 .....	433
〈표 4-2-27〉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가구 유형 분포 .....	433
〈표 4-2-28〉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거주 주택 유형 분포 .....	434
〈표 4-2-29〉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주거 점유 형태 분포 .....	435
〈표 4-2-30〉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분포 .....	435
〈표 4-2-3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분포 .....	436
〈표 4-2-3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시설 기준 미달 가구 분포 .....	437
〈표 4-2-33〉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침실 기준 미달 가구 분포 .....	437
〈표 4-2-3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결과 .....	439
〈표 4-2-35〉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가구주 및 가구원 수 분포 .....	441

#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 삶의 만족 점수별 분포	24
[요약 그림 2]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24
[요약 그림 3] 집단 간 갈등 인식	25
[요약 그림 4]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 정도	27
[그림 2-1-1]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공문 및 대면 및 서면 자문에 참여한 주요 전문가 리스트	44
[그림 2-1-2] 통계 변경 승인 공문	45
[그림 2-1-3]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인통지서(제2024-027호)	46
[그림 2-1-4] 교육 자료 구성	47
[그림 2-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배너	49
[그림 2-1-6] 청년 삶 실태조사 안내문	50
[그림 2-1-7] 청년 삶 실태조사 공동주거시설용 공문	50
[그림 2-1-8] 청년 삶 실태조사 개별 응답자용 공문	51
[그림 3-6-1]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52
[그림 3-6-2] 다섯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도움 가능' 비율(좌)과 '도움받을 곳 없다'는 비율(우)	254
[그림 3-6-3]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 변화	255
[그림 3-6-4] 지난 1년 동안 여섯 가지 유형의 청년 정치·사회 참여 경험 비율	268
[그림 3-6-5] 지난 1년 사이 네 가지 여가 활동의 참여율 변화 추이	273
[그림 3-6-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좌) 및 스포츠(우) 활동에 참여 안 한 이유	278
[그림 3-6-7] 남성(좌), 여성(우) 청년의 여가시간 사용 추이	280
[그림 3-7-1]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요성과 갖추고 있다는 인식	352
[그림 4-2-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기) 내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410
[그림 4-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411
[그림 4-2-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411
[그림 4-2-4] 가구원 수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	414
[그림 4-2-5] 가구 유형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	415
[그림 4-2-6] 가구원 수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416
[그림 4-2-7] 가구 유형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416
[그림 4-3-1]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20~29세)의 비율	442



# 요약



##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조사결과

### 가구 유형(24년 1월 1일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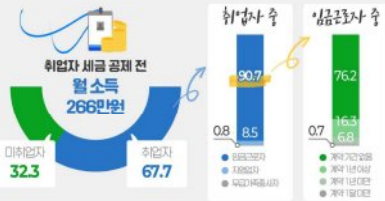
### 생활비·소득·부채·재산

[단위: 만원]



### 취업자 비율 및 월 소득

[단위: %]



### 직장을 원하지 않은 청년의 지난 주 활동상태

[단위: %]



### 이직 및 구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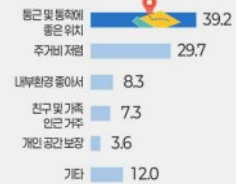
### 독립여부와 계획

[단위: %]



### 독립 청년 주거 선택 이유

[단위: %]



### 주거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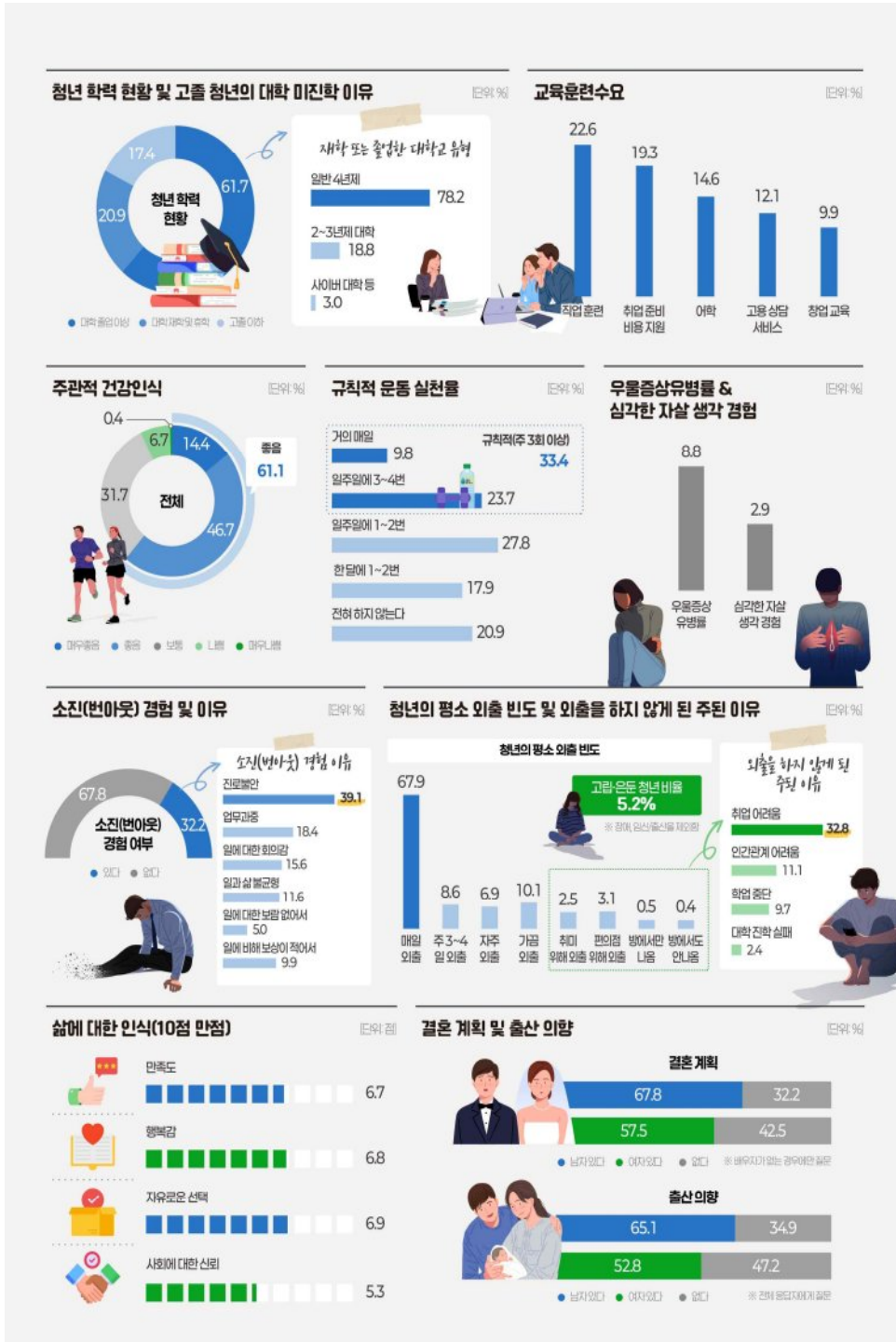
[단위: %]



###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 공공임대 거주 의향

[단위: %]





## I. 조사 개요

-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이 두 번째 조사임.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실시함.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삶의 실태와 인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음.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함.
  - 첫째, 청년층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파악.
  - 둘째,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 셋째, 청년층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 축적.
- 한편, 그간 청년정책 환경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
  - 2020년 12월에 2021~2025년을 아우르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0. 12.)이 발표된 이래 매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왔고, 2024년 3월에는 관계부처합동(2024. 3.)으로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4년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되었음.
- 청년기본법 또한 개정되었는데,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제24조의 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24. 3. 29., p. 3)에서 이러한 청년기본법 개정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언급함.

#### 4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024년 27.0조 원까지 점증해 왔고, 과제 수는 2021년 308개, 2022년 376개, 2023년 390개에서 2024년에는 356개로 조정되었음.
- 청년 관련 통계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음.
  - 2022년에는 청년 삶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어 청년의 다양한 실태와 인식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청은 2023년 업무계획(통계청, 2023. 1. 11.)에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을, 2024년 업무계획(통계청, 2024. 2.)에서 청년 및 고령자의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와 청년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인구, 경제, 생활 등 주제별 지표를 지도, 차트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시각화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함.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도 구축되었음.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2024년 두 번째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시계열 유지를 위해 조사 문항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청년의 삶을 풍부하게 포착하되,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음.
  - 이를테면, 가족 돌봄과 관련해 주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돌봄에 참여하는 청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구 부문의 문항을 축소함.
  - 연도별 추이로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번의 관측값이 필요하므로, 주요 값에 대해서는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검토하였으나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연해 둠.
-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요를 서술함.
  - 제2장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연혁과 주요 변화 내용, 2024년 청년 삶 실태

태조사 설계의 기본 방향, 표본 설계,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

- 제3장에서는 조사의 분석 결과를 영역별로 기술함.
    - 연구의 목적에서 기술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정책 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 내용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통계량을 보고하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함.
    - 또한 조사 내용의 분량과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 내용의 기초통계를 보고하지는 않음.
    -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보고서 발간 이후에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사회일반 > 청년 삶 실태조사'와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자료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의 제공은 데이터 검토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이뤄질 것임.
  - 제4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와 청년 삶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조사의 발전을 위해 검토한 사항을 담음.
- 청년 삶 실태조사 기간과 조사 완료 대상 수는 다음과 같음.
- 조사 기간: 2024. 6. 24.~ 8. 30.
  - 조사 완료 대상 수: 15,098가구와 그 가구의 조사 대상 청년.

## II. 주요 결과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가장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청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의사가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 신체활동 실천 현황 또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으나 고용,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 차원의 어려움은 2년 전에 비해 커졌음. 그러므로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 마련과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청년 세대 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 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은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KOSIS에 제시하는 통계표가 RSE가 30%이상인 경우 \*표시하였으며, 반드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요약 표 1〉 통계청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25%		25%≤RSE<50%	50%≤RSE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자료: 법제처. (n.d.).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은 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임.

### 제1절 청년의 일반적 특성

□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은 51.2%로, 2022년에 비해 증가함.

□ 혼인 상태는 미혼 81.0%, 유배우 18.3%, 이혼·별거·사별 0.7%임.

○ 2022년에 비해 초기(19~24세), 중기(25~29세) 청년의 유배우 비율이 증가함.

□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72.0%가 부모가 가구주인 가구에 속하고, 고졸 이하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의 해당 비율은 30~40%를 차지하여, 현실적으로 최종학교를 수료·졸업해야 독립을 고려,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부모 가구와 자립 준비 청년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은 각각 3.6%, 0.7%로 2022년에 비해 증가했음.

○ 한부모 가구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의 교육, 고용 영역에서의 걸림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 청년은 1.5%(주 돌봄 0.6%포인트 + 돌봄 참여 0.9%포인트)로,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 돌봄 청년의 비율은 2022년과 유사함.

##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 1. 부모와의 동거 현황

- 응답자의 약 절반(54.5%)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청년의 약 70%가 주거 독립을 하며, 독립한 청년은 주로 '통학·통근'을 이유로 현 거주지를 선택함.
  - 19~24세에 78.1%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져서 30~34세에는 29.9%가 됨.
  - 독립한 청년이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1순위)는 '통학통근'이 40.0%로, 주거와 일자리 및 교육 입지 간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냄.
  -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지 않으면 청년 주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줌.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구체적으로 독립 계획이 있는 비율은 38.0%이며,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47.4%)임.
  - 독립을 원하지 않는 주 이유는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60.5%이며, '특별한 이유 없음'도 22.9%임.
  -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욕구는 충분히 확인되며, 적지 않은 청년이 독립할 만한 구체적 동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임.

### 2. 주거 및 주거환경

-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는 부모가 57.6%이며, 특히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경우에는 85.9%가 이에 해당함.

- 부모와의 동거 현황과 매우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가 부모인 비율이 높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비율이 2022년도 조사에 비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음.
- 자가가 49.6%, 전세 23.8%, 보증금 있는 월세가 23.8%로 나타나, 자가는 55.8%인 2022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6.2%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44.0%에서 38.8%로 5.2%포인트 낮아짐.
    -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거주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6.0%이며,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19.7%,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6.7%임.
- 반지하·지하·옥상(옥탑) 등 적절치 않은 곳에 위치한 주택의 비율은 1.0%였으며 (2022년 0.9%), 원룸형 비율은 13.2%였음.
- 적절치 않은 주택 위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2.5%인데, 이는 2022년도의 2.2%에 비해 높아진 수치임.
  - 원룸형 비율은 2022년도 14.0%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음.
- 주거의 평균 면적을 보면, 주택 전체는 77.83㎡이며, 본인 방은 15.79㎡로 2022년도 조사 결과(각각 85.42㎡, 12.59㎡)보다 주택 전체는 약 7.59㎡가 좁아졌고, 본인 방은 약 3.2㎡가 넓어짐.
- 그 외 부엌, 화장실, 샤워 시설, 냉난방 시설, 출입구 등 주택 내부 시설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1인 가구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유형 거주자를 별도로 분석해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3. 주거비 부담 및 주택 마련

- 주거비 관련 중위값 수치를 중심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가 주택 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음.
  - 자가 주택 가격은 중위값이 1억 원 낮아졌으며, 평균도 약 7천만 원 낮아짐.
    - 또한 자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평균에 비해 약 2배, 중위값은 1.7배 높고, 가장 낮은 경북과는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남.
  -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 2,585만 원, 중위 1억 8천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각각 약 1천만 원 정도 상승하였음.
  -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2,891만 원, 중위 1천만 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월세는 평균 41만 원, 중위 38만 원으로 각각 3만 원 상승하였음.
- 주거비 부담 주체(1순위)는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으로 61.7%였으며, '본인 자금'은 24.2%임.
  - '정부나 지자체'인 경우는 6.8%여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31.3%), '전세 자금 대출'(25.0%),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입주'(14.9%) 순이었음.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비율은 2022년도 조사 결과인 41.0%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대신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 비율이 다소 높아져, 원인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4. 주거 관련 인식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71.7%로, 2022년도의 63.2%에 비해 높아졌음.
  - 자가 소유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89.6%로 2022년의 91.3%에 비해 다

소 낮아졌음.

- 당장 주거비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경험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 불안은 '자가 소유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찬성으로 이어지고, 자가 소유가 반드시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거 불안을 불식시켜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임.
-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결혼이나 출산, 취업 등 생애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산을 모을 일정 정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견되었음.
-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은 서울이 가장 높음(85.3%).
  -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일자리 또는 구직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높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된 결과임.
  -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음.
- 주거 불안 상황의 경험률은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이라는 답변이 5.7%로 가장 높음.
  - 조사에 처음 포함한 '전세 사기' 경험은 1.3%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 청년 삶 실태조사의 건강 영역에서는 청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설문 문항과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함께 조사하였음.

- 2024년 조사부터는 약물 사용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약물을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피임 관련 문항을 새로 추가하여 청년기의 성 건강 행태를 파악하였음.
- (흡연) 청년의 현재 흡연율은 23.5%로 지난 2022년 조사 결과(20.1%)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68.6%는 쥘련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쥘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8.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4.7%로 조사되었음.
    -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쥘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2.3%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자담배 사용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흡연자 중 절반 이상(50.4%)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험 음주) 청년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11.0%, 여성 7.3%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집단에서 남성 14.7%, 여성 10.4%로 높게 나타났음.
  - 청년의 월간 폭음률은 남성 49.2%, 여성 35.4%로 나타났는데, 이를 19세 이상 전체 인구의 월간 폭음률(남성 48.8%, 여성 25.9%)과 비교하면 특히 청년 여성에서 9.5%포인트나 더 높음.
- (운동) 청년 인구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성 39.2%, 여성 27.1%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음.
  - 다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여 최근 러닝, 헬스 등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식사) 청년 중 절반 이상(50.6%)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의 22.9%는 주로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2022년에 비해 '혼밥'하는 비율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진) 청년층의 32.2%는 최근 1년 동안 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진 이유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9.1%),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가 과중해서'(18.4%),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15.6%) 등이었음.
- (정신건강)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나, 2022년의 6.1%와 비교하여 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9%로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2.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하였음.
  - 조사 대상 청년의 6.3%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련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스마트폰 중독)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청년은 19.9%로 나타남.
  -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24.8%가 응답해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음.
- (약물오남용) 약물 사용 경험은 수면제 4.2%, 신경안정제 4.2%, 각성제 1.2%, 마약성 진통제 1.0%, 식이·체중 조절 약물 5.1%로 나타났음.
  - 남성보다는 여성의 약물 사용이 더 많았는데 특히 여성 중 9.3%는 식이·체중 조절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의사의 처방 없이 혹은 처방보다 많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약물 오·남용 경험이 12.4%로 높게 나타났음.

- (성 건강) 성관계 시 피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41.9%로 조사되었음.
- 성관계 시 피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 ‘임신을 원해서’(35.1%)를 제외하면,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16.2%, ‘임신이 쉽게 될 거 같지 않아서’ 12.1%,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1.9% 등이 있었음.
- 성관계 시 피임과 관련된 결정 주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2.1%로 조사되었는데, 남성(14.7%)보다는 주로 여성(30.9%)이 피임 여부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82.2%, 특성화고 8.7%, 자율고 3.7% 순.
- 고졸 이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0.4%,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5.4%,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11.7% 순으로 나타나 고졸 청년들의 일자리의 양과 질의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대학생 및 대졸자의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 유형은 일반 4년제 대학 78.2%, 2~3년제 대학 18.8%, 교육대학 0.6%, 기능대학 0.6%였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는 일반 4년제 대학 비율이 82.1%, 25~29세는 77.2%, 30~34세는 75.1%였음. 또한 이들의 주 전공 계열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8.0%, 보건 및 복지 14.6%, 예술 및 인문학 14.4%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공학, 제조 및 건설’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보건 및 복지’라는 응답이 20.6%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과 ‘예술 및 인문학’이 각각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9.3%, ‘보건 및 복지’ 18.0%의 순임.

-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5%로 2022년 대비 증가했음.
- 연령별로는 19~24세가 72.0%, 25~29세 61.8%, 30~34세 59.8%였으며,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 72.6%, 대학 졸업 이상 61.9%임.
- 취업을 하려고 대학(학부) 교육 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은 경험(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0%임.
- 연령별로는 25~29세 31.8%, 30~34세 29.7%, 19~24세 22.5% 순임.
-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 30.9%, 대학 재학·휴학 19.3%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받은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71.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2022년과 유사함.
- 연령별로는 19~24세가 73.5%, 25~29세가 72.1%, 30~34세가 68.0%임.
- 청년들이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 특정 직종 관련 직업 훈련 22.6%,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3%, 어학 교육 14.6%, 고용 상담 12.1%, 받고 싶지 않음 21.6%임. 연령별과 교육 수준별로 차이가 있음.

##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 (경제활동) 조사 대상 청년 중 지난주(24.6.9.~6.15.)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은 67.7%로, 2022년 67.4%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함.
- 남성, 비수도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69.3%, 비수도권은 65.8%로 3.5%포인트 차이를 나타냄.
  - (성별) 남성 67.5%(+0.3%포인트), 여성 67.9%(동일) (2022년 67.2%, 67.9%).
  - (연령별) 19~24세 46.5%(-0.1%포인트), 25~29세 75.7%(-0.3%포인트),

30~34세 80.2%(-1.5%포인트) (2022년 46.6%, 76.0%, 81.7%).

- (지역별) 수도권 69.3%(-0.3%포인트), 비수도권 65.8%(+0.9%포인트) (2022년 69.6%, 64.9%).
-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75.6%(+0.9%포인트), 대학 재학·휴학 33.5%(-1.1%포인트), 대학 졸업 이상 77%(-1.4%포인트) (2022년 74.7%, 34.6%, 78.4%).

○ (복수 일자리) 취업자 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는 5.5%로, 2022년 3.9%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져 여러 일자리를 가지는 청년의 수가 증가함.

-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 중 88.0%가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3개는 9.8%, 4개 이상은 2.1%임.
- 남성은 5.1%, 여성은 5.9%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은 4.8%, 비수도권은 6.3%로 비수도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조사 대상 청년 중 주된 일자리의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 원 (2022년 251만 원)

- (성별) 남성 288만 원(2022년 272만 원), 여성 242만 원(2022년 228만 원).
- (연령별) 19~24세 170만 원(2022년 161만 원), 25~29세 274만 원(2022년 258만 원), 30~34세 311만 원(2022년 302만 원).
- (지역별) 수도권 274만 원(2022년 253만 원), 비수도권 255만 원(2022년 248만 원).
- (학력별) 고졸 이하 261만 원(2022년 254만 원), 대학 재학·휴학 106만 원 (2022년 111만 원), 대학 졸업 이상 290만 원(2022년 274만 원).

□ (종사상지위) 70.7%가 상용근로자로 재직 중이며, 임시근로자 14.3%, 일용근로자 5.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

○ (성별) 남성(71.7%)이 여성(69.5%)보다 다소 높은 상용근로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 연령대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79.4%로 가장 높음.

○ (지역별) 수도권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71.7%로 비수도권(69.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 대졸 이상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80.1%로 고졸 이하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 63.3%에 비해 16.8%포인트 높게 나타남.

□ (종사 산업)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12.9%), 도매 및 소매업(10.8%), 숙박 및 음식점업(9.7%)으로, 전체 청년 고용의 약 33.4%가 전통적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성별) 남성은 제조업(17.4%)과 도매 및 소매업(10.8%)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3%), 숙박 및 음식점업(11.1%), 교육서비스업(11.1%)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 수도권에서는 제조업(11.2%), 도매 및 소매업(12.1%)이 주요 고용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8.0%)의 비율도 비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비수도권은 제조업(15.0%)과 숙박 및 음식점업(10.3%),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4%)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서울은 정보통신업(9.0%)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0%)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며, 부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13.9%)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5%)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울산은 제조업(28.3%)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고임금·고속런 일자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직장 규모)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규모는 10~29명 규모의 직장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99명(17.4%), 5~9명(16.5) 순임.

○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중대형 직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2~4명의 영세 소규모 직장 비율(22.2%)이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서 10~29명(22.3%) 및 30~99명(20.0%) 규모의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계약기간) 청년들의 76.2%(2022년 68.7%)가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80.8%가 기한 제한 없음에 응답함에 따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성별) 남성 77.9%, 여성 74.3%(2022년 69.6%, 67.8%)로, 남성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수도권 76.8%, 비수도권 75.4%(2022년 66.8%, 71%)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비중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크게 상승함.
  
- (추가 근로 희망) 일하는 청년의 32.9%가 추가 근로를 희망함.
  -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12.8%,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11.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9.1%임.
  
- (구직 경험)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은 14.0%로, 2022년 13.2%에서 0.8%포인트 상승함.
  - (구직활동 기간) 미취업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2022년의 평균 4.8개월보다 1.7개월 증가함.
    -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비율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2년 미만은 12.3%, 2년 이상의 장기 구직자는 5.2%임.
    - 수도권의 평균 구직 기간은 7.0개월로 비수도권(5.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구직 기간을 보이며, 2년 이상 장기 구직 활동 비율도 6.0%(비수도권 4.3%)로 높게 나타남.
    - 대학 졸업 이상 학력군에서 7.7개월의 구직 기간을 보이며, 2년 이상 장기 구직 활동 비율도 6.7%(고졸 이하 1.9%, 대학 재학·휴학 2.6%)로 높음.
  - (비구직 사유) 직장을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 준비가 36.2%로 가장 높았고, 원하는 조건의 일 또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1.7%), 기능·학력·능력이 부족해서(12%), 당분간 쉬고 싶어서(9.7%), 어린 아이 돌봄 및 가사일(7.8%), 건강상 이유(2.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수도권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조건의 일 또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35.6%)이 높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응답(43.3%)이 높게 나타남.
- (평소 활동 상태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 상태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7.6%로 2022년의 18.9%에서 8.7%포인트 상승함.
  - (성별) 남자 31%, 여자 23.6%.
  - (연령별) 19~24세 24.3%, 25~29세 35.5%, 30~34세 28.4%.
  - (학력별) 고졸 이하 45.1%, 대학 재학·휴학 19%, 대학 졸업 이상 33.2%.
  - (지역별) 수도권 28.0%, 비수도권 26.9%.
- (이직구직 요인)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 57.9%로 2022년의 48.5%에 비해 9.4%포인트 상승함.
  - 2024년에는 임금(57.9%), 고용 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 설계(5.4%) 순임.
  - 2022년에는 임금(48.5%), 고용 안정성(12.8%), 장기적 진로 설계(8.4%), 근로시간(7.2%) 순임.
- (업무 자율성) 업무 수행 시 자율성의 경우 일하는 장소(65.9%), 일하는 시간(55.2%)을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자율성이 있다는 응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일의 양(43.7%), 일의 내용(40.7%) 순으로 회사가 결정한다고 응답했음.
-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비슷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은 18%(2022년 18.2%), 기술 변화로 인해 사라질 일이라는 응답은 18.2%(2022년 14.4%)임.
- 기술 변화로 인한 실직 가능성 응답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남(+3.8%포인트). 비슷한 일 찾을 수 없음은 이전의 조사보다 약간 줄었음(-0.2%포인트).
- (일터 안전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는 32.4%(2022년 30.6%)만 있다고 응답했고, 43.2%(2022년 51.2%)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책

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두드러짐.

- (근로 환경)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4.7%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한다고 응답하며, 주 2회 이상 5회 미만은 9.6%,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은 17.9%로 나타남.

##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 (관계 1) 청년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위축이 확인됨.

-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① 목돈 필요, ② 생활비 부족, ③ 본인 또는 가족 상병의 경우, 2022년 조사에서 청년 가운데 90% 이상이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2024년에는 모두 10%p 정도씩 비율이 감소함.
- ④ 우울·스트레스, ⑤ 일상 고충·차별 상황에 대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 비율이 2022년의 77% 수준에서 나란히 61~6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위의 다섯 가지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3%에서 일제히 5%를 넘음.

□ (관계 2) 좀 더 구체적으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보면, 관계 단절의 추이가 관찰됨.

-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시된 네 가지 집단을 호명한 비율이 모두 감소함. 가족(92.8% → 82.6%), 지인(33.5% → 17.5%), 공공(10.7% → 7.5%), 민간기관(2.0% → 1.5%) 모두의 영역에서 비율이 하락함.
-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만 2022년 3.3%에서 세 배 증가해서 2024년에 9.9%임.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33.5% → 17.5%) 하락함. 관계의 위축이 가족보다 주변의 지인 네트워크에서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차이가 2022년에는 크지 않았지만, 2024년에 남성 청년의 비율은 두 자릿수를 넘었음(11.5%).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별 격차는 2년 사이에 더 벌어졌음.

- (관계 3)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원하는 곳이 없다는 비율 2.4% → 5.7%
- 도움을 받기 원하는 곳으로는 가족(71.5%), 공공(16.4%), 지인(5.1%), 민간기관(1.4%) 순으로 나타남. 2022년에는 각각의 비율이 가족(68.8%), 공공(18.7%), 지인(8.5%), 민간기관(1.5%), 없음(2.4%)이었음. 가족의 비율이 소폭 오른 점이 눈길을 끌.
-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줄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은 희망은 커졌다고 볼 수 있음. 공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점도 눈에 띈.

□ (고립·은둔) 2024년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로 추정됨.

-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의 비율을 합산한 결과, 지난 2022년의 2.4%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 '거의 집에만 있는' 상태의 지속 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31.5%로, 2022년의 34.6%에서 감소함. 반면에 오랜 기간 집에만 있는 비율은 늘어서, 즉, 3년 이상 현재 상태가 유지됐다는 비율을 합하면, 2022년 12.4%에서 2024년 2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거의 집에만 있게 된' 이유로는 취업(32.8%), 기타(23.0%), 임신·출산(14.7%), 인간관계(11.1%) 등의 순이었음. 취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

□ (정치·사회 참여 1) 정치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감소함.

- '정치에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2.9%로 하락함. '약간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32.7%에서 24.2%로 감소함.
-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 (정치·사회 참여 2) 저강도의 정치 참여는 감소, 고강도 정치 참여는 증가함.
  - 정치 현안에 대해서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경험 비율은 34.0%에서 23.1%로 감소한 반면,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같은 고강도 참여 비율은 3.5%에서 5.6%로 증가함.
  - 확인할 점은 고강도 정치 참여의 비율은 전체 청년의 5% 이하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행동이라는 것임.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증가의 원인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 혹은 정치적 양극화 경향에 따른 극단적 정치 활동의 증가일 수 있음. 아래에서 살펴볼 정치적 효능감 상승과도 연관된 현상으로 추정됨.
  
- (정치·사회 참여 3) 정치에 대한 내·외적 효능감이 2022년도보다 상승함.
  - 정치의 내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외적 효능감은 정부의 민주적 수용성에 대한 믿음을 가리킴. 내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20.1%) 혹은 ‘매우 그렇다’(5.4%)라고 답한 비율은 25.6%였음. 2022년 조사의 23.8%에 비해 소폭이지만 상승함. 외적 효능감도 함께 증가함.
  - 내·외적 효능감에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도 확인해둬م. 이를테면, 내적 정치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25.6%)보다 부정적인 답변 비율(41.7%)이 현격히 높음.
  
- (문화·스포츠 활동 1) 문화예술, 스포츠, 단체/동호회 활동, 여행 참여 경험 비율은 모두 하락함.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당시 설문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여가 활동 참여 비율의 전반적인 하락은 다소 뜻밖의 결과임. 특히, 문화예술(8.2%p)과 스포츠(6.7%p)에서 하락폭이 컸음.
  - 참여 비율을 보면, 1년 이상의 2~3일 여행 경험 비율이 6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39.5%),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32.2%), 정기적인 단체/동호회 활동(24.3%) 순서였음.

□ (문화·스포츠 활동 2) 문화예술을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보면, 참여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하락함.

○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비율은 17.5%로, 2022년 (24.3%)에 비해서 6.8%p 하락함. 반면, '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022년의 8.5%에서 2024년 10.9%로 상승함.

○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32.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2022년의 40.4%에 비해 8.2%p가 하락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여건은 개선됐지만, 오히려 참여율은 하락함.

○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2024년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음. 지난 2022년도의 해당 비율이 45.1%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율이 크게 감소함.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부상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어서'(2022년 17.9% → 2024년 23.6%)로, 5.7%p 상승함.

□ (정책적 함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한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의 사회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Hannah Arendt(1951)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 사이 연대의 기반을 부수고, 개인들을 전체주의적 이념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했음.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관계가 약화하는 현상은 청년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뿐더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도 위험한 징후로 해석됨.

○ 둘째, 청년 집단에서 관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됨. 고립·은둔 집단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고립의 심도도 커짐. 외출 빈도에서도 극단적인 고립에 가까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답변 비율이 2022년 각각 0.1%, 0.0%에서 2024년 각각 0.5%, 0.4%로 증가함.

○ 셋째,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커지고 있음. '큰돈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받고 싶은 집단에 대해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의 2.4%에서 5.7%로 증가함.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음.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17.9%에서 23.6%로 증가함. 청년 세대의 관계의 폭과 질의 악화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의 온라인 친화적 여건과 결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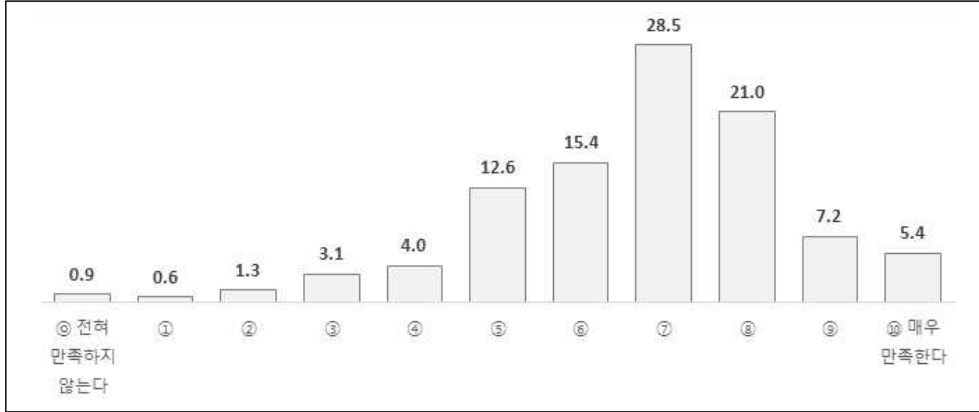
- 넷째, 청년 사이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는 2022~2024년 사이에 떨어짐. 다섯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받고 싶다는 비율에서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함. 청년 대상 정책의 온기가 청년 집단 당사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청년 집단의 교류와 참여의 정도는 인구사회학적인 범주별로도 차이가 컸음. 특히,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청년은 관계 및 참여의 모든 범주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이 확인됨. 저학력, 취약 청년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 제7절 청년의 사회 인식·미래 설계 실태

- (삶 인식)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를 조사했을 때(0~10점), 평균 만족 수준은 6.71점, 행복감 6.82점, 자유로운 선택 6.92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6점임.
-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나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것임.
-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현세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서 다수의 청년은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선택했음. 하지만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청년들도 5.8% 정도 존재함.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이나 1점을 선택한 청년도 약 1.4% 정도 있음.
-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고하는 청년은 7.6%임. 보통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삶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에 행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 청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요약 그림 1] 삶의 만족 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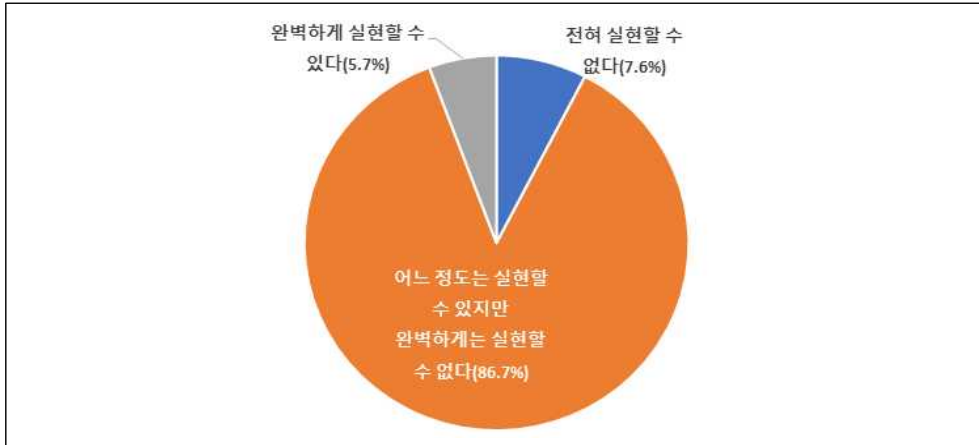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 그림 2]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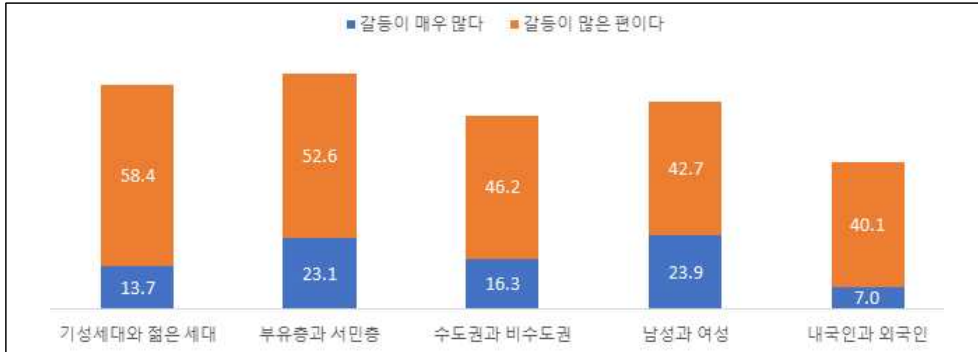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갈등 인식) 세대 갈등은 72.1%, 계층 갈등은 75.7%, 지역 갈등은 62.4%, 성별 갈등은 66.6%, 국적에 따른 갈등은 47.1%가 많다고 응답함.

○ 남성과 여성 간 젠더 갈등이 '매우 많다'는 응답률이 23.9%, 부유층과 서민층 간 계층 갈등이 '매우 많다'는 응답률이 23.1%로 두 영역에서 '매우 많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요약 그림 3] 집단 간 갈등 인식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 한국 위협 요소)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서 불평등은 82.7%, 저출생·고령화는 92.1%, 기술·산업구조 변화는 77.7%, 테러리즘은 79.7%, 기후변화는 89.2%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함.

□ (소득계층 인식) 본인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중간층 52.9%, 중하층 30.9%, 중상층 9.5%, 하층 6.1%, 상층 0.6% 순으로 나타남.

□ (불평등 및 정부 책임) 우리 사회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0점부터 ‘매우 심하다’ 10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 평균 6.82점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함을 확인함.

○ 소득 대물림에 대해서는 최저 0점부터 최대 10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 7.23점으로, 부모 세대의 소득 영향력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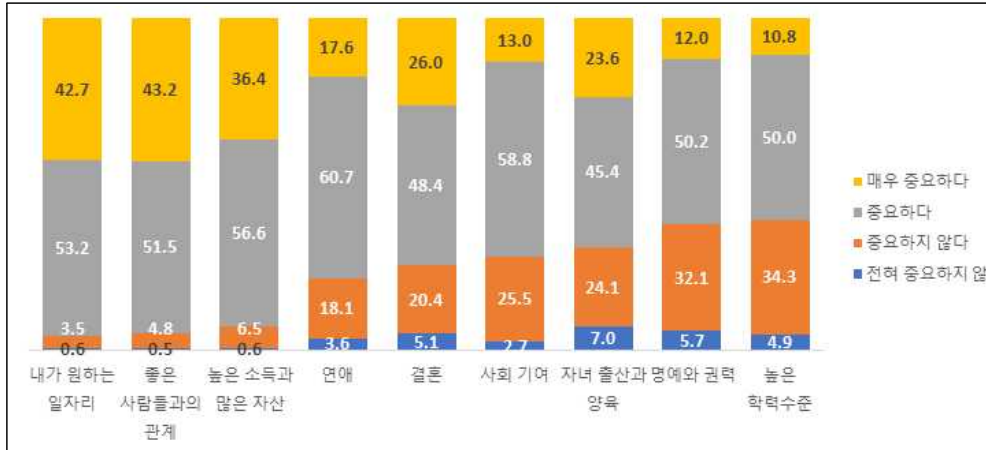
○ ‘생계와 복지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0점부터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10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는 5.01점으로, 정부와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함.

○ 정부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10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 6.77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음.

- (공정성 인식)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27.2%가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함.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71.7%가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함.
  -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32.6%가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함.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12.0%가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함.
  
- (청년이 바라는 미래)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였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임.
  - 일자리는 95.9%의 청년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94.7%의 청년이,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은 92.9%의 청년이 선택하였음. 연애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로 네 번째 순서이고, 결혼은 74.5%로 다섯 번째임. 사회에의 기여는 71.8%, 자녀 출산과 양육이 69.0%로 나타났고, 명예와 권력은 62.2%, 높은 학력 수준은 60.8%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42.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6.4%) 순이었음.
  -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양상에 좀 더 가까움.

[요약 그림 4]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 정도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함. 그중에서 청년 자신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97.7%로 가장 높음.

○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도 94.8%로 매우 높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89.3%, 나의 교육 수준 87.4%, 부모의 경제력 83.0%, 부모의 교육 수준 61.5% 순임.

○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향은 다르게 나타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4.3%임.

-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5%인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66.6%에 달함.

- 자신의 교육 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7.7%, 부모의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44.4%, 부모의 교육 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3.6%임.

- (정책 지원)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주거 정책의 응답률이 45.7%로 가장 높음. 다음은 일자리 정책 33.5%, 복지 및 문화 정책 14.1%, 교육 정책 5.5%, 참여 및 권리 정책 1.2%의 순임.
- (연애, 결혼, 출산)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연애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6.2%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35.1%, 여성의 37.5%가 연애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3.1%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67.8%, 여성 청년은 57.5%가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 제8절 청년의 경제 실태

- (생활비) 2023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평균 213만 원,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한 가구 생활비는 평균 148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 가구의 생활비는 표면적으로는 청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 148만 원으로 차이가 없음.
  - 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생활비 항목별로 보면, 2023년 청년 가구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식료품비 80만 원, 월세 13만 원, 주거 관리비 15만 원, 교육비 10만 원, 통신비 14만 원,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의 경우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에 18만 원으로 특히 높아 독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을 보여줌.
- (소득) 2023년 청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5,140만 원(균등화 가구 총소득 3,530만 원), 청년 개인의 총소득은 2,625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 개인 총소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이 수도권일 때 더 높게 나타남.

- 청년의 개인 총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 및 사업 소득 2,451만 원, 재산소득 34만 원, 사적 이전소득 94만 원, 공적 이전소득 45만 원으로 나타남.
  -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남.
  - 다섯 가지의 주요 공적 급여 수급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청년 중 실업급여는 3.2%, 취업지원 관련 수당은 2.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7.2%,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은 6.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은 2.0%가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부채총액은 3,884만 원,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1,637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남.
  -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2,790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 개인 부채를 용도별로 보면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주택 관련 부채가 2,100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은 월평균 9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월평균 13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음.
- (재산)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2억 4,505만 원,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남.
  -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청년 개인 재산총액은 7,526만 원으로 나타남.
  - 청년의 개인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재산 1,378만 원, 주식 240만 원, 가상자산 28만 원, 기타 부동산 및 재산 795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재산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으나,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III. 결론 및 제언

- (사회보장 행정자료와의 비교)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결합하는 것은, 양질의 정보가 가지는 두 요건, 정확성과 충분성의 상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임(Penner & Dodge, 2019; Cole, S., Dhaliwal, I., Sautmann, A. & Vilhuber. L., 2022).
- 이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국세청 소득 정보 자료가 연계된 사회보장 행정 자료를 비교하여, 행정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개선 효과와 결합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 2022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보장 행정 자료와 실태 파악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임. 2024년 12월 현재, 공개된 2기 사회보장 행정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임. 소득과 관련해 청년 삶 실태조사는 작년(t-1)의 연간 소득을 파악하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1년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3년의 소득 정보를 조사함.
-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근로소득 및 근로+사업+일용 소득 자료는 일정 구간 내에서 소득 값이 빠짐없이 확인됨.
  -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정 값에서는 빈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연간 소득 수준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 소득자 중에서 3,000만 원, 3,600만 원 소득자의 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그런 경우임.
- 그러나 행정 자료로 소득 조사를 전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임.
  - 청년층의 주요 소득원인 사적 이전소득은 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임. 행정 데이터에서의 소득은 조세 당국에 보고된 소득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가구 간 이전소득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함. 그러나 청년층,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소득 원천은 사적 이전소득임. 청년 1인 가구 소득의 약 10% 정도가 사적 이전소득임.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도 그 수가 1천 명이 넘어 적지 않은데, 이들의 평균 소득의 90% 이상이 사적 이전소득임.

- 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적 이전소득이 청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고려하면, 향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소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함.
- 그러나 소득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행정 자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으로 보임.

□ (항목 무응답 검토) 설문조사 시 조사 문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응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문항으로 인해 응답하기를 꺼려하여 항목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통 항목무응답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를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으나,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다면, 즉 무응답 분포가 응답 분포와 같지 않다면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하여 잘못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이렇듯 조사데이터에서 항목무응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므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에 대한 항목무응답 현황을 파악하였고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항목무응답이 발생한 문항은 경제 영역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 및 재산이 해당함.
  - 연간 소득, 부채 및 재산의 경우는 가구 기준과 청년(개인) 기준에 대해 각각 조사하며,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가구 기준에 대해 조사함.

-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의 문항은 세부 문항과 전체 문항(총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 기준 조사 문항의 항목무응답률은 청년(개인) 기준 조사 문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 연간 소득의 항목무응답률은 36.34%, 가구 부채의 경우는 39.03%, 가구 재산의 경우는 37.32%였음.
  - 월평균 가구 생활비의 항목무응답률은 0.18%, 청년(개인) 연간 소득은 0.32%, 청년(개인) 부채의 경우는 3.85%, 청년(개인) 재산의 경우는 0.80%였음.
- 항목무응답 패턴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는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이 59.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이 34.36%이고,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이 5.93%를 차지하였음.
  -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2개 집단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학력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취업자의 비율이,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및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취업자의 비율이,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3개 집단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약 표 1>과 같음.
    -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일 가능성(오즈)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에 비해 남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가 준거집단인 대학 졸업 이상에 비해, 혼인 상태는 미혼인 경우, 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에 비해, 거주지는 비수도권인 경우, 거주 주택 유형은 주택 또는 기타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일 가능성(오즈)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에 비해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혼인 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에 비해, 거주지는 수도권인 경우, 거주 주택 유형은 주택 또는 기타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지지 않음.

〈요약 표 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결과

변수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기타 (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상수항	(-)	(-)
성별_여자	남자 (+)	
연령	(+)	
학력_대학 졸업 이상	대학 재학/휴학 (+)	대학 재학/휴학 (-)
혼인 상태_미혼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있음 (-)
경제활동 상태_비경제활동	취업자 (+)	취업자 (+)
거주지_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
거주 주택 유형_아파트	주택 (+) 기타 (+)	주택 (+) 기타 (+)

주: 괄호 안의 내용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계수(coefficient) 값의 부호를 의미함.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무응답 처리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 영역의 문항 구조를 반영하여 항목무응답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항목무응답을 대체할 때는 세부 문항별로 실시한 다음에, 전체 문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문항 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 및 재산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개별 문항으로 항목무응답을 대체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함께 대체하는 것을 제안함.
  - 항목무응답을 대체할 때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여부를 고려해야 함.
    - 1인 가구이면서 가구주인 5,142명은, 즉 가구 기준 문항이 무응답 집단인

경우는 해당하는 개인 기준의 문항으로 대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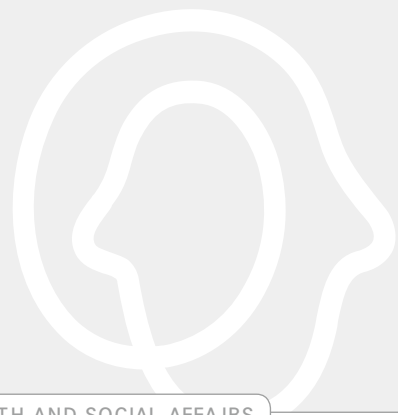
- 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항목무응답(기타 집단)인 경우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음.
  - 1인 가구이면서 가구주인 213명의 경우는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과 같이 개인 기준의 문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가구주이면서 2인 이상 가구인 96명은 가구주이면서 1인 가구인 경우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다인 가구의 특성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구주가 아니면서 2인 이상 가구인 579명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일 확률이 높으므로, 일반 가구의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합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항목무응답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균 대체, 핫덱 대체, 회귀 대체, predictive mean matching(PMM)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경제 영역은 2022년 조사에 비해 가구 기준 문항의 질문을 간소화하여, 즉 세부 문항은 삭제하고 총액만 조사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음.

○ 응답자의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가구 기준 문항의 총액에 대해서는 개인 기준 문항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청년의 삶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진행 경과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실시된다. 이 조사는 2022년에 최초 실시되었으며, 2024년이 두 번째 조사이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삶의 실태와 인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조사 배경을 지닌 청년 삶 실태조사는 세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첫째, 청년층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의 파악, 둘째,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셋째, 청년층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 축적이 그것이다.

한편, 그간 청년정책 환경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에 2021~2025년을 아우르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0. 12.)이 발표된 이래 매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왔고, 2024년 3월에는 관계부처합동(2024. 3.)으로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4년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청년기본법 또한 개정되었다. 이를테면,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제24조의 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24. 3. 29., p. 3)에서 이러한 청년기본법 개정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024년 27.0조 원까지 점증해 왔고, 과제 수는 2021년 308개, 2022년 376개, 2023년 390개에서 2024년에는 356개로 조정되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제 수로는 일자리 분야(124개), 교육(117개), 복지·문화(44개), 참여·권리(43개), 주거(28개)의 순이었고 예산의 경우 주거 분야가 11.5조 원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교육(7.5조

원), 일자리(5.8조 원), 복지문화(1.9조 원), 참여·권리(0.1조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1〉 청년정책의 과제 수 및 예산 현황(2021년~2024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제(개)	308	376	390	356
예산(조 원)	23.8	24.6	25.4	27.0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 3. 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p.6.

청년 관련 통계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2년에는 청년 삶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어 청년의 다양한 실태와 인식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청은 2023년 업무계획(통계청, 2023. 1. 11.)에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을, 2024년 업무계획(통계청, 2024. 2.)에서는 청년 및 고령자의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와 청년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인구, 경제, 생활 등 주제별 지표를 지도, 차트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시각화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에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도 구축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2024년에는 두 번째 청년 삶 실태조사가 되었다. 시계열 유지를 위해 조사 문항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청년의 삶을 풍부하게 포착하되,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음을 명시해 둔다. 이를테면, 가족 돌봄에 있어 주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돌봄에 참여하는 청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구 부문의 문항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과 각 영역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연도별 추이로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번의 관측값이 필요하므로, 일부 값에 대해서는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검토하였으나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연해 둔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요를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연혁과 주요 변화 내용,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설계의 기본 방향, 표본 설계,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조사의 분석 결과를 영역별로 기술했다. 연구의 목적에서 기술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정책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 내용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통계량을 보고하며, 이 결과를 기반

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또한 조사 내용의 분량과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 내용의 기초통계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보고서 발간 이후에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사회일반 > 청년 삶 실태조사’와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원자료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제공은 데이터 검토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이뤄진다. 제4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와 청년 삶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조사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과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한 항목 탐색적 차원의 무응답 진단 내용을 담았다.

## 제2절 주요 진행 경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진행 경과는 1) 조사 설계, 2) 조사 준비, 3) 조사 실시, 4) 조사 후속 단계로 구분된다. 조사 설계에는 조사표의 수정·보완, 표본 설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 통계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통계청 승인이 포함된다. 조사 준비에는 수정·보완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TAPI(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이하 TAPI)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사원을 모집·교육한다. 조사 실시 단계에서는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속 단계에서는 자료의 입력과 각종 에러와 로직을 체크하고 사후 가중치를 조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2024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는 국무조정실의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표 1-1-2〉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진행 과정

단계	내용	내용 수행을 위한 기반 작업
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표 개발</li> <li>- 표본 설계</li> <li>- IRB</li> <li>- 통계작성 변경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 회의(수시)</li> <l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국무조정실, 한국리서치 협의(수시)</li> <li>- 내부 전문가 자문회의(수시)</li> <li>- 17개 부처, 1개 위원회 의견 조회 (2024. 3. 26.~4. 5.)</li> <li>- 내·외부 전문가 대면, 서면 자문 (2024. 4. 11.~4. 19.)</li> <li>- 통계작성 변경 신청(2024. 4. 26.)</li> <li>- 통계작성 변경 승인(2024. 5. 30.)</li> </ul>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PI 개발</li> <li>- 조사원 모집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교육(2024. 6. 10.~6. 17,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0일: 서울</li> <li>· 6월 11일: 대구</li> <li>· 6월 12일: 부산</li> <li>· 6월 13일: 대전</li> <li>· 6월 14일: 광주</li> <li>· 6월 17일: 서울</li> <li>· 6월 28일: 온라인 추가 교육</li> <li>· 7월 중: 상시 교육</li> </ul> </li> </ul>
조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실시(2024. 6. 24.~8. 30.)</li> </ul>
조사 후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입력</li> <li>- 각종 에러, 로직 체크 및 사후 가중치 조정</li> <li>- 데이터 구축</li> <li>- 보고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검증, 조사표 리뷰, 1차 데이터 점검, 재조사 (2024. 8. 30.~10. 3.)</li> <li>- 사후 가중치 조정(2024. 10. 3.~10. 23.)</li> <li>- 결과표 산출(2024. 11. 6.)</li> <li>- 데이터 지속 검토 및 결과표 보완 산출(2024. 12. 17.)</li> </ul>



## 제2장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방법
- 제2절 조사 내용
- 제3절 표본 설계
- 제4절 가중치 및 모수 추정



## 제 2 장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방법

#### 1. 조사표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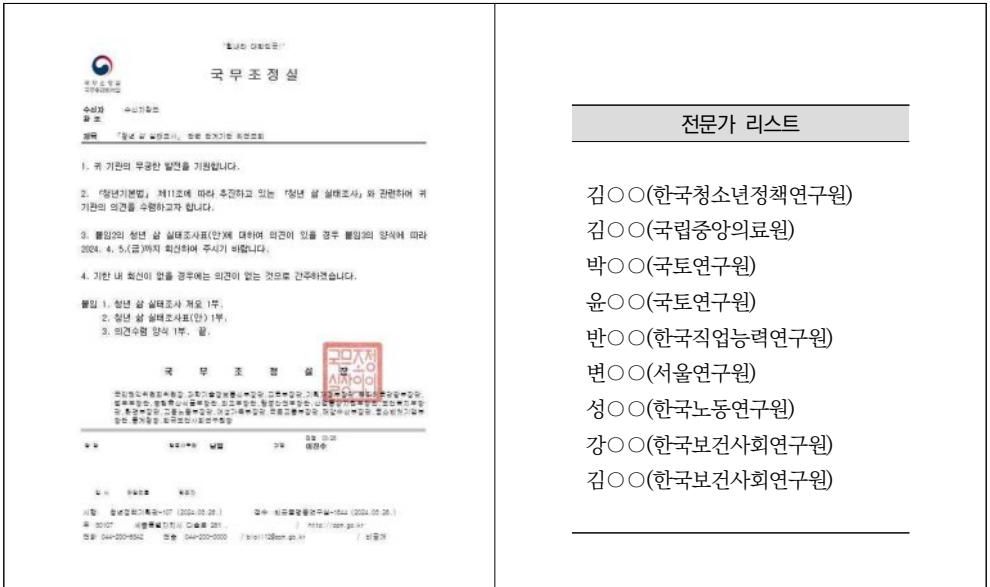
청년 삶 실태조사는 다음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첫째, 이행기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 둘째, 청년 삶 실태조사는 정기 조사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셋째,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실태뿐 아니라,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넷째,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청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2024년 조사는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대부분의 문항을 유지하되,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변화한 사회환경과 통계 환경, 그리고 청년정책에 조응하기 위해 일부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조사 관련 수요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2년 조사표를 토대로 2024년 3월~4월에 걸쳐 17개 부처와 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으로 자문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각 영역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수정과 보완작업에 활용하였다.

〈표 2-1-1〉 의견 조회를 요청한 부처 및 위원회

구분	내용
부처 및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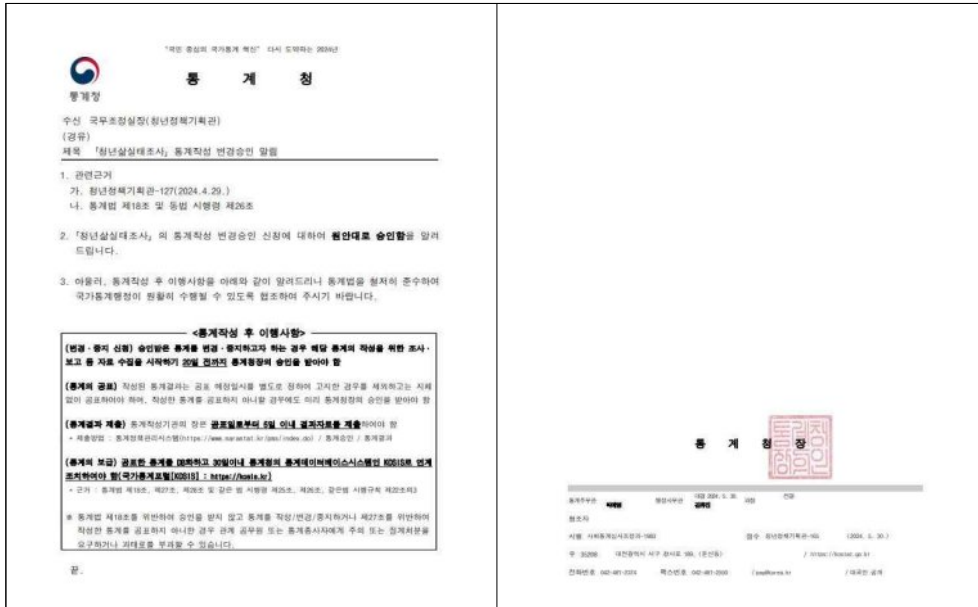
[그림 2-1-1]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공문 및 대면 및 서면 자문에 참여한 주요 전문가 리스트



## 2. 통계 변경 승인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 7월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신규 승인(승인번호 제 170002호)을 받은 승인통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4년 조사에 앞서 표본 설계와 수정·보완한 조사 내용에 대한 변경 승인이 필요하여, 2024년 4월 28일 변경 승인에 필요한 공문을 발송하고, 5월 10일 나라통계 시스템에 변경승인신청을 위한 자료(시행문, 신청서, 통계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신규비교표 등)를 등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5월 30일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림 2-1-2] 통계 변경 승인 공문



###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표본 설계, 연구 방법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 및 기타 연구 관련 문서에 대한 IRB 승인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통지서(제 2024-027호)를 받았다.

[그림 2-1-3]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인통지서(제2024-027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문서번호] 제2024-024호	발송일자	2024.04.29
연구등록번호	[연구등록번호] 2024-04-01	발령일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김민준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생명윤리위원회
심사일자	2024.04.29	심사장	김민준
심사결과	승인	시정요청	□
승인기간	2024.05.12 ~ 2025.01-11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4.04.29부터 2025.04.28까지		

**심사의견**

1. 연구계획서, 조사설계서, 조사절차 안내문 등의 자료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의 생명윤리 심의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승인이 가능함.

2. 연구계획서 상 '연구윤리 준수 및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조사설계서와 안내문도 이에 부합하도록 잘 작성되어 있음. 조사절차 안내문에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모든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음. 또한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3. 연구계획서, 연구절차,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교육방법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계획이 반영하여 연구대상자의 위험은 거의 없으며, 사생활, 인격 침해 요소도 없는 것으로 사용됨.

4. 본 조사는 「생명기본법」 11조에 따라 다양한 청년층의 삶과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와 제언, 시계열에 기초한 통계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2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19~34세 청년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CAPI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연구계획서 참조).

5. 본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련 세부 사항이 연구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표본 설계(모집단) 정보 및

표본 추출 및 설문 방법(표본) 및 조사 설계(면접 각 유형에 대한 교육 구성과 조사 시기 조정, 내용에 따른 설문 구성 등) - CAPI를 활용한 자기 가짜 조사 시 민감성 문항에 대한 어림 문항이 나타날 수 있는지 면담하고 교육하고 구별적으로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표의 내용 구성과 표본이 다소 복잡한 영역이 있어, CAPI 실시 시 면접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안내가 철저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제1차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면접 대상자 관련(면접 거부 및 인접성 정보에 대한 응답률 및 신뢰도 저하등) 등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 할지 충분히 인지하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사표의 영역과 내용구성 및 목적에 대한 면접원 사전 교육을 철저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몇몇 민감 조사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설문도구의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민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보호서(자료 활용 동의서)상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참여 동의와 자료 활용(개인 및 민감 정보 활용 및 보호 등), 조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안내 및 추가 조사가 참여 여부 안내 등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충분히 보호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본 조사는 IRB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규정을 준수 하고 있으며, 면접 문항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본 심의내용을 승인함.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할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교육 차원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4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서인)

#### 4.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원의 모집은 청년 관련 승인 통계조사 경험 조사원 209명을 우선 고려했으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의 고용과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한국리서치 가구 방문 조사 전문조사원 중 CAPI 경험이 있는 조사원으로 고려하여 최종 324명의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조사원 교육과 관련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지침서 등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표준 교육자료를 작성했으며, 교육 효과 최대화를 위해 5개 권역별 현장 집합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고, 1회의 온라인 교육 또한 추가로 실시했다. 그 외 각 사무소별 추가 교육이 총 5회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① 조사 개요 및 특성, ② 설문지 교육, ③ TAPI 교육, ④ TAPI 설문 입력 및 실습 ⑤ Q&A 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림 2-1-4] 교육 자료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b>조사원 교육 자료</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b> 면접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4. 6. 10(월) 오후 2시 ~ 6시</li> <li>장소 : 4층 교육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조사 지침서</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b> 조사지침서 2024. 6.</p>																									
<p><b>1. 본 조사의 필요성 : 주요 청년 정책 연혁</b></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주요 정책</th> </tr> </thead> <tbody> <tr> <td>2019년</td> <td>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td> </tr> <tr> <td>2020년</td> <td>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td> </tr> <tr> <td>2021년</td> <td>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주택지원금, 청년주택지원금)</td> </tr> <tr> <td>2022년</td> <td>청년 교육 지원 강화 (청년교육지원금, 청년교육지원금)</td> </tr> <tr> <td>2023년</td> <td>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td> </tr> </tbody> </table>	연도	주요 정책	2019년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	2020년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2021년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주택지원금, 청년주택지원금)	2022년	청년 교육 지원 강화 (청년교육지원금, 청년교육지원금)	2023년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														
연도	주요 정책																									
2019년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 청년창업자 지원금)																									
2020년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2021년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주택지원금, 청년주택지원금)																									
2022년	청년 교육 지원 강화 (청년교육지원금, 청년교육지원금)																									
2023년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																									
<p style="text-align: center;"><b>TAPI 교육 자료</b></p>  <p style="text-align: center;"><b>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b> 면접원 교육 : TAPI</p>	<p style="text-align: center;"><b>실습용 조사표</b></p> 																									
<p><b>1. TAPI 설문 진행 과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API 설문 준비</li> <li>2. TAPI 설문 실시</li> <li>3. TAPI 설문 결과 분석</li> <li>4. TAPI 설문 결과 보고</li> <li>5. TAPI 설문 결과 활용</li> <li>6. TAPI 설문 결과 공유</li> </ol>	<p><b>A. 일반 사항 (2024년 1월 1일 기준 19-34세)</b></p> <p><b>A1-1</b> 귀 가구에 함께 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분할할 경우 몇 명입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 수</th> <th>CS1</th> <th>CS2</th> <th>CS3</th> <th>CS4</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2</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3</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4</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p><b>A2-1</b> 가구원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변호를 기입해 주십시오.</p> <p>가구원 번호 : 2</p>	가구원 수	CS1	CS2	CS3	CS4	1	1	1	1	1	2	1	1	1	1	3	1	1	1	1	4	1	1	1	1
가구원 수	CS1	CS2	CS3	CS4																						
1	1	1	1	1																						
2	1	1	1	1																						
3	1	1	1	1																						
4	1	1	1	1																						

〈표 2-1-2〉 교육 내용 구성

구분	주요 교육 내용
조사 개요 및 특성	조사 목적과 배경, 개요(대상, 일정, 방법), 조사 주관 기관 및 연구진 소개, 면접원 교육 일정 및 내용 안내
설문지 교육	단계별 조사원 대응 방안 및 주의 사항, 응답 내용 기록 방법 조사구 내 청년 대상자 접근,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조사구 대체 원칙 • 주요 개념교육: 문항 내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 설문 진행 중 에러 발생 유형 및 대처방안 • 문항 유형별 입력 방식(숫자, 문자, 순위, 복수 응답 등)
휴식 시간	
TAPI 교육	• 태블릿PC를 활용하여 Interviewer 접속부터 조사 진행 및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 • 접촉, 가구 정보 입력 및 대체 요청 등 단계별 Interviewer 사용법을 교육하고 모의 입력 실습 실시
TAPI 설문 입력 실습	
Q & A	

〈표 2-1-3〉 조사원 교육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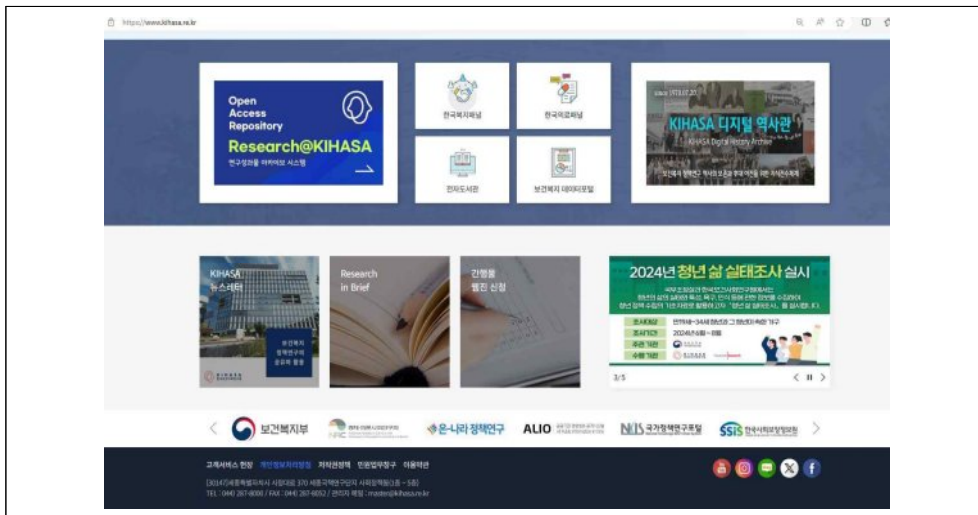
구분	2024. 6. 10(월)	2024. 6. 11(화)	2024. 6. 12(수)	2024. 6. 13(목)
교육 지역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조사 지역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제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참석 인원	32	29	40	37
교육 장소	한국리서치 교육실	대구 테크노파크 동대구 캠퍼스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대전 중구 계룡로 예림빌딩
한국리서치 참석자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석자	정세정, 하은솔, 남일(국무조정실)	정세정, 하은솔, 한겨레	정세정, 하은솔, 한겨레	정세정, 하은솔, 한겨레
구분	2024. 6. 14(금)	2024. 6. 17(월)	2024. 6. 28(금)	2024. 7. (상시)
교육 지역	광주	서울	온라인	각 사무소
조사 지역	광주/전라	서울/인천/경기		
참석 인원	37	44	49	56
교육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한국리서치 교육실	한국리서치 교육실	각 사무소
한국리서치 참석자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김수진, 박정석, 차동규, 정종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석자	정세정, 한겨레	정세정, 하은솔, 한겨레	정세정	-

주: 각 소속의 직위는 생략하였음.

## 5. 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모색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활용했다. 첫째, 한국리서치,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조사 시행 안내 배너와 알림창을 게시하여 조사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둘째,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관·조사기관, 문의처, 조사 내용 및 목적, 2022년 주요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이 포함된 조사 팸플릿을 제작하여 조사원이 현장 조사에서 응답자를 설득하는 데 활용했다. 셋째, 국무조정실 명의의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관리자용/개별 응답자용 등으로 세분화한 공문을 활용했으며, 아파트 조사구는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아파트 조사구 방문 시 공문 및 안내 팸플릿 등을 제시(사전 우편 발송)하고 아파트 출입 및 가구 방문 조사 협조를 구하도록 했다. 넷째, 1인 가구·경활(취업자)·맞벌이·학생 등 청년층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 주말을 포함하여 시간대를 달리한 최소 3회 이상의 가구 방문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비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청년층 특성을 반영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조사 채널을 개설하여 조사 관련 문의 대응처로 활용했다. 조사 완료 가구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지급했으며, 답례품은 응답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3종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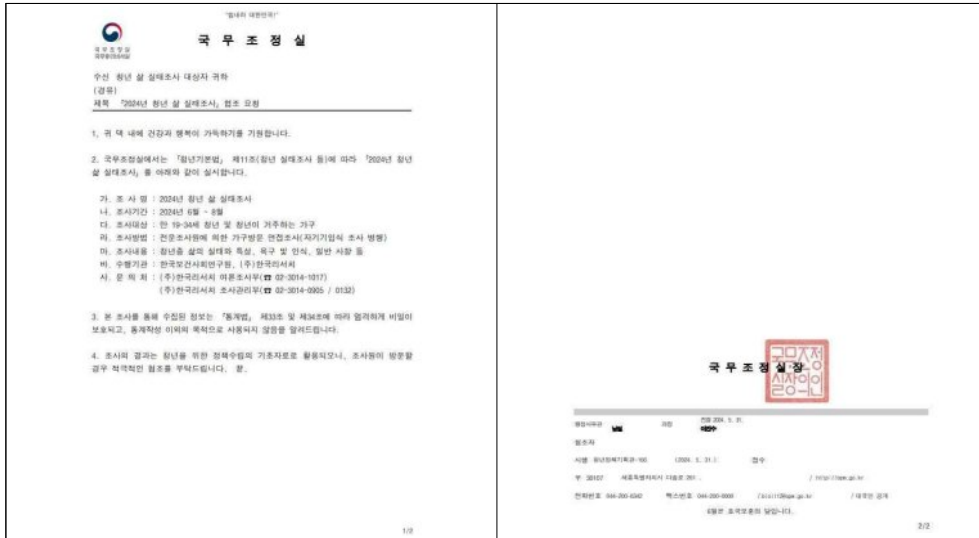
[그림 2-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배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hasa.re.kr/>. 2024년 7월 22에 접속하여 인출.



[그림 2-1-8] 청년 삶 실태조사 개별 응답자용 공문



## 6. 조사 방법, 조사 실시 및 후속 조치

청년 삶 실태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조사구 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34세 이하의 가구원(내국인)이며, 2022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했다. 표본 설계 부문에서 다시 설명하겠으나 표본추출 과정에서 표본 조사구와 표본 가구를 추출하게 되며, 추출된 가구에 대해 통계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조사구 일련번호, 가구 일련번호, 조사구 유형,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주소이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이 해당 가구에 있는지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사를 실시하기까지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방문하여 19~34세 가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구원이 있는 경우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낙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구 방문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조사 실시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스마트 조사 방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가 있다. 그러

나 이 조사들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응답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정통계라는 점(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응답의 의무가 법에 고시된 지정통계라는 점에서 승인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 삶 실태조사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 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의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가구 방문을 통해 조사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도 낮 시간에 부재,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년 특성, 조사 대상 청년의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한 조사 진행 중 조사 중단 가능성 등,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발생 시에 한해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 이하 CASI), 유치조사와 같은 대안적 방법을 병행하되, 이러한 방법은 최소화하고 응답 내용의 오류 등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는 2024년 6월 24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9주간 수행됐다. Tablet PC를 활용한 전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인 TAP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실시 후에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화 검증, 조사표 리뷰, 1차 데이터 점검, 재조사 등이 10월 3일까지 수행됐다.

## 제2절 조사 내용

2022년 조사에서는 표본추출틀로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표본추출틀로 인구총조사를 사용했다. 청년통계등록부의 근간(backbone)이 인구총조사이므로 결과의 시계열 비교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24년 조사에서 인구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한 이유는 표본추출틀로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할 경우 조사구 정보를 사용하기 어렵고, 표본으로 추출된 청년을 조사하기가 어려울 경우 리스트를 대체해야 하는데 청년통계등록부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2022년의 경우 넓은 지역 범위의 지자체에서는 의도치 않은 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2년 실제 조사 완료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청년통계등록부에 있는 대상과의 매칭률이 약 20%로 높은 편이라 보기 어려웠던 점도 표본추출틀을 변경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의 경우, 조사 대상 청년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현실과 환경 변화 등으로

꼭 필요한 문항은 추가했으며, 보기 등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노동 영역은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일반 사항과 경제 영역의 경우, 조사 대상 청년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제 영역의 경우 가구 부문의 응답, 즉 세부 항목에 대한 질문을 대폭 축소하여 응답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 <표 2-2-1>~<표 2-2-9>는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 변화를 정리한 것이며, 여기서는 요약한 정보만을 제시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영역별 조사 결과 서술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2024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일반 사항에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대상 청년 외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축소했으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문항(A9, A9-1, A10)의 경우,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에 참여하는지로 확장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또한 복수로 응답할 수 있게끔 했다. B. 주거 영역에서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문항은 삭제하였고,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에서 10) 전세 사기(갭투자 및 깡통전세, 이중·중복 계약, 매도 및 근저당 설정,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경험 문항을 포함하였다. C. 건강 영역의 경우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사용 경험 질문을 더 세분화하여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까지 조사하였으며, 청년들의 성 건강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했다.

D.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훈련의 경우, 2022년에는 범주를 ①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② 창업 교육, ③ 어학, ④ 교육, ⑤ 기타, ⑥ 받고 싶지 않음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에는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범주는 ① 고용 상담 서비스, ②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③ 창업 교육, ④ 어학 교육, ⑤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⑥ 받고 싶지 않음으로 구성하였다. E. 노동 영역에서는 변화한 노동 환경을 반영하여 고용 예상 기간, 임금 및 상품 서비스 가격 결정 주체 등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으며, 추가 근무 경험, 추가수당 수급 여부에 대한 질문은 밤 근무, 저녁 근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각각에 대해 질문하던 것을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와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 횟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F.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다.

G. 사회 인식·미래 설계 영역에서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

고 ① 일자리 정책, ② 주거 정책, ③ 교육 정책, ④ 복지·문화 정책, ⑤ 참여·권리 정책으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연애 여부를 문항으로 포함했는데, 이는 연애와 결혼, 출산 의향에 대한 현재의 청년 세대의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H. 경제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비 영역에서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항목을 삭제했으며,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가구 응답은 총액만 받도록 했다.

〈표 2-2-1〉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A. 일반 사항

영역	2022년(28항목)	구분	2024년(27항목)	비고
A. 일반 사항	A1. 가구원 수	유지	A1. 가구원 수	수정 5 신규 2 삭제 3
	A2. 조사 대상과의 관계	유지	A2. 조사 대상과의 관계	
	A2-1.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	유지	A2-1.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	
	A3. 가구원 성별	유지	A3. 가구원 성별	
	A4. 가구원 연령(생년과 생월)	유지	A4. 가구원 연령	
	A5. 가구원 교육 수준(학력)	수정	A5. 본인 교육 수준(학력)	
	A5-2. 가구원 교육 수준(학력 상태)	수정	A5-1. 본인 교육 수준(재학 상태)	
	A6.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삭제		
	A7-1. (비동거) 부 교육 수준	수정	A6-1. 부 교육 수준(학력)	
	A7-2. (비동거) 모 교육 수준	수정	A6-2. 모 교육 수준(학력)	
	A8. 가족 유형 (한부모, 조손, 자립 준비 청년 가구 여부)	유지	A7. 가족 유형 (한부모, 자립 준비 청년 가구 여부)	
	A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경험	유지	A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경험	
	A9-1-1.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생계급여)	유지	A8-1-1.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생계급여)	
	A9-1-2.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의료급여)	유지	A8-1-2.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의료급여)	
	A9-1-3.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주거급여)	유지	A8-1-3.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주거급여)	
	A9-1-4.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교육급여)	유지	A8-1-4.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교육급여)	
	A10. 은둔/고립 가구원 유무	삭제		
	A10-1. 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과 주된 이유	삭제		
	A11. 가구원 돌봄 여부	수정	A9. 가구원 돌봄 참여 여부	
	A12.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유지	A9-1.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신규	A10. 가구원 돌봄 주 책임자 여부	
	A13. 장애 유무	유지	A11. 장애 유무	
	A14. 출생 국적	유지	A12. 출생 국적	
	A14-1. 현재 국적	유지	A12-1. 현재 국적	
	A14-1-1. 귀화 여부	유지	A12-1-1. 귀화 여부	
	A14-2. 부모 출생 국적	유지	A12-2. 부모 출생 국적	
	A14-2-1. 부모 현재 국적	유지	A12-2-1. 부모 현재 국적	
	A14-2-2. 부모님 귀화 여부	유지	A12-2-2. 부모님 귀화 여부	
A15. 혼인 상태	유지	A13. 혼인 상태		
	신규	A13-1. 배우자 교육 수준(학력)		

〈표 2-2-2〉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B. 주거

영역	2022년(32항목)	구분	2024년(30항목)	비고
B. 주거	B1. 부모 동거 여부	유지	B1. 부모 동거 여부	수정 2 신규 2
	B1-1. (부모 동거)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유지	B1-1. (부모 동거)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B1-1-1. (부모 동거·독립 계획 있음) 독립하려는 이유	유지	B1-1-1. (부모 동거·독립 계획 있음) 독립하려는 이유	
	B1-1-2. (부모 동거·독립 계획 없음) 독립 계획 없는 이유	유지	B1-1-2. (부모 동거·독립 계획 없음) 독립 계획 없는 이유	
	B1-2. (비동거) 비동거 이유	유지	B1-2. (비동거) 비동거 이유	
	B1-2-1. (비동거) 독립한 기간,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	유지	B1-2-1. (비동거) 독립한 기간,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	
	B1-2-2.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유지	B1-2-2.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B2. 기숙사, 향토학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유지	B2. 기숙사, 향토학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B3.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유지	B3.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B4. 현재 주거 점유 형태	유지	B4. 현재 주거 점유 형태	
	B4-1. (자가) 현재 거주 주택 시세	수정	B4-1. (자가) 현재 거주 주택 가격	
	B4-2. (비자가) 현재 거주 주택 시세 (보증금 및 월세)	수정	B4-2. (비자가) 현재 거주 주택 가격 (보증금 및 월세)	
	B5.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유지	B5.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B6.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유지	B6.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B7.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유지	B7.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B8. 현재 거주 주택 원룸형 여부	유지	B8. 현재 거주 주택 원룸형 여부	
	B9. 현재 거주 주택의 방 개수	유지	B9. 현재 거주 주택의 방 개수	
	B9-1.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유지	B9-1.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B10. 현재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 (집 전체, 본인 사용 방)	유지	B10. 현재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 (집 전체, 본인 사용 방)	
	B1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	유지	B1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	
	B12.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삭제		
	B1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삭제		
B14.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유지	B12.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B15.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유지	B1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B16.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	유지	B14.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		
B17.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처에 거주한 경험	유지	B15.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처에 거주한 경험		
B18.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유지	B16.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B8-1.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	유지	B16-1.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		
B19.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	유지	B17.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		
B20.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	유지	B18.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		
B21.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유지	B19.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B22.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 하고자 하는 이유	유지	B19-1.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사하고자 하는 이유		

〈표 2-2-3〉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C. 건강

영역	2022년(26항목)	구분	2024년(27항목)	비고
C. 건강	C1. 현재 흡연 여부	유지	C1. 현재 흡연 여부	수정 2 신규 3 삭제 2
	C1-1.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유지	C1-1.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C2.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유지	C2.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C2-1. 음주 정도	유지	C2-1. 음주 정도	
	C2-2. (남자) 과음 빈도	유지	C2-2. (남자) 과음 빈도	
	C2-3. (여자) 과음 빈도	유지	C2-3. (여자) 과음 빈도	
	C3. 운동 빈도	유지	C3. 운동 빈도	
	C3-1.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유지	C3-1.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C4. 최근 1년간 몸무게 조절 시도 여부	삭제		
	C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유지	C4. 외식 또는 매식 빈도	
	C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수정	C5. 최근 1달 동안 주로 함께 식사한 사람	
	C7. 일일 수면시간	삭제		
	C8.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유지	C6.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C9. 최근 1년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유지	C7. 최근 1년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C9-1. 최근 1년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유지	C7-1. 최근 1년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C10. 우울감 유병률	유지	C8. 우울감 유병률	
	C11.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유지	C9.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C12.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유지	C10.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2-1.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유지	C10-1.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C13.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사용 경험	수정	C11.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 사용 경험	
	C13-1. 약물 오·남용 경험	유지	C11-3. 약물 오·남용 경험	
	C14.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유지	C12.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C15.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았던 경험	유지	C13.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았던 경험	
	C15-1.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은 이유	유지	C13-1.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은 이유	
	C16.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유지	C14.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6-1.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유지	C14-1.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신규	C15.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여부		
	신규	C15-1. 피임하지 않은(못한) 이유		
	신규	C16. 피임 여부 결정 주체		

〈표 2-2-4〉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D. 교육·훈련

영역	2022년(13항목)	구분	2024년(13항목)	비고
D. 교육·훈련	D1. 졸업 고등학교 유형	유지	D1. 졸업 고등학교 유형	수정 2
	D2. 졸업 고등학교 소재지	유지	D2. 졸업 고등학교 소재지	
	D3.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유지	D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D3-1. 취업 준비와 관련한 도움이 취업에 도우며 되는 정도	유지	D3-2. 취업 준비와 관련한 도움이 취업에 도우며 되는 정도	
	D4. 한 달 평균 지출 자기계발비	유지	D4. 한 달 평균 지출 자기계발비	
	D6. (고졸 이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수정	D5.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D5. (고졸 이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유지	D6. (고졸 이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D7.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유지	D7.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D7-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전공 계열	수정	D7-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주 전공 계열	
	D7-2.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지역	유지	D7-2.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지역	
	D8.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유지	D8.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D9.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유지	D9.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D9-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유지	D9-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표 2-2-5〉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E. 노동\_1

영역	2022년(47항목)	구분	2024년(51항목)	비고
E. 노동	E1.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유지	E1.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수정 4 신규 4
	E1-1. 지난주 가족무급종사자 여부	유지	E1-1. 지난주 가족무급종사자 여부	
	E1-1-1. 지난주 일시 휴직자 여부	유지	E1-1-1. 지난주 일시 휴직자 여부	
	E1-1-2. 지난주 일시 휴직 이유	유지	E1-1-2. 지난주 일시 휴직 이유	
	E2. 복수 일자리 해당 여부	유지	E2. 복수 일자리 해당 여부	
	E2-1. (복수 일자리) 복수 일자리 수	유지	E2-1. (복수 일자리) 복수 일자리 수	
	E2-1-1. (복수 일자리) 지난 3개월간 일자리 경험	수정	E2-1-1. (복수 일자리) 근로시간, 임금, 직업	
	E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사업 소유 유무	수정	E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종사상지위	
		신규	E3-1.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 기간 유무	
	E3-1.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 기간	유지	E3-1-1.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 기간	
		신규	E3-1-2.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 예상 기간	
	E3-2. (지난주 일한 일자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수정	E3-2. (지난주 일한 일자리) 보수 형태	
	E3-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 산정 방식	수정	E3-3.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계약 형태	
	E3-4.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급여) 수령처	유지	E3-4.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급여) 수령처	
	E3-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인턴, 현장실습, 수습기간 해당 여부	유지	E3-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인턴, 현장실습, 수습기간 해당 여부	
	E4.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주휴 수당 수급 여부	유지	E4.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주휴 수당 수급 여부	
		신규	E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 및 상품 서비스 가격 결정 주체	
	E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산업 분야	유지	E6.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산업 분야	
	E6.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유지	E7.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E7.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근무 시작 시기	유지	E8.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주에 일한 일자의 근무 시작 시기	
	E8-1. (지난주 일한 일자리) 추가 근무 경험(일)	유지	E9-1. (지난주 일한 일자리) 추가 근무 경험(일)	
	E8-2. (지난주 일한 일자리) 추가수당 수급 여부	유지	E9-2. (지난주 일한 일자리) 추가수당 수급 여부	
	E9.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장시간 근로 경험	유지	E10.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장시간 근로 경험	
	E10.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	유지	E11.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	
E11.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 자율성 정도	유지	E12.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 자율성 정도		
E12.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인식	유지	E13. (지난주 일한 일자리)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인식		

〈표 2-2-6〉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E. 노동\_2

영역	2022년(47항목)	구분	2024년(51항목)	비고
E. 노동	E13.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주 36시간 이상 근로 경험	유지	E14.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주 36시간 이상 근로 경험	
	E13-1.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주 추가 근로 희망 여부	유지	E14-1.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주 추가 근로 희망 여부	
	E13-2.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주 추가 근로 가능 여부	유지	E14-2.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주 추가 근로 가능 여부	
	E13-3.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4주간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유지	E14-3. (현재 모든 일자리) 지난 4주간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E14. (미취업자) 지난 4주 내에 구직 경험	유지	E15. (미취업자) 지난 4주 내에 구직 경험	
	E14-1. (미취업자) 지난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유지	E15.1. (미취업자) 지난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4-2.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유지	E15-2.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E15.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구직 희망 여부	유지	E16.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구직 희망 여부	
	E15-1.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유지	E16-1.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5-2.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하지 않은 이유	유지	E16-2.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하지 않은 이유	
	E16.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유지	E17.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E1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지	E18.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E18. 취업 경험	유지	E19. 취업 경험	
	E18-1.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유지	E19-1.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E18-2.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유지	E19-2.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E18-3.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유지	E19-3.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E18-4. 실업급여 수급 여부	유지	E19-4. 실업급여 수급 여부	
	E18-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유지	E19-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SQ1.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 경험	유지	SQ1.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 경험	
	E19.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유지	E20.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E20.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유지	E21.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E21.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유지	E22.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E2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유지	E2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E22-1.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유지	E23-1.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b>신규</b>	SE1. 부모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표 2-2-7〉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F. 관계 및 참여

영역	2022년(12항목)	구분	2024년(12항목)	비고
F. 관계 및 참여	F1-1.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유지	F1-1.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F1-2.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유지	F1-2.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F2.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유지	F2.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F3. 정치, 사회 참여 경험	유지	F3. 정치, 사회 참여 경험	
	F4. 정치적 효능감	유지	F4. 정치적 효능감	
	F5-1. 활동 경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생각	유지	F5-1. 활동 경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생각	
	F5-2. (지난 1년간) 활동 경험 여부	유지	F5-2. (지난 1년간) 활동 경험 여부	
	F5-3. 활동 경험을 못한 이유	유지	F5-3. 활동 경험을 못한 이유	
	F6.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유지	F6.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F7. 외출 빈도	유지	F7. 외출 빈도	
	F8.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유지	F8.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F9.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유지	F9.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표 2-2-8〉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G. 사회 인식·미래 설계

영역	2022년(19항목)	구분	2024년(21항목)	비고
G. 사회 인식 · 미래 설계	G1. 삶의 만족도	유지	G1. 삶의 만족도	신규 2
	G2. 삶의 행복감 정도	유지	G2. 삶의 행복감 정도	
	G3.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유지	G3.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G4.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유지	G4.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G5. 갈등 인식	유지	G5. 갈등 인식	
	G6.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	유지	G6.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	
	G7. 본인의 소득계층 인식	유지	G7. 본인의 소득계층 인식	
	G8.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	유지	G8.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	
	G9. 부의 대물림 인식	유지	G9. 부의 대물림 인식	
	G10.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유지	G10.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G11.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	유지	G11.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	
	G12. 정치적 성향	유지	G12. 정치적 성향	
	G13. 공정성 인식	유지	G13. 공정성 인식	
	G14.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유지	G14.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G15.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유지	G15.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G1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유지	G1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G17.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유지	G17.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신규	G18. 필요한 정책 지원	
		신규	G19. 현재 연애 여부	
G18. 향후 결혼 계획	유지	G20. 향후 결혼 계획		
G19.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유지	G21. 향후 자녀 출산 의향		

〈표 2-2-9〉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H. 경제

영역	2022년(29항목)	구분	2024년(26항목)	비고
H. 경제	H1-1. 총생활비	유지	H1-1. 총생활비	수정 1 신규 1 삭제 4
	H1-2. 식료품비	유지	H1-2. 식료품비	
	H1-3-1. 월세	유지	H1-3-1. 월세	
	H1-3-2. 주거관리비	유지	H1-3-2. 주거관리비	
	H1-4. 교육비	유지	H1-4. 교육비	
	H1-5. 통신비	유지	H1-5. 통신비	
	H1-6. 교통비	유지	H1-5. 교통비	
	H1-7. 오락 문화비	유지	H1-7. 오락 문화비	
	H1-8. 세금	삭제		
	H1-9.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삭제		
	H1-10. 가구 간 이전지출	삭제		
	H1-11.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삭제		
	H2-1. 근로 및 사업 소득	유지	H2-1. 근로 및 사업 소득	
	H2-2. 재산소득	유지	H2-2. 재산소득	
	H2-3. 사적 이전소득	유지	H2-3. 사적 이전소득	
	H2-4. 공적 이전소득	유지	H2-4. 공적 이전소득	
	H2-5. 총소득	유지	H2-5. 총소득	
	H2-4-1.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유형별 금액	수정	H3. 2023년 1년간 공적 급여 지급 여부	
	H3-1. 부채총액	유지	H4-1. 부채총액	
	H3-2. 학자금 부채	유지	H4-2. 학자금 부채	
	H3-3.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유지	H4-3.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H3-4. 주택 관련 부채	유지	H4-4. 주택 관련 부채	
	H3-5. 생활비 부채	유지	H4-5. 생활비 부채	
	H3-6. (월평균)이자	유지	H4-6. (월평균)이자	
	H3-1-1. 금융 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여부	유지	H5. 금융 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여부	
		신규	H6-1. 재산총액(가구 기준, 개인 기준)	
	H4-1. 금융재산	유지	H6-2. 금융재산	
	H4-2. 주식	유지	H6-3. 주식	
	H4-3. 가상자산	유지	H6-4. 가상자산	
	H4-4.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유지	H6-5. 기타 부동산 및 재산	

### 제3절 표본 설계

#### 1. 모집단

이 조사에서 개념상 규정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19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내국인)<sup>1)</sup>이다.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조사구 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내국인)이다.

다음 첫 번째 표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집단 현황이다. 모집단에서 전체 일반 가구는 21,773,507호<sup>2)</sup>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전체 일반 가구의 24.8%와 18.8%를 차지한다. 전체 조사 대상(19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 9,916,011명 중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26.8%, 21.8%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표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19세부터 34세 이하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이다. 2024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는 2022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했다.

〈표 2-3-1〉 모집단 현황(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시도	가구 수	%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내국인)	%
전국	21,773,507	100.0%	9,916,011	100.0%
서울	4,098,818	18.8%	2,157,032	21.8%
부산	1,447,825	6.6%	615,208	6.2%
대구	1,010,834	4.6%	452,163	4.6%
인천	1,212,731	5.6%	584,506	5.9%
광주	623,252	2.9%	306,211	3.1%
대전	646,474	3.0%	332,146	3.3%
울산	453,998	2.1%	198,287	2.0%

1) 본 조사에서 가구원은 내국인 가구원을 의미함.

2)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가구 형태가 '일반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 형태가 '집단 가구(비혈연)', '집단 시설가구', '외국인 가구' 등인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시도	가구 수	%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내국인)	%
세종	154,019	0.7%	72,485	0.7%
경기	5,406,963	24.8%	2,660,378	26.8%
강원	684,895	3.1%	263,979	2.7%
충북	704,864	3.2%	296,444	3.0%
충남	931,370	4.3%	379,761	3.8%
전북	777,680	3.6%	300,871	3.0%
전남	784,645	3.6%	257,026	2.6%
경북	1,166,306	5.4%	411,967	4.2%
경남	1,392,608	6.4%	514,375	5.2%
제주	276,225	1.3%	113,172	1.1%

자료: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표 2-3-2〉 19~34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구 분	19~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3,352,247	3,384,426	3,179,338	9,916,011
서울	650,551	785,912	720,569	2,157,032
부산	214,563	208,529	192,116	615,208
대구	163,646	151,670	136,847	452,163
인천	184,996	203,164	196,346	584,506
광주	117,344	102,787	86,080	306,211
대전	128,018	110,202	93,926	332,146
울산	63,302	68,565	66,420	198,287
세종	25,143	20,732	26,610	72,485
경기	860,550	908,543	891,285	2,660,378
강원	102,570	84,742	76,667	263,979
충북	106,913	99,612	89,919	296,444
충남	144,523	117,652	117,586	379,761
전북	121,768	96,505	82,598	300,871
전남	93,179	87,050	76,797	257,026
경북	156,602	130,916	124,449	411,967
경남	180,479	168,933	164,963	514,375
제주	38,100	38,912	36,160	113,172

자료: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 2. 층화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1차 추출 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19~34세 가구원이다. 표본 설계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 및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이후 각 지역층의 동부 및 읍·면부 내에서는 조사구 특성(일반, 아파트)에 따라 층화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5개 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 도심권)과 2개 권역(경기 북부, 경기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다음 표에서는 표본 설계의 층화 방법과 각 층별 조사구 수를 정리했다.

〈표 2-3-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표 2-3-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남부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시흥시, 여주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표 2-3-5〉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총수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서울, 6대 광역시, 세종	서울(5), 광역시(6), 세종	아파트, 일반조사구	24
	도 지역	경기(남/북), 8개 도(동)	아파트, 일반조사구	20
		경기(남/북), 8개 도(읍면)	아파트, 일반조사구	20

〈표 2-3-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국	141,307	180,843	49,594	23,822	395,566
서울	41,670	31,607	0	0	73,277
동남권	6,920	7,987	0	0	14,907
동북권	12,297	9,633	0	0	21,930
서남권	14,325	9,008	0	0	23,333
서북권	5,446	3,506	0	0	8,952
도심권	2,682	1,473	0	0	4,155
부산	11,235	15,782	0	0	27,017
대구	7,125	10,378	0	0	17,503
인천	9,554	12,031	0	0	21,585
광주	3,626	7,276	0	0	10,902
대전	4,905	6,184	0	0	11,089
울산	3,206	5,192	0	0	8,398
세종	630	2,120	0	0	2,750
경기	31,772	48,611	9,585	6,515	96,483
북부	5,771	10,471	3,103	1,242	20,587
남부	26,001	38,140	6,482	5,273	75,896
강원	2,834	4,557	4,043	1,658	13,092
충북	2,762	4,385	3,725	2,119	12,991
충남	2,886	4,763	6,301	3,440	17,390
전북	3,744	6,136	3,823	799	14,502
전남	2,124	4,027	6,521	2,216	14,888
경북	4,737	6,290	8,002	3,180	22,209
경남	6,070	10,012	6,162	3,755	25,999
제주	2,427	1,492	1,432	140	5,491

자료: 통계청. (202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

### 3. 표본 크기 및 표본 배분

표본의 크기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 표본오차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 크기는 15,000가구로, 19~34세 청년층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 내 19~3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 가구 내 19~34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빠른 생일자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가구 중 19~34세 청년층이 거주하는 비율은 약 35.5%<sup>3)</sup>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약 42,25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할 때 15,000가구의 목표 표본 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 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19~34세 청년층이 있는 5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5가구를 조사하도록 한 것은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본 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 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3,000개이다. 각 시도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시도별 조사 대상자 수의 제곱비례배분법을 적용했다. 각 시도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면 전국 추정은 유리하나 일부 시·도의 경우(세종시, 제주도) 표본이 적게 배분되므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별 통계 산출의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다음 표는 각 시도별 표본 배분 현황과 95% 신뢰수준의 예상 최대 허용오차 한계이다.<sup>4)</sup>

〈표 2-3-7〉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시도	모집단 현황(인구총조사 결과)		표본 현황	
	19~34세 개인	%	표본 조사구 수	오차의 한계(예상)
전국	9,916,011	100.0%	3,000	±1.2%포인트
서울	2,157,032	21.8%	380	±3.3%포인트
부산	615,208	6.2%	203	±4.5%포인트
대구	452,163	4.6%	174	±4.9%포인트
인천	584,506	5.9%	198	±4.6%포인트
광주	306,211	3.1%	143	±5.3%포인트
대전	332,146	3.3%	149	±5.2%포인트
울산	198,287	2.0%	115	±6.0%포인트
세종	72,485	0.7%	70	±7.7%포인트
경기	2,660,378	26.8%	422	±3.1%포인트
강원	263,979	2.7%	133	±5.6%포인트
충북	296,444	3.0%	141	±5.4%포인트
충남	379,761	3.8%	160	±5.1%포인트
전북	300,871	3.0%	142	±5.4%포인트
전남	257,026	2.6%	131	±5.6%포인트
경북	411,967	4.2%	166	±5.0%포인트
경남	514,375	5.2%	186	±4.7%포인트
제주	113,172	1.1%	87	±6.9%포인트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p.93, 〈표 2-3-1〉의 내용을 기초로 재산출함.

4) 통계청 「사회조사」의 설계 효과 값은 1.76~2.06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를 적용한 본 표본 설계에서는 설계 효과 2.06을 적용한 결과임.

각 시도 내 동부와 읍면부의 표본 배분은 조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고, 각 시도 및 동/읍면부 내 조사구 특성별(일반, 아파트) 표본 배분은 조사구 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다음 두 개의 표는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과 이 조사의 목표 표본 수인 15,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추출 표본 가구 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국	1,031	1,387	400	182	3,000
서울	217	163	0	0	380
동남권	36	41	0	0	77
동북권	64	50	0	0	114
서남권	74	47	0	0	121
서북권	29	18	0	0	47
도심권	14	7	0	0	21
부산	84	119	0	0	203
대구	71	103	0	0	174
인천	88	110	0	0	198
광주	48	95	0	0	143
대전	66	83	0	0	149
울산	44	71	0	0	115
세종	16	54	0	0	70
경기	139	213	42	28	422
북부	25	46	14	5	90
남부	114	167	28	23	332
강원	29	46	41	17	133
충북	30	48	40	23	141
충남	27	44	57	32	160
전북	37	60	37	8	142
전남	19	35	57	20	131
경북	35	47	60	24	166
경남	43	72	44	27	186
제주	38	24	22	3	87

〈표 2-3-9〉 세부 층별 표본추출 가구 수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전국	14,540	19,540	5,630	2,550	42,250
서울	3,060	2,290	0	0	5,340
동남권	510	580	0	0	1,080
동북권	900	700	0	0	1,600
서남권	1,040	660	0	0	1,700
서북권	410	250	0	0	660
도심권	200	100	0	0	300
부산	1,180	1,680	0	0	2,860
대구	1,000	1,450	0	0	2,450
인천	1,240	1,550	0	0	2,790
광주	680	1,340	0	0	2,020
대전	930	1,170	0	0	2,100
울산	620	1,000	0	0	1,620
세종	230	760	0	0	990
경기	1,960	3,000	590	390	5,940
북부	350	650	200	70	1,270
남부	1,610	2,350	390	320	4,670
강원	410	650	580	240	1,880
충북	420	680	560	320	1,980
충남	380	620	800	450	2,250
전북	520	850	520	110	2,000
전남	270	490	800	280	1,840
경북	490	660	850	340	2,340
경남	610	1,010	620	380	2,620
제주	540	340	310	40	1,230

####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의 표본 설계에서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적용하며, 1차 추출 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 및 19~34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한다. 표본 가구 내 적격 조사 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빠른 생일자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층 내 표본 조사구 추출에 대한 분류지표(내재적 층화변수)는

19~34세 인구 비율이며, 1인 가구 비율을 고려한다. 본 표본 설계에서는 19~34세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을 분류지표로 사용함으로써 표본의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했다. 19~34세 인구 비율(1차 기준)과 1인 가구 비율(2차 기준)의 각 분류지표에 대해서는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를 활용할 때 조사구 전체가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인 경우에는 예비표본에서 대체하도록 한다.

## 제4절 가중치 및 모수 추정

### 1.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이 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지역, 조사구별 추출률과 무응답률의 차이를 반영한 후, 모집단 정보에 대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얻어졌다. 가중치 조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23년 기준의 「인구총조사」 결과로 예상된다. 각 표본 조사구의 추출확률은 표본 조사구의 크기 척도(measure of size)인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_{1hi} = n_h \times \frac{S_{hi}}{S_h} \times \frac{m_{hi}}{M_{hi}}$$

$p_{1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추출확률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척도(조사구 내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 \text{층 } h \text{의 모집단 총 가구 수(크기의 측도 총합)}$$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실제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 가구 수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틀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m_{hi}}$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별로 진행되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여기서,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응답 가구 수

이 조사에서 선정된 표본 가구에서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표본 가구 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text{가구 내 추출률} = \frac{1}{\text{표본 가구의 19} \sim \text{34세 전체 청년 수}}$$

벤치마킹 조정에서 이용하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23년 기준의 「인구총조사」 결과이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므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별(17)×연령대(3)×성별(2)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했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했다.

최종 가중치= 가구 가중치×무응답 조정×(1/가구 내 추출률)×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2-3-10〉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인구총조사, 2023년도)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1,664,873	1,741,244	1,725,797	5,131,914
서울	292,721	371,655	374,283	1,038,659
부산	104,974	103,581	102,257	310,812
대구	81,413	77,532	76,636	235,581
인천	90,612	102,727	108,633	301,972
광주	55,676	52,609	46,322	154,607
대전	64,218	58,935	52,047	175,200
울산	33,938	37,906	37,376	109,220
세종	13,032	10,334	12,983	36,349
경기	426,105	473,364	487,347	1,386,816
강원	54,610	47,469	42,920	144,999
충북	59,176	55,531	52,832	167,539
충남	73,683	66,181	66,357	206,221
전북	63,458	52,202	44,874	160,534
전남	51,293	48,147	42,701	142,141
경북	84,658	72,992	69,298	226,948
경남	95,914	90,450	89,622	275,986
제주	19,392	19,629	19,309	58,330

〈표 2-3-11〉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인구총조사, 2023년도)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전국	1,514,502	1,569,087	1,548,198	4,631,787
서울	335,078	403,607	368,924	1,107,609
부산	98,478	96,674	94,176	289,328
대구	72,019	69,182	65,603	206,804
인천	83,217	94,609	98,034	275,860
광주	53,074	47,794	42,301	143,169
대전	58,018	49,946	44,838	152,802
울산	24,091	28,257	30,111	82,459
세종	11,567	9,766	13,452	34,785
경기	389,059	416,893	433,209	1,239,161
강원	42,952	35,854	35,722	114,528
충북	48,572	42,820	41,026	132,418
충남	64,787	49,863	53,744	168,394
전북	51,138	43,056	39,596	133,790
전남	35,554	38,111	37,252	110,917
경북	61,510	53,319	55,484	170,313
경남	69,428	71,606	76,396	217,430
제주	15,960	17,730	18,330	52,020

## 2. 모수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  $h$ : 층 번호,  $i$ : 조사구 번호,  $j$ : 가구 번호

○  $w_{hij}$ : 표본 가중치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해서 산출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text{○ } \bar{y} = \frac{\left(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w_{\dots}} : \text{모평균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

-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 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text{○ } \hat{p} = \frac{\left(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w_{\dots}} : \text{모비율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

-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④ 추정량의 분산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 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추출 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가구 수이다.

$$f_h = n_h/N_h,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 임.}$$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s.e(\bar{y}) = \sqrt{var(\bar{y})}$ ,
- 상대표준오차: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var(\bar{y})}$

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은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KOSIS에 제시하는 통계표가 RSE가 3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별도 표시하였으며, 반드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2-3-12〉 통계청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25%		25%≤RSE<50%	50%≤RSE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자료: 법제처. (n.d.).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장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

제1절 청년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제7절 청년의 사회 인식·미래 설계 실태

제8절 청년의 경제 실태



## 제3장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

### 제1절 청년의 일반적 특성

#### 1. 청년 가구의 정의와 가구 형태의 구분

청년의 삶은 청년의 연령 범위뿐 아니라 청년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가구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취업, 가족 형성, 교육 상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가구의 정의와 형태는 어떠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가구를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로 정의한다. 또한 가구는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한다.

가구 형태는 우선 청년이 가구주인 1. '청년 가구주 가구'와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2.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청년 가구주 가구는 1-1. 1인 가구, 1-2. 청년 부부 가구, 1-3. 청년+자녀 가구, 1-4. 부모 동거 가구, 1-5.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고, 2.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2-1.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2-2.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2-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했다.

〈표 3-1-1〉 가구 형태 구분

구분		내용
청년 가구		-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
가구 형태	1. 청년 가구주 가구	1-1. 1인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19~34세 청년 1인 가구
		1-2. 청년 부부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부부 모두가 19~34세 청년인 2인 가구
		1-3. 청년+자녀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19~34세 청년 부부와 그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그 외 다른 가구원 없음) 또는 19~34세 청년 한 부모와 그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그 외 다른 가구원 없음) - 가구원 수 최소 2인
		1-4. 부모 동거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청년 또는 청년 배우자의 부모(한부모)와 그 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1-5.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 - 청년 독거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청년+자녀 가구, 부모 동거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2. 비청년 가구주 가구	2-1.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 대상 청년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 대상 청년이 미혼 & 기타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2. 부모(가구주)+기혼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 대상 청년의 부모 또는 조사 대상 청년 배우자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 대상 청년이 기혼 & 기타 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 대상 청년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 대상 청년이 이혼 또는 별거 또는 사별 & 조사 대상 청년 부모가 가구주 & 기타 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비청년 가구주 가구) -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 중, 2-1, 2-2, 2-3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 2. 분석 결과

다음 표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봤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33.9%로 가장 많았고, 30~34세 33.5%, 19~24세가 32.6%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19~24세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 34.1%, 30~34세 30.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년 비율이 54.8%로 비수도권 청년 45.2%에 비해 9.6%포인트가 높아 2022년의 수도권(53.0%)과 비수도권(47.0%)과의 차이인 6%포인트보다 컸

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22.0%, 경기도가 26.9%를 차지하여 2020년의 서울(20.4%)과 경기(26.7%)의 비율보다 모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61.7%였으며, 대학 재학·휴학 청년이 20.9%, 고졸 이하 청년이 17.4%로 2022년과 비교하여 고졸 이하 청년이 2.8%포인트 더 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청년 가구주 가구 중에서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51.2%,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48.7%였다. 참고로 2022년에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42.9%,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57.0%였다.

〈표 3-1-2〉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2024년	2022년
		비율	비율
성별	남성	52.6	52.5
	여성	47.4	47.5
	<b>소계</b>	<b>100.0</b>	<b>100.0</b>
연령	19~24세	32.6	35.3
	25~29세	33.9	34.1
	30~34세	33.5	30.6
	<b>소계</b>	<b>100.0</b>	<b>100.0</b>
지역 1	수도권	54.8	53.0
	비수도권	45.2	47.0
	<b>소계</b>	<b>100.0</b>	<b>100.0</b>
지역 2	서울	22.0	20.4
	부산	6.2	6.4
	대구	4.5	4.7
	인천	5.9	5.9
	광주	3.1	3.3
	대전	3.4	3.8
	울산	2.0	1.9
	세종	0.7	0.7
	경기	26.9	26.7
	강원	2.7	2.8
	충북	3.1	3.2
	충남	3.8	3.9
	전북	3.0	3.3
	전남	2.6	2.5
	경북	4.1	4.2
	경남	5.1	5.3
	제주	1.1	1.2
<b>소계</b>	<b>100.0</b>	<b>100.0</b>	

구분		2024년	2022년	
		비율	비율	
학력	고졸 이하	17.4	14.6	
	대학 재학·휴학	20.9	24.0	
	대학 졸업 이상	61.7	61.4	
	<b>소계</b>	<b>100.0</b>	<b>100.0</b>	
가구 형태	청년 가구주 가구	1인 가구	23.8	22.6
		청년 부부 가구	8.5	7.2
		청년·자녀 가구	6.5	6.0
		부모 동거 가구	8.3	3.6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4.1	3.5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45.7	53.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0.3	0.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2.7	3.3
		<b>소계</b>	<b>100.0</b>	<b>100.0</b>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 81.0%, 배우자 있음 18.3%, 이혼·별거·사별 0.7%로 나타났다. 2024년 분석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의 1.1%가 배우자 있음, 25~29세의 12.1%가 배우자 있음, 30~34세의 41.2%가 배우자가 있음으로 응답하여 혼인이 늦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남편의 초혼 연령은 29.3세, 아내는 26.5세였으며, 2023년 남편은 34.0세, 아내는 31.5세이다.

참고로, 2022년 대비,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은 0.8%포인트 증가했고, 미혼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했으며, 2022년 배우자 있음의 비율은 19~24세 9.8%, 25~29세 11.9%, 30~34세 43.1%였다.

〈표 3-1-3〉 혼인 상태

(단위: %)

구분	비율	배우자 있음	미혼	이혼·별거·사별	
2022 전체	100.0	17.5	81.8	0.7	
<b>2024 전체</b>	<b>100.0</b>	<b>18.3</b>	<b>81.0</b>	<b>0.7</b>	
성별	남성	100.0	15.7	83.8	0.5
	여성	100.0	21.1	77.9	1.0
연령	19~24세	100.0	1.1	98.7	0.3
	25~29세	100.0	12.1	87.2	0.7
	30~34세	100.0	41.2	57.7	1.2
지역	수도권	100.0	17.5	82.0	0.6
	비수도권	100.0	19.2	79.9	0.9
학력	고졸 이하	100.0	22.1	75.8	2.1
	대학 재학·휴학	100.0	0.8	99.0	0.2
	대학 졸업 이상	100.0	23.0	76.4	0.5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구원 수의 비율은 3인(26.5%), 4인(25.6%), 1인(23.8%), 2인(18.2%), 5인 이상(5.8%)의 순이며,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에 속하는 청년 비율이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에는 3인(28.8%), 4인(25.5%), 1인(22.6%), 2인(17.5%), 5인 이상(5.6%)의 순이었다.

〈표 3-1-4〉 가구원 수

(단위: %)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22 전체	100.0	22.6	17.5	28.8	25.5	5.6	
<b>2024 전체</b>	<b>100.0</b>	<b>23.8</b>	<b>18.2</b>	<b>26.5</b>	<b>25.6</b>	<b>5.8</b>	
성별	남성	100.0	26.0	17.8	26.1	25.0	5.1
	여성	100.0	21.4	18.6	27.0	26.3	6.7
연령	19~24세	100.0	17.5	8.6	25.8	37.2	10.9
	25~29세	100.0	27.2	18.1	24.8	25.3	4.7
	30~34세	100.0	26.5	27.6	29.0	14.7	2.2
지역 1	수도권	100.0	23.5	18.3	25.9	26.8	5.4
	비수도권	100.0	24.2	18.0	27.3	24.2	6.3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학력	고졸 이하	100.0	26.9	23.0	25.3	18.7	6.1
	대학 재학·휴학	100.0	15.9	7.3	26.6	39.8	10.4
	대학 졸업 이상	100.0	25.6	20.5	26.9	22.8	4.2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구 형태별로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은 51.2%로 2022년 42.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 가구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청년(1.2%포인트 ↑), 청년 부부 가구의 청년(1.3%포인트 ↑), 청년과 그 자녀로 이뤄진 가구의 청년(0.5%포인트 ↑),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청년 비율(4.7%포인트 ↑)이 2년 전보다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72.0%가 부모가 가구주인 가구에 속하고, 고졸 이하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30~40%대에 머물렀다. 좀 더 살펴보면, 고졸 이하 청년 중 60.4%가 청년 가구주 가구,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56.8%, 대학 재학·휴학은 27.3%만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독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5> 가구 형태별 청년

(단위: %)

구분	비율	청년 가구주 가구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1인	청년 부부*	청년 +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소계	부모 (가구주) + 미혼 청년	부모 (가구주) +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기타	소계	
2022 전체	100.0	22.6	7.2	6.0	3.6	3.5	42.9	53.3	0.4	3.3	57.0	
<b>2024 전체</b>	<b>100.0</b>	<b>23.8</b>	<b>8.5</b>	<b>6.5</b>	<b>8.3</b>	<b>4.1</b>	<b>51.2</b>	<b>45.7</b>	<b>0.3</b>	<b>2.7</b>	<b>48.7</b>	
성별	남성	100.0	26.0	9.2	5.2	9.0	3.9	53.3	46.1	0.3*	0.4	46.8
	여성	100.0	21.4	7.8	8.0	7.5	4.4	49.1	45.4	0.4	5.1	50.9

구분	비율	청년 가구주 가구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1인	청년 부부*	청년 +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소계	부모 (가구주) + 미혼 청년	부모 (가구주) + 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기타	소계	
연령	19~24세	100.0	17.5	0.6	0.4	8.2	2.8	29.5	69.6	0.2	0.8	70.6
	25~29세	100.0	27.2	7.5	3.4	9.0	5.1	52.2	46.4	0.5	0.9	47.8
	30~34세	100.0	26.5	17.2	15.7	7.7	4.4	71.5	21.9	0.3	6.3	28.5
지역	수도권	100.0	23.5	8.7	5.9	9.1	4.0	51.2	46.1	0.2*	2.4	48.7
	비수도권	100.0	24.2	8.3	7.3	7.3	4.3	51.4	45.3	0.4	2.9	48.6
학력	고졸 이하	100.0	26.9	10.2	8.0	9.5	5.8	60.4	35.8	1.1	2.8	39.7
	대학 재학·휴학	100.0	15.9	0.4*	0.4*	8.5	2.1	27.3	72.0	0.0*	0.6	72.6
	대학 졸업 이상	100.0	25.6	10.8	8.2	7.9	4.3	56.8	39.7	0.2	3.3	43.2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한부모 가구와 자립 준비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부모 가구는 부모 중 어느 한쪽과 18세 미만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① 청년 본인이 부모인 경우와 ② 청년 본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3.6%, 2022년 1.5%)와 자립준비 청년 가구(0.7%, 2022년 0.2%)에 해당하는 청년은 2022년 비해 각각 2.1%포인트, 0.5%포인트가 증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6.1%가 한부모 가구, 1.1%가 자립 준비 청년인 점에 주목하여 한부모 가구, 자립 준비 청년의 교육, 고용에 있어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교육 등에 있어 사전적 노력이 이뤄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2024년 관계부처합동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25~34세 이하, 월 5~10만 원 지급) 및 지원 기준 상향(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과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 수당 인상(2023년 40만 원 → 2024년 50만 원) 및 지급 대상을 확대를 발표한 바 있음을 첨언해 둔다.

〈표 3-1-6〉 한부모 가구, 자립 준비 청년

(단위: %)

구분		한부모 가구	자립 준비 청년
2022 전체		1.5	0.2
<b>2024 전체</b>		<b>3.6</b>	<b>0.7</b>
성별	남성	3.7	0.9
	여성	3.6	0.5
연령	19~24세	5.5	0.5
	25~29세	3.2	0.9
	30~34세	2.2	0.7
지역	수도권	3.7	0.6
	비수도권	3.6	0.9
학력	고졸 이하	6.1	1.1
	대학 재학·휴학	5.3	0.4
	대학 졸업 이상	2.4	0.7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여부와 수급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경험 중인 청년은 1.6%였으며, 과거에는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는다는 청년은 3.3%였다. 한편, 2022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 중이라 응답한 경우는 0.9%,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참고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보건복지부, 2024. 7. 25.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이다.

〈표 3-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수급 중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음	수급 경험 없음	
2022 전체	100.0	0.9	1.9	97.2	
<b>2024 전체</b>	<b>100.0</b>	<b>1.6</b>	<b>3.3</b>	<b>95.2</b>	
성별	남성	100.0	1.7	3.4	95.0
	여성	100.0	1.5	3.2	95.3
연령	19~24세	100.0	2.1	3.4	94.5
	25~29세	100.0	1.6	3.8	94.6
	30~34세	100.0	1.0	2.6	96.4
지역	수도권	100.0	1.4	3.1	95.5
	비수도권	100.0	1.8	3.5	94.7
학력	고졸 이하	100.0	3.3	6.5	90.2
	대학 재학·휴학	100.0	2.2	2.4	95.4
	대학 졸업 이상	100.0	0.9	2.7	96.5

2024년 표본 수(n)=15,098, 2022년 표본 수(n)=14,96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가족 돌봄 청년 식별 문항과 돌봄 필요 가구원 식별 문항은 돌봄 책임자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 참여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했으며, 돌봄 필요 가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분석 결과, 돌봄에 참여하거나 주 돌봄자인 청년은 1.5%였으며, 가족 돌봄 청년 중 40.2%가 주 돌봄자였다. 주 돌봄자만을 계산할 경우에는, 전체 청년 중 0.6%로 2022년 주 돌봄 청년 비율인 0.6%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일치한다.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해서는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 다르다.

〈표 3-1-8〉 돌봄 가구원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그렇다	아니다
2024 전체		100.0	1.5	98.5
성별	남성	100.0	1.5	98.5
	여성	100.0	1.4	98.6
연령	19~24세	100.0	1.1	98.9
	25~29세	100.0	1.5	98.5
	30~34세	100.0	1.8	98.2
지역	수도권	100.0	1.3	98.7
	비수도권	100.0	1.7	98.3
학력	고졸 이하	100.0	2.3	97.7
	대학 재학·휴학	100.0	1.0	99.0
	대학 졸업 이상	100.0	1.4	98.6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1-9〉 주 돌봄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그렇다	아니다
2024 전체		100.0	40.2	59.8
성별	남성	100.0	35.8	64.2
	여성	100.0	45.5	54.5
연령	19~24세	100.0	21.7	78.3
	25~29세	100.0	41.0	59.0
	30~34세	100.0	50.1	49.9
지역	수도권	100.0	36.9	63.1
	비수도권	100.0	43.1	56.9
학력	고졸 이하	100.0	57.1	42.9
	대학 재학·휴학	100.0	25.4*	74.6
	대학 졸업 이상	100.0	35.8	64.2

n=210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 1. 분석 결과

#### 가. 부모와의 동거 현황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는 주거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2022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부모와의 동거와 관련된 현황을 주거 실태 영역에서 다룬다.

가장 먼저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4.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2년의 57.5%에 비해 3.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55.4%, 여성 53.4%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다소 높았으며, 광역자치체별로는 35.7%~58.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학력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47.1%, 대학 재학·휴학 80.5%, 대학 졸업 이상 47.7%로 나타나 학업 과정에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동거 여부	
			예	아니요
전체		100.0	54.4	45.6
성별	남자	100.0	55.4	44.6
	여자	100.0	53.4	46.6
연령	19~24세	100.0	78.1	21.9
	25~29세	100.0	56.0	44.0
	30~34세	100.0	29.9	70.1
지역 1	수도권	100.0	55.7	44.3
	비수도권	100.0	52.9	47.1

구분	비율	부모 동거 여부		
		예	아니요	
지역 2	서울	100.0	54.6	45.4
	부산	100.0	57.7	42.3
	대구	100.0	57.0	43.0
	인천	100.0	52.3	47.7
	광주	100.0	55.0	45.0
	대전	100.0	50.2	49.8
	울산	100.0	43.2	56.8
	세종	100.0	35.7	64.3
	경기	100.0	57.4	42.6
	강원	100.0	49.0	51.0
	충북	100.0	45.4	54.6
	충남	100.0	48.0	52.0
	전북	100.0	56.0	44.0
	전남	100.0	57.0	43.0
	경북	100.0	48.3	51.7
	경남	100.0	58.7	41.3
	제주	100.0	58.8	41.2
학력	고졸 이하	100.0	47.1	52.9
	대학 재학·휴학	100.0	80.5	19.5
	대학 졸업 이상	100.0	47.7	52.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유무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38.0%로, 2022년도 조사의 32.3%에 비해 5.7%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성 40.5%, 여성 35.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에 따라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5%로 비수도권의 41.1%에 비해 다소 낮았다. 광역자치체별로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의 분포는 28.4%(서울)~59.1%(제주)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37.2%, 대학 재학 및 휴학 30.1%, 대학 졸업 이상 42.7%로 대학 학업 과정에 있는 경우 독립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2-2〉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있다	없다
전체		100.0	38.0	62.0
성별	남자	100.0	40.5	59.5
	여자	100.0	35.1	64.9
연령	19~24세	100.0	32.0	68.0
	25~29세	100.0	42.7	57.3
	30~34세	100.0	44.2	55.8
지역 1	수도권	100.0	35.5	64.5
	비수도권	100.0	41.1	58.9
지역 2	서울	100.0	28.4	71.6
	부산	100.0	41.7	58.3
	대구	100.0	34.6	65.4
	인천	100.0	52.0	48.0
	광주	100.0	22.6	77.4
	대전	100.0	38.4	61.6
	울산	100.0	35.3	64.7
	세종	100.0	53.2	46.8
	경기	100.0	37.8	62.2
	강원	100.0	43.3	56.7
	충북	100.0	49.9	50.1
	충남	100.0	30.0	70.0
	전북	100.0	40.9	59.1
	전남	100.0	37.7	62.3
	경북	100.0	50.0	50.0
	경남	100.0	52.3	47.7
	제주	100.0	59.1	40.9
학력	고졸 이하	100.0	37.2	62.8
	대학 재학·휴학	100.0	30.1	69.9
	대학 졸업 이상	100.0	42.7	57.3

n=8,01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독립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이하 ‘독립생활’)가 가장 높은 47.4%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이하 ‘통학통근’) 22.0%, ‘결혼 또는 예정이어서’(이하 ‘결혼동거’) 18.4%,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이하 ‘경제 여건’) 11.7%,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하 ‘가족 사이’) 0.4%, ‘기타’ 0.0% 순이다. 이와 같은 순서는 2022년도 조사와 동일하다. 다만 2022년도 조사에 비해 ‘독립생활’이 40.7%에서 6.7%포인트 높아졌고, ‘통학통근’이 26.1%에서 4.1%포인트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독립생활’과 ‘통학통근’이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25~29세는 모두 ‘독립생활’과 ‘통학통근’ 비율이 높으나 30~34세는 ‘독립생활’과 ‘결혼동거’가 높다. 이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 순위는 2022년도와 동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권과 비수도권 간, 광역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2-3〉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0.0	22.0	18.4	11.7	47.4	0.4	0.0*	
성별	남자	100.0	22.4	17.1	12.7	47.5	0.3*	0.0
	여자	100.0	21.5	20.2	10.5	47.2	0.6	0.1*
연령	19~24세	100.0	31.7	5.8	9.4	52.5	0.5*	0.1*
	25~29세	100.0	18.8	23.7	11.9	45.3	0.3*	0.0
	30~34세	100.0	10.2	32.1	15.7	41.6	0.5*	0.0
지역 1	수도권	100.0	19.8	19.1	12.4	48.1	0.5*	0.1*
	비수도권	100.0	24.4	17.6	11.1	46.5	0.4*	0.0

구분	비율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 하기에 멀어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지역 2	서울	100.0	16.7	20.6	12.0	50.0	0.8*	0.0
	부산	100.0	23.8	20.5	8.9	46.2	0.6*	0.0
	대구	100.0	24.5	13.5	9.2	52.8	0.0	0.0
	인천	100.0	18.1	18.7	10.4	52.3	0.4*	0.0
	광주	100.0	25.0	20.3	10.7*	43.9	0.0	0.0
	대전	100.0	16.5	20.3	13.6	49.5	0.0	0.0
	울산	100.0	25.1	19.9	11.0*	43.9	0.0	0.0
	세종	100.0	19.8	11.9	15.7	51.9	0.8*	0.0
	경기	100.0	22.1	18.4	13.1	45.9	0.3*	0.1*
	강원	100.0	20.9	17.0	12.9	49.2	0.0	0.0
	충북	100.0	22.5	10.3	17.9	49.2	0.0	0.0
	충남	100.0	26.9	22.2	6.1*	44.8	0.0	0.0
	전북	100.0	27.4	11.0	12.8	47.6	1.1*	0.0
	전남	100.0	22.5	28.9	8.2	40.4	0.0	0.0
	경북	100.0	23.6	15.3	13.1	48.0	0.0	0.0
	경남	100.0	31.4	18.7	9.8	39.6	0.6*	0.0
제주	100.0	17.7	14.5	10.3	55.2	2.3*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11.3	19.9	12.0	55.6	1.2*	0.0
	대학 재학·휴학	100.0	37.2	4.9	7.3	50.3	0.3*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18.5	23.5	13.5	44.2	0.3*	0.1*

n = 3,08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편,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60.5%가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이하 ‘경제 여건’)라고 응답했다. 그 외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통근 하기에 가까워서’(이하 ‘통학통근’) 14.1%, ‘특별한 이유 없음’(이하 ‘이유 없음’)이 22.9%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이하 ‘돌봄 가구원’) 1.9%,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이하 ‘양육부모 도움’) 0.3%, 기타 0.2% 순이었다. 2022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순서는 동일하였으나 ‘경제 여건’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아졌고(3.9%포인트), ‘통학통근’이 6.9%포인트 낮아졌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는 22.9%인데, 이는 2022년도 조사의 20.0%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관련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통학통근’ 및 ‘경제 여건’이 높아졌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 여건’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눈에 띄는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통학통근’은 충남(42.1%), ‘경제 여건’은 세종(76.4%)이 두드러졌다. 학력별로는 공통적으로 경제 여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4〉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100.0	14.1	60.5	1.9	0.3*	0.2	22.9
성별	남자	14.1	62.4	2.1	0.0*	0.1	21.3
	여자	14.1	58.6	1.7	0.7*	0.3	24.6
연령	19~24세	15.4	63.6	0.7	0.1*	0.2	20.1
	25~29세	12.7	61.3	1.9	0.5*	0.1	23.6
	30~34세	12.9	49.5	5.5	1.0*	0.5	30.6
지역 1	수도권	10.2	63.7	2.0	0.3*	0.2	23.7
	비수도권	19.5	56.2	1.7	0.4*	0.3	21.9
지역 2	서울	10.1	65.2	1.7*	0.2*	0.3	22.5
	부산	12.7	59.3	1.9*	0.5*	0.4	25.2
	대구	10.7	63.9	0.7*	0.0	0.2	24.5
	인천	9.6	69.2	0.7*	0.0	0.0	20.4
	광주	14.5	55.9	0.4*	0.3*	0.0	29.0
	대전	22.2	54.4	0.0	1.2*	0.2	22.1
	울산	17.1	50.9	2.8*	0.5*	0.0	28.6
세종	7.2*	76.4	0.0	0.0	0.0	16.4*	

구분	비율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경기	100.0	10.4	61.4	2.5	0.5*	0.1	25.2	
강원	100.0	19.8	58.8	2.4*	0.0	0.5	18.5	
충북	100.0	24.0	53.8	3.0*	0.0	1.3	17.8	
충남	100.0	42.1	43.1	1.6*	0.6*	0.0	12.5	
전북	100.0	20.6	52.4	0.7*	1.0*	0.0	25.3	
전남	100.0	27.5	46.6	6.3*	0.7*	0.0	19.0	
경북	100.0	21.5	57.6	2.1*	0.0	0.0	18.7	
경남	100.0	15.7	64.6	1.8*	0.0	0.4	17.6	
제주	100.0	12.3	52.8	1.4*	0.0	1.3	32.2	
학력	고졸 이하	100.0	10.4	58.6	3.5	1.5*	0.6	25.4
	대학 재학·휴학	100.0	16.6	63.3	0.9	0.0	0.1	19.2
	대학 졸업 이상	100.0	13.5	59.2	2.1	0.2*	0.2	24.8

n=4,92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이하 ‘통학·통근’)가 40.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이하 ‘결혼동거’) 38.6%,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이하 ‘경제 여건’) 17.6%,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하 ‘가족 사이’) 3.0%, 기타 0.8% 순이었다. 이와 같은 순서는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통학·통근’이 42.9%로 가장 높고, 여성은 ‘결혼동거’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2022년도 조사에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통학·통근’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5~29세 역시 ‘통학·통근’이 48.3%로 가장 높았다. 30~34세는 ‘결혼동거’가 56.2%로 가장 높았다. 2022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통학·통근’이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50.5%,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로 28.7%였다. ‘결혼동거’의 경우에는 울산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29.8%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결혼동거’가 41.3%였으며, 대학 재학·휴학은 ‘통학·통근’이 86.8%, 대학 졸업 이상은 ‘결혼동거’가 42.1%로 가장 높았다.

〈표 3-2-5〉 부모 비동거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이유					기타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체	100.0	40.0	38.6	17.6	3.0	0.8	
성별	남자	100.0	42.9	33.2	19.6	3.4	0.8
	여자	100.0	36.9	44.3	15.5	2.6	0.8
연령	19~24세	100.0	77.3	5.2	12.4	4.0	1.1
	25~29세	100.0	48.3	26.8	19.3	4.5	1.1
	30~34세	100.0	23.4	56.2	18.1	1.8	0.5
지역 1	수도권	100.0	40.2	38.2	17.8	3.2	0.7
	비수도권	100.0	39.8	38.9	17.4	2.9	1.0
지역 2	서울	100.0	50.5	29.8	14.9	3.9	0.8*
	부산	100.0	44.7	35.0	15.9	3.5	0.9*
	대구	100.0	39.7	38.0	17.6	3.3	1.3*
	인천	100.0	30.8	42.7	19.1	6.1	1.4*
	광주	100.0	43.0	36.6	18.3	2.2*	0.0
	대전	100.0	47.3	35.8	13.8	1.8*	1.3*
	울산	100.0	34.3	47.9	13.8	2.7*	1.3*
	세종	100.0	41.3	43.1	14.2	1.1*	0.3*
	경기	100.0	33.5	44.5	19.9	1.8	0.3*
	강원	100.0	29.4	41.1	26.3	1.5*	1.6*
	충북	100.0	42.1	38.2	18.0	1.3*	0.3*
	충남	100.0	45.6	39.0	13.6	1.5*	0.3*
	전북	100.0	35.1	40.3	20.8	2.6*	1.1*
	전남	100.0	32.0	43.2	21.0	3.2*	0.5*
	경북	100.0	40.9	41.4	14.7	2.1*	0.9*
	경남	100.0	36.0	35.6	19.9	7.3	1.2*
제주	100.0	28.7	43.3	19.6	4.0*	4.4*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학력	고졸 이하	100.0	29.8	41.3	20.1	7.2	1.7
	대학 재학·휴학	100.0	86.8	4.3	6.0	2.4	0.5
	대학 졸업 이상	100.0	37.0	42.1	18.4	1.9	0.6

n=7,085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55.5개월로 나타났다. 2022년도 조사 결과인 49.5개월에 비해 약 6개월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54.6개월, 여성은 56.3개월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개월 짧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이 70.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경기도가 49.6개월로 가장 짧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9.5개월, 대졸 재학 휴학이 26.0개월, 대학 졸업 이상이 58.0개월이다.

〈표 3-2-6〉 독립한 기간

(단위: 개월, %)

구분	비율	독립한 기간							평균 (개월)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100.0	3.3	5.0	15.5	14.0	22.2	40.0	55.5	
성별	남자	100.0	3.6	5.4	16.8	12.9	21.8	39.6	54.6
	여자	100.0	2.9	4.6	14.1	15.3	22.6	40.4	56.3
연령	19~24세	100.0	8.5	14.3	33.1	19.0	18.6	6.5	23.7
	25~29세	100.0	3.7	5.0	17.6	16.5	24.6	32.6	46.1
	30~34세	100.0	1.4	2.2	8.9	11.0	21.8	54.9	71.0
지역 1	수도권	100.0	3.0	5.0	15.8	15.0	22.5	38.8	53.7
	비수도권	100.0	3.6	5.0	15.2	12.9	21.9	41.4	57.5

구분	비율	독립한 기간						평균 (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지역 2	서울	100.0	2.5	4.3	13.1	14.7	22.5	42.8	56.8
	부산	100.0	2.2	6.6	12.9	10.9	23.7	43.7	59.9
	대구	100.0	4.4	6.5	16.3	15.2	24.7	32.9	50.9
	인천	100.0	3.1	4.4	17.1	13.9	19.9	41.7	59.2
	광주	100.0	3.5	5.6	15.7	15.2	20.8	39.2	53.7
	대전	100.0	4.8	4.0	12.4	15.1	23.6	40.1	59.1
	울산	100.0	6.9	5.3	14.4	9.2	18.2	46.0	59.5
	세종	100.0	7.6	2.4	10.5	8.1	18.4	52.8	70.2
	경기	100.0	3.4	5.8	17.9	15.5	23.0	34.5	49.6
	강원	100.0	2.6	3.7	12.7	13.0	20.9	47.1	60.7
	충북	100.0	2.5	5.1	14.5	14.0	19.4	44.5	57.9
	충남	100.0	2.6	4.6	18.0	17.8	26.7	30.4	50.6
	전북	100.0	2.4	5.5	20.3	12.1	22.5	37.2	53.2
	전남	100.0	3.1	4.3	15.0	14.2	25.6	37.7	51.9
	경북	100.0	3.8	6.7	15.3	12.6	20.1	41.6	56.5
	경남	100.0	4.2	2.5	15.7	8.6	17.9	51.1	67.3
	제주	100.0	2.6	4.2	17.4	10.2	17.2	48.4	64.0
학력	고졸 이하	100.0	3.1	4.4	14.4	11.1	21.5	45.4	59.5
	대학 재학·휴학	100.0	10.1	15.7	29.9	17.6	18.7	8.0	26.0
	대학 졸업 이상	100.0	2.4	3.8	14.0	14.4	22.8	42.5	58.0

n= 7,08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8.5개월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7.0개월, 여성은 30.0개월이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의 평균은 각각 27.8개월, 29.2개월로 큰 차이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도 25.5~38.9개월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 28.5개월, 대학 재학·휴학 18.1개월, 대학 졸업 이상 29.8개월이다. 전체적으로 독립한 기간보다는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지만 각각의 경향은 동일하다.

〈표 3-2-7〉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

(단위: 개월, %)

구분	비율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							평균 (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100.0	9.8	10.4	30.4	20.1	19.2	10.0	28.5	
성별	남자	100.0	10.6	10.6	32.8	19.5	17.3	9.2	27.0
	여자	100.0	9.0	10.2	27.8	20.9	21.2	11.0	30.0
연령	19~24세	100.0	15.7	20.2	41.1	13.8	7.4	1.7	17.6
	25~29세	100.0	11.9	11.5	31.7	22.0	17.0	5.8	24.9
	30~34세	100.0	6.7	6.7	26.3	20.9	24.1	15.2	34.0
지역 1	수도권	100.0	10.2	9.7	30.4	20.9	20.2	8.6	27.8
	비수도권	100.0	9.4	11.2	30.4	19.2	18.1	11.7	29.2
지역 2	서울	100.0	8.9	8.9	26.5	22.8	25.0	7.9	29.7
	부산	100.0	8.3	13.0	28.8	19.2	20.4	10.3	29.4
	대구	100.0	11.4	11.3	30.7	20.7	18.4	7.5	26.8
	인천	100.0	11.2	12.0	30.2	21.3	16.3	8.9	27.4
	광주	100.0	7.6	10.8	27.2	21.8	14.7	17.9	32.0
	대전	100.0	14.4	13.9	26.7	21.2	17.2	6.6	25.4
	울산	100.0	12.7	13.8	33.0	12.3	17.9	10.3	26.8
	세종	100.0	20.1	10.1	22.8	20.5	17.1	9.5	26.2
	경기	100.0	11.1	9.8	33.8	19.3	17.0	9.1	26.2
	강원	100.0	7.0	7.8	25.9	23.1	20.5	15.8	34.0
	충북	100.0	7.7	9.3	30.8	20.0	16.9	15.4	31.2
	충남	100.0	9.7	7.6	41.6	19.4	15.6	6.2	25.5
	전북	100.0	5.7	13.1	29.8	18.0	20.7	12.6	29.5
	전남	100.0	5.5	5.5	30.0	22.9	23.2	12.9	31.1
	경북	100.0	10.2	14.9	30.7	17.8	17.0	9.4	25.6
	경남	100.0	7.3	11.6	29.3	16.0	17.4	18.4	33.7
제주	100.0	12.2	10.7	30.4	15.3	14.5	16.9	38.9	
학력	고졸 이하	100.0	10.1	9.3	31.3	17.7	20.8	10.8	28.5
	대학 재학·휴학	100.0	18.1	21.1	35.5	15.3	7.6	2.5	18.1
	대학 졸업 이상	100.0	8.7	9.4	29.5	21.5	20.2	10.8	29.8

n= 7,08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에게 현재의 주거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1순위),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이하 '통학통근')가 3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주거비가 저렴해서'(이하 '주거비') 29.7%였다. 이 밖에 '내부환경이 좋아서' 8.3%,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7.3%,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있어서' 5.2%,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4.2%,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서' 3.6%, '자연환경이 좋아서' 2.2%, 기타 0.4% 순이었다. 통학통근과 주거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39.5%, 38.8%를 나타내었으며 '주거비'가 각각 32.0%, 27.3%였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주거비'였는데, 이 역시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통학통근'이 가장 높으며 '주거비'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49.7%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산으로 25.1%였다. '주거비'의 경우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34.3%,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으로 20.8%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주거비'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재학·휴학 및 대학 졸업 이상은 '통학통근'이 각각 48.7%, 40.1%로 가장 높았다.

<표 3-2-8>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주거비가 저렴해서	내부 환경이 좋아서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전체	100.0	29.7	8.3	39.2	3.6	7.3	2.2	5.2	4.2	0.4	
성별	남자	100.0	32.0	7.7	39.5	4.0	5.7	1.8	4.9	4.0	0.4*
	여자	100.0	27.3	8.9	38.8	3.1	8.9	2.6	5.6	4.4	0.3*
연령	19~24세	100.0	30.3	9.6	45.0	4.4	5.5	0.9	2.9	1.3	0.1*
	25~29세	100.0	31.7	7.2	40.6	4.5	6.9	1.4	4.9	2.5	0.5*
	30~34세	100.0	28.3	8.6	36.5	2.8	8.1	3.1	6.1	6.2	0.4*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주거비가 저렴해서	내부 환경이 좋아서	통학·통근 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지역 1	수도권	100.0	31.2	7.6	40.6	3.1	6.5	2.1	4.4	4.1	0.4*
	비수도권	100.0	28.0	9.1	37.6	4.1	8.2	2.3	6.1	4.3	0.3
지역 2	서울	100.0	34.3	7.3	42.7	2.6	5.5	0.6*	3.2	3.7	0.2*
	부산	100.0	28.1	12.3	36.6	5.0	9.5	1.7*	3.2*	3.7	0.0
	대구	100.0	27.7	6.3	37.3	3.5	8.1	1.3*	10.0	5.1	0.7*
	인천	100.0	31.7	9.0	32.2	4.7	8.2	1.1*	7.5	5.1	0.4*
	광주	100.0	31.0	3.3*	37.2	4.2	10.5	1.9*	10.3	1.7*	0.0
	대전	100.0	25.0	11.1	43.3	4.7	6.4	1.8*	5.1	2.6*	0.0
	울산	100.0	29.3	11.9	25.1	3.5*	10.9	2.4*	8.5	6.6	1.9*
	세종	100.0	25.0	6.9	39.8	1.2*	8.9	0.9*	6.8	9.1	1.2*
	경기	100.0	28.5	7.6	40.7	3.1	6.9	3.7	4.8	4.2	0.5*
	강원	100.0	26.4	11.0	39.1	5.1	5.0	1.9*	5.3	5.6*	0.7*
	충북	100.0	30.3	10.0	32.4	3.7	8.2	2.7*	8.6	4.0	0.2*
	충남	100.0	26.7	4.7*	49.7	3.1	5.4	2.0*	3.6	4.9	0.0
	전북	100.0	20.8	11.5	40.8	1.7*	11.1	3.4*	6.7	3.2*	0.6*
	전남	100.0	24.6	7.9	39.1	2.7*	11.1	5.9*	6.1*	2.6*	0.0
	경북	100.0	31.9	8.5	38.1	4.2	4.9	2.6*	5.1	4.7	0.0
	경남	100.0	31.8	11.7	31.1	6.2	8.4	1.4*	4.0	4.8	0.7*
	제주	100.0	26.7	5.4*	28.2	7.3*	15.2	4.2*	8.2	4.9*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35.5	7.9	31.7	4.9	8.5	2.4	5.0	3.5
대학 재학·휴학		100.0	29.5	10.3	48.7	2.9	5.3	0.4	2.4	0.4*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28.1	8.2	40.1	3.3	7.2	2.4	5.6	4.9	0.3*

n=7,08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이 현재의 주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2순위 응답 비율은 1순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럼에도 1순위와 동일하게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비율로 24.4%이며, 다음은 주거비 15.9%였다.

<표 3-2-9>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주거비가 저렴해서	내부 환경이 좋아서	통학·통근 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 되어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전체	100.0	15.9	10.7	24.4	10.9	12.5	4.5	14.5	5.3	1.3	
성별	남자	100.0	17.6	10.5	26.1	11.4	11.9	3.9	12.2	5.1	1.4
	여자	100.0	14.0	11.0	22.6	10.4	13.2	5.1	17.0	5.5	1.2
연령	19~24세	100.0	18.6	9.9	25.1	15.3	11.4	2.1	14.0	1.9	1.7
	25~29세	100.0	16.2	11.4	23.4	11.2	13.7	4.0	14.4	4.6	1.1
	30~34세	100.0	14.9	10.5	24.8	9.4	12.1	5.6	14.7	6.8	1.3
지역 1	수도권	100.0	15.0	9.9	26.4	11.4	12.7	4.1	14.3	5.1	1.2
	비수도권	100.0	16.9	11.6	22.1	10.4	12.3	5.0	14.8	5.5	1.4
지역 2	서울	100.0	15.7	10.4	27.2	13.8	10.9	3.3	14.3	3.2	1.2*
	부산	100.0	14.6	12.4	25.7	8.7	12.9	2.7*	16.3	5.2	1.5*
	대구	100.0	17.0	12.0	23.1	12.4	10.1	2.7	13.4	8.6	0.8*
	인천	100.0	12.1	11.5	22.7	10.4	15.0	2.9	14.0	10.3	1.1*
	광주	100.0	13.2	6.8	27.5	13.1	14.9	3.6*	16.3	4.6*	0.0
	대전	100.0	23.8	11.3	20.3	11.6	8.4	4.8	13.4	4.2	2.2*
	울산	100.0	12.5	9.5	25.3	11.1	11.2	4.2*	13.4	11.4	1.4*
	세종	100.0	13.0	13.5	22.4	9.8	10.2	3.5*	14.8	9.5	3.2*
	경기	100.0	15.0	9.1	26.7	9.5	13.7	5.1	14.3	5.4	1.2*
	강원	100.0	14.0	11.1	19.8	13.2	15.3	10.9	11.9	3.2	0.5*
	충북	100.0	17.8	10.1	26.3	8.3	10.6	5.1	13.5	6.8	1.4*
	충남	100.0	20.0	8.4	15.0	10.7	15.2	5.8	19.0	3.6*	2.3*
	전북	100.0	22.0	11.8	18.2	7.2	11.7	5.0	21.4	1.9*	0.9*
	전남	100.0	14.9	16.7	21.9	8.9	13.4	8.9	10.1	4.3*	0.9*
	경북	100.0	18.9	11.2	23.5	8.4	13.0	5.6	13.7	4.6	1.2*
	경남	100.0	14.8	16.4	20.1	11.8	12.4	4.0*	12.7	5.9	1.9*
제주	100.0	13.7	11.5	16.5	11.4	10.9	5.7*	15.6	11.1	3.5*	
학력	고졸 이하	100.0	15.8	10.8	24.5	9.8	15.5	5.1	11.7	4.9	1.8
	대학 재학·휴학	100.0	21.1	10.2	27.1	16.1	9.9	1.0	11.6	1.2*	1.7*
	대학 졸업 이상	100.0	15.2	10.8	24.0	10.5	12.0	4.8	15.7	5.9	1.1

n=7,08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나. 주거 및 주거환경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자의 57.6%가 부모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본인 31.4%, 배우자 8.3%, 친인척 1.8%, 기타 0.9% 순이었다. 2022년도 조사에서는 부모 61.1%, 본인 27.1%였는데, 부모라는 응답 비율이 3.5%포인트 낮아지고 본인은 4.3%포인트 높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본인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 비율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경향들은 2022년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48.5%(충북)~64.0%(광주)의 분포를 나타낸다. 광주는 2022년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충북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지자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49.1%, 대학 재학·휴학 85.9%, 대학 졸업 이상 50.5%로 학업 과정 중인 경우에 부모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3-2-10〉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부모	본인	배우자	친인척	기타	
전체	100.0	57.6	31.4	8.3	1.8	0.9	
성별	남자	100.0	58.4	37.1	1.9	1.8	0.8
	여자	100.0	56.7	25.1	15.4	1.8	1.0
연령	19~24세	100.0	83.2	13.9	0.6	1.7	0.6
	25~29세	100.0	58.3	32.7	6.1	1.9	1.0
	30~34세	100.0	32.1	47.3	18.0	1.6	1.0
지역 1	수도권	100.0	58.3	31.5	7.7	1.7	0.8
	비수도권	100.0	56.8	31.4	9.0	1.8	1.0
지역 2	서울	100.0	57.9	33.3	6.4	1.6	0.8
	부산	100.0	60.8	29.5	6.5	2.2	1.0*
	대구	100.0	62.6	26.5	8.5	1.5	0.8
	인천	100.0	53.0	34.0	8.5	2.6	1.9*
	광주	100.0	64.0	26.9	7.6	1.0*	0.4*

구분	비율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부모	본인	배우자	친인척	기타	
지역	대전	100.0	53.5	35.2	8.3	1.0*	1.9
	울산	100.0	46.0	35.9	14.6	2.5	1.0*
	세종	100.0	39.9	44.2	14.2	0.2*	1.5*
	경기	100.0	59.9	29.4	8.7	1.6	0.5*
	강원	100.0	53.5	34.7	9.3	1.9*	0.6*
	충북	100.0	48.5	37.3	10.1	2.3	1.8*
	충남	100.0	49.4	38.4	10.0	1.1*	1.1*
	전북	100.0	59.6	27.1	10.5	2.1	0.7*
	전남	100.0	61.9	25.6	9.1	3.3	0.0*
	경북	100.0	53.3	35.7	9.0	1.3*	0.7*
	경남	100.0	60.6	28.1	8.1	2.3	0.9*
	제주	100.0	62.4	23.1	8.9	3.0	2.6*
학력	고졸 이하	100.0	49.1	37.1	9.4	2.7	1.7
	대학 재학·휴학	100.0	85.9	12.2	0.2*	1.4	0.3*
	대학 졸업 이상	100.0	50.5	36.3	10.7	1.6	0.8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49.6%, 전세 23.8%, 보증금 있는 월세 23.8% 순이다. 그 밖에 보증금 없는 월세 0.7%, 사글세 또는 연세 0.2%, 무상 거주 1.8%이다. 2022년도에 비해 자가 비율은 6.2%포인트 낮아졌으며, 전세는 2.3%포인트, 보증금 있는 월세는 4.8%포인트 높아졌다.

성별에 따라서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아진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자가 비율이 높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가장 낮은 38.8%이며 전남이 62.0%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39.9%), 대학 졸업 이상(48.1%)의 자가 비율이 낮으며,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 자가 비율이 높다(62.4%).

〈표 3-2-11〉 현재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주거 점유 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무상 거주	
전체	100.0	49.6	23.8	23.8	0.7	0.2	0.0	1.8	
성별	남자	100.0	49.4	22.6	24.9	0.8	0.3	0.0	2.0
	여자	100.0	49.9	25.0	22.7	0.6	0.2	0.0	1.6
연령	19~24세	100.0	59.5	16.7	21.4	0.8	0.4	0.0	1.2
	25~29세	100.0	47.3	23.2	27.0	0.6	0.1	0.0	1.8
	30~34세	100.0	42.4	31.2	23.1	0.7	0.2	0.0	2.3
지역 1	수도권	100.0	45.5	28.9	23.7	0.5	0.0*	0.0	1.4
	비수도권	100.0	54.6	17.6	24.1	0.9	0.5	0.0	2.3
지역 2	서울	100.0	38.8	34.0	25.3	0.3*	0.0	0.0	1.5
	부산	100.0	52.5	20.9	24.0	0.4*	0.0	0.0	2.3
	대구	100.0	57.1	16.2	24.1	1.2*	0.3*	0.0	1.1
	인천	100.0	50.0	28.9	18.9	0.8*	0.1*	0.0	1.3*
	광주	100.0	52.9	17.4	26.9	0.5*	0.6*	0.0	1.7*
	대전	100.0	48.0	18.5	30.5	1.5*	0.1*	0.0	1.4*
	울산	100.0	51.8	17.2	29.3	0.7*	0.0	0.0	1.1*
	세종	100.0	45.9	21.3	30.4	0.9*	0.0	0.0	1.5*
	경기	100.0	50.0	24.7	23.4	0.7*	0.0	0.0	1.3
	강원	100.0	49.7	19.4	25.4	0.5*	0.1*	0.0	5.0
	충북	100.0	50.5	19.5	24.6	1.0*	0.9*	0.0	3.4
	충남	100.0	55.8	18.0	22.7	0.4*	1.0*	0.0	2.1
	전북	100.0	57.8	17.3	20.5	1.8	0.2*	0.0	2.4
	전남	100.0	62.0	16.4	16.3	1.6*	0.5*	0.0	3.2
	경북	100.0	56.3	14.9	24.2	1.5	0.8*	0.0	2.4
	경남	100.0	58.9	16.0	22.3	0.6*	0.0	0.0	2.2
제주	100.0	59.1	9.2	19.3	1.5*	7.1	0.0	3.7	
학력	고졸 이하	100.0	39.9	23.4	32.9	1.0	0.3*	0.0	2.5
	대학 재학·휴학	100.0	62.4	15.9	19.4	0.9	0.5	0.0	0.9
	대학 졸업 이상	100.0	48.1	26.5	22.8	0.6	0.2	0.0	1.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 및 다가구 19.7%, 연립주택 및 다세대 16.7%, 오피스텔 6.2% 순이었다.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파트 비율은 6.8%포인트 낮아졌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비수도권이 높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수도권이 높다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로 68.9%였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로 30.3%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단독주택 및 다가구 및 연립주택 및 다세대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을 물어본 결과 지상이 99.0%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9.1%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지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2022년도와 동일하게 서울로 97.6%였다. 2022년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표 3-2-12〉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숙사, 향토학사	기타	
전체	100.0	19.7	16.7	0.9	56.0	0.2	6.2	0.1	0.0*	0.2	0.0*	
성별	남자	100.0	21.1	16.7	1.1	54.6	0.2	5.9	0.1*	0.0*	0.2	0.0*
	여자	100.0	18.0	16.6	0.7	57.7	0.2*	6.6	0.1*	0.0	0.1	0.0*
연령	19~24세	100.0	20.5	15.5	0.7	58.2	0.1*	4.6	0.1*	0.0*	0.3	0.0*
	25~29세	100.0	20.2	17.6	0.9	53.6	0.2*	7.2	0.1*	0.0	0.2	0.0
	30~34세	100.0	18.2	16.9	1.3	56.4	0.3*	6.8	0.1*	0.0	0.1*	0.0
지역 1	수도권	100.0	14.3	20.5	0.8	56.1	0.2	7.9	0.1*	0.0*	0.1*	0.0
	비수도권	100.0	26.2	11.9	1.1	56.0	0.2	4.2	0.0*	0.0	0.3	0.0*
지역 2	서울	100.0	18.1	25.0	0.7*	45.7	0.1*	10.2	0.2*	0.0	0.0	0.0
	부산	100.0	17.2	12.0	0.8*	58.5	0.2*	10.9	0.1*	0.0	0.3*	0.0
	대구	100.0	20.0	15.9	1.3*	61.1	0.1*	1.3	0.0	0.0	0.2*	0.0
	인천	100.0	8.7	18.3	0.9*	58.8	0.1*	13.0	0.1*	0.0	0.1*	0.0
	광주	100.0	21.5	6.5	0.2*	68.9	0.0	2.9	0.0	0.0	0.0	0.0
	대전	100.0	27.0	12.5	0.7*	57.1	0.1*	2.3	0.0	0.0	0.1*	0.2*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숙사, 향토학사	기타	
지역	울산	100.0	22.2	10.7	0.6*	64.1	0.3*	1.9*	0.1*	0.0	0.1*	0.0
	세종	100.0	6.5	1.9*	0.0	66.7	0.0	24.1	0.0	0.0	0.7*	0.1*
	경기	100.0	12.3	17.4	0.9	63.9	0.4*	4.8	0.1*	0.0*	0.1*	0.0
	강원	100.0	28.9	10.6	3.0	55.0	0.2*	2.1	0.0	0.0	0.2*	0.0
	충북	100.0	20.7	14.1	0.7*	58.7	0.3*	4.1	0.3*	0.0	1.0*	0.2*
	충남	100.0	26.7	14.5	0.3*	51.0	0.0	7.1	0.0	0.0	0.5*	0.0
	전북	100.0	41.7	7.0	2.2*	48.8	0.3*	0.1*	0.0	0.0	0.0	0.0
	전남	100.0	45.5	6.6	0.5*	45.4	0.6*	1.3*	0.0	0.0	0.2*	0.0
	경북	100.0	35.3	14.2	2.5	45.7	0.2*	1.1*	0.0	0.0	0.9*	0.0
	경남	100.0	22.0	11.6	0.8*	61.8	0.1*	3.5	0.0*	0.0	0.2*	0.0
제주	100.0	37.1	24.8	0.5*	30.3	0.3*	6.9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24.6	20.6	1.7	46.4	0.2*	5.9	0.2*	0.1*	0.3*	0.0*
	대학 재학·휴학	100.0	19.6	14.9	0.8	60.4	0.2*	3.9	0.1*	0.0	0.3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18.3	16.1	0.8	57.3	0.2	7.1	0.1*	0.0	0.1	0.0*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2-13〉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전체	100.0	0.5	0.1	0.3	99.0	
성별	남자	100.0	0.6	0.2*	0.3	98.9
	여자	100.0	0.4	0.1*	0.3	99.2
연령	19~24세	100.0	0.3	0.1*	0.3	99.3
	25~29세	100.0	0.6	0.2*	0.3	98.9
	30~34세	100.0	0.7	0.2*	0.3*	98.9
지역 1	수도권	100.0	0.9	0.2*	0.4	98.6
	비수도권	100.0	0.1*	0.1	0.2	99.6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지역 2	서울	100.0	1.5	0.3*	0.7	97.6
	부산	100.0	0.1*	0.0	0.2*	99.7
	대구	100.0	0.0	0.0	0.1*	99.9
	인천	100.0	0.8*	0.1*	0.4*	98.8
	광주	100.0	0.1*	0.1*	0.0	99.8
	대전	100.0	0.0	0.0*	0.3*	99.7
	울산	100.0	0.0	0.0	0.5*	99.5
	세종	100.0	0.0	0.0	0.7*	99.3
	경기	100.0	0.4*	0.1*	0.1*	99.3
	강원	100.0	0.0	0.0	0.2*	99.8
	충북	100.0	0.3*	0.1*	0.3*	99.3
	충남	100.0	0.0	0.2*	0.1*	99.7
	전북	100.0	0.0	0.1*	0.0	99.9
	전남	100.0	0.0	0.2*	0.0*	99.8
	경북	100.0	0.6*	0.5*	0.2*	98.7
	경남	100.0	0.1*	0.1*	0.2*	99.6
	제주	100.0	0.0	0.3*	0.4*	99.3
학력	고졸 이하	100.0	1.2	0.4*	0.4*	98.0
	대학 재학·휴학	100.0	0.2*	0.0*	0.2*	99.5
	대학 졸업 이상	100.0	0.4	0.1*	0.3	99.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원룸형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오’가 전체 86.8%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인 86.0%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응답 비율은 성별, 연령대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원룸형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25.6%였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로 7.5%였다.

〈표 3-2-14〉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예	아니요
전체	100.0	13.2	86.8
성별	남자	14.1	85.9
	여자	12.1	87.9
연령	19~24세	12.6	87.4
	25~29세	15.2	84.8
	30~34세	11.6	88.4
지역 1	수도권	12.7	87.3
	비수도권	13.7	86.3
지역 2	서울	16.7	83.3
	부산	14.4	85.6
	대구	13.1	86.9
	인천	10.4	89.6
	광주	13.7	86.3
	대전	17.7	82.3
	울산	12.8	87.2
	세종	25.6	74.4
	경기	10.0	90.0
	강원	12.8	87.2
	충북	16.7	83.3
	충남	18.2	81.8
	전북	10.3	89.7
	전남	8.0	92.0
	경북	15.2	84.8
	경남	9.7	90.3
제주	7.5	92.5	
학력	고졸 이하	13.5	86.5
	대학 재학·휴학	12.8	87.2
	대학 졸업 이상	13.2	86.8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방 개수는 평균 2.8개이며 중위값은 3.0개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위값은 모든 구분과 상관없이 모두 3.0개이다.

〈표 3-2-15〉 현재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

(단위: %)

구분		평균 (개)	중위 (개)
전체		2.8	3.0
성별	남자	2.8	3.0
	여자	2.8	3.0
연령	19~24세	2.9	3.0
	25~29세	2.8	3.0
	30~34세	2.7	3.0
지역 1	수도권	2.8	3.0
	비수도권	2.8	3.0
지역 2	서울	2.7	3.0
	부산	2.9	3.0
	대구	2.9	3.0
	인천	2.8	3.0
	광주	2.8	3.0
	대전	2.7	3.0
	울산	2.7	3.0
	세종	3.0	3.0
	경기	2.8	3.0
	강원	2.7	3.0
	충북	2.7	3.0
	충남	2.8	3.0
	전북	2.9	3.0
	전남	2.8	3.0
	경북	2.7	3.0
	경남	2.8	3.0
	제주	2.9	3.0
	학력	고졸 이하	2.7
대학 재학·휴학		3.0	3.0
대학 졸업 이상		2.8	3.0

n=12,627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95.2%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3.1%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91.8%(광주)~97.4%(전북)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학력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3-2-16〉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예	아니요
전체		100.0	95.2	4.8
성별	남자	100.0	95.8	4.2
	여자	100.0	94.6	5.4
연령	19~24세	100.0	93.3	6.7
	25~29세	100.0	95.3	4.7
	30~34세	100.0	96.9	3.1
지역 1	수도권	100.0	94.9	5.1
	비수도권	100.0	95.6	4.4
지역 2	서울	100.0	93.1	6.9
	부산	100.0	97.3	2.7
	대구	100.0	96.4	3.6
	인천	100.0	93.7	6.3
	광주	100.0	91.8	8.2
	대전	100.0	96.3	3.7
	울산	100.0	95.0	5.0
	세종	100.0	96.6	3.4*
	경기	100.0	96.5	3.5
	강원	100.0	97.3	2.7*
	충북	100.0	92.1	7.9
	충남	100.0	97.6	2.4*
	전북	100.0	97.4	2.6
	전남	100.0	93.6	6.4
	경북	100.0	96.5	3.5
	경남	100.0	94.3	5.7
	제주	100.0	92.6	7.4
학력	고졸 이하	100.0	93.6	6.4
	대학 재학·휴학	100.0	94.1	5.9
	대학 졸업 이상	100.0	96.1	3.9

n=12,627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 주택 전체는 77.83㎡, 본인 방(침실)은 15.79㎡를 나타내었다. 2022년도 결과인 주택 전체는 85.42㎡, 본인 방(침실) 12.59㎡에 비해 주택 전체는 다소 좁아졌고, 본인 방(침실)은 다소 넓어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전체는 다소 좁아지고, 본인 방(침실)은 다소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면적이 다소 넓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주택 전체의 경우 68.40㎡(서울)~88.74㎡(전남)의 분포를 보이며 본인 방(침실)은 14.01㎡(서울)~18.39㎡(세종)의 분포를 보인다. 학력별로는 주택 전체로는 고졸 이하, 대학 졸업 이상, 대학 재학 및 휴학 순이지만 본인 방(침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표 3-2-17〉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

(단위: ㎡)

구분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	
		주택 전체	본인 방(침실)
전체		77.83	15.79
성별	남자	77.07	15.57
	여자	78.67	16.03
연령	19~24세	82.42	14.79
	25~29세	76.35	15.76
	30~34세	74.87	16.73
지역 1	수도권	75.24	15.17
	비수도권	80.96	16.54
지역 2	서울	68.40	14.01
	부산	81.80	15.13
	대구	85.08	16.11
	인천	79.37	16.99
	광주	85.32	17.12
	대전	71.06	16.72
	울산	73.47	15.94
	세종	76.42	18.39
	경기	79.93	15.63
	강원	80.28	16.94
	충북	77.54	18.58
	충남	77.92	16.74
전북	86.78	17.15	

구분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	
		주택 전체	본인 방(침실)
	전남	88.73	15.94
	경북	79.70	16.27
	경남	81.14	16.75
	제주	85.26	17.02
학력	고졸 이하	71.74	15.53
	대학 재학·휴학	84.47	14.66
	대학 졸업 이상	77.30	16.23

n= 15,098(주택 전체), n=12,123(본인 방)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부엌이다. 전체 응답자 중 97.2%가 가구 단독 사용으로 응답하였다. 공동 사용은 2.7%, 없음은 0.2%였다. 가구 단독 사용 비율은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5.4%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졌다. 성별이나 연령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가구 단독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96.0%였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2-18〉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엌)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엌)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7.2	2.7	0.2
성별	남자	96.7	3.1	0.2
	여자	97.7	2.2	0.1*
연령	19~24세	96.6	3.2	0.3
	25~29세	96.9	2.9	0.2*
	30~34세	100.0	1.9	0.1*
지역 1	수도권	97.3	2.7	0.1*
	비수도권	97.0	2.7	0.3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역)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지역 2	서울	100.0	98.2	1.8	0.0
	부산	100.0	97.7	2.2	0.2*
	대구	100.0	97.5	2.1	0.3*
	인천	100.0	94.6	5.3	0.1
	광주	100.0	99.2	0.8*	0.0
	대전	100.0	97.0	2.4	0.7*
	울산	100.0	95.4	4.5	0.1*
	세종	100.0	96.9	3.1*	0.0
	경기	100.0	97.2	2.8	0.1*
	강원	100.0	98.9	1.0*	0.1*
	충북	100.0	95.8	3.2	1.0*
	충남	100.0	97.5	2.4*	0.1*
	전북	100.0	98.1	1.9*	0.0
	전남	100.0	93.2	6.1	0.6*
	경북	100.0	97.3	2.4	0.3*
	경남	100.0	96.0	3.7	0.3*
	제주	100.0	96.2	3.3*	0.5*
학력	고졸 이하	100.0	96.8	3.1	0.1*
	대학 재학·휴학	100.0	96.5	3.2	0.3
	대학 졸업 이상	100.0	97.5	2.4	0.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화장실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97.4%가 가구 단독 사용이었고, 공동 사용은 2.6%, 없음은 0%였다. 가구 단독 사용 비율은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5.9%에서 1.5%포인트 높아졌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다. 지역 구분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가구 단독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94.7%였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19〉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7.4	2.6	0.0*
성별	남자	100.0	97.1	2.9	0.0*
	여자	100.0	97.8	2.2	0.0*
연령	19~24세	100.0	96.9	3.1	0.0
	25~29세	100.0	97.2	2.8	0.0*
	30~34세	100.0	98.2	1.8	0.0*
지역 1	수도권	100.0	97.4	2.6	0.0*
	비수도권	100.0	97.4	2.5	0.0*
지역 2	서울	100.0	98.2	1.8	0.0
	부산	100.0	97.8	2.1	0.1*
	대구	100.0	97.8	2.2	0.0
	인천	100.0	94.7	5.2	0.1*
	광주	100.0	99.2	0.8*	0.0
	대전	100.0	98.0	2.0*	0.0
	울산	100.0	95.7	4.3	0.0
	세종	100.0	96.7	3.3*	0.0
	경기	100.0	97.4	2.6	0.0
	강원	100.0	98.5	1.5*	0.0
	충북	100.0	96.9	3.0	0.1*
	충남	100.0	97.8	2.2*	0.0
	전북	100.0	98.4	1.6*	0.0
	전남	100.0	95.1	4.9	0.0
	경북	100.0	97.1	2.9	0.0
	경남	100.0	96.6	3.3	0.1*
	제주	100.0	96.5	3.3	0.2*
학력	고졸 이하	100.0	97.2	2.7	0.0*
	대학 재학·휴학	100.0	96.8	3.2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97.7	2.3	0.0*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샤워 시설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97.3%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은 2.5%, 없음은 0.2%였다. 단독 사용은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5.7%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 밖에 성별 및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도 모든 지자체가 95% 이상을 나타내는 등 주목할 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20〉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7.3	2.5	0.2	
성별	남자	100.0	96.9	2.9	0.2
	여자	100.0	97.9	2.0	0.1*
연령	19~24세	100.0	96.9	3.0	0.1*
	25~29세	100.0	97.1	2.7	0.2*
	30~34세	100.0	98.0	1.7	0.3*
지역 1	수도권	100.0	97.3	2.5	0.2*
	비수도권	100.0	97.4	2.5	0.2*
지역 2	서울	100.0	98.1	1.7	0.1*
	부산	100.0	97.8	2.1	0.1*
	대구	100.0	97.3	2.2	0.5*
	인천	100.0	94.8	5.0	0.2*
	광주	100.0	99.2	0.8*	0.0
	대전	100.0	97.7	1.9*	0.4*
	울산	100.0	95.6	4.4	0.0
	세종	100.0	96.9	3.1*	0.0
	경기	100.0	97.2	2.5	0.2*
	강원	100.0	98.4	1.5*	0.2*
	충북	100.0	96.6	3.3	0.1*
	충남	100.0	97.7	2.3*	0.0
	전북	100.0	98.4	1.6*	0.0
	전남	100.0	95.9	3.6	0.6*
	경북	100.0	97.0	2.8	0.2*
	경남	100.0	96.5	3.3*	0.1*
제주	100.0	96.7	3.3	0.0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사위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학력	고졸 이하	100.0	97.2	2.6	0.2*
	대학 재학·휴학	100.0	96.9	3.1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97.6	2.2	0.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세면 시설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97.4%가 가구 단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인 95.6%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는 없으며, 지역 구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5% 이상을 나타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94.8%였다. 학력별 차이도 크지 않다.

〈표 3-2-2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7.4	2.5	0.1	
성별	남자	100.0	97.0	2.8	0.2*
	여자	100.0	97.8	2.1	0.1*
연령	19~24세	100.0	97.0	3.0	0.0*
	25~29세	100.0	97.1	2.8	0.1*
	30~34세	100.0	98.1	1.7	0.2*
지역 1	수도권	100.0	97.4	2.5	0.1*
	비수도권	100.0	97.4	2.5	0.1
지역 2	서울	100.0	98.1	1.7	0.2*
	부산	100.0	97.7	2.1	0.2*
	대구	100.0	97.6	2.2	0.2*
	인천	100.0	94.8	5.0	0.2*
	광주	100.0	99.2	0.8*	0.0
	대전	100.0	97.9	1.9*	0.2*
	울산	100.0	95.6	4.4	0.0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세종	100.0	96.6	3.4	0.0
	경기	100.0	97.3	2.5	0.1*
	강원	100.0	98.3	1.6*	0.1*
	충북	100.0	96.6	3.3	0.1*
	충남	100.0	97.7	2.3*	0.0
	전북	100.0	98.4	1.6*	0.0
	전남	100.0	96.3	3.4	0.3
	경북	100.0	97.1	2.8	0.1
	경남	100.0	96.4	3.3	0.3
	제주	100.0	96.7	3.3*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97.1	2.6	0.3*
	대학 재학·휴학	100.0	96.9	3.1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97.7	2.2	0.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욕조 시설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78.5%가 단독 사용이었다. 이 결과는 2022년도의 73.3%에 비해 5.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크지 않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66.1%(대전)~85.9%(충남)의 분포를 나타내어 다른 내부 시설에 비해 지자체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표 3-2-22>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78.5	2.5	19.0	
성별	남자	100.0	77.1	2.9	20.1
	여자	100.0	80.2	2.1	17.7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연령	19~24세	100.0	80.0	3.2	16.9
	25~29세	100.0	78.0	2.8	19.3
	30~34세	100.0	77.7	1.6	20.7
지역 1	수도권	100.0	78.3	2.5	19.1
	비수도권	100.0	78.8	2.5	18.7
지역 2	서울	100.0	73.0	2.2	24.8
	부산	100.0	77.5	2.2	20.2
	대구	100.0	78.8	2.0	19.1
	인천	100.0	81.5	4.3	14.2
	광주	100.0	85.2	0.5*	14.3
	대전	100.0	66.1	2.4	31.5
	울산	100.0	72.2	4.1	23.7
	세종	100.0	85.9	3.6*	10.4
	경기	100.0	82.0	2.4	15.6
	강원	100.0	77.8	1.3*	20.9
	충북	100.0	80.8	3.3	15.9
	충남	100.0	85.9	2.3*	11.8
	전북	100.0	77.9	2.2*	19.9
	전남	100.0	81.4	3.7	14.9
	경북	100.0	76.0	2.9	21.1
	경남	100.0	82.7	3.2	14.1
	제주	100.0	74.3	2.6*	23.1
학력	고졸 이하	100.0	75.9	2.6	21.5
	대학 재학·휴학	100.0	80.4	3.2	16.4
	대학 졸업 이상	100.0	78.6	2.3	19.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난방 시설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95.4%가 단독 사용으로 응답하였다. 2022년도의 93.5%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성별 및 연령,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광역자치단체별로도 대부분 95%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다만 인천

(92.4%), 경기(92.5%), 울산 및 전남 (94.9%)이 상대적으로 단독 사용 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표 3-2-23〉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5.4	4.5	0.1	
성별	남자	100.0	94.7	5.2	0.2*
	여자	100.0	96.1	3.8	0.0*
연령	19~24세	100.0	94.9	5.0	0.1*
	25~29세	100.0	95.1	4.8	0.1*
	30~34세	100.0	96.0	3.8	0.1*
지역 1	수도권	100.0	94.1	5.8	0.1*
	비수도권	100.0	96.8	3.0	0.2*
지역 2	서울	100.0	96.5	3.4	0.1*
	부산	100.0	97.2	2.5	0.3*
	대구	100.0	97.8	2.2	0.0
	인천	100.0	92.4	7.6	0.1*
	광주	100.0	98.8	1.2*	0.0
	대전	100.0	95.4	4.5	0.1*
	울산	100.0	94.9	5.0	0.1*
	세종	100.0	95.2	4.8	0.0
	경기	100.0	92.5	7.4	0.1*
	강원	100.0	98.0	1.8*	0.3*
	충북	100.0	95.9	3.8	0.3*
	충남	100.0	97.1	2.7	0.2*
	전북	100.0	97.9	2.1	0.0
	전남	100.0	94.9	4.6	0.5*
	경북	100.0	97.4	2.6	0.0
	경남	100.0	96.2	3.7	0.1*
제주	100.0	96.2	3.4*	0.4*	
학력	고졸 이하	100.0	95.3	4.5	0.2*
	대학 재학·휴학	100.0	94.9	5.0	0.1*
	대학 졸업 이상	100.0	95.5	4.4	0.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로 냉방 시설을 살펴본다. 전체 97.0%가 단독 사용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2022년도 결과인 94.4%에 비해 2.6% 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도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93.8%(전남)~99.3%(광주)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95%를 넘어선다. 학력별로도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24〉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0	97.0	2.4	0.6	
성별	남자	100.0	96.6	2.7	0.7
	여자	100.0	97.4	2.0	0.6
연령	19~24세	100.0	96.5	3.1	0.4
	25~29세	100.0	96.6	2.5	0.9
	30~34세	100.0	97.8	1.6	0.6
지역 1	수도권	100.0	97.2	2.3	0.5
	비수도권	100.0	96.7	2.5	0.7
지역 2	서울	100.0	97.9	1.6	0.5*
	부산	100.0	97.8	1.9	0.3*
	대구	100.0	97.9	1.9	0.3*
	인천	100.0	93.8	5.1	1.1*
	광주	100.0	99.3	0.7*	0.0
	대전	100.0	96.4	2.9	0.7*
	울산	100.0	94.8	4.3	1.0*
	세종	100.0	94.9	4.3*	0.8*
	경기	100.0	97.4	2.2	0.4*
	강원	100.0	97.4	1.2*	1.4*
	충북	100.0	94.0	3.6	2.3
	충남	100.0	96.6	2.5	0.9*
	전북	100.0	97.3	1.9*	0.8*
	전남	100.0	93.8	5.2	1.0*
	경북	100.0	97.5	2.1*	0.5*
	경남	100.0	96.2	3.3	0.5*
제주	100.0	96.7	2.7*	0.6*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학력	고졸 이하	100.0	96.5	2.7	0.8
	대학 재학·휴학	100.0	96.3	3.3	0.4*
	대학 졸업 이상	100.0	97.4	2.0	0.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내부 시설 사용 형태 중 마지막 문항으로 현재 주택의 출입구(현관문) 사용 형태를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단독 사용이 89.5%이다. 2022년도 결과인 86.6%에 비해 2.9%포인트 높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동일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73.5%(충남)~전북(96.1%)의 분포를 보여 다른 내부 시설 관련 조사 결과에 비해 지역별 격차가 크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2-25〉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전체		100.0	89.5	10.5
성별	남자	100.0	89.0	11.0
	여자	100.0	90.0	10.0
연령	19~24세	100.0	88.8	11.2
	25~29세	100.0	88.4	11.6
	30~34세	100.0	91.2	8.8
지역 1	수도권	100.0	89.5	10.5
	비수도권	100.0	89.5	10.5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지역 2	서울	100.0	93.8	6.2
	부산	100.0	89.9	10.1
	대구	100.0	92.4	7.6
	인천	100.0	82.8	17.2
	광주	100.0	98.2	1.8
	대전	100.0	86.4	13.6
	울산	100.0	87.1	12.9
	세종	100.0	87.2	12.8
	경기	100.0	87.4	12.6
	강원	100.0	94.6	5.4
	충북	100.0	90.0	10.0
	충남	100.0	73.5	26.5
	전북	100.0	96.1	3.9
	전남	100.0	91.4	8.6
	경북	100.0	92.3	7.7
	경남	100.0	86.7	13.3
	제주	100.0	89.4	10.6
학력	고졸 이하	100.0	88.0	12.0
	대학 재학·휴학	100.0	88.9	11.1
	대학 졸업 이상	100.0	90.1	9.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주거비 부담 및 주택 마련

다음은 주거비와 관련하여 각 점유 유형별로 평균과 중위를 나타내었다.

자가 가구의 주택 가격은 평균 4억 5,211만 원, 중위는 3억 원이었다. 2022년도 조사 결과인 평균 5억 2,966만 원, 중위 4억 원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만 19~24세, 만 30~34세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억 2,570만 원, 비수도권이 2억 7,665만 원으로 모두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낮아졌다. 광역자치단체

별로는 서울이 9억 1,44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1억 7,431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 그 외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 2,585만 원, 중위는 1억 8,000만 원이었다. 2022년도 조사 결과인 평균 2억 1,073만 원, 중위 1억 7,000만 원에 비해 약 1천만 원 정도 상승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400여만 원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억 6,750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1억 4,259만 원에 비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높았으며, 2022년도의 약 1억 원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소속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 보증금은 평균 2,891만 원, 중위는 1천만 원이었다. 2022년도에 비해 보증금은 약 50여만 원 내렸고, 중위는 동일하다. 월세는 평균 41만 원, 중위 금액은 38만 원이다. 2022년도의 평균 38만 원, 중위 35만 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성별로는 보증금 및 월세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보증금은 30대 연령이 타 연령대에 비해 약 500만 원 높았지만, 월세는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이 보증금 및 월세 모두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보증금은 780만 원(충남)~5,134만 원(서울), 월세는 31만 원(전남 및 경북)~53만 원(서울)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보증금은 500만 원(대구,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2,000만 원(서울), 월세는 30만 원(광주, 강원, 전남, 경북, 경남)~50만 원(서울, 세종)의 분포이다. 학력별로는 보증금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월세는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는 평균 38만 원, 중위 33만 원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수도권이 평균 45만 원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10만 원 높으며, 중위값도 7만 원 높다. 지역별로는 평균 금액으로 서울이 63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충남이 22만 원으로 가장 낮다. 중위 금액은 울산이 85만 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26만 원이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응답자가 타 점유 유형에 비해 적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비교 해석 시에는 유의해야 한다.

〈표 3-2-26〉 점유 유형별 주거비 실태

(단위: 만 원)

구분	자가 가구의 주택 가격		전세 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 월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보증금		월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45,211	30,000	22,585	18,000	2,891	1,000	41	38	38	33	
성별	남자	44,861	30,000	20,887	15,000	2,778	1,000	40	35	37	30
	여자	45,595	30,000	24,278	20,000	3,027	1,000	42	40	41	40
연령	19~24세	45,315	30,000	26,231	17,000	2,663	1,000	40	35	30	30
	25~29세	46,444	31,000	22,289	18,000	2,559	1,000	41	40	50	40
	30~34세	43,680	30,000	20,922	18,000	3,488	1,500	41	35	40	37
지역 1	수도권	62,570	50,000	26,750	20,000	3,900	2,000	45	40	45	37
	비수도권	27,665	22,000	14,259	11,000	1,689	500	36	33	35	30
지역 2	서울	91,443	75,000	29,924	21,000	5,134	2,000	53	50	63	37*
	부산	37,264	30,000	16,736	12,000	2,699	1,000	42	38	42	40
	대구	33,683	30,000	14,796	12,000	1,668	500	37	33	36	30
	인천	33,770	30,000	17,169	15,000	2,046	1,000	48	45	41	50
	광주	30,081	26,000	16,167	15,000	1,503	600	29	30	62	26*
	대전	33,090	25,000	16,231	12,000	1,420	500	38	35	35	35
	울산	30,845	30,000	17,778	15,000	1,737	1,000	39	38	57	85*
	세종	62,617	60,000	18,010	18,000	2,378	1,000	42	50	32	30
	경기	50,589	40,000	25,605	20,000	3,140	1,440	37	35	40	32
	강원	24,555	20,000	12,880	9,000	1,395	500	34	30	27	30
	충북	26,589	24,000	12,231	10,000	1,652	500	36	33	28	28
	충남	20,953	16,008	12,703	10,600	780	500	37	40	22	27
	전북	20,940	19,000	13,156	13,000	1,316	500	34	35	30	32
	전남	18,274	15,000	13,032	12,000	2,837	1,000	31	30	30	30
	경북	17,431	15,000	11,072	8,000	1,002	500	31	30	27	30
	경남	25,744	20,000	12,193	9,000	1,893	1,000	33	30	23	30
제주	30,648	30,000	15,495	18,000	1,619	500	44	45	52	50	
학력	고졸 이하	35,729	25,000	17,725	14,000	2,133	1,000	41	40	41	33
	대학 재학·휴학	47,351	32,000	28,740	20,000	2,568	800	38	35	34	30
	대학 졸업 이상	46,495	32,000	22,547	18,000	3,291	1,000	41	40	40	38

자가 n=7,524, 전세 보증금 n=3,059,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보증금 n=3,983, 보증금 있는 월세의 월세 n=3,983  
보증금 없는 월세의 월세 n=20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은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으로 61.7%이다. 다음 '본인 자금' 24.2%,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6.8%, '민간 금융기관 자금' 6.3% 순이다.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의 비율은 63.7%에서 2.0%포인트 낮아졌으며, '본인 자금'은 21.5%에서 2.7%포인트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본인 자금'이 다소 높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자금'이 높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비율이 높아졌다. 지자체별로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의 비율은 48.4%(인천)~69.7%(광주)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은 인천이 13.2%로 가장 높고, 경북이 4.4%로 가장 낮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및 대학 졸업 이상은 '본인 자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 재학 및 휴학은 대부분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으로 주거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5%).

<표 3-2-27>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기타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체	100.0	24.2	61.7	6.8	6.3	1.1	
성별	남자	100.0	25.3	62.1	5.9	5.3	1.3
	여자	100.0	22.9	61.2	7.6	7.4	0.9
연령	19~24세	100.0	8.0	83.9	2.8	4.3	1.0
	25~29세	100.0	24.9	61.6	6.5	5.9	1.2
	30~34세	100.0	39.2	40.1	10.9	8.7	1.2
지역 1	수도권	100.0	24.1	61.3	6.9	6.8	1.0
	비수도권	100.0	24.3	62.1	6.6	5.6	1.3
지역 2	서울	100.0	24.5	63.5	6.0	5.2	0.8
	부산	100.0	22.3	64.7	6.1	5.7	1.3*
	대구	100.0	18.7	67.2	8.6	5.1	0.4*
	인천	100.0	24.5	48.4	13.2	12.2	1.7
	광주	100.0	23.1	69.7	3.1	3.3	0.8*
	대전	100.0	25.0	61.4	7.9	4.9	0.8*
	울산	100.0	30.4	51.1	9.1	8.4	1.1*
	세종	100.0	25.6	52.3	10.4	9.0	2.7*
	경기	100.0	23.6	62.3	6.2	7.0	0.9
	강원	100.0	24.9	60.2	5.4	5.8	3.7
	충북	100.0	28.2	54.5	7.8	7.1	2.4
충남	100.0	26.4	60.4	5.6	6.2	1.4	

구분	비율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북	100.0	20.9	65.3	7.3	6.0	0.6*
	전남	100.0	22.6	66.9	5.7	4.0	0.8*
	경북	100.0	31.0	59.0	4.4	4.1	1.6
	경남	100.0	23.5	60.9	7.7	6.8	1.1*
	제주	100.0	21.7	63.9	6.6	6.8	1.0*
학력	고졸 이하	100.0	32.1	52.2	7.3	6.9	1.4
	대학 재학·휴학	100.0	6.1	86.5	2.5	4.3	0.6
	대학 졸업 이상	100.0	28.1	55.9	8.0	6.8	1.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라. 주거 인식과 불안정 주거 경험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31.3%였다. 다음 ‘전세 자금 대출’ 25.0%, ‘주거비 지원’ 20.7%, ‘공공임대 입주’ 14.9%,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5.8%,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지원’ 2.3% 순이었다. 기타는 0.1%이다.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41.0%에서 9.7%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다른 항목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성별로는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주거비 지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이점을 살펴보면, 서울은 ‘공공임대 입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20.3%). 그 외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40.1%)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응답자는 ‘주거비 지원’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31.6%).

한편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2순위를 살펴보면, '전세 자금 대출' 22.7%,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2.0%, '주거비 지원' 22.8%, '공공임대 입주' 14.8% 등 1순위에 비해 각 항목별로 고르게 응답이 분포하였다. 성별이나 연령별, 수도권 여부, 학력별 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3-2-28>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체	100.0	25.0	31.3	20.7	14.9	5.8	2.3	0.1*	
성별	남자	100.0	25.2	30.7	20.7	15.2	5.9	2.3	0.1*
	여자	100.0	24.7	32.0	20.7	14.6	5.6	2.3	0.1*
연령	19~24세	100.0	22.0	23.2	30.5	15.3	6.6	2.3	0.2*
	25~29세	100.0	28.5	28.6	20.3	14.7	5.6	2.3	0.0*
	30~34세	100.0	24.3	41.9	11.5	14.7	5.1	2.4	0.1*
지역 1	수도권	100.0	26.6	28.8	18.4	18.7	5.3	2.1*	0.1*
	비수도권	100.0	23.0	34.4	23.3	10.2	6.3	2.6*	0.1*
지역 2	서울	100.0	31.1	25.6	17.3	20.3	4.1	1.5	0.0
	부산	100.0	30.9	34.2	23.4	4.9	4.4	2.0	0.2*
	대구	100.0	23.5	40.1	19.2	7.8	7.1	2.3	0.0
	인천	100.0	23.9	34.6	20.5	11.1	7.2	2.5	0.2*
	광주	100.0	17.4	30.9	21.0	19.9	8.2	2.6	0.0
	대전	100.0	23.2	32.3	27.1	7.3	7.3	2.5	0.3*
	울산	100.0	21.0	34.1	25.6	9.7	7.4	2.1	0.1*
	세종	100.0	20.2	30.3	24.9	12.1	9.9	2.6	0.0
	경기	100.0	23.4	30.0	18.9	19.1	5.9	2.5	0.1*
	강원	100.0	19.9	31.3	25.9	13.5	6.6	2.4	0.3*
	충북	100.0	20.2	39.9	19.9	8.6	7.6	3.8	0.0
	충남	100.0	18.2	34.3	21.7	17.4	5.5	3.0	0.0
	전북	100.0	22.8	39.1	23.7	7.3	5.8	1.3*	0.0
	전남	100.0	18.7	36.6	20.5	16.8	6.1	1.4*	0.0
	경북	100.0	25.7	32.8	24.1	9.3	4.3	3.6	0.1*
	경남	100.0	25.1	30.4	26.9	7.7	6.7	3.1	0.2*
제주	100.0	21.6	30.2	25.6	12.4	7.6	2.7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25.4	27.6	22.1	17.8	4.9	2.0	0.1*
	대학 재학·휴학	100.0	21.1	23.5	31.6	14.1	7.5	2.2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26.1	35.0	16.5	14.4	5.5	2.4	0.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2-29〉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2순위)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2순위)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체	100.0	22.7	22.0	22.8	14.8	9.1	7.5	1.1	
성별	남자	100.0	22.6	23.0	22.5	15.0	8.9	6.8	1.1
	여자	100.0	22.9	20.8	23.1	14.5	9.4	8.3	1.0
연령	19~24세	100.0	22.0	19.0	26.4	15.2	9.2	7.0	1.2
	25~29세	100.0	22.6	23.0	22.4	16.1	7.9	7.2	0.8
	30~34세	100.0	23.5	23.8	19.7	13.0	10.4	8.4	1.2
지역 1	수도권	100.0	22.0	22.6	22.9	15.7	8.3	7.5	0.9
	비수도권	100.0	23.6	21.2	22.7	13.6	10.1	7.5	1.3
지역 2	서울	100.0	23.5	23.3	21.0	17.4	7.7	6.6	0.6
	부산	100.0	23.8	23.2	28.8	6.7	8.8	7.4	1.2
	대구	100.0	28.6	22.1	23.6	8.0	10.0	7.1	0.6*
	인천	100.0	23.6	20.0	20.5	14.0	10.9	9.3	1.6*
	광주	100.0	21.5	17.9	18.6	23.6	10.2	6.7	1.5*
	대전	100.0	24.3	25.2	20.0	13.7	7.5	8.2	1.2*
	울산	100.0	23.4	21.9	22.0	9.8	10.9	10.4	1.6*
	세종	100.0	16.2	23.8	23.4	16.6	8.5	10.5	1.0*
	경기	100.0	20.5	22.6	25.0	14.8	8.3	7.9	1.0*
	강원	100.0	23.6	21.3	16.6	17.5	12.2	7.0	1.7*
	충북	100.0	24.5	22.6	16.7	16.6	11.3	7.7	0.7*
	충남	100.0	25.3	18.8	20.3	15.3	9.7	9.4	1.1*
	전북	100.0	23.9	16.2	21.0	16.3	16.6	4.1	2.0*
	전남	100.0	20.0	22.1	22.0	18.1	9.0	8.3	0.5*
	경북	100.0	22.3	19.3	25.5	12.7	9.8	9.1	1.3*
	경남	100.0	23.3	20.9	25.6	13.1	9.3	5.9	1.8
제주	100.0	15.8	23.0	29.4	15.2	8.6	6.6	1.4*	
학력	고졸 이하	100.0	21.0	21.7	25.1	16.6	8.4	6.2	1.1
	대학 재학·휴학	100.0	22.5	19.0	24.9	16.1	9.6	6.6	1.3
	대학 졸업 이상	100.0	23.3	23.0	21.5	13.8	9.2	8.2	1.0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기회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71.7%였다. 2021년도 조사 결과인 63.2%에 비해 8.5%포인트가 높아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대별로는 만 30~34세가 66.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외의 '있다' 응답 비율은 75.1%로 비수도권의 67.5%에 비해 높았다. '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으로 80.2%였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구로 60.2%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있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30〉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있다	없다
전체	100.0	71.7	28.3
성별	남자	71.5	28.5
	여자	71.9	28.1
연령	19~24세	72.9	27.1
	25~29세	76.1	23.9
	30~34세	66.1	33.9
지역 1	수도권	75.1	24.9
	비수도권	67.5	32.5
지역 2	서울	73.8	26.2
	부산	60.3	39.7
	대구	60.2	39.8
	인천	78.2	21.8
	광주	76.5	23.5
	대전	71.1	28.9
	울산	68.8	31.2
	세종	77.7	22.3
	경기	75.6	24.4
	강원	80.2	19.8
	충북	65.2	34.8
	충남	64.8	35.2
	전북	64.6	35.4
	전남	68.1	31.9
	경북	65.1	34.9
	경남	71.6	28.4
	제주	74.6	25.4

구분	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있다	없다	
학력	고졸 이하	100.0	75.9	24.1
	대학 재학·휴학	100.0	71.6	28.4
	대학 졸업 이상	100.0	70.5	29.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1년간 겪은 주거 불안 상황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항목별로 0.7%~5.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임대 보증금 부족'으로 5.7%였다. 이것은 2022년도 조사의 4.9%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그 외 최근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 이번 조사부터 문항에 포함된 '전세 사기'의 경우 1.3%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31〉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거리 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 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	
전체	100.0	0.1	0.5	0.2	1.0	0.2	0.5	0.1	
성별	남자	100.0	0.1*	0.7	0.2	1.2	0.4	0.7	0.1*
	여자	100.0	0.1*	0.2	0.2	0.8	0.1*	0.2	0.1*
연령	19~24세	100.0	0.0*	0.5	0.1*	1.0	0.2*	0.3	0.1*
	25~29세	100.0	0.1*	0.5	0.2*	0.9	0.3*	0.5	0.1*
	30~34세	100.0	0.1*	0.4	0.3*	1.0	0.3	0.6	0.2*
지역 1	수도권	100.0	0.0*	0.4	0.1*	1.0	0.2*	0.4	0.1*
	비수도권	100.0	0.1	0.5	0.3	0.9	0.4	0.5	0.1*
지역 2	서울	100.0	0.1*	0.3*	0.1*	1.2	0.2*	0.3*	0.2*
	부산	100.0	0.0	0.7*	0.4*	1.2	0.4	0.6*	0.0
	대구	100.0	0.1*	0.3*	0.0	0.3*	0.0	0.0	0.0
	인천	100.0	0.0	0.6*	0.3*	1.8	0.2*	1.0	0.1*
	광주	100.0	0.2*	0.3*	0.0	0.5*	0.4*	0.3*	0.0
	대전	100.0	0.0	0.0	0.4*	0.4*	0.0	0.6*	0.2*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거리 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	
울산	100.0	0.0	0.6*	0.1*	1.4*	0.4*	1.1*	0.0	
세종	100.0	0.0	0.1*	0.4*	1.6*	0.1*	0.5*	0.0	
경기	100.0	0.0	0.4*	0.1*	0.6	0.1*	0.3*	0.0*	
강원	100.0	0.0	0.4*	0.2*	0.7*	0.2*	0.5*	0.1*	
충북	100.0	0.3*	0.6*	0.4*	1.2*	0.5*	0.3*	0.2*	
충남	100.0	0.2*	0.5*	0.2*	0.9*	0.4*	0.4*	0.2*	
전북	100.0	0.3*	0.4*	0.4*	0.6*	0.6*	0.3*	0.5*	
전남	100.0	0.0	0.0*	0.0	0.6*	0.4*	0.0*	0.0	
경북	100.0	0.1*	1.0*	0.2*	0.7*	0.2*	0.4*	0.1*	
경남	100.0	0.3*	1.1*	0.7*	1.8	0.6*	1.3*	0.2*	
제주	100.0	0.9*	1.3*	1.0*	1.9*	1.4*	2.0*	0.8*	
학력	고졸 이하	100.0	0.2*	0.8	0.5*	1.0	0.7	1.3	0.3*
	대학 재학·휴학	100.0	0.0	0.5	0.2*	1.0	0.1*	0.3*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0.1*	0.3	0.1	0.9	0.2	0.3	0.1*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2-32〉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률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 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3개월 이상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 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또는 납부 지연)	임대인 과의 갈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 위반	전세 사기
전체	100.0	1.7	5.7	1.0	0.7	0.6	0.7	1.6	1.7	1.1	1.3
성별	남자	100.0	2.0	4.6	1.0	0.8	0.7	0.8	1.7	1.7	1.5
	여자	100.0	1.4	7.0	0.9	0.6	0.5	0.6	1.5	1.7	1.2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주거 불안 상황 경험률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3개월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 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또는 납부 지연)	임대인과의 갈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 위반	전세 사기	
연령	19~24세	100.0	1.3	3.2	0.7	0.5	0.5	0.6	1.4	1.0	0.7	0.7
	25~29세	100.0	2.0	6.2	0.9	0.6	0.6	0.6	1.5	1.8	1.0	1.1
	30~34세	100.0	1.8	7.7	1.3	0.9	0.7	0.9	1.8	2.2	1.7	2.1
지역 1	수도권	100.0	1.8	6.1	0.9	0.6	0.5	0.6	1.7	1.6	1.1	1.4
	비수도권	100.0	1.6	5.2	1.1	0.8	0.7	0.8	1.5	1.8	1.1	1.2
지역 2	서울	100.0	0.9	5.0	0.8	0.2*	0.2*	0.5*	0.9	1.6	0.7	0.8
	부산	100.0	1.7	5.2	0.9*	0.9*	0.9*	1.5*	0.9*	2.5	1.4*	1.8
	대구	100.0	1.7	5.1	0.4*	1.0*	1.0*	0.6*	1.9	1.5	1.3*	0.8*
	인천	100.0	2.9	9.9	1.1*	0.8*	0.7*	1.3*	4.5	3.2	1.9	2.0
	광주	100.0	0.7*	2.9	1.0*	1.0*	0.7*	0.4*	1.1*	0.8*	0.8*	0.6*
	대전	100.0	1.4*	6.1	1.1*	0.3*	0.3*	1.3*	2.1*	2.2	1.3*	1.8
	울산	100.0	0.3*	8.0	1.1*	0.1*	0.1*	0.1*	0.9*	1.2*	0.6*	0.9*
	세종	100.0	1.8*	9.6	1.7*	0.8*	0.8*	0.9*	1.4*	4.9*	1.3*	3.3*
	경기	100.0	2.3	6.3	0.8	0.9	0.7*	0.5	1.7	1.3	1.3	1.7
	강원	100.0	1.0*	3.8	0.9*	0.0	0.1*	0.6*	0.7*	1.6*	0.2*	0.4
	충북	100.0	2.9	5.6	2.2	1.5*	1.3*	1.9*	2.0	2.4	2.5	2.1
	충남	100.0	1.5*	6.6	1.1*	1.2*	1.5*	0.9*	1.1*	1.7*	1.7*	1.9*
	전북	100.0	1.3	4.5	0.6*	0.4*	0.4*	0.4*	1.7*	1.2*	0.4*	0.8*
	전남	100.0	0.7*	1.9	0.3*	0.0*	0.0	0.8*	1.3*	0.4*	0.2*	0.8*
경북	100.0	1.9	4.6	1.3*	0.5*	0.3*	0.7*	1.3	1.9	0.8*	0.3*	
경남	100.0	1.9	5.9	1.1*	1.1*	0.8*	0.5*	1.7	2.0	1.4*	1.4*	
제주	100.0	4.6	9.3	3.1*	1.9*	1.2*	0.3*	3.9	1.6*	1.5*	0.4*	
학력	고졸 이하	100.0	3.6	8.5	1.8	1.4	1.2	1.0	3.5	2.0	1.6	1.7
	대학 재학·휴학	100.0	1.4	3.0	0.3*	0.4*	0.3*	0.5*	1.4	0.9	0.5	0.4*
	대학 졸업 이상	100.0	1.3	5.9	0.9	0.6	0.5	0.7	1.1	1.9	1.2	1.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경험한 비율이다. 고시원이 1.0%로 가장 높았으며,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0.5%, 일터의 일부 공간 0.5%, 쪽방 0.2%, 여관·여인숙 0.2% 등이었다. 이 비율들은 대체로 2022년도 조사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시원은 0.3%포인트,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0.3%포인트, 일터의 일부 공간 0.1%포인트, 쪽방 0.1%포인트, 여관·여인숙 0.1%포인트 상승하였다. 다만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아 엄밀한 연도 간 비교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거처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지만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는 크지 않다.

기숙사 또는 향토학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을 물어보았다. 기숙사 또는 향토학사는 25.5%가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7.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연령대 별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숙사, 향토학사의 경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10.3%포인트 높았으나 공공임대주택은 큰 차이가 없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기숙사, 향토학사 거주 경험률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서울은 16.1%인 반면, 세종은 50.4%, 강원 39.1%, 경남 39.3%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부산이 3.5%로 가장 낮은 반면, 세종 17.7%, 제주 13.0% 등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기숙사, 향토학사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았다. 공공임대는 고졸 이하 및 대학 졸업 이상이 다소 높았다.

〈표 3-2-33〉 기숙사, 향토학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기숙사, 향토학사		공공임대주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00.0	25.5	74.5	7.0	93.0
성별	남성	26.5	73.5	7.1	92.9
	여성	24.4	75.6	6.7	93.3
연령	19~24세	26.1	73.9	5.0	95.0
	25~29세	27.0	73.0	7.1	92.9
	30~34세	23.5	76.5	8.7	91.3
지역 1	수도권	20.9	79.1	6.8	93.2
	비수도권	31.2	68.8	7.2	92.8

구분	비율	기숙사, 향토학사		공공임대주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역 2	서울	100.0	16.1	83.9	3.8	96.2
	부산	100.0	21.7	78.3	3.5	96.5
	대구	100.0	20.4	79.6	5.7	94.3
	인천	100.0	31.1	68.9	8.7	91.3
	광주	100.0	20.8	79.2	9.9	90.1
	대전	100.0	33.5	66.5	8.3	91.7
	울산	100.0	35.2	64.8	8.5	91.5
	세종	100.0	50.4	49.6	17.7	82.3
	경기	100.0	22.6	77.4	8.8	91.2
	강원	100.0	39.1	60.9	7.5	92.5
	충북	100.0	33.5	66.5	9.6	90.4
	충남	100.0	28.5	71.5	5.5	94.5
	전북	100.0	34.0	66.0	8.0	92.0
	전남	100.0	33.3	66.7	6.7	93.3
	경북	100.0	38.8	61.2	5.7	94.3
	경남	100.0	39.3	60.7	7.8	92.2
	제주	100.0	34.8	65.2	13.0	87.0
학력	고졸 이하	100.0	13.6	86.4	8.6	91.4
	대학 재학·휴학	100.0	27.8	72.2	5.3	94.7
	대학 졸업 이상	100.0	28.1	71.9	7.0	93.0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89.6%였다. 2022년도 조사 결과인 91.3%에 비해 1.87%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크지 않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83.4%(충북)~93.5%(강원)의 분포를 나타낸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즉 청년 중 약 90%는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3-2-34〉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89.6	10.4
성별	남자	100.0	89.9	10.1
	여자	100.0	89.3	10.7
연령	19~24세	100.0	88.6	11.4
	25~29세	100.0	89.2	10.8
	30~34세	100.0	91.0	9.0
지역 1	수도권	100.0	89.0	11.0
	비수도권	100.0	90.2	9.8
지역 2	서울	100.0	89.9	10.1
	부산	100.0	88.7	11.3
	대구	100.0	91.1	8.9
	인천	100.0	92.2	7.8
	광주	100.0	86.3	13.7
	대전	100.0	88.1	11.9
	울산	100.0	90.5	9.5
	세종	100.0	92.3	7.7
	경기	100.0	87.7	12.3
	강원	100.0	93.5	6.5
	충북	100.0	83.4	16.6
	충남	100.0	92.4	7.6
	전북	100.0	92.5	7.5
	전남	100.0	93.3	6.7
	경북	100.0	92.6	7.4
	경남	100.0	91.1	8.9
	제주	100.0	88.8	11.2
학력	고졸 이하	100.0	86.7	13.3
	대학 재학·휴학	100.0	88.5	11.5
	대학 졸업 이상	100.0	90.8	9.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이하, '이사 불필요')가 2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이하, '자산 증식')로 20.3%였다. 그 외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2.9%,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 14.0%,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10.7%, '노후 보장을 위해서' 12.1% 순이었다.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사 불필요'와 '자산 증식'은 각각 2.0%포인트, 1.3%포인트 낮아졌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지역별 응답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35〉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으므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구조변경, 인테리어 등)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기타	
전체	100.0	14.0	29.3	20.3	12.9	10.7	12.1	0.8	
성별	남자	100.0	13.7	28.5	22.1	14.7	10.1	9.9	0.9
	여자	100.0	14.3	30.2	18.2	10.9	11.3	14.6	0.6
연령	19~24세	100.0	11.4	26.2	19.4	14.3	13.2	14.5	1.0
	25~29세	100.0	15.2	28.5	20.1	12.9	10.7	12.0	0.6
	30~34세	100.0	15.3	33.0	21.2	11.6	8.3	9.9	0.8
지역 1	수도권	100.0	16.5	28.6	22.7	11.3	8.1	12.0	0.7
	비수도권	100.0	10.9	30.1	17.3	14.8	13.8	12.2	0.8
지역 2	서울	100.0	19.1	27.7	26.5	9.2	6.7	10.4	0.5*
	부산	100.0	12.0	30.7	20.1	11.4	12.3	12.6	0.9*
	대구	100.0	11.3	33.4	14.3	15.7	13.9	10.7	0.8*
	인천	100.0	11.4	29.3	15.4	12.4	12.5	17.1	1.9
	광주	100.0	10.6	22.5	22.7	24.4	7.9	12.0	0.0
	대전	100.0	8.9	26.6	15.6	20.2	14.0	13.3	1.4*
	울산	100.0	7.3	33.3	22.1	12.0	12.0	12.0	1.3*
	세종	100.0	10.9	30.0	18.5	9.4	14.9	15.7	0.5*
	경기	100.0	15.6	29.2	21.2	12.9	8.2	12.1	0.7*
	강원	100.0	12.8	30.9	14.8	7.1	20.7	13.4	0.2*
충북	100.0	10.2	28.3	18.3	15.8	14.6	11.7	1.1*	

구분	비율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으므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구조변경, 인테리어 등)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기타	
	충남	100.0	13.5	40.4	18.1	9.8	9.1	8.8	0.3*
	전북	100.0	11.6	26.3	13.7	17.9	13.4	15.6	1.5*
	전남	100.0	6.6	37.9	15.5	16.2	13.6	9.4	0.9*
	경북	100.0	10.5	24.4	20.1	18.0	14.3	12.3	0.2*
	경남	100.0	12.3	28.5	15.2	13.7	16.7	12.3	1.3*
	제주	100.0	8.8	24.0	12.1	12.0	22.4	19.2	1.5*
학력	고졸 이하	100.0	16.8	29.1	17.2	14.4	10.3	11.4	0.8*
	대학 재학·휴학	100.0	11.2	26.4	19.8	13.9	13.0	14.7	1.0
	대학 졸업 이상	100.0	14.2	30.3	21.2	12.2	10.0	11.4	0.7

n=13,544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로 4.40점이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로 3.29점이었다. 그 외 항목들은 대체로 4점대 초반이었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는 울산이 유일하게 2점대를 기록하였다(2.99점). 학력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표 3-2-36〉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이다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	
전체	4.31	4.40	4.08	4.05	4.28	3.29	
성별	남자	4.30	4.38	4.04	4.05	4.25	3.29
	여자	4.31	4.42	4.13	4.06	4.31	3.29
연령	19~24세	4.37	4.44	4.17	4.06	4.32	3.38
	25~29세	4.27	4.38	4.00	4.02	4.26	3.19
	30~34세	4.28	4.38	4.08	4.07	4.26	3.30
지역 1	수도권	4.30	4.39	4.07	4.03	4.27	3.31
	비수도권	4.31	4.41	4.10	4.07	4.29	3.27
지역 2	서울	4.27	4.39	4.02	3.98	4.28	3.31
	부산	4.35	4.47	4.09	4.11	4.32	3.29
	대구	4.28	4.43	4.08	4.14	4.30	3.23
	인천	4.26	4.36	4.11	4.01	4.30	3.05
	광주	4.41	4.41	4.19	4.09	4.36	3.77
	대전	4.18	4.33	3.90	4.02	4.12	3.01
	울산	4.15	4.27	3.92	3.96	4.15	2.99
	세종	4.25	4.35	3.86	4.08	4.28	3.14
	경기	4.35	4.40	4.10	4.08	4.26	3.37
	강원	4.36	4.45	4.10	4.10	4.36	3.06
	충북	4.23	4.37	4.08	4.14	4.13	3.24
	충남	4.30	4.39	4.03	4.03	4.26	3.36
	전북	4.54	4.60	4.23	4.26	4.54	3.41
	전남	4.31	4.41	4.32	4.11	4.35	3.16
	경북	4.32	4.44	4.11	4.13	4.37	3.37
	경남	4.27	4.37	4.16	3.92	4.27	3.24
제주	4.15	4.22	4.17	3.81	4.18	3.08	
학력	고졸 이하	4.21	4.30	4.01	3.97	4.21	3.22
	대학 재학·휴학	4.41	4.47	4.20	4.10	4.34	3.36
	대학 졸업 이상	4.30	4.40	4.06	4.06	4.28	3.2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이하 '자산')가 36.3%였으며 '취업 이후'가 26.4%였다. 다음 '결혼 이후' 17.9%,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13.2%였다.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1.9%였다. '출산'은 0.0%였다. 2022년도 조사 결과 중 주요 항목과 비교해 보면, '자산'은 27.8%에서 8.5%포인트 높아졌으며, 반면 '취업 이후'는 27.2%에서 0.8%포인트, '결혼 이후'는 23.1%에서 6.8%포인트 낮아졌다. 즉 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취업이나 결혼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주거 독립을 할 수 있는 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이 다소 높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과 '자산'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이 높아졌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자산' 비율이 높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모두에서 '자산'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2-37〉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

(단위: %)

구분	비율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							
		만 19세 이후	취업 이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결혼 이후	출산 이후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	100.0	4.2	26.4	36.3	17.9	0.0*	13.2	1.9	
성별	남자	100.0	4.8	29.4	35.1	16.4	0.0*	12.7	1.7
	여자	100.0	3.6	23.1	37.8	19.6	0.1*	13.8	2.1
연령	19~24세	100.0	4.4	28.1	38.6	13.6	0.0*	12.7	2.7
	25~29세	100.0	3.7	25.0	37.6	17.7	0.0*	14.2	1.8
	30~34세	100.0	4.5	26.2	32.9	22.2	0.0*	12.8	1.3
지역 1	수도권	100.0	3.6	23.6	39.9	18.8	0.0*	11.8	2.2
	비수도권	100.0	4.9	29.8	32.0	16.8	0.1*	14.9	1.5

구분	비율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							
		만 19세 이후	취업 이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결혼 이후	출산 이후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2	서울	100.0	4.6	24.8	38.3	18.4	0.0*	12.1	1.8
	부산	100.0	3.8	26.8	35.8	17.2	0.1*	14.6	1.6
	대구	100.0	5.5	24.7	38.1	14.3	0.1*	15.4	1.9
	인천	100.0	4.6	23.4	41.6	12.8	0.0	15.9	1.7
	광주	100.0	2.9	31.4	24.1	20.5	0.0	19.2	2.0*
	대전	100.0	6.7	30.6	36.1	14.5	0.0	10.4	1.6*
	울산	100.0	6.8	27.6	32.5	18.6	0.6*	12.4	1.6*
	세종	100.0	6.7	36.4	30.0	10.2	0.0	16.1	0.6*
	경기	100.0	2.5	22.7	40.9	20.4	0.0	10.7	2.7
	강원	100.0	5.1	32.2	35.6	12.3	0.0	13.6	1.3*
	충북	100.0	4.3	34.3	28.2	20.5	0.0	11.7	0.9*
	충남	100.0	3.5	23.9	29.0	16.1	0.1*	26.0	1.2*
	전북	100.0	2.8	36.3	29.7	11.8	0.0	17.8	1.7*
	전남	100.0	4.3	27.9	25.8	32.8	0.1*	7.4	1.6*
	경북	100.0	6.0	34.1	24.8	19.8	0.0	13.7	1.6
경남	100.0	6.3	31.3	36.0	11.2	0.0	13.6	1.6	
제주	100.0	7.1	25.5	35.4	16.8	0.0	14.7	0.4*	
학력	고졸 이하	100.0	6.0	23.4	35.7	17.3	0.0*	15.0	2.6
	대학 재학·휴학	100.0	4.6	31.0	36.8	13.2	0.1*	11.8	2.5
	대학 졸업 이상	100.0	3.5	25.7	36.4	19.6	0.0*	13.2	1.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을 물어본 결과,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75.7%였다. 2022년도 실태조사에서 73.1%인 것에 비해 2.6%포인트 높아졌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속 살고 싶다'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높은 85.3%이며, 경북이 가장 낮은 62.1%였다. 학력별

로는 대학 재학 및 휴학이 67.6%로 낮은 편이었으며, 그 외 고졸 이하 및 대학 졸업 이  
상은 평균보다 높았다.

〈표 3-2-38〉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계속 살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전체		100.0	75.7	24.3
성별	남자	100.0	75.6	24.4
	여자	100.0	75.7	24.3
연령	19~24세	100.0	70.4	29.6
	25~29세	100.0	77.3	22.7
	30~34세	100.0	79.1	20.9
지역 1	수도권	100.0	78.9	21.1
	비수도권	100.0	71.8	28.2
지역 2	서울	100.0	85.3	14.7
	부산	100.0	78.8	21.2
	대구	100.0	71.4	28.6
	인천	100.0	71.5	28.5
	광주	100.0	83.0	17.0
	대전	100.0	79.6	20.4
	울산	100.0	75.5	24.5
	세종	100.0	77.0	23.0
	경기	100.0	75.2	24.8
	강원	100.0	68.7	31.3
	충북	100.0	72.1	27.9
	충남	100.0	67.7	32.3
	전북	100.0	69.0	31.0
	전남	100.0	68.4	31.6
	경북	100.0	62.1	37.9
	경남	100.0	66.2	33.8
제주	100.0	68.1	31.9	
학력	고졸 이하	100.0	77.3	22.7
	대학 재학·휴학	100.0	67.6	32.4
	대학 졸업 이상	100.0	77.9	22.1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이하 ‘일자리’)가 3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이하 ‘주거환경’)가 20.2%,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이하 ‘문화’) 19.5% 등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일자리’가 29.6%였는데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해 ‘일자리’가, 여성의 경우 ‘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연령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높았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수도권은 ‘주거환경’이 높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특이점으로는 ‘일자리’는 부산(51.5%), 전북(61.0%)이 상당히 높았으며, ‘주거환경’은 서울(45.7%), ‘통학, 통근’은 경기(20.5%)가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은 ‘주거환경’, 대학 및 휴학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3-2-39〉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보육·의료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	기타	
전체	100.0	4.5	10.5	10.6	31.6	19.5	20.2	2.8	0.3*	
성별	남자	100.0	5.0	9.9	10.1	34.1	18.0	20.3	2.2	0.4*
	여자	100.0	3.9	11.2	11.1	28.8	21.1	20.0	3.5	0.3*
연령	19~24세	100.0	2.6	10.2	7.5	39.6	21.7	16.3	1.8	0.2*
	25~29세	100.0	4.6	12.2	8.6	30.0	19.0	21.3	3.7	0.7*
	30~34세	100.0	6.9	9.2	17.0	22.3	17.0	24.3	3.3	0.1*
지역 1	수도권	100.0	6.8	17.0	9.8	18.5	14.3	30.7	2.4	0.4*
	비수도권	100.0	2.3	4.6	11.3	43.5	24.2	10.6	3.2	0.3*
지역 2	서울	100.0	13.6	8.8	9.5	6.8	11.1	45.7	4.4*	0.0
	부산	100.0	6.2*	3.9*	4.6*	51.5	18.9	11.5	3.5*	0.0
	대구	100.0	2.2*	5.5	11.6	48.5	15.4	14.5	2.2*	0.0
	인천	100.0	4.3*	19.2	13.1	22.6	14.6	23.4	2.6*	0.3*
	광주	100.0	1.8*	2.3*	2.3*	56.3	13.4	21.9	1.9*	0.0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보육·의료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	기타	
	대전	100.0	3.9*	2.7*	5.3*	37.4	32.0	11.6	7.1*	0.0
	울산	100.0	5.4*	5.4*	10.5	35.6	24.1	10.2	8.5*	0.4*
	세종	100.0	12.0*	7.0*	11.0*	30.7	25.4	9.7*	4.2*	0.0
	경기	100.0	4.2	20.5	9.0	23.2	15.8	25.3	1.4*	0.6*
	강원	100.0	1.6*	6.9*	13.7	31.8	33.3	9.3	2.6*	0.9*
	충북	100.0	1.6*	6.2*	12.5	37.9	29.1	11.6	1.1*	0.0
	충남	100.0	0.2*	2.9*	16.9	40.7	25.7	10.3	3.3*	0.0
	전북	100.0	1.0*	3.2*	4.4*	61.0	23.8	5.9*	0.7*	0.0
	전남	100.0	1.6*	9.4*	13.3	35.9	25.7	9.1	4.9*	0.0
	경북	100.0	0.5*	2.0*	16.0	46.8	24.8	7.3	1.4*	1.1*
	경남	100.0	1.5*	5.9*	13.6	38.2	26.0	10.0	4.3*	0.4*
	제주	100.0	4.1*	3.7*	15.2	39.7	25.2	9.1	2.4*	0.7*
학력	고졸 이하	100.0	5.8	6.3	9.8	29.2	21.0	23.5	4.1	0.3*
	대학 재학·휴학	100.0	2.4	10.3	8.9	42.0	18.9	15.7	1.6*	0.2*
	대학 졸업 이상	100.0	5.1	11.9	11.6	27.2	19.3	21.4	3.0	0.4*

n=4,024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2. 소결

### 가. 부모와의 동거

먼저 주요 결과로, 부모와의 동거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4.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점차 낮아져 30~34세가 되면 약 30%가 된다. 결과적으로 약 70%가 청년 연령대에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비율이 38.0%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 또한 이 경향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높다. 독립하려는 이유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4%로 가장 크다. 그리고 통학통근이 22.0%로 뒤를 잇는다. 독립을 하려는 계획이 없는 경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60.5%이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이유 중 '특별한 이유 없음'도 22.9%로 적지 않은 청년이 독립할 만한 구체적 동기가 없다는 점도 염두에 뒤야 한다.

한편, 독립한 청년이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1순위)로 '통학통근'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저렴한 주거비'였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학교와 직장 입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결과이다. 이는 교육 및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다음은 현재 거주하는 주거 및 주거환경의 실태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는 부모가 57.6%이다. 특히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경우 85.9%가 해당한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점유 유형으로 자가 49.6%이며, 전세 23.8%, 보증금 있는 월세가 23.8%이다. 2022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자가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 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분명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관련 분야의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유형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비율도 높다. 고시원의 비율은 0.1%이다.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등 적절치 않은 주택 위치의 비율은 1.0%인데, 서울은 2.4%로 가장 높았다. 평균 면적은 주택 전체는 77.83㎡이며, 본인 방은 15.79㎡이다. 그 외 부엌이나 화장실, 샤워 시설, 냉난방 시설, 출입구 등 주택 내부 시설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거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부모 동거 가구인 청년과 함께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 유형이나 주거 유형의 비율, 적절치 않은 주택 비율 등은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뒤야 한다. 열악한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

해서는 별도의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주거비 부담 및 주택 마련

먼저, 주거비 관련 중위값 수치를 중심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부모님 명의 포함) 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가 주택 가격은 중위값이 1억 원 낮아졌는데 평균도 약 7천만 원 낮아졌다. 또한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데, 자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평균에 비해 약 2배, 중위값은 1.7배 높고, 가장 낮은 경북에 비해서는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보증금 있는 월세라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평균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여야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부담 주체는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비율이 60%를 넘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자금 등은 7%를 넘지 못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의 공공 역할 강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정부 정책(1순위)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31.3%)인데, 이 비율은 2022년도 조사 결과인 41.0%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대신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가 다소 높아졌다. 그 원인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라. 주거 인식과 불안정 주거 경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은 71.7%이며, 이는 2022년도의 63.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6%로 2022년의 91.3%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90%에 가깝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점수가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주거 불안 상황 경험률은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이 5.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 신규로 포함된 '전세 사기'는 1.3%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주거 불안 청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결혼이나 출산, 취업 등 생애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산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견된다. 현재의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은 서울이 가장 높

다.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일자리 또는 구직을 위한 답변이 가장 높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공통된 결과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도 하면서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으며, 자가 소유의 필요성으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으므로'라는 점유 안정성을 꼽는 인식을 보인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경험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주거 불안은 '자가 소유 필요성'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고, 자가 소유가 반드시 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거 불안을 불식시켜주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를 위해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주거 안정의 희망과 현실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주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일자리와 교육의 제공,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청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건강 습관이 형성되어 이후 생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의 건강 영역에서는 청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설문 문항과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청년의 건강 행태 실태 파악을 위해 흡연, 음주, 운동, 식이 등을 조사하였고,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우울감 유병률, 자살 생각, 소진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청년기의 특징적인 건강 위해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약물 사용, 스마트폰 사용, 성 건강 관련 실태를 함께 조사하였다.

특히, 2024년 조사부터는 약물 사용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약물을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피임 관련 문항을 새로 추가하여 청년기 성 건강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분석 결과

### 가. 흡연

흡연은 담배잎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과 발암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비만 등과 함께 주요 건강위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문옥륜 외, 2020, p. 86). 그동안 전 세계적인 금연 정책의 실시로 흡연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었으나, 최근 주요 선진국의 흡연율 감소세는 점차 정체되고 있다(문옥륜 외, 2020, p. 86). 청년의 현재 흡연율은 23.5%로 지난 2022년 조사 결과(20.1%)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37.7%, 여성 7.7%로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남성은 4.4%포인트, 여성은 2.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 구간에서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흡연율이 42.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현재 흡연율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흡연 여부	
			현재 흡연 (매일 피운다+가끔 피운다)	현재 비흡연
전체		100.0	23.5	76.5
성별	남성	100.0	37.7	62.3
	여성	100.0	7.7	92.3
연령	19~24세	100.0	20.1	79.9
	25~29세	100.0	25.6	74.4
	30~34세	100.0	24.6	75.4
지역 1	수도권	100.0	23.4	76.6
	비수도권	100.0	23.5	76.5
지역 2	서울	100.0	22.6	77.4
	부산	100.0	22.9	77.1
	대구	100.0	21.3	78.7
	인천	100.0	25.2	74.8
	광주	100.0	21.2	78.8
	대전	100.0	26.2	73.8

구분	비율	현재 흡연 여부		
		현재 흡연 (매일 피운다+가끔 피운다)	현재 비흡연	
울산	100.0	24.5	75.5	
세종	100.0	9.9	90.1	
경기	100.0	23.7	76.3	
강원	100.0	22.6	77.4	
충북	100.0	32.3	67.7	
충남	100.0	25.2	74.8	
전북	100.0	19.6	80.4	
전남	100.0	23.9	76.1	
경북	100.0	22.9	77.1	
경남	100.0	23.3	76.7	
제주	100.0	25.3	74.7	
학력	고졸 이하	100.0	42.6	57.4
	대학 재학·휴학	100.0	18.7	81.3
	대학 졸업 이상	100.0	19.7	80.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회적인 금연 열풍 속에서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은 금연 대신 신종 전자담배<sup>5)</sup>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쉐련과 신종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쉐련형 전자담배에도 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인 니코틴 및 주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액상형이나 쉐련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공인된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박경민, 2024. 5. 16.). 이와 같이 신종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비롯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에 포함된 용매나 향료 등이 갖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주의

5)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말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023).

가 필요하다(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지식센터, 2024, p. 3).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68.6%는 궤련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8.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4.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의 조사 결과에 비해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2.3%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흡연자 중 궤련담배 사용자는 59.6%로 낮았고, 대신 31.2%는 궤련형 전자담배를, 21.5%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중복 응답)

(단위: %)

구분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중복 응답)			
		일반 담배(궤련)	궤련형 전자담배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 담배
전체		68.6	28.6	14.7	0.5*
성별	남성	70.2	28.2	13.5	0.5*
	여성	59.6	31.2	21.5	0.3*
연령	19~24세	71.4	26.9	15.3	0.4*
	25~29세	67.0	27.8	16.1	0.6*
	30~34세	68.0	30.9	12.9	0.4*
지역 1	수도권	66.9	29.4	15.1	0.3*
	비수도권	70.6	27.7	14.2	0.6*
학력	고졸 이하	73.6	25.0	13.8	0.4*
	대학 재학·휴학	69.5	27.6	17.4	0.3*
	대학 졸업 이상	65.2	31.2	14.4	0.5*

=15,098

- ※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중복 응답을 제외하고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자는 41.3%로 조사되었다. 인구집단 별로는 여성 50.4%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5~29세 42.4%, 지역별로는 수도권 42.5%, 광역시도별로는 세종 61.3%, 울산 50.3%,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43.7%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3〉 현재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흡연자 중 전자담배 사용 여부	
		전자담배 사용	전자담배 비사용
전체	100.0	41.3	58.7
성별	남성	39.6	60.4
	여성	50.4	49.6
연령	19~24세	39.4	60.6
	25~29세	42.4	57.6
	30~34세	41.5	58.5
지역 1	수도권	42.5	57.5
	비수도권	39.7	60.3
지역 2	서울	42.1	57.9
	부산	46.1	53.9
	대구	47.1	52.9
	인천	45.9	54.1
	광주	37.1	62.9
	대전	44.0	56.0
	울산	50.3	49.7
	세종	61.3	38.7
	경기	42.1	57.9
	강원	32.7	67.3
	충북	40.9	59.1
	충남	33.0	67.0
	전북	44.4	55.6
	전남	32.6	67.4
	경북	29.4	70.6
	경남	39.0	61.0
	제주	27.7	72.3
학력	고졸 이하	37.1	62.9
	대학 재학·휴학	41.5	58.5
	대학 졸업 이상	43.7	56.3

n=3,3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위험 음주

한국 사회에서 음주는 일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이 거의 무규범화되어 있다(문옥륜 외, 2020, p. 2). 많은 사람이 위험음주를 하면서도 과도한 음주가 초래하는 위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음주는 간 질환, 소화기 암, 췌장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높이는 원인이며, 사고·손상, 주취 폭력, 자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방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옥륜 외, 2020, p. 2).

2024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최근 1년간 금주한 사람’과 ‘평생 금주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보기 항목을 보완하여 조사하였다.

〈표 3-3-4〉 최근 1년간 음주 경험 문항 변경 내용

기존	변경
C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정도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C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정도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⑦ 평생 술을 마신 적 없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로 정의된다(질병관리청, 2023, p. 25). 청년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11.0%, 여성 7.3%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남성은 30~34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5~29세 집단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남성 14.7%, 여성 1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12.7%, 여성 9.3%로 나타났으며, 2022년 남성 12.6%, 여성 9.8%에 비해 남성은 비슷하였고, 여성은 약간 감소하였다.

〈표 3-3-5〉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1.0	7.3	12.7	9.3
연령	19~24세	8.8	6.7	10.5	8.4
	25~29세	11.1	8.2	12.8	10.1
	30~34세	12.9	7.1	14.7	9.4
지역 1	수도권	10.8	7.0	12.4	8.7
	비수도권	11.1	7.8	13.1	10.2
지역 2	서울	9.9	5.8	11.8	7.6
	부산	8.2	9.2	9.1	11.1
	대구	8.6	6.6	10.0	8.7
	인천	15.7	13.1	17.5	15.4
	광주	12.5	5.8	14.6	7.6
	대전	13.5	11.8	16.5	14.5
	울산	12.9	11.7	15.2	15.1
	세종	11.4	11.4	13.6	13.5
	경기	10.4	6.7	11.8	8.1
	강원	10.5	6.8	12.7	8.8
	충북	18.9	8.9	20.5	10.1
	충남	6.1	6.2	7.1	8.8
	전북	10.0	3.8	12.1	5.3
	전남	9.3	4.5	10.8	7.2
	경북	11.9	7.8	13.8	10.2
	경남	12.2	7.9	15.9	10.8
학력	제주	19.4	12.1	21.7	15.9
	고졸 이하	14.7	10.4	18.1	13.5
	대학 재학·휴학	8.6	5.6	9.9	7.0
	대학 졸업 이상	10.5	7.2	12.0	9.1

고위험 음주율 n=15,098,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n=12,33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율'로 정의된다(질병관리청, 2023, p. 71). 청년의 월간 폭음률은 남성 49.2%, 여성 35.4%로 나타났는

데, 이를 19세 이상 전체 인구의 월간 폭음률(남성 48.8%, 여성 25.9%)(질병관리청, 2023, p. 24)과 비교하면 남성은 유사하였으나 여성은 9.5%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월간 폭음률

(단위: %)

구분		월간 폭음률	
		남성	여성
전체		49.2	35.4
연령	19~24세	42.9	36.2
	25~29세	50.4	38.2
	30~34세	54.1	31.7
지역 1	수도권	50.8	36.1
	비수도권	47.4	34.3
지역 2	서울	46.6	30.7
	부산	51.0	38.9
	대구	45.6	34.2
	인천	54.9	47.1
	광주	43.1	28.0
	대전	51.3	40.1
	울산	51.9	39.7
	세종	44.5	38.8
	경기	53.0	38.5
	강원	41.6	30.6
	충북	62.2	41.7
	충남	39.1	24.1
	전북	40.5	35.8
	전남	46.0	22.2
	경북	51.4	34.0
	경남	42.5	36.4
제주	59.7	35.7	
학력	고졸 이하	47.0	38.5
	대학 재학·휴학	43.8	34.3
	대학 졸업 이상	52.3	35.0

n=12,333(지난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거나 평생 술을 마신 적 없는 사람 제외)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운동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일부의 암은 모두 신체활동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정세정 외, 2022, p. 184). 이처럼 신체활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국민 중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세정 외, 2022, p. 184).

청년 인구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성 39.2%, 여성 27.1%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남성은 1.6%포인트 증가하였고 여성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7.9%, 여성 24.2%로 2022년의 남성 22.7%, 30.3%와 비교하여 각각 4.8%포인트, 6.1%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졌으며, 이는 러닝, 헬스 등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7〉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평소 규칙적인 운동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운동실천율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전체	100.0	20.9	17.9	27.8	33.4	23.7	9.8	
성별	남성	100.0	17.9	15.6	27.3	39.2	26.0	13.2
	여성	100.0	24.2	20.5	28.3	27.1	21.1	6.0
연령	19~24세	100.0	22.8	17.6	26.2	33.4	22.7	10.7
	25~29세	100.0	18.6	18.4	29.0	34.0	24.3	9.6
	30~34세	100.0	21.2	17.8	28.1	32.9	23.9	9.0
지역 1	수도권	100.0	21.2	17.1	27.8	33.9	24.4	9.5
	비수도권	100.0	20.5	19.0	27.7	32.8	22.8	10.0
지역 2	서울	100.0	23.7	17.4	26.0	32.9	23.2	9.7
	부산	100.0	21.9	20.8	29.1	28.2	17.1	11.1
	대구	100.0	20.9	21.5	26.9	30.7	21.6	9.1
	인천	100.0	20.0	18.9	29.8	31.3	23.0	8.3
	광주	100.0	18.3	14.8	29.2	37.7	25.1	12.6
대전	100.0	17.3	20.6	28.1	34.0	23.9	10.1	

구분	비율	평소 규칙적인 운동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운동실천율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지역	울산	100.0	21.8	17.0	28.9	32.3	22.1	10.1
	세종	100.0	15.1	19.5	33.9	31.5	20.8	10.7
	경기	100.0	19.4	16.4	28.8	35.3	25.7	9.6
	강원	100.0	21.1	20.8	24.3	33.7	23.7	10.0
	충북	100.0	13.8	19.3	32.7	34.3	27.2	7.0
	충남	100.0	25.9	14.2	31.2	28.8	25.3	3.5
	전북	100.0	22.0	16.4	23.5	38.2	22.8	15.3
	전남	100.0	21.6	18.9	30.5	29.0	19.2	9.8
	경북	100.0	25.4	21.2	23.2	30.2	20.4	9.8
	경남	100.0	17.2	18.4	25.7	38.7	26.4	12.3
학력	제주	100.0	17.5	21.6	25.0	35.9	28.0	7.9
	고졸 이하	100.0	29.1	19.0	25.5	26.4	17.3	9.1
	대학 재학·휴학	100.0	21.1	17.1	27.2	34.6	23.7	10.9
	대학 졸업 이상	100.0	18.5	17.9	28.6	35.0	25.4	9.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의 물리적 환경, 지역 내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사회경제적 환경, 직장 등의 근무 여건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신체활동 증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45.4%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38.7%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우 '비용이 부담돼서'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비용이 부담돼서'가 많았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장소가 없어서'나 '나에게 맞는 운동프로그램이 없어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3-8〉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							
		운동할 시간이 내기가 어려워서	장소가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100.0	45.4	2.9	8.5	2.7	1.8	38.7	0.0	
성별	남성	100.0	47.1	2.5	7.5	2.4	1.8	38.7	0.0
	여성	100.0	44.0	3.2	9.3	2.9	1.8	38.7	0.0
연령	19~24세	100.0	31.5	2.8	9.8	2.9	1.3	51.6	0.0
	25~29세	100.0	47.7	3.2	9.5	2.9	1.7	35.1	0.0
	30~34세	100.0	57.7	2.8	6.2	2.3	2.4	28.5	0.0
지역 1	수도권	100.0	46.9	1.8	8.1	1.9	1.9	39.4	0.0
	비수도권	100.0	43.5	4.2	9.0	3.6	1.7	37.9	0.0
지역 2	서울	100.0	45.9	0.9	7.1	1.7	2.1	42.3	0.0
	부산	100.0	34.2	3.6	11.1	4.7	1.6	44.7	0.0
	대구	100.0	38.4	2.9	8.6	4.7	3.1	42.2	0.0
	인천	100.0	46.5	3.2	16.8	3.3	3.2	27.0	0.0
	광주	100.0	33.0	1.1	8.2	2.0	0.5	55.2	0.0
	대전	100.0	42.6	0.0	8.4	1.8	1.6	45.6	0.0
	울산	100.0	47.5	4.7	10.0	1.8	0.0	36.1	0.0
	세종	100.0	53.3	1.7	5.8	1.1	3.2	34.9	0.0
	경기	100.0	47.9	2.5	7.3	1.9	1.3	39.2	0.0
	강원	100.0	45.1	2.0	4.7	4.9	2.0	41.3	0.0
	충북	100.0	35.8	7.4	9.1	3.6	3.3	40.8	0.0
	충남	100.0	51.3	10.1	17.2	0.9	1.9	18.6	0.0
	전북	100.0	47.2	3.9	5.3	5.4	1.3	36.4	0.5
	전남	100.0	53.2	2.9	3.3	7.6	1.8	31.3	0.0
	경북	100.0	43.7	6.0	7.1	3.6	0.7	39.0	0.0
	경남	100.0	48.9	4.1	9.1	3.0	2.1	32.9	0.0
제주	100.0	58.3	2.5	7.4	1.2	3.0	27.7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45.1	2.7	10.7	2.4	3.8	35.2	0.0
	대학 재학·휴학	100.0	26.9	2.5	9.8	3.8	1.0	56.0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52.6	3.1	7.0	2.4	1.2	33.6	0.0

n=3,146(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식사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패스트푸드 섭취가 보편화되고 편의점 등에서의 도시락 판매가 증가하면서 외식이나 매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스스로 식사를 만드는 번거로움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식이나 매식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식생활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식 및 매식 빈도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회상 기간(변경 전: 1년, 변경 후: 1달)과 보기 항목을 수정하였다.

〈표 3-3-9〉 외식 및 매식 빈도 문항 변경 내용

기존	변경
C5.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에 외식이나 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제외하고 응답) ① 하루 2회 이상 ② 하루 1회 ③ 주 5~6회 ④ 주 3~4회 ⑤ 주 1~2회 ⑥ 전혀 안 했다	C4. 귀하는 최근 1달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에 외식이나 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제외하고 응답) ① 거의 매 끼니마다 ② 하루 1회 정도 ③ 주 3~4회 정도 ④ 한 달에 3~4번 정도 ⑤ 거의 안 했다

청년 중 절반 이상(50.6%)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한다는 청년의 비율은 10.0%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8.8%)에 비해 남성(11.1%)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집단에서는 하루에 1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비율이 1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3-3-10〉 외식 또는 매식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외식 또는 매식 빈도					
		거의 매 끼니마다	하루 1회 정도	주 3~4회 정도	한 달에 3~4회 정도	거의 안 했다	
전체	100.0	2.2	7.8	29.1	50.6	10.3	
성별	남성	100.0	2.6	8.5	29.8	48.6	10.5
	여성	100.0	1.8	7.0	28.3	52.8	10.0
연령	19~24세	100.0	2.1	8.2	28.9	50.5	10.3
	25~29세	100.0	2.6	7.6	29.6	50.2	10.0
	30~34세	100.0	2.0	7.6	28.8	51.0	10.6
지역 1	수도권	100.0	2.0	7.5	28.9	51.2	10.4
	비수도권	100.0	2.6	8.2	29.3	49.8	10.1
지역 2	서울	100.0	2.4	7.5	26.0	53.0	11.2
	부산	100.0	3.1	8.8	31.9	48.5	7.7
	대구	100.0	3.2	7.1	25.9	51.6	12.1
	인천	100.0	2.0	6.6	28.6	52.0	10.8
	광주	100.0	1.1*	4.7	28.0	56.6	9.7
	대전	100.0	2.6	16.6	39.1	34.7	7.0
	울산	100.0	3.5	6.5	29.4	50.6	10.0
	세종	100.0	4.5*	9.4	31.8	43.5	10.8
	경기	100.0	1.6	7.7	31.3	49.6	9.8
	강원	100.0	2.5	6.1	32.2	47.3	11.9
	충북	100.0	2.5	7.4	33.9	47.9	8.4
	충남	100.0	1.5*	8.1	20.0	58.7	11.6
	전북	100.0	2.0	8.0	31.5	43.9	14.6
	전남	100.0	1.8*	10.1	22.9	51.5	13.8
	경북	100.0	2.5	7.5	27.9	53.8	8.3
	경남	100.0	2.9	7.3	27.8	52.5	9.5
제주	100.0	3.7	6.6	34.9	46.7	8.2	
학력	고졸 이하	100.0	3.4	9.7	30.1	46.4	10.4
	대학 재학·휴학	100.0	1.8	8.3	29.2	50.5	10.1
	대학 졸업 이상	100.0	2.1	7.1	28.8	51.8	10.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최근 1달 동안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에 대해 청년들의 22.9%는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혼자 식사하는 비율인 20.6%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중 24.9%, 여성 중 20.7%가 대체로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응

답하였고, 그 외 25~29세 연령 집단(25.9%), 고졸 이하 학력에서 혼자 식사하는 비율(25.9%)이 높았다.

〈표 3-3-11〉 최근 1달 동안 함께 식사한 사람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달 동안 함께 식사한 사람		
			대체로 가족과 식사	대체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	대체로 혼자 식사
전체		100.0	52.4	24.7	22.9
성별	남성	100.0	49.2	25.9	24.9
	여성	100.0	55.9	23.4	20.7
연령	19~24세	100.0	54.2	24.7	21.0
	25~29세	100.0	46.4	27.7	25.9
	30~34세	100.0	56.6	21.6	21.8
지역 1	수도권	100.0	49.8	27.1	23.1
	비수도권	100.0	55.5	21.8	22.7
지역 2	서울	100.0	48.9	22.0	29.0
	부산	100.0	52.8	21.1	26.1
	대구	100.0	52.1	20.0	27.9
	인천	100.0	53.8	19.6	26.7
	광주	100.0	57.0	24.7	18.3
	대전	100.0	55.0	20.7	24.3
	울산	100.0	54.5	18.5	27.1
	세종	100.0	50.2	21.9	27.9
	경기	100.0	49.6	32.9	17.5
	강원	100.0	57.6	22.7	19.7
	충북	100.0	55.0	25.6	19.4
	충남	100.0	58.8	21.3	19.9
	전북	100.0	61.7	21.2	17.1
	전남	100.0	61.6	20.2	18.2
	경북	100.0	52.3	24.6	23.2
	경남	100.0	55.2	21.3	23.5
제주	100.0	54.8	20.1	25.2	
학력	고졸 이하	100.0	51.3	22.8	25.9
	대학 재학·휴학	100.0	55.0	24.7	20.3
	대학 졸업 이상	100.0	51.8	25.2	23.0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소진

최근 청년들은 입시, 학업, 스펙 쌓기,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경쟁 유도 사회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다(정세정 외, 2022, p. 191). 이렇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해져 과거에 비해 소진(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정세정 외, 2022, p. 191).

소진은 생산성 저하, 업무 불만족, 이직 등의 직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 근육통, 두통, 만성 피로, 사고 및 조기 사망, 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엽, 2020).

청년층의 32.2%는 최근 1년 동안 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8.6%)에 비해 여성(36.2%)의 소진 경험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34.8%)에서,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34.1%) 집단에서 소진 경험률이 높았다.

〈표 3-3-12〉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00.0	32.2	67.8
성별	남성	28.6	71.4
	여성	36.2	63.8
연령	19~24세	29.7	70.3
	25~29세	34.8	65.2
	30~34세	31.9	68.1
지역 1	수도권	31.3	68.7
	비수도권	33.3	66.7
지역 2	서울	28.1	71.9
	부산	39.2	60.8
	대구	37.4	62.6
	인천	50.6	49.4
	광주	12.7	87.3
	대전	39.6	60.4
	울산	42.0	58.0
	세종	58.5	41.5
	경기	29.7	70.3
강원	33.5	66.5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예	아니오	
지역	충북	100.0	29.8	70.2
	충남	100.0	23.8	76.2
	전북	100.0	20.2	79.8
	전남	100.0	30.2	69.8
	경북	100.0	30.1	69.9
	경남	100.0	41.0	59.0
	제주	100.0	48.8	51.2
학력	고졸 이하	100.0	28.2	71.8
	대학 재학·휴학	100.0	29.7	70.3
	대학 졸업 이상	100.0	34.1	65.9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청년의 소진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9.1%),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가 과중해서’(18.4%),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15.6%), ‘현재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와 삶의 불균형 때문에’(11.6%),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이유 중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은 19~24세 연령 집단(54.8%)과 대학 재학·휴학인 학력 집단(56.3%)에서 가장 많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는 30~34세 연령 집단(22.2%)과, 대학 재학·휴학 집단(2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 명 중 한 명꼴로 지난 1년간 소진을 경험하였고, 소진 이유에 대한 응답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청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표 3-3-13〉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기타	
전체	100.0	39.1	18.4	15.6	11.6	5.0	9.9	0.4	
성별	남성	100.0	42.2	17.1	15.5	11.3	4.6	8.9	0.5*
	여성	100.0	36.4	19.6	15.7	11.9	5.4	10.7	0.3*
연령	19~24세	100.0	54.8	16.9	11.6	6.8	4.5	5.4	0.1*
	25~29세	100.0	41.5	16.3	17.0	11.1	4.6	9.3	0.3*
	30~34세	100.0	22.3	22.2	17.8	16.6	5.9	14.6	0.7*
지역 1	수도권	100.0	39.1	18.4	15.5	11.7	4.5	10.5	0.2*
	비수도권	100.0	39.1	18.5	15.7	11.5	5.6	9.1	0.5
지역 2	서울	100.0	39.0	20.3	13.6	12.8	4.0	10.3	0.1*
	부산	100.0	42.8	17.2	19.4	8.2	4.9*	7.4	0.2*
	대구	100.0	41.3	18.7	17.3	10.0	6.0	5.3	1.3*
	인천	100.0	38.1	16.6	17.7	11.1	3.8	12.7	0.0
	광주	100.0	50.7	18.5	9.4*	13.4	3.5*	4.4*	0.0
	대전	100.0	37.3	20.7	11.5	14.1	7.3	9.2	0.0
	울산	100.0	37.6	18.2	15.1	14.8	2.0*	11.2	1.1*
	세종	100.0	37.8	23.8	10.6	11.9	4.1*	11.8	0.0
	경기	100.0	39.6	17.6	16.3	11.1	5.2	9.9	0.3*
	강원	100.0	32.7	20.3	20.3	10.0	7.4	9.2	0.0
	충북	100.0	39.2	20.6	10.3	7.9	8.9	11.7	1.4*
	충남	100.0	35.3	21.8	12.9	14.1	4.3*	11.2	0.5*
	전북	100.0	38.7	18.0	11.3	13.5	5.6*	11.9	1.0*
	전남	100.0	38.7	16.6	16.3	13.6	7.0*	7.8	0.0
	경북	100.0	36.8	18.3	17.5	12.3	7.2	7.8	0.1*
	경남	100.0	38.6	16.4	16.1	11.7	4.6	11.8	0.8*
제주	100.0	39.4	13.8	18.3	13.4	3.2*	11.0	1.0*	
학력	고졸 이하	100.0	38.1	13.8	15.3	14.5	6.1	11.9	0.3*
	대학 재학·휴학	100.0	56.3	20.0	10.2	6.6	3.7	3.0	0.3*
	대학 졸업 이상	100.0	34.3	19.1	17.3	12.4	5.2	11.4	0.4

n=5,02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바. 정신건강

2022년 우리나라 우울증 진료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으며(100만 744명), 이 중 20대가 18만 5,942명(18.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서한기, 2023. 10. 3).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사람은 20대 여성으로 12만 1,534명(12.1%)으로 나타난 바 있다(서한기, 2023. 10. 3).

이 조사에서는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여 우울 증상 유병률<sup>6)</sup>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나 2022년의 6.1%와 비교하여 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7.2%, 여자 10.7%로 여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3.5%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에서 10.1%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11.8%로 가장 높았다.

〈표 3-3-14〉 우울 증상 유병률

(단위: %)

구분		우울 증상 유병률
전체		8.8
성별	남성	7.2
	여성	10.7
연령	19~24세	7.2
	25~29세	10.1
	30~34세	9.2
지역 1	수도권	8.9
	비수도권	8.7

6) PHQ-9 측정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으로 간주함

구분		우울 증상 유병률
지역 2	서울	7.5
	부산	7.9
	대구	7.9
	인천	17.8
	광주	2.7
	대전	11.1
	울산	10.2
	세종	18.7
	경기	8.2
	강원	8.2
	충북	11.9
	충남	6.8
	전북	6.1
	전남	6.5
	경북	8.5
	경남	11.5
	제주	15.0
학력	고졸 이하	11.8
	대학 재학·휴학	6.4
	대학 졸업 이상	8.8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고,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4. 10. 4. p. 17).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9%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2.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2.0%, 여성 3.9%로 여성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3.3%, 30~34세 3.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4.7%로 높게 나타났는데,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3.2%와 비교하여 1.5%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3-3-1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예	아니오
전체		100.0	2.9	97.1
성별	남성	100.0	2.0	98.0
	여성	100.0	3.9	96.1
연령	19~24세	100.0	2.1	97.9
	25~29세	100.0	3.3	96.7
	30~34세	100.0	3.2	96.8
지역 1	수도권	100.0	2.8	97.2
	비수도권	100.0	3.1	96.9
지역 2	서울	100.0	2.4	97.6
	부산	100.0	4.1	95.9
	대구	100.0	1.7	98.3
	인천	100.0	7.4	92.6
	광주	100.0	0.7*	99.3
	대전	100.0	5.1	94.9
	울산	100.0	3.3	96.7
	세종	100.0	5.9	94.1
	경기	100.0	2.1	97.9
	강원	100.0	3.7	96.3
	충북	100.0	1.3	98.7
	충남	100.0	1.9	98.1
	전북	100.0	2.5	97.5
	전남	100.0	2.1	97.9
	경북	100.0	2.4	97.6
경남	100.0	4.5	95.5	
제주	100.0	9.0	91.0	
학력	고졸 이하	100.0	4.7	95.3
	대학 재학·휴학	100.0	2.0	98.0
	대학 졸업 이상	100.0	2.7	97.3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이와 같이 청년들은 불안과 우울 증가로 인한 정신상담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정세정 외, 2022, p. 204). 본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청년의 6.3%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남자(3.7%)에 비해 여자(9.0%)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7.3%)에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6.9%)에서 높았다.

〈표 3-3-16〉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단위: %)

구분	비율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예	아니오
전체	100.0	6.3	93.7
성별	남성	3.7	96.3
	여성	9.0	91.0
연령	19~24세	4.6	95.4
	25~29세	7.3	92.7
	30~34세	6.8	93.2
지역 1	수도권	6.4	93.6
	비수도권	6.2	93.8
지역 2	서울	6.7	93.3
	부산	5.6	94.4
	대구	5.0	95.0
	인천	14.8	85.2
	광주	3.5*	96.5
	대전	6.7	93.3
	울산	9.3	90.7
	세종	7.8*	92.2
	경기	4.0	96.0
	강원	7.9	92.1
	충북	3.7	96.3
	충남	5.6	94.4
	전북	3.8*	96.2
	전남	3.1*	96.9
	경북	6.2	93.8
	경남	9.3	90.7
	제주	8.6	91.4
학력	고졸 이하	6.9	93.1
	대학 재학·휴학	5.1	94.9
	대학 졸업 이상	6.5	93.5

n=6,93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17.7%),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15.3%),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7〉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단위: %)

구분	비율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주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혼자 가기 어려워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기타	
전체	100.0	15.3	5.5	6.7	38.6	11.7	17.7	4.3	0.2*	
성별	남자	100.0	17.8	7.9*	5.4*	30.3	13.5	20.9	4.2*	0.0
	여자	100.0	14.2	4.4	7.3	42.2	10.9	16.3	4.3	0.3*
연령	19~24세	100.0	8.6*	5.9*	6.0*	34.9	11.3*	22.9	10.4*	0.0
	25~29세	100.0	16.2	3.4*	6.4	43.1	10.2	17.0	3.2*	0.4*
	30~34세	100.0	18.4	7.5*	7.5*	35.9	13.5	15.4	1.7*	0.1*
지역 1	수도권	100.0	16.1	4.9*	3.2*	45.9	10.6	16.1	3.1*	0.0
	비수도권	100.0	14.3	6.1	11.0	29.7	13.0	19.7	5.7	0.5*
학력	고졸 이하	100.0	15.1	3.3*	10.6*	40.7	8.6*	17.2	4.5*	0.0
	대학 재학·휴학	100.0	7.6*	5.7*	2.6*	41.9	13.0*	18.5	10.7*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17.3	6.1	6.5	37.1	12.3	17.7	2.6*	0.3*

n=494(정신건강 관련 미충족 의료가 없었던 사람 14,604명 제외)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사. 중독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을 한 청년은 19.9%로 조사되었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20.2%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남성(17.6%)보다는 여성(22.5%)에서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위

험이 높아 19~24세 집단에서 22.2%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재학·휴학 집단이 24.8%로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3-3-18〉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 등)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이 어렵거나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2.5	17.4	50.5	29.6	
성별	남성	100.0	2.1	15.4	51.7	30.7
	여성	100.0	2.9	19.6	49.2	28.3
연령	19~24세	100.0	2.7	19.5	50.8	27.0
	25~29세	100.0	2.6	16.7	51.0	29.7
	30~34세	100.0	2.1	16.2	49.7	32.0
지역 1	수도권	100.0	2.6	17.7	51.0	28.8
	비수도권	100.0	2.4	17.2	49.9	30.5
지역 2	서울	100.0	2.7	16.9	49.0	31.4
	부산	100.0	2.9	20.7	52.8	23.7
	대구	100.0	2.5	18.9	49.9	28.7
	인천	100.0	3.9	22.7	46.4	27.0
	광주	100.0	0.4*	8.9	58.9	31.7
	대전	100.0	2.5	20.4	45.6	31.5
	울산	100.0	3.2	19.5	42.3	35.0
	세종	100.0	5.8	35.4	36.3	22.4
	경기	100.0	2.1	17.2	53.6	27.0
	강원	100.0	1.3*	15.7	42.4	40.7
	충북	100.0	1.5*	21.0	48.8	28.7
	충남	100.0	1.5	11.4	49.2	37.9
	전북	100.0	2.2	11.2	50.9	35.6
	전남	100.0	2.6*	12.3	46.9	38.2
	경북	100.0	2.7	15.6	53.7	28.0
	경남	100.0	3.3	19.7	51.4	25.7
제주	100.0	3.7	21.7	51.7	22.9	
학력	고졸 이하	100.0	2.3	14.6	51.3	31.7
	대학 재학·휴학	100.0	3.0	21.8	50.1	25.1
	대학 졸업 이상	100.0	2.3	16.7	50.4	30.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경제 여건의 악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 세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취업 경쟁과 심리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등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다(장수미, 경수영, 2013, p. 518). 이에 따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집중하거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세정 외, 2022, p. 200).

또한 최근에는 ‘살 빼는 약,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져 있는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인터넷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약물중독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심예은, 2024. 3.27).

이에 따라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 등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 사용 실태와 오남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청년 중 약물 사용 경험은 수면제 4.2%, 신경안정제 4.2%, 각성제 1.2%, 마약성 진통제 1.0%, 식이·체중 조절 약물 5.1%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약물 사용이 더 많았는데, 특히 여성 중 9.3%는 식이·체중 조절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면제 47.2%, 신경안정제 61.3%, 각성제 58.8%, 마약성 진통제 40.1%, 식이·체중 조절 약물 60.3%로 조사되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9〉 평생 약물 사용 경험

(단위: %)

구분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
전체		4.2	4.2	1.2	1.0	5.1
성별	남성	3.3	3.0	1.1	0.9	1.3
	여성	5.1	5.5	1.2	1.0	9.3
연령	19~24세	2.7	2.9	1.0	0.7	3.6
	25~29세	4.8	4.8	1.4	1.3	5.4
	30~34세	4.9	4.8	1.1	0.8	6.3
지역 1	수도권	4.3	4.2	1.4	0.9	5.1
	비수도권	3.9	4.1	0.9	1.0	5.1
지역 2	서울	4.8	4.1	1.9	0.7	3.9
	부산	6.0	4.9	0.8*	0.7*	6.3
	대구	2.8	3.3	0.8*	0.7*	4.3
	인천	7.6	9.1	2.4	1.8	8.1
	광주	2.5	1.6	1.1	0.5	4.2
	대전	4.7	6.7	2.2	1.8*	5.3
	울산	5.4	4.8	1.0*	0.8*	4.9
	세종	6.7	6.0	1.4*	2.8*	6.8
	경기	3.2	3.2	0.9	0.9	5.5
	강원	3.8	4.3	0.6*	0.9*	3.9
	충북	2.8	2.6	0.8*	1.4*	4.0
	충남	3.2	3.3	0.5*	0.6*	3.8
	전북	2.7	2.7	0.2*	0.6*	5.5
	전남	1.8	2.9	0.1*	0.6*	6.4
	경북	2.6	2.9	0.5*	0.5*	5.2
	경남	5.2	6.7	1.2*	1.9	5.0
제주	8.7	5.9	1.4*	1.0*	9.2	
학력	고졸 이하	6.1	5.9	1.6	1.6	6.1
	대학 재학·휴학	2.7	3.2	1.2	0.7	2.9
	대학 졸업 이상	4.1	4.1	1.1	0.8	5.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3-20〉 평생 약물 사용 경험자의 최근 1년간 약물 사용 경험

(단위: %)

구분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
전체		47.2	61.3	58.8	40.1	60.3
성별	남성	48.8	61.1	54.7	30.0	56.8
	여성	46.1	61.4	63.0	51.0	60.9
연령	19~24세	51.0	66.8	58.7	45.5	59.6
	25~29세	47.9	60.6	67.7	43.3	62.0
	30~34세	44.4	58.8	47.8	30.6	59.4
지역 1	수도권	49.5	64.3	54.7	38.2	59.5
	비수도권	44.1	57.6	67.0	42.3	61.3
지역 2	서울	47.2	65.6	55.9	41.2*	46.7
	부산	47.4	58.2	78.1	49.8*	58.2
	대구	42.0	48.0	68.4	60.5*	66.9
	인천	58.2	67.6	74.8	52.1	60.2
	광주	59.1	73.7	74.7	100.0	52.3
	대전	38.7	56.3	39.7*	39.0*	66.0
	울산	68.9	59.7	100.0	56.6*	75.4
	세종	54.5	61.0	67.5*	53.3*	89.3
	경기	47.9	60.8	40.8*	30.2*	66.9
	강원	39.4	71.0	83.7	68.7	59.3
	충북	23.4*	40.0	24.7*	33.1*	63.8
	충남	45.0	51.0	68.7*	73.3*	63.3
	전북	44.5*	72.0	100.0	0.0	54.3
	전남	33.0*	73.9	78.8	8.9*	48.6
	경북	33.7*	46.2	57.2*	50.9*	75.0
	경남	43.6	55.6	80.1	21.3*	52.1
	제주	38.3	69.5	91.3	59.9*	61.1
학력	고졸 이하	49.2	61.0	65.1	60.8	65.4
	대학 재학·휴학	56.3	66.1	63.1	36.6*	69.5
	대학 졸업 이상	44.3	60.2	54.6	29.7	57.2

n=656(수면제), n=665(신경안정제), n=177(각성제), n=147(마약성 진통제), n=801(식이·체중 조절 약물)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의사의 처방 없이 혹은 처방보다 많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로 조사되었다. 인구집단별로는 남성(6.4%), 19~24세(8.0%), 대학 재학·휴학(12.4%)에서 약물 오·남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21〉 약물 오·남용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약물 오·남용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0	5.6	94.4
성별	남성	6.4	93.6
	여성	5.2	94.8
연령	19~24세	8.0	92.0
	25~29세	5.8	94.2
	30~34세	3.9	96.1
지역 1	수도권	5.6	94.4
	비수도권	5.6	94.4
학력	고졸 이하	7.8	92.2
	대학 재학·휴학	12.4	87.6
	대학 졸업 이상	3.4	96.6

n=1,584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주관적 건강 인식 및 활동제한

‘주관적인 건강 인식’은 개인의 건강 수준 측정을 위해 각종 설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인정받고 있다(정세정 외, 2022, p. 202).

조사 대상 청년 중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평가한 청년은 61.1%로 나타났고, 여성(56.1%)보다는 남성(65.7%)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2〉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주관적 건강 인식						
		매우 좋음	좋음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은 사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체	100.0	14.4	46.7	61.1	31.7	6.7	0.4	
성별	남성	100.0	17.7	48.0	65.7	28.1	5.8	0.5
	여성	100.0	10.8	45.3	56.1	35.8	7.8	0.4
연령	19~24세	100.0	18.2	48.8	67.0	28.1	4.6	0.3
	25~29세	100.0	13.6	46.5	60.1	32.5	6.9	0.5
	30~34세	100.0	11.6	44.9	56.5	34.4	8.7	0.5
지역 1	수도권	100.0	12.3	50.6	62.8	30.3	6.5	0.4
	비수도권	100.0	17.0	42.0	59.0	33.4	7.0	0.5
지역 2	서울	100.0	11.1	57.3	68.4	25.3	5.9	0.4*
	부산	100.0	13.5	44.3	57.8	34.9	6.8	0.5*
	대구	100.0	13.3	45.8	59.1	32.7	8.0	0.2*
	인천	100.0	7.9	36.9	44.8	43.2	10.8	1.2*
	광주	100.0	21.8	52.8	74.6	21.1	3.9	0.4*
	대전	100.0	16.3	39.6	56.0	34.0	8.6	1.4*
	울산	100.0	14.6	33.9	48.5	43.7	7.7	0.1*
	세종	100.0	13.3	35.3	48.6	38.3	12.2	0.9*
	경기	100.0	14.2	48.0	62.3	31.5	6.0	0.3*
	강원	100.0	11.5	43.3	54.9	37.1	7.4	0.7*
	충북	100.0	18.6	40.4	59.0	35.2	5.4	0.3*
	충남	100.0	25.5	45.3	70.8	24.2	5.0	0.0
	전북	100.0	13.8	37.1	50.9	40.3	8.3	0.5*
	전남	100.0	22.9	44.6	67.5	26.6	5.5	0.4*
	경북	100.0	24.4	38.6	63.0	30.5	6.3	0.2*
	경남	100.0	13.4	40.0	53.4	37.6	8.4	0.6*
제주	100.0	10.9	30.1	41.0	46.1	11.3	1.7*	
학력	고졸 이하	100.0	12.7	42.1	54.8	34.9	9.6	0.7
	대학 재학·휴학	100.0	19.7	50.9	70.5	25.0	4.1	0.4
	대학 졸업 이상	100.0	13.1	46.6	59.7	33.1	6.8	0.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년은 2.9%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제한율이 높았고, 시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활동제한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4.7%로 가장 높았다.

〈표 3-3-23〉 활동제한

(단위: %)

구분	비율	활동제한	
		예	아니오
전체	100.0	2.9	97.1
성별	남성	2.7	97.3
	여성	3.0	97.0
연령	19~24세	2.0	98.0
	25~29세	3.1	96.9
	30~34세	3.5	96.5
지역 1	수도권	2.5	97.5
	비수도권	3.2	96.8
지역 2	서울	2.6	97.4
	부산	2.9	97.1
	대구	3.3	96.7
	인천	4.4	95.6
	광주	1.8	98.2
	대전	5.5	94.5
	울산	2.2	97.8
	세종	6.0	94.0
	경기	2.1	97.9
	강원	2.5	97.5
	충북	2.3	97.7
	충남	2.1	97.9
	전북	2.6	97.4
	전남	3.0	97.0
	경북	2.2	97.8
	경남	5.4	94.6
제주	6.9	93.1	
학력	고졸 이하	4.7	95.3
	대학 재학·휴학	2.2	97.8
	대학 졸업 이상	2.6	97.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미충족 의료 경험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3.3%로 나타났고, 남성(2.1%)에 비해 여성(4.6%)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4〉 미충족 의료 경험(병의원 진료)

(단위: %)

구분	비율	미충족 의료 경험(병의원 진료)	
		예	아니오
전체	100.0	3.3	96.7
성별	남성	2.1	97.9
	여성	4.6	95.4
연령	19~24세	2.6	97.4
	25~29세	3.5	96.5
	30~34세	3.8	96.2
지역 1	수도권	3.1	96.9
	비수도권	3.6	96.4
지역 2	서울	3.7	96.3
	부산	4.0	96.0
	대구	4.4	95.6
	인천	6.1	93.9
	광주	1.9*	98.1
	대전	3.7	96.3
	울산	7.0	93.0
	세종	5.6	94.4
	경기	1.9	98.1
	강원	3.8	96.2
	충북	3.8	96.2
	충남	2.1*	97.9
	전북	2.3*	97.7
	전남	3.8*	96.2
	경북	2.7	97.3
	경남	3.7	96.3
제주	6.2	93.8	
학력	고졸 이하	5.4	94.6
	대학 재학·휴학	2.3	97.7
	대학 졸업 이상	3.1	96.9

n=9,575(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던 5,523명 제외)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미충족 의료 경험의 주된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48.9%)와 ‘경제적 부담’(36.6%)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5~29세,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에 시간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장애로 나타났다.

〈표 3-3-25〉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 (경제적 부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기타	
전체	100.0	5.4	5.9	2.0*	36.6	48.9	1.2*	
성별	남자	100.0	6.5*	7.9*	1.4*	30.0	53.2	1.0*
	여자	100.0	4.8	4.9*	2.3*	39.8	46.8	1.3*
연령	19~24세	100.0	8.1*	3.2*	1.3*	32.5	53.5	1.4*
	25~29세	100.0	3.1*	9.2*	1.4*	46.0	40.3	0.0
	30~34세	100.0	5.8*	4.6*	3.0*	30.5	54.0	2.1*
지역 1	수도권	100.0	4.9*	2.9*	0.0	43.4	48.1	0.7*
	비수도권	100.0	5.9	9.0	4.0*	29.6	49.7	1.7*
학력	고졸 이하	100.0	1.9*	4.4*	2.5*	46.5	44.7	0.0
	대학 재학·휴학	100.0	7.5*	6.2*	1.1*	45.3	39.9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6.6	6.6	2.0*	29.5	53.2	2.1*

n=348(미충족 의료 경험이 없었던 사람 14,750명 제외)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차. 성 건강

최근 자유로운 성문화에 노출이 쉬워졌고, 평균 성행위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안전하고 올바른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성 건강 지식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윤선정, 김혜영, 2022, p. 287 재인용). 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생식건강행위 실천율을 높이고, 성 문제를 예방하며, 책임감 있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윤선정, 김혜영, 2022, p. 287 재인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에서는 성 건강과 관련된 의료 분야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성 건강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관련 정책을 개발·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윤선정, 김혜영, 2022, p. 288). 미국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y People 2030)에서는 가족 계획(Family Planning) 부문에서 성·생식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계획 임신 증가, 생식 건강 서비스 제공 확대, 청소년 임신 감소, 15~44세 여성 피임률 증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박은자 외, 2022, p. 8). 또한 1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식 건강에 대한 전국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y People 2030)의 성·생식건강 지표를 산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박은자 외, 2022, p. 8).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의 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조사부터 피임 실태, 피임 방법, 피임의 자기결정권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sup>7)</sup>

성관계 시 피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41.9%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항상 피임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항상 피임하는 비율(40.3%)과 대부분 피임하는 비율(40.4%)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항상 피임하는 비율이 높아 19~24세에서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51.8%였다.

〈표 3-3-26〉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성관계 시 피임 여부			
		항상 한다	대부분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전체	100.0	41.9	38.6	13.5	6.1
성별	남성	40.3	40.4	13.3	6.0
	여성	43.6	36.6	13.6	6.2
연령	19~24세	51.8	38.1	7.4	2.7
	25~29세	43.1	39.0	13.1	4.8
	30~34세	36.9	38.5	16.2	8.4
지역 1	수도권	42.7	41.1	11.4	4.8
	비수도권	40.9	35.6	15.9	7.6

7) 관련 문항은 박중서 외(2021)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함.

구분	비율	성관계 시 피임 여부				
		항상 한다	대부분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지역 2	서울	100.0	44.3	42.3	9.4	4.0
	부산	100.0	42.3	34.5	14.9	8.2
	대구	100.0	41.1	36.5	14.1	8.3
	인천	100.0	43.5	33.8	16.3	6.4
	광주	100.0	31.6	47.4	13.0	8.0
	대전	100.0	44.3	29.4	20.7	5.6
	울산	100.0	43.4	32.6	15.0	9.0
	세종	100.0	47.7	29.4	17.0	5.9
	경기	100.0	41.3	42.2	11.6	4.9
	강원	100.0	39.8	35.2	14.2	10.7
	충북	100.0	30.5	44.5	17.2	7.8
	충남	100.0	49.7	29.3	15.7	5.4
	전북	100.0	43.9	34.7	12.2	9.2
	전남	100.0	40.8	32.3	18.2	8.8
	경북	100.0	34.9	40.0	17.3	7.8
	경남	100.0	45.3	34.3	14.9	5.5
제주	100.0	36.7	32.2	24.4	6.7	
학력	고졸 이하	100.0	40.5	38.8	14.8	5.9
	대학 재학·휴학	100.0	53.0	39.0	5.1	2.9
	대학 졸업 이상	100.0	40.4	38.5	14.5	6.7

n=7,270(성 경험이 없거나 성관계 상대가 없는 7,828명 제외)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관계 시 피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 ‘임신을 원해서’(35.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16.2%, ‘임신이 쉽게 될 거 같지 않아서’ 12.1%,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1.9%,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7.8%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11.3%)보다 남성(20.6%)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9.7%)으로 생각하거나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13.1%) 피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27>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내가 임신을 원해서	내 건강에 좋지 않아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 (난임, 불임)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임신 중이어서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0.0	35.1	3.7	4.9	7.8	16.2	1.0*	2.9	8.7	5.8	11.9	2.1	
성별	남성	100.0	34.9	3.1	4.5	6.1	20.6	1.4*	3.3	9.7	3.8	10.7	1.9*
	여성	100.0	35.3	4.4	5.4	9.7	11.3	0.5*	2.4	7.6	8.0	13.1	2.2*
연령	19~24세	100.0	3.8*	5.5*	7.1*	16.8	27.9	4.3*	4.8*	10.7	1.7*	17.0	0.5*
	25~29세	100.0	28.8	4.6	3.9*	9.4	21.3	1.1*	3.5	8.7	6.4	11.0	1.3*
	30~34세	100.0	43.7	3.0	5.1	5.5	11.5	0.4*	2.2	8.4	6.1	11.5	2.7*
지역 1	수도권	100.0	33.0	3.4*	6.3	6.3	18.3	1.1*	3.1*	9.3	5.1*	11.9	2.3*
	비수도권	100.0	36.8	4.0	3.8	9.1	14.5	0.9*	2.7	8.2	6.3	11.9	1.9
지역 2	서울	100.0	36.2	4.7*	4.8*	5.7*	19.0	2.0*	1.9*	6.7*	4.5*	11.8	2.8*
	부산	100.0	40.0	3.1*	3.0*	10.2*	14.1	0.0	0.7*	4.2*	10.0*	14.2	0.7*
	대구	100.0	25.8	0.0	9.4*	10.7*	16.4	2.3*	3.1*	6.9*	7.6*	13.9	4.1*
	인천	100.0	39.7	2.3*	5.1*	7.5*	14.5	0.0	5.7*	12.9	1.6*	10.8	0.0
	광주	100.0	38.3	7.5*	3.3*	15.6*	13.9*	0.0	1.7*	10.9*	3.8*	5.0*	0.0
	대전	100.0	27.4	0.0	1.4*	6.8*	26.4	0.5*	5.4*	8.8*	1.1*	19.7	2.6*
	울산	100.0	47.3	2.1*	5.4*	4.8*	9.2*	0.0	2.9*	3.8*	9.1*	15.3*	0.0
	세종	100.0	32.3	7.1*	1.8*	8.5*	13.5*	0.0	2.9*	6.1*	5.4*	22.4	0.0
	경기	100.0	28.6	3.1*	7.7*	6.2*	19.2	0.9*	2.9*	9.5	6.8*	12.3	2.8*
	강원	100.0	46.7	1.0*	3.7*	7.1*	10.7*	0.0	0.0	12.3*	7.2*	10.3*	1.0*
	충북	100.0	25.2	6.8*	6.0*	10.9*	18.3	1.6*	0.0	7.3*	5.8*	13.0*	5.0*
	충남	100.0	51.9	3.7*	0.0	9.4*	12.7*	0.6*	0.0	11.0*	7.2*	3.5*	0.0
전북	100.0	51.8	11.7*	1.9*	0.7*	4.4*	1.1*	1.1*	1.8*	9.9*	15.6*	0.0	

구분	비율	내가 임신을 원해서	내 건강에 좋지 않아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 (난임, 불임)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임신 중이어서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기타	
	전남	100.0	38.8	1.8*	5.4*	17.7*	7.8*	0.0	0.0	12.4*	3.9*	7.3*	4.9*
	경북	100.0	39.6	5.3*	2.5*	11.6	15.2	0.0	7.8*	4.5*	6.7*	6.8*	0.0
	경남	100.0	28.5	4.4*	4.1*	4.4*	14.0	3.7*	3.0*	17.7	3.6*	12.9	3.6*
	제주	100.0	30.5	7.1*	3.4*	7.4*	18.8	1.9*	10.5*	4.6*	4.3*	9.5*	2.0*
학력	고졸 이하	100.0	25.0	2.7*	8.2	6.4	20.0	0.9*	3.5*	8.7	7.0	16.9	0.7*
	대학 재학·휴학	100.0	0.9*	5.7*	4.8*	28.0	23.7	7.9	5.8*	14.8*	0.0	8.0*	0.4*
	대학 졸업 이상	100.0	40.0	3.9	4.1	6.9	14.7	0.6	2.5	8.3	5.8	10.8	2.5

n=1,36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성관계 시 피임과 관련된 결정 주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하였다. 피임 여부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14.7%였고, 여성은 30.9%로 나타났다. 인구집단별로 19~24세 집단에서 스스로 피임을 결정하는 비율이 21.1%로 다소 낮았고,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도 스스로 피임 여부나 방법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6%로 낮게 나타났다.

〈표 3-3-28〉 피임 결정 주체

(단위: %)

구분		비율	주로 내가 결정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	주로 상대방이 결정
전체		100.0	22.1	73.4	4.6
성별	남성	100.0	14.7	78.9	6.3
	여성	100.0	30.9	66.7	2.4
연령	19~24세	100.0	21.1	74.8	4.2
	25~29세	100.0	23.0	72.1	4.9
	30~34세	100.0	21.8	73.7	4.5
지역 1	수도권	100.0	22.0	73.9	4.1
	비수도권	100.0	22.2	72.7	5.1
지역 2	서울	100.0	22.9	72.2	4.9
	부산	100.0	22.6	73.3	4.0
	대구	100.0	17.2	77.5	5.3
	인천	100.0	24.9	71.8	3.3
	광주	100.0	34.7	59.7	5.7
	대전	100.0	20.6	72.1	7.3
	울산	100.0	19.4	76.9	3.7
	세종	100.0	23.9	73.7	2.4*
	경기	100.0	20.6	75.7	3.7
	강원	100.0	18.5	77.7	3.8
	충북	100.0	29.5	61.3	9.1
	충남	100.0	21.2	74.9	3.9
	전북	100.0	25.3	69.8	4.9
	전남	100.0	22.0	74.5	3.5*
	경북	100.0	19.4	74.8	5.9
	경남	100.0	19.4	76.1	4.5
	제주	100.0	19.8	74.9	5.3
학력	고졸 이하	100.0	21.9	72.4	5.7
	대학 재학·휴학	100.0	19.6	75.9	4.5
	대학 졸업 이상	100.0	22.6	73.1	4.3

n=10,588(성 경험 없는 4,510명 제외)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2. 소결

청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건강 습관이 형성되어 이후 생애주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삶 실태조사의 건강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설문 문항과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청년의 건강 행태 실태 파악을 위해 흡연, 음주, 운동, 식이 등을 조사하였다. 청년의 현재 흡연율은 23.5%로 지난 2022년 조사 결과(20.1%)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68.6%는 쥘련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쥘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8.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4.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쥘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2.3%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담배 사용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흡연자 중 절반 이상(50.4%)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11.0%, 여성 7.3%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집단에서 남성 14.7%, 여성 10.4%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월간 폭음률은 남성 49.2%, 여성 35.4%로 나타났는데, 질병관리청(2022)이 발표한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 인구의 월간 폭음률(남성 48.8%, 여성 25.9%)과 비교하면 특히 청년 여성에서 9.5%포인트나 더 높다. 청년 인구 중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성 39.2%, 여성 27.1%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여 최근 러닝, 피트니스 등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 중 절반 이상(50.6%)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한다는 비율도 10.0%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22.9%는 주로 '혼밥'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2022년에 비해 '혼밥'하는 비율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우울감 유병률, 자살 생각, 소진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청년층의 32.2%는 최근 1년 동안 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9.1%),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가 과중해서'(18.4%),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15.6%) 등이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청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2년 전과 비교하면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경향을 띤다. 청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나 2022년의 6.1%와 비교하여 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9%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2.4%에 비교하면 0.5%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청년기의 특징적인 건강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약물 사용, 스마트폰 사용, 성 건강 관련 실태를 함께 조사하였다.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청년은 19.9%로 조사되었는데,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24.8%로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년 중 약물 사용 경험은 수면제 4.2%, 신경안정제 4.2%, 각성제 1.2%, 마약성 진통제 1.0%, 식이·체중 조절 약물 5.1%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약물 사용이 더 많았는데 특히 여성 중 9.3%는 식이·체중 조절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면제 47.2%, 신경안정제 61.3%, 각성제 58.8%, 마약성 진통제 40.1%, 식이·체중 조절 약물 60.3%로 조사되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의사의 처방 없이 혹은 처방보다 많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로 조사되었고,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약물 오·남용 경험이 12.4%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피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41.9%로 조사되었다. 항상 피임한다는 응답은 여성(43.6%)이 남성(40.3%)보다 많았다. 성관계 시 피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 ‘임신을 원해서’(35.1%)를 제외하면,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16.2%, ‘임신이 쉽게 될 거 같지 않아서’ 12.1%,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1.9% 등이 있었다. 특히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11.3%)보다 남성(20.6%)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9.7%)으로 생각하거나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13.1%) 피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집단별로 특정 건강위험요인과 관련된 특징을 포착해 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 위험이 높고, 소진 경험과 우울 증상 유병률

이 높았으며, 식이·체중 조절 약물 사용 비율이 높았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의 경우 흡연과 고위험 음주, ‘혼밥’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낮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았다. 그리고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약물 오·남용 경험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피임 실천 관련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내에서 건강취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의 건강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 1. 분석 결과

#### 가. 졸업 고등학교 유형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82.2%, 특성화고 8.7%, 자율고 3.7% 순이었으며, 2022년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1〉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비율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 스테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기타	비해당	
2024 전체	100.0	82.2	3.7	0.3	0.8	0.8	1.4	8.7	0.2	1.4	0.6	
성별	남성	100.0	80.5	4.2	0.4	0.7	0.5	2.2	9.2	0.2	1.5	0.7
	여성	100.0	84.0	3.1	0.1*	0.8	1.2	0.5	8.2	0.2	1.3	0.4
연령	19~24세	100.0	80.4	3.7	0.4	0.6	0.9	1.2	10.7	0.3	1.1	0.7
	25~29세	100.0	80.4	5.0	0.2*	0.9	0.9	1.4	9.3	0.1*	1.4	0.4
	30~34세	100.0	85.7	2.4	0.2*	0.7	0.8	1.6	6.2	0.2*	1.6	0.6
지역	수도권	100.0	84.5	3.6	0.3	0.9	0.8	0.9	7.1	0.2*	1.4	0.4
	비수도권	100.0	79.3	3.8	0.3	0.5	0.9	2.0	10.7	0.3	1.3	0.8

구분	비율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 스테고	특성 학교	대안 학교	기타	비해당	
학 력	고졸 이하	100.0	63.1	3.6	0.1*	0.3*	0.9	3.8	22.3	0.3*	2.5	3.2
	대학 재학·휴학	100.0	83.8	4.2	0.5	0.8	0.8	0.8	7.6	0.3*	1.2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87.0	3.5	0.3	0.9	0.9	1.0	5.3	0.1*	1.2	0.0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나. 대학 비진학 이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5.4%, ‘성적이 부족해서’ 11.7%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표 3-4-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기타	
전체	100.0	0.9	40.4	10.9	11.7	25.4	5.7	5.1	
성별	남자	100.0	0.8	41.7	9.3	11.4	25.9	5.8	5.0
	여자	100.0	1.0	38.2	13.6	12.1	24.5	5.5	5.1
연령	만19~24세	100.0	1.5*	37.8	7.4	14.7	28.5	4.4	5.8
	만25~29세	100.0	0.4*	43.0	11.6	8.8	26.3	5.2	4.7
	만30~34세	100.0	0.9*	39.8	13.0	12.2	21.8	7.3	4.9
지역 1	수도권	100.0	0.4	36.4	11.4	15.9	25.3	6.0	4.6
	비수도권	100.0	1.4	44.6	10.4	7.2	25.5	5.4	5.6
지역 2	서울	100.0	0.0	34.6	10.4	16.4	28.4	5.8	4.4*
	부산	100.0	2.1*	45.0	9.8	5.6*	26.8	4.4*	6.3*
	대구	100.0	1.7*	33.3	13.7	10.8	29.5	6.4*	4.6*
	인천	100.0	2.6*	36.6	13.2	9.8	21.8	7.6	8.5
	광주	100.0	0.2*	37.9	15.0	11.6	30.7	2.1*	2.5*
	대전	100.0	1.1*	38.7	12.5	9.3	22.1	10.9*	5.5*
	울산	100.0	4.5*	52.2	12.0*	4.5*	18.0	6.3*	2.5*
세종	100.0	0.0	39.2	8.5*	16.8*	18.1*	3.7*	13.7*	

구분	비율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기타	
경기	100.0	0.2*	37.7	11.5	17.2	23.9	5.8	3.7*	
강원	100.0	0.6*	45.8	7.2*	6.3*	30.6	3.8*	5.7*	
충북	100.0	0.2*	50.4	7.9	3.7*	28.3	6.7*	2.8*	
충남	100.0	1.7*	44.0	10.0	6.5*	28.9	3.9*	5.2*	
전북	100.0	0.4*	43.6	6.4*	9.5*	25.2	4.0*	10.9*	
전남	100.0	0.6*	48.5	12.6	4.2*	23.5	4.3*	6.3*	
경북	100.0	2.6*	50.3	8.8*	9.1	22.5	4.8*	1.9*	
경남	100.0	0.3*	44.5	9.6	7.1	23.9	5.5*	9.1*	
제주	100.0	3.5*	46.5	13.4	3.0*	15.5	12.4*	5.6*	

n=2,710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다. 대학 진학자의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표 3-4-3〉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단위: %)

구분	비율	일반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	기능대학	기타
2024 전체	100.0	78.2	18.8	0.2	0.6	0.4	1.2	0.6	0.0*
성별	남성	100.0	78.5	18.3	0.3*	0.4	1.1	1.0	0.0*
	여성	100.0	77.9	19.4	0.1*	0.7	1.3	0.2*	0.0*
연령	19~24세	100.0	82.1	15.7	0.2*	0.6	0.1*	0.7	0.0*
	25~29세	100.0	77.2	19.6	0.2*	0.4*	0.6	1.3	0.6
	30~34세	100.0	75.1	21.2	0.2*	0.7	0.5	1.6	0.7
지역	수도권	100.0	78.9	18.3	0.2*	0.4	0.4	1.4	0.5
	비수도권	100.0	77.2	19.6	0.2	0.8	0.4	1.0	0.8
학력	대학 재학·휴학	100.0	87.7	9.2	0.2*	0.4*	0.4	1.5	0.5
	대학 졸업 이상	100.0	74.9	22.1	0.2*	0.6	0.4	1.1	0.7

n=12,38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라. 대학 진학자의 주 전공 계열

주 전공 계열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8.0%, 보건 및 복지 14.6%, 예술 및 인문학 14.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공학, 제조 및 건설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보건 및 복지라는 응답이 20.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과 예술 및 인문학이 각각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9.3%, 보건 및 복지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4〉 대학생 및 대졸자의 주 전공 계열

(단위: %)

구분	비율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학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 및 복지	서비스	
2024 전체	100.0	6.6	14.4	7.1	14.1	5.8	10.4	18.0	1.2	14.6	7.8	
성별	남성	100.0	3.1	9.3	6.2	13.9	5.7	15.8	29.3	1.4	8.7	6.6
	여성	100.0	10.1	19.6	8.0	14.3	5.9	5.0	6.6	1.0	20.6	8.9
연령	19~24세	100.0	6.0	14.0	6.8	12.7	6.1	11.3	19.1	1.2	16.0	6.8
	25~29세	100.0	6.2	15.4	7.2	14.0	6.2	10.0	17.9	0.9	14.3	8.0
	30~34세	100.0	7.5	13.9	7.4	15.6	5.1	9.9	17.0	1.5	13.6	8.5
지역	수도권	100.0	5.7	16.9	8.0	14.8	5.3	11.7	16.9	0.6	11.9	8.2
	비수도권	100.0	7.7	11.4	6.0	13.2	6.5	8.8	19.3	1.9	18.0	7.2
학력	대학 재학·휴학	100.0	5.5	13.4	7.5	13.7	5.9	12.3	20.7	1.2	14.3	5.4
	대학 졸업 이상	100.0	6.9	14.8	7.0	14.2	5.8	9.7	17.1	1.2	14.7	8.5

n=12,38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전혀 도움이 안 된다”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은 12.9%인 반면, 긍정적인 응답(“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64.5%였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19~24세 청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 7.4%, 긍정적인 응답 72.0%였지만, 나이가 많은 집단일

수록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늘어 25~29세와 30~34세 청년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각각 15.2%와 16.5%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재학·휴학 상태의 청년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 사이에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졸업자들 가운데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들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은 6.6%, 긍정적인 의견은 72.6%였지만, 대학 졸업자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은 15.2%, 긍정적인 응답은 61.9%로 집계되었다.

〈표 3-4-5〉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100.0	3.8	9.1	22.5	44.2	20.3
성별	남자	100.0	4.1	9.0	23.5	44.7	18.7
	여자	100.0	3.6	9.3	21.4	43.8	21.9
연령	만19~24세	100.0	1.5	5.9	20.7	47.9	24.1
	만25~29세	100.0	4.5	10.7	23.0	43.8	18.0
	만30~34세	100.0	5.6	10.9	23.7	41.0	18.8
지역 1	수도권	100.0	3.8	8.7	20.6	47.4	19.6
	비수도권	100.0	3.9	9.7	24.8	40.4	21.2
지역 2	서울	100.0	2.9	8.2	20.4	52.6	15.9
	부산	100.0	4.1	10.0	23.0	44.2	18.8
	대구	100.0	5.0	11.5	24.9	36.6	21.9
	인천	100.0	5.0	13.3	22.3	39.9	19.5
	광주	100.0	2.6*	6.2	24.1	43.1	24.0
	대전	100.0	3.5	9.6	23.7	41.0	22.1
	울산	100.0	4.8	9.5	24.1	36.3	25.4
	세종	100.0	4.6*	14.1	21.3	40.1	19.9
	경기	100.0	4.3	8.0	20.4	44.6	22.6
	강원	100.0	4.0	10.9	26.0	37.5	21.7
	충북	100.0	2.6	7.5	25.2	39.4	25.3
	충남	100.0	3.2	6.8	20.1	54.8	15.2
	전북	100.0	2.9*	10.1	24.0	36.1	27.0
	전남	100.0	4.5	10.1	31.9	31.9	21.7
	경북	100.0	2.9	11.2	29.0	37.9	19.0
	경남	100.0	5.6	10.4	24.4	39.0	20.6
제주	100.0	2.4*	12.0	28.6	38.8	18.3	

구분	비율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0	1.4	5.2	20.8	49.2	23.4
	(전문)대학 졸업 이상	100.0	4.7	10.5	23.0	42.6	19.3

n=12,38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바. 교육이나 훈련받고 싶은 영역(1순위)

2022년에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만 교육이나 훈련받고 싶은 영역을 조사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받고 싶은 영역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청년들이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 특정 직종 관련 직업 훈련 22.6%,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3%, 어학 교육 14.6%, 고용 상담 12.1%, 받고 싶지 않음 21.6%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22.0%),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20.5%), 어학 교육(17.1%) 순이었다(받고 싶지 않음 16.2%). 25~29세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3.2%,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5%, 어학 교육 14.1% 순이고(받고 싶지 않음 22.8%), 30~34세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3.9%,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16.5%), 창업 교육 13.0%였다(받고 싶지 않음 25.5%).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6.3%,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0%, 창업 교육 13.5%이고(받고 싶지 않음 26.1%), 대학 재학·휴학은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21.4%, 어학 교육 20.1%,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19.5%이고(받고 싶지 않음 14.2%), 대학 졸업 이상은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2.5%,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8.7%, 어학 교육 15.0%이며, 받고 싶지 않음 22.8%였다.

〈표 3-4-6〉 교육이나 훈련받고 싶은 영역(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고용 상담 서비스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창업 교육	어학 교육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받고 싶지 않음	
2024 전체	100.0	12.1	22.6	9.9	14.6	19.3	21.6	
성별	남성	100.0	10.9	24.5	10.7	13.0	18.5	22.4
	여성	100.0	13.4	20.4	9.0	16.3	20.3	20.6
연령	19~24세	100.0	16.3	20.5	7.9	17.1	22.0	16.2
	25~29세	100.0	11.6	23.2	8.7	14.1	19.5	22.8
	30~34세	100.0	8.5	23.9	13.0	12.6	16.5	25.5
지역	수도권	100.0	11.7	23.9	9.8	14.6	18.3	21.8
	비수도권	100.0	12.7	21.0	9.9	14.5	20.6	21.3
학력	고졸 이하	100.0	8.8	26.3	13.5	6.3	19.0	26.1
	대학 재학·휴학	100.0	17.4	19.5	7.4	20.1	21.4	14.2
	대학 졸업 이상	100.0	11.3	22.5	9.7	15.0	18.7	22.8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취업을 위한 사교육 경험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 중 28.0%는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5.1%, 여성이 30.9%로 나타나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24세는 22.5%로 가장 낮아 그 차이는 9.3%포인트였다. 수도권과 비수도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28.6%, 비수도권은 27.2%로 수도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 빈도가 높았다.

〈표 3-4-7〉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0	28.0	72.0
성별	남자	100.0	25.1	74.9
	여자	100.0	30.9	69.1
연령	만 19~24세	100.0	22.5	77.5
	만 25~29세	100.0	31.8	68.2
	만 30~34세	100.0	29.7	70.3
지역 1	수도권	100.0	28.6	71.4
	비수도권	100.0	27.2	72.8
지역 2	서울	100.0	27.5	72.5
	부산	100.0	31.3	68.7
	대구	100.0	28.3	71.7
	인천	100.0	36.3	63.7
	광주	100.0	23.0	77.0
	대전	100.0	30.6	69.4
	울산	100.0	34.1	65.9
	세종	100.0	41.2	58.8
	경기	100.0	28.0	72.0
	강원	100.0	22.4	77.6
	충북	100.0	23.5	76.5
	충남	100.0	19.7	80.3
	전북	100.0	19.9	80.1
	전남	100.0	25.7	74.3
	경북	100.0	25.5	74.5
	경남	100.0	32.7	67.3
제주	100.0	28.9	71.1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0	19.3	80.7
	(전문)대학 졸업 이상	100.0	30.9	69.1

n=12,388

-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 사교육 경험자의 71.1%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특히 19~24세 청년들 가운데 73.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25~29세(72.1%)와 30~34세(68.0%)보다 긍정적인 의견 비율이 높았다.

〈표 3-4-8〉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100.0	0.8	4.9	23.2	51.1	20.0	
성별	남자	100.0	1.4	5.3	24.6	49.1	19.6
	여자	100.0	0.4*	4.6	22.1	52.7	20.3
연령	만 19~24세	100.0	0.4*	4.6	21.4	52.4	21.1
	만 25~29세	100.0	0.6*	5.3	22.1	52.2	19.9
	만 30~34세	100.0	1.4*	4.8	25.8	48.8	19.2
지역 1	수도권	100.0	0.6*	5.2	22.9	51.2	20.1
	비수도권	100.0	1.1	4.6	23.6	50.8	19.8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0	0.4*	5.2	21.7	50.8	22.0
	(전문)대학 졸업 이상	100.0	0.9	4.9	23.5	51.1	19.5

n=3,424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2. 소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받은 경험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청년은 21.0%로 나타나 다른 경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청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한 도움보다 공공기관의 도움이 취업 준비에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 준비 도움 경험은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 청년보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저학력 청년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한 추가 분석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번 조사에서 직업 훈련이나 창업 교육을 받고 싶다는 고졸 이하 청년 비율은 52.9%로 이 같은 수요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대학 교육 외에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교육의 효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들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 과정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 활용의 현상을 분석하고, 불평등을 방지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 1.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청년의 노동 실태를 취업자, 미취업자, 그리고 이직자로 구분하여 현황 및 경험을 살펴보고, 일터 안전망과 관련된 현황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자는 취업 현황과 현재 일자리의 특성, 추가 근로(근무) 현황 및 의향, 업무 자율성, 일자리 안정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취업자는 미취업 현황과 비구직자의 상태를 분석하였으며, 이직자는 이직 또는 구직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과 과거 일자리 경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일터 안전망에 대한 경험과 인식도 살펴보았다.

#### 가. 취업자

##### 1) 취업자 현황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7.7%로 나타났다. 남성은 67.5%, 여성은 67.9%로 성별 간 차이는 미미하나, 여성의 비율이

소폭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24세는 4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학업 참여가 높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25~29세는 75.7%, 30~34세는 80.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9.3%, 비수도권에서 65.8%로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높은 경제활동 기회 및 직장 밀집도가 원인일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취업 경험의 격차도 명확히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은 77.0%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은 33.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이 학업 병행으로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고졸 이하 청년층은 75.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표 3-5-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예	아니오
전체		100.0	67.7	32.3
성별	남성	100.0	67.5	32.5
	여성	100.0	67.9	32.1
연령	19~24세	100.0	46.5	53.5
	25~29세	100.0	75.7	24.3
	30~34세	100.0	80.2	19.8
지역 1	수도권	100.0	69.3	30.7
	비수도권	100.0	65.8	34.2
지역 2	서울	100.0	71.1	28.9
	부산	100.0	63.4	36.6
	대구	100.0	62.6	37.4
	인천	100.0	70.0	30.0
	광주	100.0	64.3	35.7
	대전	100.0	64.4	35.6
	울산	100.0	61.6	38.4
	세종	100.0	65.1	34.9
	경기	100.0	67.6	32.4
	강원	100.0	65.7	34.3
충북	100.0	71.5	28.5	

구분		비율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예	아니오
	충남	100.0	65.7	34.3
	전북	100.0	68.5	31.5
	전남	100.0	66.3	33.7
	경북	100.0	70.6	29.4
	경남	100.0	64.6	35.4
	제주	100.0	72.5	27.5
학력	고졸 이하	100.0	75.6	24.4
	대학 재학·휴학	100.0	33.5	66.5
	대학 졸업 이상	100.0	77.0	23.0

n=15,098

-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32.3%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지만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지난 주에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갖고 있는 일시 휴직자 역시 취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일시 휴직자에 대해 살펴보면, 일시 휴직 경험이 있는 청년은 7.1%이다. 성별로는 여성(8.7%)이 남성(5.6%)보다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16.5%)과 인천(13.8%)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고용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시 휴직의 주된 이유는 ‘휴가 및 연가’가 53.0%로 가장 높으며, ‘육아’ 22.3%, ‘교육 및 훈련’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한 휴직이 36.9%로 남성(2.1%)보다 월등히 높아,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노동 시장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2〉 일시 휴직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일시 휴직자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00.0	7.1	92.9
성별	남성	100.0	5.6	94.4
	여성	100.0	8.7	91.3
연령	19~24세	100.0	1.4	98.6
	25~29세	100.0	9.5	90.5
	30~34세	100.0	19.3	80.7
지역 1	수도권	100.0	7.3	92.7
	비수도권	100.0	6.9	93.1
지역 2	서울	100.0	5.3	94.7
	부산	100.0	5.5	94.5
	대구	100.0	5.9	94.1
	인천	100.0	13.8	86.2
	광주	100.0	3.2*	96.8
	대전	100.0	8.9	91.1
	울산	100.0	9.1	90.9
	세종	100.0	16.5	83.5
	경기	100.0	7.4	92.6
	강원	100.0	7.9	92.1
	충북	100.0	14.8	85.2
	충남	100.0	4.4*	95.6
	전북	100.0	4.6*	95.4
	전남	100.0	7.8*	92.2
	경북	100.0	8.2	91.8
경남	100.0	4.7	95.3	
제주	100.0	13.0	87.0	
학력	고졸 이하	100.0	5.5	94.5
	대학 재학·휴학	100.0	0.4	99.6
	대학 졸업 이상	100.0	14.2	85.8

n=4,890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5-3〉 일시 휴직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일시 휴직 이유								
		일시적 병·사고	휴가· 연가	교육· 훈련	육아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기타	
전체	100.0	8.7	53.0	10.0	22.3	2.8*	0.0	1.3*	1.8*	
성별	남성	100.0	11.3	62.1	14.0	2.1*	5.0*	0.0	1.8*	3.7*
	여성	100.0	6.8*	46.5	7.2*	36.9	1.3*	0.0	1.0*	0.4*
연령	19~24세	100.0	13.2*	52.0	24.5*	4.9*	0.0	0.0	2.2*	3.3*
	25~29세	100.0	9.9*	57.5	13.6*	12.0*	3.6	0.0	1.8*	1.7*
	30~34세	100.0	7.0*	50.5	5.1*	32.0	2.9*	0.0	0.9*	1.5*
지역 1	수도권	100.0	5.0*	60.0	11.0*	19.2	0.8*	0.0	1.1*	2.9*
	비수도권	100.0	12.8	45.0	9.0	25.9	5.2*	0.0	1.6*	0.5*
학력	고졸 이하	100.0	24.8*	53.9	11.3*	1.5*	2.7*	0.0	2.3*	3.5*
	대학 재학·휴학	100.0	31.3*	42.8*	25.9*	0.0	0.0	0.0	0.0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6.2	53.2	9.5	25.3	2.9*	0.0	1.3*	1.6*

n=335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으로 취업자 중 일자리가 여러 개인 이들의 비율을 살펴봤다. 복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 비율은 5.5%로 2022년(3.9%)에 비해 일자리가 여러 개인 청년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5.9%로 남성(5.1%)보다 약간 높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6.6%로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에 비해 비수도권(6.3%)에서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고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표 3-5-4〉 복수 일자리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복수 일자리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00.0	5.5	94.5
성별	남성	100.0	5.1	94.9
	여성	100.0	5.9	94.1
연령	19~24세	100.0	6.6	93.4
	25~29세	100.0	4.9	95.1
	30~34세	100.0	5.4	94.6
지역 1	수도권	100.0	4.8	95.2
	비수도권	100.0	6.3	93.7
지역 2	서울	100.0	3.2	96.8
	부산	100.0	8.7	91.3
	대구	100.0	7.2	92.8
	인천	100.0	9.5	90.5
	광주	100.0	2.7*	97.3
	대전	100.0	7.5	92.5
	울산	100.0	6.7	93.3
	세종	100.0	7.7	92.3
	경기	100.0	5.1	94.9
	강원	100.0	3.3	96.7
	충북	100.0	6.6	93.4
	충남	100.0	4.0	96.0
	전북	100.0	3.7	96.3
	전남	100.0	5.9	94.1
	경북	100.0	5.1	94.9
	경남	100.0	7.5	92.5
	제주	100.0	15.6	84.4
학력	고졸 이하	100.0	6.7	93.3
	대학 재학·휴학	100.0	9.0	91.0
	대학 졸업 이상	100.0	4.6	95.4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 중 88.0%가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3개 이상은 11.9%이다. 복수 일자리는 청년들이 부수의 창출을 통해 더 많은 노동소득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자리 질이 낮아서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청년들의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복수의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에서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소득(세금 공제 전)은 198만 원, 복수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의 일자리 소득(세금 공제 전)은 270만 원이다. 비수도권, 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의 높은 복수 일자리 비율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5〉 복수 일자리 수

(단위: %)

구분		비율	복수 일자리 수	
			2개	3개 이상
전체		100.0	88.0	11.9
성별	남성	100.0	89.0	11.0
	여성	100.0	87.1	12.9
연령	19~24세	100.0	89.1	10.9
	25~29세	100.0	86.5	13.5
	30~34세	100.0	88.6	11.4
지역 1	수도권	100.0	85.6	14.5
	비수도권	100.0	90.4	9.6
학력	고졸 이하	100.0	91.8	8.2
	대학 재학·휴학	100.0	90.1	9.9
	대학 졸업 이상	100.0	86.0	14.0

n=603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일자리 현황

다음으로 취업 중인 청년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봤다. 다음 표는 취업 중인 청년들이 일하는 일수, 일하는 시간, 일자리에서 세금 공제 전 받는 금액, 그리고 직종을 보여준다.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경우 첫 번째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주당 평균 4.8일, 37.0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9일, 38.4시간 일을 하며, 여성은 4.7일, 35.5시간 일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청년이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하여 다소 긴 근로일수를 보이나, 근로시간은 짧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일자리에서 세금 공제 전에 받는 금액을 살펴보면, 266만 원을 받고 있으며, 남성 288만 원, 여성 242만 원으로 남성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임금 수준은 올라가 30~34세 청년들의 평균 임금은 311만 원을 기록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은 262만 원, 대졸 이상 청년은 290만 원으로 이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고졸 이하 청년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청년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 31.1%, 서비스 종사자 2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직종에 있어 성별, 학력 수준, 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6〉 일자리 경험(첫 번째 일자리)

(단위: 일, 시간, 만 원, %)

구분	첫 번째 일자리														
	일주일 중 일하는 일수	일주일 중 일하는 시간	세금 공제 전 받는 금액	비율	직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전체	4.8	37.0	266	100.0	2.3	21.0	31.1	23.4	8.6	0.6	4.5	3.3	4.8	0.6	
성별	남자	4.9	38.4	288	100.0	3.4	17.9	25.6	21.7	8.8	0.8	7.7	6.1	7.0	1.0
	여자	4.7	35.5	242	100.0	1.1	24.3	37.2	25.2	8.3	0.3*	1.0	0.2*	2.4	0.1*
연령	19~24세	4.2	28.4	170	100.0	1.2	16.3	16.6	37.3	13.8	0.3*	2.4	3.0	8.3	0.8
	25~29세	4.9	39.0	274	100.0	2.2	21.8	34.8	21.3	6.0	0.6	4.6	3.4	4.4	0.7
	30~34세	5.0	39.8	311	100.0	2.9	22.7	35.7	17.7	8.2	0.6	5.4	3.3	3.3	0.3*
지역 1	수도권	4.8	37.1	274	100.0	1.9	21.0	35.6	23.0	8.2	0.0	2.9	2.5	4.4	0.4*
	비수도권	4.8	36.8	255	100.0	2.7	21.0	25.5	23.8	9.0	1.2	6.5	4.2	5.3	0.8
학력	고졸 이하	5.0	38.8	262	100.0	2.5	6.4	19.8	29.3	14.4	1.2	8.5	6.3	10.8	0.7*
	대학 재학·휴학	3.4	19.4	106	100.0	1.3	9.6	9.3	47.8	17.6	0.0*	0.7*	1.2*	11.9	0.7*
	대학 졸업 이상	4.9	39.0	290	100.0	2.3	26.6	37.4	18.3	5.7	0.4	3.9	2.7	2.2	0.5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대다수가 상용근로자(70.7%)로 재직 중임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71.7%)이 여성(69.5%)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 연령대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71.7%로 비수도권(69.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80.1%로 고졸 이하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 63.3%에 비해 1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 청년들에 비해 고졸 이하 청년들의 임시·일용,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7〉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비율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00.0	70.7	14.3	5.8	2.9	5.6	0.8	
성별	남성	100.0	71.7	12.7	6.2	3.1	5.4	0.9
	여성	100.0	69.5	16.1	5.3	2.6	5.8	0.7
연령	19~24세	100.0	43.3	36.6	13.6	2.4	3.0	1.1
	25~29세	100.0	77.3	10.0	4.6	2.6	4.8	0.7
	30~34세	100.0	79.4	6.2	2.6	3.4	7.7	0.7
지역 1	수도권	100.0	71.7	13.6	5.6	2.6	5.9	0.6
	비수도권	100.0	69.3	15.3	5.9	3.2	5.2	1.1
지역 2	서울	100.0	72.5	13.0	5.3	2.3	6.7	0.3*
	부산	100.0	63.9	17.9	9.5	3.0	5.6	0.0
	대구	100.0	65.3	16.8	8.1	3.8	5.2	0.7*
	인천	100.0	67.1	15.4	8.8	3.2	4.2	1.3*
	광주	100.0	77.0	10.9	4.8	1.6	4.9	0.7*
	대전	100.0	65.5	20.8	4.4	3.8	4.2	1.4*
	울산	100.0	66.9	18.2	6.7	3.3*	4.5	0.5*
	세종	100.0	70.6	19.4	4.8*	2.1*	1.1	2.0*
	경기	100.0	72.2	13.7	5.1	2.8	5.6	0.7*
	강원	100.0	76.5	13.5	3.9	2.7*	3.4*	0.0
	충북	100.0	76.5	14.2	2.5	1.8*	3.8	1.2*
	충남	100.0	74.6	11.1	3.1*	4.5*	4.4	2.4*
	전북	100.0	68.5	18.3	4.0	1.7*	5.9	1.6*
	전남	100.0	71.6	10.4	4.7	1.4*	10.0	2.0*
	경북	100.0	65.8	15.1	7.2	5.3	5.2	1.4*
경남	100.0	69.8	13.4	6.6	2.9	5.9	1.4*	
제주	100.0	59.7	17.2	10.5	6.6	5.5	0.5*	
학력	고졸 이하	100.0	63.3	14.6	7.5	4.7	8.8	1.2
	대학 재학·휴학	100.0	18.4	53.7	21.4	2.7	2.5	1.4*
	대학 졸업 이상	100.0	80.1	8.6	3.0	2.4	5.1	0.6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12.9%), 도매 및 소매업(10.8%), 숙박 및 음식점업(9.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 고용의 약 33.4%가 전통적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과 정보통신업(6.2%) 등도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17.4%)과 도매 및 소매업(10.8%)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전통적으로 남성 고용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3%), 숙박 및 음식점업(11.1%), 교육서비스업(11.1%)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고용이 활발한 서비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21.4%)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고용 형태가 이 연령대에서 많음을 시사한다. 25~29세, 30~34세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제조업(11.2%), 도매 및 소매업(12.1%)이 주요 고용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8.0%)의 비율도 비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제조업(15.0%)과 숙박 및 음식점업(10.3%),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4%)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제조업과 관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은 정보통신업(9.0%)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0%)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5%)에서 비중이 높으며, 울산은 제조업(28.3%)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정보통신업(7.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1%)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고졸 이하는 제조업(18.5%)과 도매 및 소매업(16.7%)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 기반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이 많음을 나타낸다. 대학 재학·휴학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31.5%)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학업 중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3-5-8〉 종사 산업 분야

(단위: %)

구분	비율	종사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전체	100.0	1.0	0.1*	12.9	1.7	0.3	4.3	10.8	3.2	9.7	6.2	3.6	0.6	7.2	2.2	7.6	7.3	9.6	6.4	3.2	2.0	
성별	남성	100.0	1.4	0.2*	17.4	3.0	0.5	6.4	10.8	4.6	8.4	7.4	3.2	0.5	8.3	2.4	7.1	3.9	4.3	4.6	3.6	1.9
	여성	100.0	0.6	0.0*	7.9	0.4	0.1*	2.0	10.8	1.7	11.1	4.8	3.9	0.6	6.0	1.9	8.1	11.1	15.4	8.5	2.7	2.0
연령	19~24세	100.0	0.7*	0.0*	8.4	0.8	0.3*	2.6	13.4	2.4	21.4	3.5	2.1	0.2*	5.0	1.4	3.6	10.3	9.1	8.0	3.2	3.6
	25~29세	100.0	1.0	0.2*	13.9	1.9	0.4	4.5	9.0	3.4	6.7	6.5	4.0	0.4*	7.9	2.6	8.9	6.4	10.4	6.9	3.4	1.6
	30~34세	100.0	1.2	0.1*	14.4	2.1	0.2*	5.1	11.1	3.5	6.1	7.3	4.0	0.9	7.7	2.2	8.5	6.6	9.3	5.2	3.0	1.4
지역 1	수도권	100.0	0.2*	0.1*	11.2	1.5	0.2*	4.6	12.1	3.9	9.2	8.0	4.0	0.7	7.9	2.4	6.2	7.0	8.3	7.7	3.2	1.8
	비수도권	100.0	2.0	0.2*	15.0	2.1	0.4	4.0	9.2	2.4	10.3	3.9	3.1	0.4	6.3	1.9	9.4	7.8	11.4	4.9	3.2	2.2
지역 2	서울	100.0	0.1*	0.0	6.2	1.0	0.4*	4.4	12.2	3.1	8.6	9.0	3.9	0.7*	9.0	3.0	7.4	7.5	8.7	9.5	4.2	1.1
	부산	100.0	0.5*	0.1*	10.2	1.6*	0.0	3.8	10.4	3.1	13.9	5.4	2.6	0.6*	5.2	1.7*	6.5	7.4	13.5	6.5	3.5	3.6
	대구	100.0	0.9*	0.0	10.1	2.7	0.1*	3.1	8.8	1.4*	13.5	4.0	3.5	0.7*	7.6	1.5*	8.8	8.9	13.6	4.9	2.3	3.6
	인천	100.0	0.3*	0.5*	11.9	0.8*	0.2*	4.6	9.1	6.6	11.6	5.8	3.1	1.1*	9.6	1.7*	6.2	6.1	9.0	5.7	2.0	4.1
	광주	100.0	0.5*	0.0	15.4	2.9	0.0	4.7	9.7	2.3*	8.3	4.0	3.4	0.0	7.1	2.4	8.3	6.6	15.7	4.0	4.7	0.1
	대전	100.0	0.6*	0.4*	10.4	1.6*	0.9*	4.4	12.8	2.4*	7.6	3.8	3.5	0.0	13.5	1.3*	9.7	7.8	10.1	3.8	2.5	2.9
	울산	100.0	0.6*	0.0	28.3	3.2	1.0*	6.5	6.2	2.4*	12.1	2.5*	2.8*	0.0	5.0	0.7*	3.2*	7.8	9.2	3.4	3.3*	1.8*
	세종	100.0	0.1*	0.0	9.2	0.1*	0.0	3.0*	4.4	1.6*	5.5	3.4*	0.0	0.8*	3.5	0.8*	31.5	11.1	7.0	7.2	3.0	7.7
경기	100.0	0.3*	0.0	15.3	2.0	0.1*	4.8	12.8	3.9	9.1	7.7	4.2	0.6*	6.6	2.0	5.1	6.7	7.8	6.6	2.7	1.8	

구분	비율	중사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강원	100.0	1.7*	0.0	8.8	3.5	1.5*	4.8	10.9	3.2	10.2	3.6	2.7*	0.2*	3.5	1.6*	15.7	7.7	10.1	6.6	3.5	0.2*
	충북	100.0	1.1*	0.7*	23.4	1.5*	1.4*	4.7	8.0	1.7*	5.4	4.6	2.5	0.5*	8.4	3.0	5.8	9.7	10.7	3.1	1.6	2.3*
	충남	100.0	7.6	0.0	23.7	0.8*	0.4*	1.9*	10.6	1.4*	4.9	2.6	1.6	0.2*	4.6	2.8	11.7	7.8	8.6	3.6	4.5	0.7*
	전북	100.0	2.8*	0.0	9.6	1.3*	0.0	3.6	7.6	2.6*	10.1	3.2	2.2*	0.6*	7.3	4.3	10.6	7.6	17.1	4.1	3.9	1.4*
	전남	100.0	6.0	0.0	12.8	3.5*	0.3*	5.1	9.4	2.8*	10.0	3.3*	7.9	0.0	3.6	1.7*	7.8	6.3	9.9	4.2*	4.9	0.4*
	경북	100.0	2.8	0.0	16.8	3.8	0.0	3.5	9.2	2.0	12.8	4.6	1.7*	0.4*	4.4	1.4*	10.1	6.4	11.2	5.2	2.0	1.7*
	경남	100.0	0.6*	0.6*	19.8	0.8*	0.5*	3.3	6.9	3.6	10.3	3.5	3.6	0.4*	6.4	1.4*	10.2	8.4	8.3	5.9	2.4*	3.0
	제주	100.0	3.3*	0.0	4.2*	2.2*	0.6*	7.3	9.5	2.4*	17.4	3.0*	7.5	1.0*	5.1	0.9*	6.3	7.8	7.1	6.1	3.3*	5.0
학력	고졸 이하	100.0	1.5	0.2*	18.5	1.7	0.5*	6.5	16.7	6.1	11.4	3.6	3.9	0.3*	3.0	2.7	3.7	1.2	3.7	6.1	5.8	3.0
	대학 재학·휴학	100.0	0.7*	0.0	4.2	0.5*	0.1*	2.6	16.2	3.4	31.5	1.8	0.8*	0.1*	2.0	1.0*	3.2	12.8	3.3	7.1	3.5	5.0
	대학 졸업	100.0	0.9	0.1*	12.6	1.9	0.3	4.0	8.5	2.4	6.1	7.5	3.9	0.7	9.1	2.2	9.2	8.2	12.2	6.5	2.4	1.3

n=10,543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규모는 10~29명 규모의 직장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0~99명(17.4%), 5~9명(16.5) 규모의 직장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소규모 직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중대형 직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중규모 이상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2~4명의 영세 소규모 직장 비율(22.2%)이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서 10~29명(22.3%) 및 30~99명(20.0%) 규모의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직장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10~29명 규모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서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9〉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단위: %)

구분	비율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1명 (본인)	2~4명	5~9명	10~ 29명	30~ 99명	10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 명 이상	
전체	100.0	6.0	16.2	16.5	21.3	17.4	9.6	3.8	3.4	6.0	
성별	남성	100.0	5.7	15.4	14.8	20.0	18.8	11.0	4.4	3.3	6.7
	여성	100.0	6.2	17.0	18.3	22.7	15.8	8.2	3.2	3.5	5.2
연령	19~24세	100.0	5.2	26.8	24.5	19.9	10.1	6.3	2.0	1.9	3.3
	25~29세	100.0	4.7	14.3	14.8	22.1	19.1	10.5	4.5	3.5	6.4
	30~34세	100.0	7.5	12.0	13.6	21.2	19.8	10.7	4.2	4.1	7.0
지역 1	수도권	100.0	5.9	14.6	15.9	22.0	18.4	9.5	4.3	3.6	5.8
	비수도권	100.0	6.0	18.1	17.2	20.4	16.1	9.9	3.2	3.0	6.2
지역 2	서울	100.0	6.6	13.0	15.4	23.2	19.5	9.6	4.2	3.0	5.5
	부산	100.0	7.1	19.0	20.3	17.7	14.3	8.9	2.8	3.1	6.6
	대구	100.0	6.9	19.3	18.5	24.9	11.6	7.8	2.7	2.4*	5.8
	인천	100.0	7.0	13.6	15.5	20.7	16.4	7.7	4.9	5.4	8.8
	광주	100.0	4.9	12.2	20.0	27.7	19.6	8.8	1.7	1.3*	3.8
	대전	100.0	4.8	22.8	14.5	19.7	11.8	7.3	3.9	5.9	9.3
	울산	100.0	4.8	14.8	18.0	15.9	13.1	12.0	3.6*	2.8*	15.0
	세종	100.0	4.6*	17.3	8.5	14.9	14.3	10.5	4.1*	8.4	17.4
	경기	100.0	5.1	16.2	16.4	21.2	17.9	9.7	4.3	3.8	5.3
	강원	100.0	3.6	13.4	21.1	24.3	16.4	10.8	2.5	3.4	4.5
충북	100.0	5.2	15.0	17.4	20.1	13.4	15.6	6.1	2.3*	4.9	

구분	비율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1명 (본인)	2~4명	5~9명	10~ 29명	30~ 99명	100.0~ 299명	300~ 499명	500~ 999명	1,000 명 이상	
지역	충남	100.0	4.8	19.9	12.0	20.1	20.7	10.6	4.4	3.1	4.4
	전북	100.0	5.3	15.7	15.0	19.5	21.4	12.4	2.6	3.4	4.8
	전남	100.0	8.7	19.3	15.1	23.6	20.0	9.0	1.3*	1.1*	1.9*
	경북	100.0	6.3	19.5	19.3	18.4	16.9	9.0	2.9	2.4*	5.3
	경남	100.0	7.3	18.9	14.2	17.8	16.0	9.1	4.0	4.2	8.6
	제주	100.0	6.5	24.0	23.4	18.5	15.7	8.6	0.3	0.7*	2.2*
학력	고졸 이하	100.0	8.9	22.2	21.0	21.4	13.2	6.6	2.0	1.7	2.8
	대학 재학·휴학	100.0	6.4	35.5	29.9	13.6	7.1	2.8	0.8*	1.1*	2.8
	대학 졸업 이상	100.0	5.1	11.7	13.3	22.3	20.0	11.4	4.7	4.1	7.3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청년 근로자의 재직 기간은 1년 미만이 28.1%, 1~3년 미만이 32.3%, 3년 이상이 39.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 청년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57.1%로 가장 높고, 25~29세는 1~3년 미만 재직 비율이 39.1%로 가장 높으며, 30~34세는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기 취업연령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이 쌓이며 장기 근속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1.2%로 여성(37.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1년 미만 재직 비율이 30.1%로 남성(26.2%)보다 높아, 여성의 경력 초기 단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1.0%로 비수도권(37.9%)보다 높아, 수도권에서 장기 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 1~3년 미만 비율(32.1%) 및 3년 이상 비율(39.2%)로 나타나며,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의 1년 미만 비율이 68.2%로 학업 병행으로 인한 단기 근로가 많은 특징을 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 청년은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 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30대 청년층에서 장기 근속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안정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10〉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에서의 재직 기간

(단위: %)

구분		비율	재직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100.0	28.1	32.3	39.7
성별	남성	100.0	26.2	32.6	41.2
	여성	100.0	30.1	32.0	37.9
연령	19~24세	100.0	57.1	35.0	7.9
	25~29세	100.0	26.8	39.1	34.0
	30~34세	100.0	13.3	24.3	62.3
지역 1	수도권	100.0	26.5	32.5	41.0
	비수도권	100.0	30.0	32.0	37.9
지역 2	서울	100.0	24.0	34.1	41.9
	부산	100.0	32.1	34.9	32.9
	대구	100.0	31.1	33.9	35.0
	인천	100.0	34.8	33.6	31.6
	광주	100.0	27.4	30.7	42.0
	대전	100.0	32.3	34.6	33.1
	울산	100.0	36.5	26.4	37.2
	세종	100.0	38.4	20.6	41.0
	경기	100.0	26.7	30.8	42.5
	강원	100.0	24.1	33.4	42.5
	충북	100.0	28.8	32.7	38.4
	충남	100.0	21.0	38.6	40.3
	전북	100.0	30.7	25.5	43.8
	전남	100.0	24.8	34.0	41.3
	경북	100.0	30.4	30.7	38.9
	경남	100.0	33.8	28.0	38.2
학력	제주	100.0	38.8	32.1	29.1
	고졸 이하	100.0	28.8	32.1	39.2
	대학 재학·휴학	100.0	68.2	26.0	5.7
	대학 졸업 이상	100.0	22.2	33.2	44.6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계약 기간에 따른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청년들의 76.2%가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80.8%가 기한 제한 없음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 구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며, 연

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일수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보수 및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94.8%가 고정된 보수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다. 보수 형태에서 고정되지 않은 보수는 실적급 등을 의미하며 고정된 보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의미한다. 고정된 보수 형태는 임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고졸 이하 청년에서 고정되지 않는 보수를 받는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적급 등 고정되지 않는 보수를 받는 청년 중 54.5%는 직장(일)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며, 45.5%의 청년은 위임·위탁·위촉·도급 계약·프리랜서 계약 등 근로계약 이외의 계약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11〉 고용계약(예상) 기간

(단위: %)

구분	고용계약 기간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비율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비율	1개월 미만	정하였음			비율	1개월 미만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기한 제한 없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3년	3년 초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3년	3년 초과						
전체	100.0	23.8	76.2	100.0	3.0	28.7	52.2	16.1	100.0	1.0	6.4	8.4	3.5	80.8					
성별	남성	100.0	22.1	77.9	100.0	4.1	27.6	48.3	20.1	100.0	1.2	6.5	7.6	3.6	81.1				
	여성	100.0	25.7	74.3	100.0	1.9	29.8	55.8	12.5	100.0	0.8	6.2	9.3	3.3	80.5				
연령	19~24세	100.0	38.2	61.8	100.0	3.7	48.0	44.2	4.1	100.0	2.4	20.0	18.0	2.9	56.7				
	25~29세	100.0	22.5	77.5	100.0	3.0	21.2	55.9	20.0	100.0	0.8	4.3	7.6	3.4	83.9				
	30~34세	100.0	16.8	83.2	100.0	2.0*	13.2	57.8	27.0	100.0	0.6	2.3	5.0	3.8	88.3				
지역 1	수도권	100.0	23.2	76.8	100.0	3.1	29.5	52.0	15.4	100.0	0.9	6.0	8.6	3.6	80.9				
	비수도권	100.0	24.6	75.4	100.0	2.8	27.8	52.4	16.9	100.0	1.1	6.8	8.1	3.3	80.6				
지역 2	서울	100.0	22.6	77.4	100.0	2.0*	32.0	51.7	14.3	100.0	0.6*	4.4	7.3	2.8	84.9				
	부산	100.0	28.5	71.5	100.0	3.5*	28.2	50.5	17.8	100.0	2.2*	11.6	10.0	3.1	73.1				
	대구	100.0	23.2	76.8	100.0	0.6*	21.9	60.8	16.7	100.0	1.4*	13.8	15.0	5.5	64.3				
	인천	100.0	30.8	69.2	100.0	1.2*	25.9	50.6	22.2	100.0	2.4*	9.9	13.4	3.5	70.8				
	광주	100.0	16.2	83.8	100.0	0.0	26.5	61.7	11.8*	100.0	0.0	4.3	3.8	2.1*	89.8				
	대전	100.0	26.0	74.1	100.0	8.4*	33.8	45.3	12.5*	100.0	2.0*	4.9	5.6	7.3	80.1				
	울산	100.0	29.7	70.3	100.0	0.9*	22.0	58.1	19.1	100.0	2.0*	9.5	7.9	7.4	73.2				
	세종	100.0	40.4	59.6	100.0	1.9*	35.2	38.0	24.9	100.0	0.0	6.8*	8.2*	5.3*	79.6				
	경기	100.0	22.0	78.0	100.0	4.7*	28.4	52.7	14.2	100.0	0.8*	6.5	8.7	4.2	79.7				
	강원	100.0	17.4	82.6	100.0	0.8*	22.7	62.3	14.1	100.0	0.3*	3.1*	6.1	2.2*	88.3				
충북	100.0	27.0	73.0	100.0	0.9*	28.9	53.1	17.1	100.0	1.9*	4.3	7.6	2.9*	83.3					
충남	100.0	16.5	83.5	100.0	3.5*	27.8	49.6	19.0	100.0	0.7*	3.0*	5.1	2.7*	88.5					

구분	고용계약 기간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비율	정하였음	정하지 않았음	비율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3년 초과	비율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3년 초과	기한 제한 없음	
						1~3년	3년 초과				1~3년	3년 초과			
전북	100.0	17.8	82.2	100.0	2.2*	36.5	51.0	10.2*	100.0	0.2*	3.7	7.9	1.2*	87.1	
전남	100.0	23.0	77.0	100.0	0.3*	35.6	46.6	17.6	100.0	0.2*	4.7	6.7	3.0*	85.3	
경북	100.0	24.0	76.0	100.0	1.5*	22.8	59.4	16.3	100.0	0.6*	5.9	6.3	2.3*	84.9	
경남	100.0	32.6	67.4	100.0	5.4*	26.8	46.7	21.1	100.0	1.4*	7.0	9.7	2.3*	79.6	
제주	100.0	33.2	66.8	100.0	3.0*	29.2	54.1	13.7*	100.0	2.5*	12.8	16.6	2.0*	66.1	
고졸 이하	100.0	22.7	77.3	100.0	3.8*	29.1	52.8	14.2	100.0	1.3	7.5	11.3	4.0	75.9	
학력 대학 재학·휴학	100.0	48.7	51.3	100.0	5.2	60.2	32.2	2.5*	100.0	5.4	35.0	25.2	1.3	33.2	
대학 졸업 이상	100.0	20.5	79.5	100.0	1.9	17.8	58.9	21.4	100.0	0.5	3.4	6.1	3.5	86.5	

n=9,608

주: 1) 결괏값은 보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5-12〉 보수 및 계약 형태

(단위: %)

구분	보수 형태			계약 형태			
	비율	고정되지 않은 보수	고정된 보수	비율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외	
전체	100.0	5.2	94.8	100.0	54.5	45.5	
성별	남성	100.0	5.6	94.4	100.0	54.1	45.9
	여성	100.0	4.7	95.3	100.0	55.1	44.9
연령	19~24세	100.0	5.5	94.5	100.0	63.4	36.6
	25~29세	100.0	5.4	94.6	100.0	52.9	47.1
	30~34세	100.0	4.9	95.1	100.0	50.5	49.5
지역 1	수도권	100.0	4.8	95.2	100.0	54.5	45.5
	비수도권	100.0	5.8	94.2	100.0	54.5	45.5
지역 2	서울	100.0	4.8	95.2	100.0	62.2	37.8
	부산	100.0	7.0	93.0	100.0	53.9	46.1
	대구	100.0	5.7	94.3	100.0	57.4	42.6
	인천	100.0	5.7	94.3	100.0	38.5	61.5
	광주	100.0	3.4	96.6	100.0	32.0*	68.0
	대전	100.0	8.0	92.0	100.0	68.4	31.6
	울산	100.0	9.1	90.9	100.0	63.0	37.0
	세종	100.0	3.1*	96.9	100.0	65.3	34.7*
경기	100.0	4.5	95.5	100.0	52.3	47.7	

구분	보수 형태			계약 형태			
	비율	고정되지 않은 보수	고정된 보수	비율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외	
지역	강원	100.0	3.5	96.5	100.0	49.6	50.4
	충북	100.0	6.8	93.2	100.0	47.0	53.0
	충남	100.0	2.9*	97.1	100.0	26.2*	73.8
	전북	100.0	4.1	95.9	100.0	21.4*	78.6
	전남	100.0	5.4	94.6	100.0	59.5	40.5
	경북	100.0	5.8	94.2	100.0	66.3	33.7
	경남	100.0	6.2	93.8	100.0	70.5	29.5
	제주	100.0	11.1	88.9	100.0	36.7	63.3
학력	고졸 이하	100.0	9.6	90.4	100.0	53.2	46.8
	대학 재학·휴학	100.0	5.0	95.0	100.0	56.2	43.8
	대학 졸업 이상	100.0	4.1	95.9	100.0	55.0	45.0

n=9,608(보수 형태); 518(계약 형태)

주: 1) 결괏값은 보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보수 형태에서 고정되지 않은 보수는 실적급 등을 의미하며 고정된 보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의미함.

6)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 이외는 위임, 위탁, 위촉, 도급계약, 프리랜서 등이 해당함.

7)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아래 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사업체 또는 활동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가격이 다른 사업체 또는 기관(본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반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 본인(시장 가격)이 결정하는 경우는 독립적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영업자임을 의미한다. 응답자 중 66.4%가 본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독립적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1.4%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이 본사 또는 상위기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반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저연령, 고졸 이하일수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반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중 9.6%는 고객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8.1%, 여성은 11.3%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비수도권 8.8%, 수도권 10.3%로 수도권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3-5-13〉 보수 및 상품의 가격 결정

(단위: %)

구분	비율	보수 및 상품의 가격 결정				
		다른 사업체 또는 기관(본사)	고객	본인 (시장가격)	관련제도(정부, 지자체 등)	
전체	100.0	21.4	9.6	66.4	2.6	
성별	남성	100.0	25.4	8.1	64.9	1.6
	여성	100.0	17.0	11.3	67.9	3.7*
연령	19~24세	100.0	25.2	15.9	54.5	4.4*
	25~29세	100.0	22.6	10.5	66.0	1.0*
	30~34세	100.0	19.7	7.4	69.8	3.1
지역 1	수도권	100.0	21.3	10.3	65.4	3.0*
	비수도권	100.0	21.5	8.8	67.6	2.1*
지역 2	서울	100.0	13.9	11.6	73.2	1.3*
	부산	100.0	14.0*	11.2*	69.7	5.1*
	대구	100.0	28.7	7.5*	62.9	0.9*
	인천	100.0	22.6*	3.8*	67.6	6.0*
	광주	100.0	12.9*	14.5*	72.6	0.0
	대전	100.0	25.6*	9.9*	62.6	1.9*
	울산	100.0	12.6*	6.9*	79.1	1.4*
	세종	100.0	61.7	11.9*	18.0*	8.3*
	경기	100.0	27.9	10.4	57.9	3.8*
	강원	100.0	13.3*	0.9*	85.8	0.0
	충북	100.0	18.5*	10.6*	70.9	0.0
	충남	100.0	10.6*	3.5*	78.5	7.4*
	전북	100.0	29.3*	9.5*	60.0	1.1*
	전남	100.0	24.4*	5.6*	68.5	1.5*
	경북	100.0	31.8	7.0*	60.0	1.3*
	경남	100.0	16.9*	13.1*	70.0	0.0
제주	100.0	35.4	13.6*	49.4	1.5*	
학력	고졸 이하	100.0	29.6	6.4*	62.8	1.1*
	대학 재학·휴학	100.0	24.8	29.5	40.0	5.6*
	대학 졸업 이상	100.0	17.1	9.3	70.6	3.0

n=8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3) 근로시간 및 추가 근로(근무)

지난주에 36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 비율은 80.4%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 취업자가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83.9%)이 여성(76.5%)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여성 취업자의 23.5%는 36시간 미만 일하여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짧은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34세에서 36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89.5%로 가장 높았고, 19~24에서 51.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0.9%)과 비수도권(79.7%)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의 36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88.2%로, 다른 학력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5-14〉 지난주 36시간 이상 근로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36시간 이상 근로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00.0	80.4	19.6
성별	남성	100.0	83.9	16.1
	여성	100.0	76.5	23.5
연령	19~24세	100.0	51.5	48.5
	25~29세	100.0	87.4	12.6
	30~34세	100.0	89.5	10.5
지역 1	수도권	100.0	80.9	19.1
	비수도권	100.0	79.7	20.3
지역 2	서울	100.0	82.7	17.3
	부산	100.0	71.6	28.4
	대구	100.0	72.5	27.5
	인천	100.0	75.8	24.2
	광주	100.0	83.0	17.0
	대전	100.0	77.7	22.3
	울산	100.0	78.8	21.2
	세종	100.0	75.5	24.5
	경기	100.0	80.5	19.5
	강원	100.0	85.7	14.3
	충북	100.0	84.4	15.6
	충남	100.0	88.9	11.1
	전북	100.0	81.5	18.5
	전남	100.0	85.8	14.2
	경북	100.0	82.4	17.6
	경남	100.0	78.1	21.9
제주	100.0	71.3	28.7	

구분	비율	36시간 이상 근로 여부		
		예	아니오	
학력	고졸 이하	100.0	82.9	17.1
	대학 재학·휴학	100.0	20.9	79.1
	대학 졸업 이상	100.0	88.2	11.8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청년들의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추가 근무 주당 평균 횟수는 0.7회이며, 이 중 71.8%가 추가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는 평균 0.2회였으며, 76.2%가 추가수당을 지급받았다. 남성의 추가 근무 및 휴일 근무 횟수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추가수당 지급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 청년층에서 추가수당 지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추가 근무 및 휴일 근무 횟수와 추가수당 지급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청년들이 더 많은 근로 시간 외 근무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

〈표 3-5-15〉 주당 추가 근무 횟수 및 추가수당 지급 비율

(단위: %)

구분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		
	주당 횟수	추가수당 지급(%)	주당 횟수	추가수당 지급(%)	
전체	0.7	71.8	0.2	76.2	
성별	남성	0.8	73.4	0.3	79.5
	여성	0.6	69.4	0.2	71.6
연령	19~24세	0.5	70.0	0.2	68.9
	25~29세	0.7	71.8	0.2	74.1
	30~34세	0.7	72.6	0.2	82.8
지역 1	수도권	0.6	66.5	0.2	74.6
	비수도권	0.7	77.7	0.3	77.7
지역 2	서울	0.5	59.9	0.2	71.0
	부산	0.7	73.3	0.3	73.9
	대구	0.7	78.4	0.3	75.1
	인천	1.0	55.3	0.3	73.1
	광주	0.3	78.3	0.1	69.4

구분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		
	주당 횟수	추가수당 수급(%)	주당 횟수	추가수당 수급(%)	
지역	대전	0.8	67.7	0.3	68.5
	울산	0.9	83.5	0.4	89.1
	세종	0.9	81.3	0.3	72.6
	경기	0.6	74.1	0.2	77.6
	강원	0.5	84.4	0.2	86.7
	충북	0.9	77.5	0.3	82.3
	충남	0.8	80.3	0.3	84.2
	전북	0.4	78.3	0.2	77.2
	전남	0.6	91.7	0.3	86.8
	경북	0.6	71.3	0.3	72.9
	경남	0.9	80.3	0.4	81.5
	제주	0.7	67.4	0.3	57.1
학력	고졸 이하	0.6	76.2	0.2	72.3
	대학 재학·휴학	0.4	66.2	0.2	61.6
	대학 졸업 이상	0.7	71.3	0.2	78.8

n=9,60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주 추가 근로를 희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년의 32.9%가 추가 근로를 희망한 반면, 67.1%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현재의 근로시간에 만족하거나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추가 근로 희망 비율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현재의 근로시간 및 직장에 더 만족하거나, 더 많은 근로를 부담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추가 근로 희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더 많은 시간 일 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은 비율이 1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추가 소득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16〉 지난해 추가 근로 희망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추가 근로 희망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전체	100.0	9.1	12.8	11.0	67.1	
성별	남성	100.0	8.0	12.1	12.0	67.9
	여성	100.0	9.9	13.4	10.2	66.5
연령	19~24세	100.0	7.7	12.6	9.7	70.0
	25~29세	100.0	12.0	11.6	16.3	60.2
	30~34세	100.0	9.6	14.8	8.2	67.4
지역 1	수도권	100.0	9.4	13.6	10.1	66.9
	비수도권	100.0	8.8	11.9	12.0	67.3
지역 2	서울	100.0	8.0	10.4	8.5	73.2
	부산	100.0	8.2	13.3	9.2	69.2
	대구	100.0	6.9	11.6	13.7	67.7
	인천	100.0	11.7	17.3	15.8	55.2
	광주	100.0	6.7*	10.5*	14.6	68.2
	대전	100.0	10.8*	11.1*	14.8	63.2
	울산	100.0	24.1	14.7*	11.2*	50.1
	세종	100.0	7.7*	14.6*	7.9*	69.9
	경기	100.0	9.7	15.0	9.7	65.5
	강원	100.0	10.9*	14.5*	16.4	58.2
	충북	100.0	6.8*	11.2*	12.0*	70.0
	충남	100.0	5.6*	10.3*	13.3*	70.8
	전북	100.0	7.0*	7.6*	9.7	75.6
	전남	100.0	5.7*	5.2*	13.0*	76.0
	경북	100.0	9.2*	8.6	16.9	65.3
	경남	100.0	10.0	14.8	8.7*	66.4
제주	100.0	5.4*	16.9	8.9*	68.9	
학력	고졸 이하	100.0	8.6	17.1	10.6	63.7
	대학 재학·휴학	100.0	7.9	11.1	6.9	74.0
	대학 졸업 이상	100.0	10.4	12.8	15.0	61.8

n=2,19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지난주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 중 실제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은 46.3%,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근로를 희망한 청년 중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의 구직 경험 비율이 42.4%로 여성(49.0%)보다 낮게 나타나며, 추가 근로를 위한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대의 청년들이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비율이 5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구직 경험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활동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표 3-5-17〉 지난주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있었음	없었음
전체	100.0	46.3	53.7
성별	남성	42.4	57.6
	여성	49.0	51.0
연령	19~24세	44.9	55.1
	25~29세	50.4	49.6
	30~34세	43.7	56.3
지역 1	수도권	47.3	52.7
	비수도권	45.0	55.0
학력	고졸 이하	36.9	63.1
	대학 재학·휴학	42.5	57.5
	대학 졸업 이상	52.2	47.8

n=2,195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업무 자율성

아래 표는 현재 직장에서의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장소에 대한 업무 자율성 정도를 살펴본 표이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에 있어 회사가 결정하며 변경이 불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하는 장소에 대한 자율성에 있어 '회사가 결정, 변경 불가' 비율이 65.9%로, 장소에 대한 자율성이 시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여성보다 자율성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30~34세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율성을 보였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일의 양과 내용에 대한 업무 자율성 정도에 있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의 양에 있어 '회사가 결정, 변경 불가' 비율이 43.7%인 반면 '전적으로 내가 결정' 비율이 9.5%를 보였다. 일의 내용은 '회사가 결정, 변경 불가' 비율이 40.4%인 반면, '전적으로 내가 결정' 비율이 10.6%를 보였다. 청년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성이 높지 않으며, 특히 '전적으로 내가 결정' 가능한 비율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일의 내용과 양은 시간과 장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업무 자율성에서 더 높은 자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업무 자율성이 조금씩 증가하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으며 제약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대비 일의 양, 일하는 장소, 일의 내용의 자율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자율성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종사상 지위별, 업무 특성별 업무 자율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3-5-18〉 업무 자율성 정도: 일하는 시간 및 장소

(단위: %)

구분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전체	55.2	26.4	9.6	8.8	65.9	19.8	6.5	7.7	
성별	남성	53.5	26.7	10.2	9.6	62.3	22.1	7.2	8.4
	여성	57.0	26.2	8.9	8.0	69.9	17.3	5.8	7.0
연령	19~24세	54.4	27.6	10.3	7.7	67.9	19.2	6.3	6.5
	25~29세	56.4	26.3	9.5	7.8	66.6	19.8	6.8	6.8
	30~34세	54.5	25.9	9.2	10.4	64.2	20.2	6.3	9.2
지역 1	수도권	56.2	26.0	9.6	8.2	67.1	19.2	6.6	7.1
	비수도권	53.9	27.0	9.5	9.6	64.5	20.6	6.4	8.5
지역 2	서울	57.2	26.7	8.2	7.9	66.3	21.3	6.4	6.0
	부산	45.0	31.7	11.2	12.1	56.7	22.5	9.4	11.4
	대구	53.3	26.6	11.0	9.1	66.0	20.4	6.3	7.2
	인천	51.8	26.1	10.6	11.4	66.3	16.8	5.9	11.0
	광주	46.6	40.2	3.4	9.8	54.2	36.2	2.0	7.6
	대전	54.2	24.7	10.5	10.6	67.0	16.7	6.0	10.3
	울산	57.7	24.8	9.1	8.5	68.3	19.4	5.0	7.3
	세종	47.8	29.5	15.3	7.5	65.0	17.4	11.3	6.3
	경기	56.3	25.4	10.6	7.8	67.9	18.0	7.0	7.1
	강원	59.0	24.9	8.0	8.1	67.9	18.7	6.4	7.0
	충북	55.0	29.5	7.4	8.2	56.8	28.3	8.1	6.8
	충남	64.7	17.0	8.7	9.6	75.0	10.8	5.7	8.5
	전북	59.2	23.0	9.1	8.7	70.5	16.7	4.4	8.4
	전남	63.7	18.1	6.5	11.8	72.2	12.5	4.6*	10.7
	경북	51.8	27.7	11.1	9.4	63.9	22.4	6.1	7.6
	경남	53.4	28.2	10.2	8.2	64.9	20.7	6.3	8.1
제주	42.2	32.7	14.8	10.3	59.4	23.5	8.8	8.4	
학력	고졸 이하	51.0	25.5	9.6	13.9	60.3	20.5	6.6	12.6
	대학 재학·휴학	47.8	30.2	11.6	10.4	65.4	20.3	7.5	6.7
	대학 졸업 이상	57.4	26.2	9.2	7.2	67.5	19.6	6.4	6.5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5-19〉 업무 자율성 정도: 일의 양 및 내용

(단위: %)

구분	일의 양				일의 내용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전체	43.7	34.7	12.1	9.5	40.4	35.4	13.6	10.6	
성별	남성	43.1	34.8	12.0	10.1	39.4	36.3	13.4	10.8
	여성	44.3	34.6	12.2	8.8	41.5	34.4	13.9	10.3
연령	19~24세	46.9	31.8	12.8	8.4	44.8	32.9	12.9	9.3
	25~29세	45.3	34.4	12.0	8.3	40.9	36.0	14.0	9.1
	30~34세	40.5	36.5	11.8	11.2	37.5	36.1	13.7	12.6
지역 1	수도권	43.4	36.1	12.2	8.3	41.0	35.4	14.4	9.2
	비수도권	44.1	32.9	12.0	11.0	39.7	35.3	12.7	12.3
지역 2	서울	45.8	34.8	11.2	8.1	43.5	33.5	14.3	8.7
	부산	38.2	34.4	13.9	13.6	32.9	37.6	14.9	14.6
	대구	44.3	34.6	10.4	10.6	37.8	38.4	10.9	12.9
	인천	46.5	29.7	13.3	10.4	41.9	32.1	14.5	11.5
	광주	38.1	45.0	4.5	12.4	38.6	42.5	5.7	13.2
	대전	44.9	32.0	11.8	11.3	38.5	37.7	12.6	11.3
	울산	52.8	26.1	14.3	6.9	42.7	32.7	13.8	10.8
	세종	46.2	30.0	13.8	10.0	39.7	29.5	20.9	9.9
	경기	40.5	38.7	12.7	8.0	38.7	37.8	14.4	9.1
	강원	46.8	29.5	14.3	9.3	46.4	28.6	14.3	10.7
	충북	39.3	40.8	12.1	7.7	37.7	41.1	13.1	8.1
	충남	49.1	29.4	11.3	10.1	40.5	36.0	11.1	12.5
	전북	54.8	22.9	11.2	11.0	52.4	23.1	11.0	13.5
	전남	50.4	28.3	8.0	13.2	50.7	26.1	9.9	13.2
	경북	38.6	38.9	12.6	10.0	36.6	38.0	14.5	11.0
	경남	44.7	28.3	15.3	11.8	37.3	35.1	14.4	13.2
	제주	39.0	33.2	15.7	12.1	33.4	35.5	17.2	13.9
학력	고졸 이하	39.4	34.7	11.8	14.1	37.2	33.0	13.8	16.0
	대학 재학·휴학	47.1	30.5	13.2	9.2	43.7	32.0	14.4	9.9
	대학 졸업 이상	44.4	35.3	12.1	8.3	40.8	36.5	13.5	9.2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일자리 안정성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불안정성에 있어 현재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51.8%(그렇다 14.1%, 대체로 그렇다 37.7%)로 약 절반이 유사한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5%, 전혀 그렇지 않다 4.5%로 약 18.0%의 응답자는 실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 18.7%, 여성 17.3%).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실직 관련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년과 여성일수록 유사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3.5%가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49.6%가 유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들이 다소 불안정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0〉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실직 관련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4.1	37.7	30.2	13.5	4.5	
성별	남성	100.0	13.6	37.0	30.7	13.7	5.0
	여성	100.0	14.6	38.4	29.7	13.2	4.1
연령	19~24세	100.0	18.2	38.2	29.2	10.0	4.3
	25~29세	100.0	13.4	39.4	30.0	12.7	4.5
	30~34세	100.0	12.4	35.8	31.0	16.1	4.7
지역 1	수도권	100.0	13.7	39.8	30.2	12.6	3.7
	비수도권	100.0	14.5	35.1	30.3	14.6	5.6
지역 2	서울	100.0	12.7	40.1	30.4	13.2	3.6
	부산	100.0	16.6	41.0	27.6	10.5	4.3
	대구	100.0	16.4	36.5	29.5	12.7	4.9
	인천	100.0	18.9	28.5	30.9	14.5	7.3
	광주	100.0	7.4	45.0	30.6	13.4	3.6
대전	100.0	18.7	33.6	26.8	14.9	6.0	

구분	비율	현재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울산	100.0	19.5	23.5	30.7	14.3	12.0	
세종	100.0	15.9	23.1	33.2	17.4	10.5	
경기	100.0	13.4	42.1	29.8	11.7	3.0	
강원	100.0	13.6	31.5	30.2	16.6	8.1	
충북	100.0	14.5	31.9	27.6	21.7	4.4	
충남	100.0	9.4	38.2	31.2	16.5	4.8	
전북	100.0	12.1	38.5	35.0	11.5	2.9*	
전남	100.0	13.7	27.5	35.7	17.2	5.9	
경북	100.0	12.1	39.7	30.3	14.7	3.2	
경남	100.0	18.3	29.6	29.1	14.3	8.7	
제주	100.0	14.4	27.3	37.6	13.9	6.8	
학력	고졸 이하	100.0	13.0	37.6	29.6	13.9	5.9
	대학 재학·휴학	100.0	22.9	35.8	28.0	9.3	4.0
	대학 졸업 이상	100.0	13.1	38.0	30.7	14.0	4.3

n=10,543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으로 기술 변화로 인한 실직 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을 살펴봤다. ‘매우 그렇다’ 4.0%, ‘대체로 그렇다’ 14.2%로 기술 변화로 인해 실직 가능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1.2%,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31.0%, ‘전혀 그렇지 않다’는 19.6%로 기술 변화로 인한 실직 가능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응답이 과반수(50.6%)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 중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매우 그렇다 3.9%, 대체로 그렇다 13.8%)이 17.7%이며, 여성은 18.6%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20.0%, 25~29세는 17.3%, 30~34세는 18.0%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6.1%에 비해 수도권이 19.8%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19.9%, 대학 재학/휴학 19.8%, 대학 졸업 이상 16.5%의 비율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1〉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기술 변화 관련

(단위: %)

구분	비율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 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4.0	14.2	31.2	31.0	19.6	
성별	남성	100.0	3.9	13.8	30.6	30.9	20.7
	여성	100.0	4.1	14.5	31.9	31.0	18.4
연령	19~24세	100.0	4.3	15.7	32.1	29.9	18.1
	25~29세	100.0	3.9	13.4	31.4	31.4	19.9
	30~34세	100.0	3.9	14.1	30.6	31.2	20.2
지역 1	수도권	100.0	3.9	15.9	32.8	28.4	19.1
	비수도권	100.0	4.1	12.0	29.2	34.3	20.3
지역 2	서울	100.0	2.8	14.6	30.6	28.1	23.9
	부산	100.0	6.5	9.4	29.6	30.3	24.2
	대구	100.0	3.2	13.3	27.1	34.2	22.2
	인천	100.0	6.5	17.7	31.6	27.3	16.8
	광주	100.0	2.5*	7.2	32.1	42.7	15.5
	대전	100.0	4.1*	11.7	27.0	35.6	21.7
	울산	100.0	4.7	14.6	30.3	28.1	22.4
	세종	100.0	5.4*	16.6	27.5	32.7	17.8
	경기	100.0	4.3	16.5	34.9	28.8	15.5
	강원	100.0	3.5	11.5	32.6	32.6	19.8
	충북	100.0	3.6	14.8	29.4	39.5	12.6
	충남	100.0	2.1*	7.3	24.5	42.9	23.3
	전북	100.0	3.5	11.2	25.7	34.8	24.8
	전남	100.0	5.6	13.3	28.0	27.9	25.2
	경북	100.0	2.0	12.0	31.3	35.8	18.9
	경남	100.0	6.3	15.8	31.8	30.0	16.1
	제주	100.0	4.0*	16.8	34.4	28.8	16.0
학력	고졸 이하	100.0	5.0	14.9	31.9	29.3	18.9
	대학 재학·휴학	100.0	6.2	19.8	31.3	25.6	17.0
	대학 졸업 이상	100.0	3.4	13.1	31.0	32.2	20.2

n=10,543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나. 미취업자

### 1) 미취업 현황

현재 미취업자인 청년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14.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6.0%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대다수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연령군에서 구직 경험 비율이 9.6%, 없는 비율은 9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직 활동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5~29세는 구직 경험 비율이 21.9%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구직 활동률을 보인다. 성별과 수도권/비수도권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군에서 구직 활동이 활발함을 보여준다.

〈표 3-5-22〉 (미취업자) 지난 4주간 구직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지난 4주간 구직 경험	
		구해보았음	구해보지 않았음
전체	100.0	14.0	86.0
성별	남성	13.9	86.1
	여성	14.1	85.9
연령	19~24세	9.6	90.4
	25~29세	21.6	78.4
	30~34세	17.7	82.3
지역 1	수도권	14.4	85.6
	비수도권	13.6	86.4
지역 2	서울	16.5	83.5
	부산	16.8	83.2
	대구	13.7	86.3
	인천	20.1	79.9
	광주	10.5	89.5
	대전	15.6	84.4
	울산	19.0	81.0
	세종	17.3	82.7
	경기	11.7	88.3
강원	14.9	85.1	

구분	비율	지난 4주간 구직 경험		
		구해보았음	구해보지 않았음	
지역	충북	100.0	5.3*	94.7
	충남	100.0	10.0	90.0
	전북	100.0	7.3*	92.7
	전남	100.0	9.8	90.2
	경북	100.0	14.5	85.5
	경남	100.0	16.2	83.8
	제주	100.0	20.2	79.8
학력	고졸 이하	100.0	17.8	82.2
	대학 재학·휴학	100.0	5.4	94.6
	대학 졸업 이상	100.0	22.7	77.3

n=4,555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지난 4주간 구직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구직 기간은 6.5개월로 집계되었다. 2022년 당시 평균 구직 기간 4.8개월보다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비율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2년 미만은 12.3%, 2년 이상의 장기 구직자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구직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2년 이상 장기 구직자 비율 또한 6.9%(여성 3.2%)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외의 평균 구직 기간은 7.0개월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긴 구직 기간을 보이며, 대학 졸업 이상 학력군에서 더 긴 구직 기간을 보임과 동시에 2년 이상 장기 구직 활동 비율도 6.7%로 가장 높다. 대부분의 미취업자들이 1년 미만의 단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30대 초반 청년층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에서 장기 구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 시장에서 경력 및 고학력 청년들이 느끼는 직업 탐색( 및 직업 매칭)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5-23〉 (미취업자) 구직활동 기간

(단위: %)

구분	구직활동 기간				평균 구직 기간 (개월)	
	비율	1개월 이상~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100.0	82.5	12.3	5.2	6.5	
성별	남성	100.0	77.9	15.3	6.9	7.3
	여성	100.0	88.0	8.7	3.2	5.5
연령	19~24세	100.0	90.6	5.2	4.2	5.0
	25~29세	100.0	78.4	16.9	4.7	7.0
	30~34세	100.0	75.7	16.5	7.8	8.1
지역 1	수도권	100.0	79.8	14.2	6.0	7.0
	비수도권	100.0	85.6	10.1	4.3	5.8
학력	고졸 이하	100.0	89.8	8.4	1.9	5.1
	대학 재학·휴학	100.0	95.0	2.4	2.6	3.2
	대학 졸업 이상	100.0	77.5	15.8	6.7	7.7

n=526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비구직자 현황

지난주 비구직자 중에서 직장(일)을 희망하지 않은 비율은 92.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직장을 희망하는 비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직장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은 남성 92.9%, 여성 91.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의 직장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94.8%, 희망 비율은 5.2%로, 연령대 중 직장 희망 비율이 가장 낮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세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 결과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 직장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92.3%, 대학 재학·휴학은 96.2%, 대학 졸업 이상 87.0%의 비율로 직장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장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의 구직 의지가 낮거나 현재 생활 상태에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3-5-24〉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주 직장(일) 희망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직장(일) 희망 여부	
			원하였음	원하지 않았음
전체		100.0	7.6	92.4
성별	남성	100.0	7.1	92.9
	여성	100.0	8.2	91.8
연령	19~24세	100.0	5.2	94.8
	25~29세	100.0	14.4	85.6
	30~34세	100.0	7.4	92.6
지역 1	수도권	100.0	7.3	92.7
	비수도권	100.0	8.0	92.0
지역 2	서울	100.0	6.5	93.5
	부산	100.0	9.2	90.8
	대구	100.0	8.8	91.2
	인천	100.0	16.4	83.6
	광주	100.0	3.3*	96.7
	대전	100.0	13.6	86.4
	울산	100.0	12.5	87.5
	세종	100.0	7.3*	92.7
	경기	100.0	6.4	93.6
	강원	100.0	7.0	93.0
	충북	100.0	9.8	90.2
	충남	100.0	2.8*	97.2
	전북	100.0	7.7	92.3
	전남	100.0	5.5*	94.5
	경북	100.0	3.6*	96.4
	경남	100.0	11.7	88.3
제주	100.0	6.8*	93.2	
학력	고졸 이하	100.0	7.7	92.3
	대학 재학·휴학	100.0	3.8	96.2
	대학 졸업 이상	100.0	13.0	87.0

n=3,922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다음으로 지난주에 일을 희망하였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구직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취업 준비 중'으로 36.2%였다. 이는 지난주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0.0%, '기능·학력·능력 부족은 12.0%', '당분간 쉬고 싶어서'는 9.7%,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7.5% 순으로 집계되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유에 있어 성별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여성의 30.7%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반면, 여성은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15.1%로 남성의 3.1%보다 12.0%포인트 높아, 육아 및 가사가 여성 비구직자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은 '당분간 쉬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11.0%로 남성의 8.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 비구직자가 상대적으로 휴식이나 비경제적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2.6%, 27.4%로 나타나, 청년층 전반이 노동 시장 내의 조건과 기회 불일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43.3%로, 수도권의 29.0%보다 13.3%포인트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 기회와 경쟁 심화로 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취업 준비 중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연령대가 경력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에서 취업 준비 중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아, 고학력일수록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고졸 이하에서는 기능·학력·능력 부족 응답이 13.9%로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시 자격 요건에서의 제약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25>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구직하지 않은 이유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취업을 위해 준비 중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가사 일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전체	100.0	30.0	1.7*	12.0	0.0	36.2	7.5	0.3*	2.4*	9.7	0.2*	
성별	남성	100.0	32.6	2.6*	12.4	0.0	41.6	0.0	0.0	2.4*	8.4*	0.0
	여성	100.0	27.4	0.7*	11.6*	0.0	30.7	15.1	0.6*	2.4*	11.0	0.4*
연령	19~24세	100.0	34.2	2.5*	8.9*	0.0	36.2	0.3*	0.7*	0.5*	16.6	0.0
	25~29세	100.0	25.1	0.6*	19.0	0.0	45.6	2.7*	0.0	3.5*	3.4*	0.0
	30~34세	100.0	32.1	2.1*	1.6*	0.0	11.9*	38.1	0.0	4.3*	8.6*	1.3*
지역 1	수도권	100.0	34.2	1.5*	13.3*	0.0	29.0	9.1*	0.6*	1.8*	10.6*	0.0
	비수도권	100.0	25.9	1.9*	10.7	0.0	43.3	6.0	0.0	3.0*	8.9	0.4*
학력	고졸 이하	100.0	28.2*	4.2*	13.9*	0.0	13.9*	18.2*	0.0	3.8*	17.8*	0.0
	대학 재학·휴학	100.0	38.6	2.9*	10.3*	0.0	29.4	0.0	1.1*	0.0	17.7*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26.9	0.6*	12.3	0.0	43.5	8.5*	0.0	3.1*	4.8*	0.3*

n=307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을 제외한 미취업자의 평소 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정규 교육기관 통학'으로 34.8%였으며, 이어 '쉬었음'이 27.5%, '취업 준비'가 13.3%로 나타났다.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7.6%로 2022년 18.9%에서 8.6% 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정규 교육기관 통학' 비율이 38.9%로 여성의 30.2%보다 높았으며, '취업 준비' 비율 역시 남성(14.6%)이 여성(11.8%)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은 '육아'(17.8%)와 '가사'(8.4%)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높아, 여성 비구직자가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정규 교육기관 통학' 비율이 52.2%로 높아

학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25~29세에서는 ‘취업 준비’ 비율이 2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경력 형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30~34세는 ‘육아’(38.7%) 비율이 높아, 경제활동보다 가족 돌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규교육 기관 통학’과 ‘쉬었음’이 주요 활동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에서 ‘쉬었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고졸이하 ‘쉬었음’ 45.1%, 대학 졸업 이상 ‘쉬었음’ 33.1%), 대학 재학·휴학자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64.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에서 교육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보다 단순히 쉬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5-26〉 지난해 주된 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비율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 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고시 학원, 직업 훈련 기관)	취업 준비 (학원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진학 준비 (학원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질병 등에 따른 요양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	
전체	100.0	8.7	4.6	34.8	1.0	4.4	13.3	2.1	1.2	2.2	27.5	0.1*	
성별	남성	100.0	0.7*	1.4	38.9	1.3*	4.4	14.6	2.4	1.2	4.1	30.9	0.2*
	여성	100.0	17.8	8.4	30.2	0.7*	4.4	11.8	1.7	1.3	0.0*	23.6	0.1*
연령	19~24세	100.0	0.4*	0.6*	52.2	1.5	3.9	10.4	2.6	0.4*	3.6	24.3	0.1*
	25~29세	100.0	8.1	8.7	13.0	0.5*	6.3	23.3	1.9	2.5	0.2*	35.5	0.1*
	30~34세	100.0	38.7	13.5	2.8*	0.0	3.6	9.9	0.3*	2.5	0.0	28.3	0.5*
지역 1	수도권	100.0	8.0	5.0	35.0	1.6	4.2	12.4	2.4	1.3*	1.8	28.0	0.2*
	비수도권	100.0	9.4	4.3	34.6	0.4	4.6	14.2	1.6*	1.1*	2.6	26.9	0.1*
지역 2	서울	100.0	9.1	1.3*	38.5	1.7*	4.4	9.8	2.7*	1.3*	2.4*	28.8	0.0*
	부산	100.0	8.2	4.0*	29.8	0.8*	5.0	17.0	1.6*	1.4*	1.5*	30.7	0.0
	대구	100.0	9.6	3.9*	25.2	0.0	6.3	14.2	1.4*	0.4*	1.5*	37.5	0.0
	인천	100.0	8.5	5.0*	13.8	2.3*	11.0	15.5	2.8*	2.2*	1.3*	36.9	0.8*
	광주	100.0	11.6	5.5*	43.3	0.3*	9.9	14.8	0.6*	1.4*	2.3*	10.3	0.0
대전	100.0	10.3	3.2*	38.3	0.9*	2.8*	12.1	3.0*	0.2*	0.9*	27.3	1.0*	

구분	비율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육아	가사	정규 교육 기관 통학	입시 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고시 학원, 직업 훈련 기관)	취업 준비 (학원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진학 준비 (학원이나 기관 통학 하지 않음)	질병 등에 따른 요양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	
울산	100.0	18.3	4.8*	18.1	0.0	3.9*	18.6	3.1*	0.3*	5.0*	27.1	0.8*	
세종	100.0	8.9*	7.1*	13.1*	0.4*	5.1*	19.6	0.0	0.0	6.1*	39.8	0.0	
경기	100.0	7.1	7.6	36.3	1.4*	2.9	13.7	2.2*	1.1*	1.6*	26.0	0.2*	
강원	100.0	11.1	3.5*	41.5	0.0	2.0*	13.8	1.9*	2.4*	3.0*	20.9	0.0	
충북	100.0	9.4	6.2*	30.0	1.1*	3.4*	9.8	1.5*	0.0	5.8*	32.8	0.0	
충남	100.0	9.3	2.5*	59.8	0.5*	1.9*	7.1	0.5*	1.2*	0.9*	16.2	0.0	
전북	100.0	5.1*	4.1*	39.1	0.0	7.0*	16.5	1.5*	1.7*	3.2*	21.6	0.0	
전남	100.0	11.8	4.3*	43.0	0.6*	2.4*	10.0	1.2*	1.0*	3.7*	22.1	0.0	
경북	100.0	10.8	2.2*	45.4	0.0	2.9*	11.8	2.1*	0.0	2.5*	22.2	0.0	
경남	100.0	5.1	5.8	20.4	0.6*	5.7*	18.7	2.0*	2.4*	3.1*	36.3	0.0	
제주	100.0	8.3*	7.3*	12.5	0.8*	1.9*	18.5	3.3*	2.9*	6.2*	38.4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12.7	10.2	0.5*	4.4*	6.2	10.1	3.6	4.2	3.0	45.1	0.0
	대학 재학·휴학	100.0	0.4*	0.3*	64.3	0.8*	1.9	7.7	1.9	0.2*	3.4	19.0	0.0
	대학 졸업 이상	100.0	18.6	8.6	6.4	0.2	7.2	21.9	1.7	1.5	0.4*	33.1	0.4*

n=4,029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다. 이직자

### 1) 이직 또는 구직 시 영향 요인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임금이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고용 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임금('22년 48.5%)과 근로

시간('22년 7.2%)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각각 19.38%, 5.56% 증가한 반면, 고용 안정성('22년 12.8%)과 장기적 진로설계('22년 8.4%) 중요도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성은 59.5%, 여성은 56.1%로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근로시간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9.2%로 남성의 6.2%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들이 임금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아 학력 수준에 따른 경제적 우선순위 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고졸 이하 청년들은 임금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대졸 이상은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및 학력 수준에 따라 구직 시 고려하는 요인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욕구 변화 및 일의 의미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3-5-2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구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임금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휴일 (주 5일제)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회사 전망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	스카우트 제의	복지 수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기타	
전체	57.9	7.6	9.9	1.1	3.3	1.6	3.0	5.4	0.2*	2.7	2.5	1.9	2.9	0.1*	
성별	남성	59.5	6.2	9.4	1.3	2.9	1.4	3.2	5.6	0.2	2.3	2.8	2.1	2.9	0.0*
	여성	56.1	9.2	10.3	0.9	3.7	1.8	2.7	5.2	0.3*	3.1	2.1	1.6	2.9	0.1*
연령	19~24세	54.0	7.8	9.1	1.0	2.7	1.8	3.1	6.2	0.2*	2.8	4.1	3.1	3.9	0.0*
	25~29세	58.9	6.2	10.1	0.9	3.7	1.6	3.6	5.1	0.2*	3.3	2.1	1.7	2.6	0.1*
	30~34세	60.7	8.9	10.3	1.4	3.3	1.5	2.3	5.0	0.3*	2.0	1.3	0.9	2.1	0.0*
지역 1	수도권	58.2	7.3	9.5	1.5	3.2	1.5	3.4	6.2	0.3*	2.5	2.6	1.8	2.1	0.1
	비수도권	57.5	8.0	10.3	0.6	3.4	1.8	2.5	4.5	0.2	2.9	2.3	2.0	3.9	0.1
지역 2	서울	55.0	7.7	11.2	1.0	2.0	2.0	2.7	7.0	0.1*	3.3	2.3	2.5	3.2	0.0
	부산	61.8	8.0	6.2	1.3	3.3	2.7	3.0	3.3	0.4*	2.3	3.1	2.6	2.0	0.0
	대구	54.3	7.1	14.0	0.8*	3.3	2.0	2.9	4.1	0.2*	1.9	2.6	1.8	4.5	0.4*
	인천	72.9	5.6	6.0	0.1*	1.6	0.8*	3.0	3.3	0.5*	2.1	1.7	0.9*	1.4	0.0
	광주	43.0	6.2	13.3	0.7*	4.2	0.8*	5.1	5.1	0.0	4.0	4.7	5.5	7.3	0.0
	대전	52.2	9.3	11.8	0.8*	2.9	1.8	1.0	7.6	0.5*	7.4	1.4*	1.4	1.9*	0.0
	울산	60.4	9.7	7.8	0.6*	3.6	3.1	1.1*	3.7	0.6*	2.4	3.2	0.7*	3.2	0.0
	세종	66.3	8.8	8.2	0.6*	3.9	0.7*	1.1*	7.7	0.0	0.0	0.3*	1.1*	1.4*	0.0
경기	57.5	7.3	8.9	2.2	4.5	1.2	4.1	6.2	0.3*	2.0	3.0	1.5	1.2	0.1*	

구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임금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휴일 (주 5일제)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회사 전망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	스카우트 제의	복지 수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기타	
지역	강원	53.7	9.7	12.0	0.2	2.2	1.7*	3.2	7.3	0.0	3.4	1.9	0.6*	4.1	0.0
	충북	59.5	7.9	10.6	0.3*	2.5	1.7*	1.9	4.1	0.6*	2.8	3.6	1.2*	3.2	0.1*
	충남	56.0	5.0	11.9	0.1*	2.9	0.4*	3.3	4.1	0.0	3.3	1.7	4.0	7.2	0.2*
	전북	55.4	9.5	12.5	0.8*	3.5	2.4	1.1*	5.1	0.2*	2.3*	0.9*	2.2*	4.2	0.0
	전남	52.5	11.9	11.5	0.8*	4.3	1.3*	5.0	3.5	0.3*	2.2	1.9	0.7*	4.1	0.0*
	경북	59.8	7.7	9.7	0.4*	4.8	2.2	1.4*	4.5	0.1*	1.9	1.7	1.7	4.2	0.0
	경남	67.9	6.5	7.4	0.3*	2.8	1.2*	1.8	3.5	0.1*	2.7	2.2*	1.0*	2.8	0.1*
	제주	64.1	10.1	7.2	0.6*	4.4	2.7	0.8*	3.6	0.0	2.3*	1.2*	0.2*	2.7*	0.0
학력	고졸 이하	61.2	10.0	9.5	1.1	3.9	1.6	2.5	3.9	0.3*	2.5	0.8*	0.3*	2.3	0.0*
	대학 재학·휴학	52.6	7.7	8.4	1.1	2.5	1.7	3.5	6.4	0.2*	2.9	4.7	4.2	3.9	0.1*
	대학 졸업 이상	58.7	6.9	10.4	1.1	3.4	1.6	3.0	5.5	0.2*	2.7	2.2	1.6	2.7	0.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2) 과거 일자리 경험

청년층의 과거 취업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은 41.5%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취업 경험 비율이 37.9%, 여성은 45.5%로 여성에서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취업 경험 비율이 55.3%, 대학 재학·휴학자는 15.6%, 대학 졸업 이상은 46.4%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대부분이 2019년 이후부터 최근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28〉 과거(이전) 취업 경험 및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단위: %)

구분	취업 경험			일자리 그만둔 시기						
	비율	예	아니오	비율	2010년 이전	2011~ 2014년	2015~ 2018년	2019~ 2022년	2023~ 2024년	
전체	100.0	41.5	58.5	100.0	0.3	1.5	10.8	44.4	43.1	
성별	남성	100.0	37.9	62.1	100.0	0.3	1.2	11.4	44.9	42.3
	여성	100.0	45.5	54.5	100.0	0.2	1.7	10.3	44.0	43.7
연령	19~24세	100.0	21.2	78.8	100.0	0.0	0.0	0.6	29.8	69.6
	25~29세	100.0	46.9	53.1	100.0	0.0	0.3	5.4	46.6	47.7
	30~34세	100.0	55.9	44.1	100.0	0.6	3.0	19.1	47.9	29.4
지역 1	수도권	100.0	41.1	58.9	100.0	0.1	1.6	10.7	45.2	42.5
	비수도권	100.0	42.0	58.0	100.0	0.4	1.3	11.0	43.6	43.7
지역 2	서울	100.0	38.6	61.4	100.0	0.2	2.1	10.4	42.7	44.6
	부산	100.0	45.5	54.5	100.0	0.0	1.3	12.5	44.2	42.0
	대구	100.0	44.5	55.5	100.0	0.6	3.5	7.0	44.5	44.4
	인천	100.0	57.5	42.5	100.0	0.0	1.4	8.8	49.2	40.6
	광주	100.0	33.3	66.7	100.0	0.9	1.2	7.0	41.5	49.3
	대전	100.0	48.5	51.5	100.0	0.2	0.6	10.4	39.1	49.7
	울산	100.0	50.5	49.5	100.0	0.6	3.1	16.5	33.8	45.9
	세종	100.0	42.0	58.0	100.0	0.3	1.8	13.5	37.6	46.8
	경기	100.0	39.6	60.4	100.0	0.0	1.3	11.4	45.8	41.4
	강원	100.0	36.2	63.8	100.0	0.0	1.1	12.2	38.9	47.8
	충북	100.0	41.0	59.0	100.0	0.5	1.5	11.6	47.5	38.9
	충남	100.0	31.5	68.5	100.0	0.0	0.6	13.7	51.0	34.6
	전북	100.0	38.1	61.9	100.0	1.6	0.6	9.5	41.0	47.2
	전남	100.0	39.9	60.1	100.0	0.5	0.3	10.7	55.9	32.5
지역 2	경북	100.0	43.2	56.8	100.0	0.4	0.6	9.8	47.3	41.8
	경남	100.0	45.1	54.9	100.0	0.6	0.8	12.5	40.2	46.0
	제주	100.0	53.2	46.8	100.0	0.0	1.1	7.1	41.8	50.0
	고졸 이하	100.0	55.3	44.7	100.0	0.4	1.8	9.7	42.5	45.6
학력	대학 재학·휴학	100.0	15.6	84.4	100.0	0.2	0.7	3.4	32.3	63.4
	대학 졸업 이상	100.0	46.4	53.6	100.0	0.2	1.4	12.0	46.4	39.9

n=15,098(취업 경험); 6,165(일자리 그만둔 시기)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6.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10.7%, 그리고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가 9.2%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18.9%로 여성의 15.6%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의 응답 비율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 및 가사 부담’이 14.6%로 남성 0.6%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학업을 계속 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22.1%로 높았으며, 30~34세에서는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의 비율이 17.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응답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응답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20.0%)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17.3%),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적성과 근무 환경이 주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5-29〉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학업을 계속 하려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술 및 기능이 부족해서	동료 또는 상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직장이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이나 사업 (일) 종료로 인해서	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기타	
전체	7.3	1.7	17.2	1.3	4.4	9.2	16.5	7.4	4.4	4.3	1.3	10.7	3.9	7.9	2.4	
성별	남성	9.1	1.6	18.9	2.2	3.9	10.6	16.9	9.0	5.2	4.0	1.3	10.3	3.1	0.6*	3.4
	여성	5.7	1.8	15.6	0.5	4.9	7.8	16.2	6.0	3.7	4.5	1.2	11.1	4.7	14.6	1.5
연령	19~24세	22.1	2.3	16.1	1.5*	4.8	5.1	13.4	4.1	1.9	3.6	1.3	13.5	3.7	1.0*	5.6
	25~29세	5.4	1.8	20.2	1.6	4.8	9.8	16.5	8.0	3.8	4.5	1.6	11.8	3.7	4.3	2.3
	30~34세	3.5	1.4	15.0	1.0	4.0	10.1	17.7	8.2	5.8	4.4	1.0	8.8	4.2	13.5	1.4
지역	수도권	7.4	2.0	17.5	1.4	4.2	10.3	16.1	7.7	4.2	4.6	1.3	9.7	4.3	7.3	2.1
	비수도권	7.3	1.4	16.8	1.3	4.7	7.7	17.0	7.1	4.6	3.9	1.2	11.9	3.5	8.6	2.8

구분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학업을 계속하려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해서	동료 또는 상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직장이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이나 사업 (일) 종료로 인해서	해고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기타	
지역 2	서울	7.5	2.1	18.6	1.0*	5.6	11.5	16.0	7.0	3.6	4.0	1.3*	9.1	4.2	6.3	2.1
	부산	6.2	1.3*	14.9	1.1*	5.4	9.7	17.6	8.7	5.4	4.5	1.0*	12.4	2.8*	6.7	2.5*
	대구	8.1	0.9*	15.6	0.6*	5.0	9.0	15.6	6.2	5.1	3.9	2.4*	11.5	2.3*	9.7	4.0*
	인천	6.2	1.7*	20.3	1.4*	4.5	9.7	14.5	8.8	3.6	4.3	1.5*	10.1	5.4	4.9	3.0
	광주	7.1*	3.3*	24.3	1.1*	2.0*	5.9*	14.7	8.9	2.6*	4.0	0.3*	9.7	3.6*	11.0	1.4*
	대전	8.3	2.3*	13.1	1.6*	3.7*	6.8	21.8	6.7	2.5*	6.1	0.8*	15.1	2.4*	7.0	1.8*
	울산	6.9	0.2*	6.0	0.7*	6.0	8.5	22.4	6.0	4.0*	4.6*	1.9*	14.3	4.2*	11.8	2.4*
	세종	5.6*	0.0	16.3	0.0	3.6*	5.9	14.6	8.2*	2.5*	2.8*	0.8*	20.6	3.9*	11.4	3.9*
	경기	7.6	2.0	15.7	1.7	2.9	9.6	16.6	7.9	4.9	5.1	1.3*	10.1	3.9	8.8	1.7
	강원	7.5	1.1*	21.5	0.8*	4.8	5.4	12.7	7.6	4.4*	3.7*	0.4*	13.2	4.3*	11.3	1.4*
	충북	10.2	2.9*	23.0	2.4*	3.8*	6.1	14.2	3.7	2.5*	5.5	0.0	12.3	2.9*	8.4	2.0*
	충남	4.9*	1.1*	11.2	2.2*	2.6*	7.0	21.1	7.9	9.9	2.5*	0.0	8.9	3.9*	13.2	3.5*
	전북	11.9	0.0	17.3	1.1*	4.6*	6.3	20.6	7.3	4.5*	2.4*	2.3*	9.5	3.5*	6.9	1.7*
	전남	5.3	1.8*	21.6	0.7*	6.1*	8.5	11.0	6.0	7.0	3.0*	2.9*	7.1	5.2	9.6	4.3*
	경북	7.0	1.0*	21.0	1.2*	5.2	7.3	16.2	7.8	4.6	2.4*	0.3*	12.6	2.8*	6.8	4.1*
	경남	6.2	1.2*	16.4	1.8*	6.2	9.2	16.1	6.8	3.5*	3.8	2.0*	12.7	5.0	6.5	2.7*
제주	7.9	2.0*	17.6	0.9*	2.9*	6.2*	16.6	7.7	4.9*	4.0*	0.3*	8.6	6.1*	9.4	4.7*	
학력	고졸 이하	1.6	1.0	20.0	2.4	4.4	10.2	16.8	6.7	5.8	6.5	1.1	8.4	5.1	7.0	3.2
	대학 재학·휴학	45.9	1.7*	9.4	1.1	2.3*	2.4	8.5	2.8*	0.9*	2.4*	1.0*	12.2	3.1*	0.8*	5.5
	대학 졸업 이상	4.9	2.0	17.1	1.0	4.7	9.6	17.3	8.2	4.3	3.8	1.3	11.4	3.6	9.0	1.8

n=6,16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6)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후 어려웠던 점으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이 9.7%,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이 6.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항목에 유사한 비율로 응답했으나, 여성은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의 비율이 6.2%로 남성의 1.0%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층에서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반면, 25~34세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후 생계와 재취업 관련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및 기회 부족 문제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표 3-5-30〉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구분	비율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음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기타	특별히 없었음
전체	100.0	23.6	4.5	6.7	9.7	0.9	3.1	3.7	0.4	47.4
성별	남성	23.3	4.9	7.5	9.1	1.0	3.7	1.0	0.3*	49.2
	여성	23.9	4.2	6.0	10.2	0.7	2.5	6.2	0.5	45.8
연령	19~24세	23.8	2.8	4.1	6.7	0.7*	2.2	1.2*	0.8*	57.7
	25~29세	23.7	5.4	7.2	11.2	0.9	2.8	2.0	0.4*	46.4
	30~34세	23.5	4.4	7.3	9.5	0.9	3.7	6.0	0.2*	44.5
지역 1	수도권	23.1	5.0	6.3	9.3	0.9	3.1	3.0	0.4*	48.8
	비수도권	24.1	4.0	7.2	10.2	0.8	3.0	4.4	0.3*	45.9
지역 2	서울	22.5	3.7	8.4	8.9	0.7*	3.2*	1.7*	0.3*	50.7
	부산	26.7	3.2	6.5	11.6	0.2*	3.3	2.6*	0.8*	45.1
	대구	24.1	6.3	5.5	14.1	1.0*	3.2	4.5	0.1*	41.1
	인천	29.8	6.0	7.7	9.5	0.6*	4.1	3.6	1.0*	37.7

구분	비율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음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기타	특별히 없었음	
광주	100.0	17.0	3.4*	10.3	9.9	1.5*	2.7*	2.5*	0.0	52.7	
대전	100.0	22.7	1.8*	6.1	4.9	0.8*	1.3*	4.6*	0.0	57.8	
울산	100.0	24.4	3.6*	5.8	10.9	0.2*	2.2*	6.8	0.5*	45.7	
세종	100.0	20.8	7.0*	3.4*	9.0	2.6*	0.9*	11.1	0.0	45.2	
경기	100.0	21.5	5.6	4.2	9.5	1.3*	2.8	4.0	0.3*	50.8	
강원	100.0	18.5	5.3	9.1	9.6	2.7*	1.0*	6.3*	0.2*	47.4	
충북	100.0	29.8	7.1	7.4	11.8	0.7*	1.5*	3.7*	0.2*	37.8	
충남	100.0	19.3	3.7*	8.3	6.0	0.0	10.1*	5.1*	0.0	47.6	
전북	100.0	21.9	5.1*	5.9	7.8	0.9*	1.1*	2.3*	1.8*	53.2	
전남	100.0	22.0	2.8*	13.1	7.8	0.6*	3.1*	4.2*	0.0	46.4	
경북	100.0	23.5	4.0	6.0	15.4	0.5*	3.3	3.8	0.2*	43.4	
경남	100.0	26.2	2.6	7.9	9.1	1.3*	3.4	5.4	0.0	44.2	
제주	100.0	38.3	4.7*	5.9	7.4	0.3*	3.1*	7.8	0.4*	32.2	
고졸 이하	100.0	30.4	3.9	7.0	7.9	0.4*	4.5	4.5	0.1*	41.3	
대학 재학·휴학	100.0	27.7	1.1*	2.4*	3.6	0.6*	1.4*	0.5	0.1*	62.7	
대학 졸업 이상	100.0	20.8	5.2	7.1	11.0	1.1	2.8	3.8	0.5	47.8	

n=6,165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6)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과거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 중 23.8%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6.2%는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3%, 여성이 27.0%로, 여성의 수급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 비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2.6%, 비수도권에서 25.2%로 비수도권의 수급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에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대학 재학·휴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

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로 80.1%를 차지했으며, 이어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는 3.9%,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는 3.4%로 응답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76.1%, 여성은 84.1%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에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돼서’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받지 못한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주요 수급 장애 요인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청년층의 고용 형태와 제도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층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비율이 높은 것은 육아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해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31〉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비율	예	아니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비율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기타	
전체	100.0	23.8	76.2	100.0	3.9	80.1	3.4	1.9	10.2	0.5	
성별	남성	100.0	20.3	79.7	100.0	5.4	76.1	4.1	2.0	11.8	0.5*
	여성	100.0	27.0	73.0	100.0	2.3	84.1	2.8	1.8	8.6	0.5*
연령	19~24세	100.0	15.2	84.8	100.0	6.3	83.9	3.1	1.8	3.7	1.3*
	25~29세	100.0	25.0	75.0	100.0	3.6	79.7	4.0	2.1	10.2	0.4*
	30~34세	100.0	26.0	74.0	100.0	3.1	78.8	3.1	1.8	13.0	0.3*
지역 1	수도권	100.0	22.6	77.4	100.0	3.1	80.7	3.1	1.7	10.8	0.5*
	비수도권	100.0	25.2	74.8	100.0	4.8	79.3	3.8	2.1	9.4	0.5

구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비율	예	아니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비율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기타	
지역 2	서울	100.0	21.4	78.6	100.0	2.4	81.9	1.8*	1.5*	12.4	0.0
	부산	100.0	25.4	74.6	100.0	5.3	79.3	2.0*	2.3*	10.5	0.7*
	대구	100.0	25.9	74.1	100.0	8.0	75.6	3.7*	1.4*	10.6	0.6*
	인천	100.0	24.1	75.9	100.0	4.3	78.1	4.5	2.8*	9.3	1.0*
	광주	100.0	21.1	78.9	100.0	1.3*	87.5	1.4*	3.9*	5.9	0.0
	대전	100.0	24.3	75.7	100.0	3.8*	85.9	2.6*	1.1*	6.0	0.6*
	울산	100.0	30.4	69.6	100.0	8.4*	74.9	2.6*	1.3*	12.5	0.3*
	세종	100.0	27.8	72.2	100.0	3.7*	81.0	2.5*	1.0*	8.1*	3.9*
	경기	100.0	23.1	76.9	100.0	3.4	80.5	3.8	1.5*	10.0	0.7*
	강원	100.0	25.6	74.4	100.0	4.5*	77.5	4.3*	2.2*	11.5	0.0
	충북	100.0	23.2	76.8	100.0	2.4*	82.3	4.3*	2.6*	7.7	0.7*
	충남	100.0	21.9	78.1	100.0	7.7	68.7	5.1*	3.1*	15.4	0.0
	전북	100.0	18.5	81.5	100.0	3.2*	82.7	4.0*	2.5*	7.5	0.2*
	전남	100.0	21.3	78.7	100.0	2.3*	88.0	2.3*	2.5*	4.8*	0.0
	경북	100.0	28.6	71.4	100.0	2.6*	79.4	5.6	2.4*	10.0	0.0
	경남	100.0	30.6	69.4	100.0	6.0	77.1	5.7*	1.6*	8.3	1.3*
제주	100.0	22.2	77.8	100.0	5.2	69.2	8.5	2.0*	15.1	0.0	
학력	고졸 이하	100.0	22.4	77.6	100.0	5.6	78.9	3.5	3.1	8.5	0.4*
	대학 재학·휴학	100.0	13.7	86.3	100.0	6.1	88.0	3.4*	0.8*	1.5*	0.2*
	대학 졸업 이상	100.0	25.4	74.6	100.0	3.0	79.4	3.4	1.6	11.9	0.6

n=6,165(실업급여 수급 여부); 4,669(실업급여 받지 못한 이유)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6)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지난 1년간 근로 경험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6%, 없는 응답자는 8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쉰 비율이 16.1%, 여성은 15.0%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쉰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층에

서 14.5%로 가장 낮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15.6%의 응답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학력 수준이 낮거나 19~24세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계층의 원치 않는 소득 공백 경험이 늘어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32〉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단위: %)

구분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비율	없다	있다
전체		100.0	84.4	15.6
성별	남성	100.0	83.9	16.1
	여성	100.0	85.0	15.0
연령	19~24세	100.0	82.3	17.7
	25~29세	100.0	83.9	16.1
	30~34세	100.0	86.1	13.9
지역 1	수도권	100.0	84.5	15.5
	비수도권	100.0	84.4	15.6
지역 2	서울	100.0	85.5	14.5
	부산	100.0	83.9	16.1
	대구	100.0	81.2	18.8
	인천	100.0	79.9	20.1
	광주	100.0	84.9	15.1
	대전	100.0	82.5	17.5
	울산	100.0	82.9	17.1
	세종	100.0	76.6	23.4
	경기	100.0	84.6	15.4
	강원	100.0	89.9	10.1
	충북	100.0	84.8	15.2
	충남	100.0	87.3	12.7
	전북	100.0	88.8	11.2
	전남	100.0	89.4	10.6
	경북	100.0	82.3	17.7
	경남	100.0	81.6	18.4
제주	100.0	82.5	17.5	
학력	고졸 이하	100.0	81.9	18.1
	대학 재학·휴학	100.0	81.6	18.4
	대학 졸업 이상	100.0	85.5	14.5

n=12,188(지난 1년간 근로 경험); 11,120(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일터 안전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로 나타났으며, 현재 규정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이다. 반면, 22.4%는 관련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43.2%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책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3.7%, 여성은 31.1%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남성(43.5%)이 여성(42.9%)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정책 인식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34세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19~24세는 55.7%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책 인식에서 연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직장 경험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책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충남(47.7%)과 세종(46.9%)에서 정책 마련 응답이 높았고, 광주(22.0%)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차이는 지역 고용 환경이나 기업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이상의 응답자는 37.8%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휴학자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3.2%로 가장 높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표 3-5-3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모르겠다	
전체	100.0	32.4	1.9	22.4	43.2	
성별	남성	100.0	33.7	2.0	20.9	43.5
	여성	100.0	31.1	1.9	24.1	42.9
연령	19~24세	100.0	22.0	1.6	20.7	55.7
	25~29세	100.0	33.4	2.1	23.0	41.5
	30~34세	100.0	37.4	1.9	23.0	37.8

구분	비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모르겠다	
지역 1	수도권	100.0	32.1	1.8	23.1	43.0
	비수도권	100.0	32.8	2.1	21.6	43.5
지역 2	서울	100.0	29.9	1.5	22.2	46.4
	부산	100.0	29.5	2.3	23.0	45.2
	대구	100.0	26.8	1.8*	20.0	51.4
	인천	100.0	35.7	2.1	21.1	41.1
	광주	100.0	22.0	1.8	28.9	47.3
	대전	100.0	35.0	2.6	24.7	37.7
	울산	100.0	33.1	2.2*	23.0	41.6
	세종	100.0	46.9	2.4*	12.3	38.4
	경기	100.0	33.1	2.0	24.3	40.6
	강원	100.0	40.5	1.6*	17.2	40.7
	충북	100.0	32.7	3.9	17.6	45.8
	충남	100.0	47.7	1.8*	15.9	34.5
	전북	100.0	34.5	1.3*	22.4	41.9
	전남	100.0	32.5	1.1*	25.1	41.3
	경북	100.0	27.8	2.0	27.5	42.6
	경남	100.0	33.2	1.8	19.2	45.8
제주	100.0	31.4	4.1	16.8	47.7	
학력	고졸 이하	100.0	21.0	1.5	28.3	49.2
	대학 재학·휴학	100.0	18.3	1.3	19.4	60.9
	대학 졸업 이상	100.0	37.8	2.1	21.3	38.8

n=12,18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54.0%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으며,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면, 23.6%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 중 55.3%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52.4%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괴롭힘 사실을 직장이 알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3.5%)보다 여성이 더 높게(5.0%)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51.7%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6.7%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응답은 수도권(17.8%)이 비수도권(10.0%)보다 높아, 지역별로 괴롭힘 대응 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청년의 입장에서 파악·분류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3-5-3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 작동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 작동 여부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100.0	54.0	3.9	14.3	4.2	23.6	
성별	남성	100.0	55.3	3.3	14.3	3.5	23.5
	여성	100.0	52.4	4.6	14.2	5.0	23.7
연령	19~24세	100.0	59.2	2.5	12.5	1.6	24.2
	25~29세	100.0	53.4	3.8	14.6	3.8	24.3
	30~34세	100.0	52.6	4.5	14.6	5.4	22.8
지역 1	수도권	100.0	51.7	4.1	17.8	4.1	22.3
	비수도권	100.0	56.7	3.8	10.0	4.4	25.2
지역 2	서울	100.0	61.8	2.4	10.8	3.6	21.4
	부산	100.0	56.6	7.3	7.0	4.8*	24.3
	대구	100.0	57.1	3.1*	11.9	6.1*	21.8
	인천	100.0	48.4	4.0	12.1	7.1	28.4
	광주	100.0	57.7	2.5*	8.1*	4.1*	27.5
	대전	100.0	54.6	3.0*	12.6	3.9*	25.9
	울산	100.0	57.5	2.1*	16.8	3.3*	20.3
	세종	100.0	41.7	6.3*	20.3	6.8*	24.9
	경기	100.0	44.9	5.3	24.7	3.7	21.3
	강원	100.0	59.8	2.4*	15.1	1.5*	21.3
충북	100.0	64.2	3.4*	11.8	4.6*	16.0	

구분	비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 작동 여부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지역	충남	100.0	45.6	1.0*	4.0*	3.1*	46.3
	전북	100.0	55.9	3.3*	8.1	3.4*	29.3
	전남	100.0	65.8	5.1*	4.1	5.1*	19.8
	경북	100.0	62.4	3.9*	10.5	4.5*	18.7
	경남	100.0	55.9	5.2*	11.9	6.0	20.9
	제주	100.0	60.9	3.5*	7.2*	5.2*	23.1
학력	고졸 이하	100.0	55.7	3.5	11.4	3.1	26.2
	대학 재학·휴학	100.0	64.8	1.4*	11.9	0.8*	21.1
	대학 졸업 이상	100.0	52.9	4.2	14.9	4.7	23.4

n=3,932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과중한 업무 경험에 대한 빈도 조사 결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4.7%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주 2회 이상 5회 미만은 9.6%,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은 17.9%로 나타났다. 1년에 1~2번 경험한다는 응답은 17.3%였으며,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0.6%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과중한 업무 경험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30~34세는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20.5%)과 1년에 1~2번(21.3%)의 과중한 업무 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음' 응답 비율은 42.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응답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과중한 업무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과중한 업무 경험에 대한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직장 내 연차가 높아지며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다고 추측된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업무 부담이 덜하거나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5-35〉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과중한 업무					
		거의 매일	주 2회 이상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없음	
전체	100.0	4.7	9.6	17.9	17.3	50.6	
성별	남성	100.0	4.6	9.5	18.3	17.1	50.4
	여성	100.0	4.7	9.6	17.4	17.4	50.9
연령	19~24세	100.0	3.0	7.2	11.9	10.9	67.0
	25~29세	100.0	5.3	10.2	18.7	16.9	48.9
	30~34세	100.0	5.1	10.4	20.5	21.3	42.8
지역 1	수도권	100.0	4.8	9.6	19.2	17.0	49.4
	비수도권	100.0	4.5	9.5	16.1	17.6	52.2
지역 2	서울	100.0	4.8	9.5	16.5	16.9	52.3
	부산	100.0	5.1	12.4	17.7	16.9	47.8
	대구	100.0	4.0	10.5	21.2	14.4	49.9
	인천	100.0	7.4	12.4	23.0	13.1	44.2
	광주	100.0	1.0*	6.1	8.7	18.2	66.0
	대전	100.0	7.1	12.8	16.1	15.9	48.1
	울산	100.0	7.0	12.5	18.8	11.2	50.5
	세종	100.0	3.4*	15.5	21.6	16.1	43.5
	경기	100.0	4.2	9.1	20.7	17.9	48.2
	강원	100.0	5.7	9.1	16.5	15.8	52.8
	충북	100.0	2.7	7.8	12.8	24.1	52.6
	충남	100.0	4.9	5.5	13.4	20.8	55.4
	전북	100.0	3.2	7.1	16.8	14.5	58.4
	전남	100.0	4.1	6.1	16.6	18.9	54.3
	경북	100.0	4.4	8.6	14.6	20.2	52.2
	경남	100.0	5.5	11.3	16.6	18.8	47.9
제주	100.0	4.5	9.5	19.2	15.2	51.7	
학력	고졸 이하	100.0	5.0	9.4	15.7	15.0	54.9
	대학 재학·휴학	100.0	1.8	4.0	10.3	8.2	75.6
	대학 졸업 이상	100.0	5.0	10.4	19.6	19.2	45.7

n=11,120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2. 소결

### 가.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취업, 미취업, 이직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층이 당면한 고용 현황과 일자리 질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취업 청년층의 숨겨진 특성, 복수 일자리, 일터 안전망 문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노동시장 특성 등 기존 논의에서 간과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7.7%로, 2022년의 67.4%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남성, 비수도권 거주자,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69.3%, 비수도권은 65.8%로 수도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동 기회와 직장 밀집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대상 지역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취업자 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는 5.5%로, 2022년의 3.9%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져 여러 일자리를 가지는 청년의 수가 증가했다.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 중 88.0%가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3개는 9.8%, 4개 이상은 2.1%이다. 조사에서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소득(세금 공제 전)은 198만 원, 복수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의 일자리 소득(세금 공제 전)은 270만 원인 점, 비수도권 거주자, 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복수 일자리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수 일자리는 청년들이 부수익 창출을 통해 더 많은 노동소득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질이 낮아서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청년 중 주된 일자리의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청년의 임금 수준(비수도권 255만 원, 수도권 274만 원)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제조업(12.9%), 도매 및 소매업(10.8%), 숙박 및 음식점업(9.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 고용의 약 33.4%가 전통적인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과 정보

통신업(6.2%) 등도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제조업(11.2%), 도매 및 소매업(12.1%)이 주요 고용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8.0%)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제조업(15.0%)과 숙박 및 음식점업(10.3%),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4%)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관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정보통신업(9.0%)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0%)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고임금·고속권 일자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취업 실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와 지역별 고용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취업자인 청년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14.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6.0%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대다수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취업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2022년의 평균 4.8개월보다 1.7개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취업자들이 1년 미만의 단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30대 초반 청년층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에서 장기 구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경력 및 고학력 청년들이 느끼는 직업 탐색(및 직업 매칭)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장을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 준비가 36.2%, 원하는 조건의 일 또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1.7%)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43.3%로, 수도권의 29.0%보다 13.3% 포인트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 기회와 경쟁 심화로 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2.6%, 27.4%로 나타나, 청년층 전반이 노동시장 내의 조건과 기회 불일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소 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정규 교육기관 통학'으로 34.8%였으며, 이어 '쉬었음'이 27.5%, '취업 준비'가 13.3%로 나타

났다. 특히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022년 18.9%에서 8.7%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이 57.9%로 2022년의 48.5%에 비해 9.4%포인트 상승했다. 이어서 고용 안정성 9.9%, 근로시간 7.6%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6.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10.7%, 그리고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가 9.2%로 뒤를 이었다. 미취업 청년 대다수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취업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쉬었음' 청년층 증가 현상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이나 구직 의욕 저하로 이어질 위험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이 장기 구직 기간을 보이는 것과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하는 청년들의 높은 비율은 그들이 기대하는 직업의 질과 실제 노동시장 기회 간의 불일치를 반영한다. 청년들은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그리고 근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근로 조건과 직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업무 자율성, 일자리 불안정성, 근로 환경 등 직장 문화 및 일터 안전망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 노동의 새로운 양상과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수행 시 자율성의 경우 일하는 장소(65.9%), 일하는 시간(55.2%)을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자율성이 있다는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일의 양(43.7%), 일의 내용(40.7%) 순으로 회사가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근로 환경에 있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4.7%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불안정성에 있어 현재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18.0%의 청년이 찾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실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 변화로 인한 실직 가능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느끼는 업무의 자율성 부족, 과중한 업무, 일자리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고용 구조와 청년 노동 간의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다. 청년 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한 근로 환경과 고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청년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일터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 나. 조사표 수정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에 제정된 국제 종사상지위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를 2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2018 국제 종사상지위 분류(ICSE-18)). 이는 비전형 고용 형태가 증가하여 기존의 종사상지위로는 현재의 고용 구조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결정이다. 개정된 분류는 지휘 권한 유형(ICSE-18-A, type of authority)과 경제적 위험 유형(ICSE-18-R, type of economic risk)의 2개 유형으로, 각각 5개 그룹이다(ILO, 2023).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 개정된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13년 만에 2022년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1차 개정을 시행하였다.<sup>8)</sup> 이로써 이윤(비임금) 목적과 임금 목적 취업자 형태로 분류하는 경제적 위험 유형과 독립-의존 취업자 형태로 분류하는 지휘 권한 유형의 2개 분류체계를 갖는다.

〈표 3-5-36〉 개정된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현행	개정	
I. 비임금근로자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유형	지휘 권한(authority) 유형
II.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I. 이윤 목적(비임금) 취업자 1.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2. 의존 계약자 3. 무급가족종사자	I. 독립 취업자 1. 고용주(고용원 有) 2. 자영업자(고용원 無)
*기타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II. 임금 목적 취업자 1. 법인 소유 경영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II. 의존 취업자 1. 의존 계약자 2. 임금근로자 3.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29.). 다양한 고용형태 측정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한다-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개편 내용은 크게 ‘분류 항목’의 개편과 ‘분류 항목 기준’ 개편으로 나뉜다. 분류 항목의 개편은 ‘의존 계약자’ 항목을 신설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의 취업자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동시에 임금근로자 항목을 최소 근로시간 보장 여부, 계약기

8) 2021년 12월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1-558호), 2022년 1월부터 시행

간의 정함 유무 및 계약 기간, 취업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개편이 이뤄졌다. 또한 자영업자 항목도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표 3-5-37〉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1차 개정: 분류 항목 개편

구분	기존	개정
의존 계약자 항목 신설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의존계약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항목 세분화	상용근로자(1년 이상) 임시근로자(1달~1년 미만) 일용근로자(1달 미만)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장기 고정기간 근로자(1년 이상) 단기 고정기간 근로자(3달~1년 미만) 단기·임시 근로자(3달 미만)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자영업자 항목 세분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29.). 다양한 고용형태 측정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한다-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연구진 재정리

〈표 3-5-38〉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1차 개정: 분류 항목 기준 개편

구분	기존	개정
고용주 일상 고용 조건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난 4주 중 조사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3주 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장	고용주나 단독 자영업자인 가구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	현행 범위에 임금근로자와 의존 계약자인 가구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도 포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29.). 다양한 고용형태 측정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한다-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내용을 준용하여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내용 중 ‘의존 계약자’ 항목 분류를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ICSE-18에 따르면 의존 계약자는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원과 최소 보장 근로시간이 없고, 사회보험과 소득세가 본인 책임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 부적절하다. 또한 경제단위의 의존성, 즉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결정권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경우이다.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보수에 있어 고정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1차적

으로 기존 종사상지위 분류 항목을 통해 1단계 자가 식별이 이뤄지며, 자영업자에서 보수 및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결정권 여부를 통해 의존 계약자를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에서 보수 형태와 계약 형태를 통해 의존 계약자를 구분한다. 이에 본 조사표에서 임금근로자와 의존 계약자를 구분하고자 기존에 존재한 보수 형태와 계약 형태 관련 질문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다른 경제단위의 의존성 여부, 즉 가격 결정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영업자와 의존 계약자를 구분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는 의존 계약자 등과 관련한 세분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외 기타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5-39〉 조사표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유
수정	E2-1-1. (복수 일자리) 지난 3개월간 일자리 경험	E2-1-1. (복수 일자리) 근로시간, 임금, 직업	
수정	E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사업 소유 유무	E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종사상지위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1단계 자가 식별)
신규	-	E3-1.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계약 기간 유무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
신규	-	E3-1-2.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고용 예상 기간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
수정	E3-2. (지난주 일한 일자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E3-2. (지난주 일한 일자리) 보수 형태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임금근로자에서 의존 계약자 분리)
수정	E3-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 산정 방식	E3-3. (지난주 일한 일자리) 계약 형태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임금근로자에서 의존 계약자 분리)
신규	-	E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임금 및 상품·서비스 가격 결정 주체	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관련(자영업자에서 의존 계약자 분리)

##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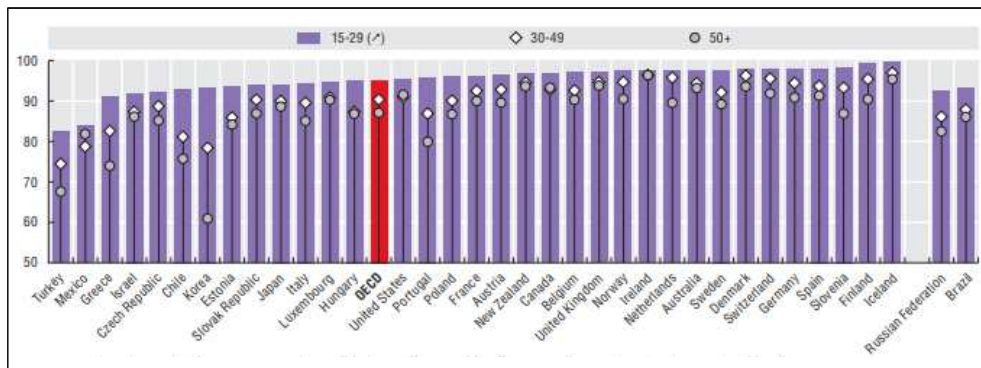
한국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80.5%였다(OECD, 2024a). 열 명 가운데 두 명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이 90.4%였다. 한국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터키의 비율은 84.5%였다.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의 차이도 크다.

한국의 청년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에 견줘서는 사회적 관계가 양호한 편이다. OECD(2019)를 보면,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93.3%로 OECD 평균(95.2%)에 근접했다([그림 3-6-1] 참고).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악화해서 50세 이상 집단 가운데 비율이 60.9%로 떨어졌다. 다른 OECD 회원국과의 차이가 크다.

이번 절에서는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나타나는 한국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관계가 드러나는 극적인 세 양태인 정치 및 고립·은둔 상황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여가 활동 현황을 일람한다.

[그림 3-6-1]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자료: OECD. (2019). Social Cohesion Indicators. Figure 7.13.

## 1. 분석 결과

### 가. 관계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를 묻는다(OECD, 2024a).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①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②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③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④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⑤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차별, 고충, 갈등 등)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서 ① 도움 가능 지인 존재 여부와 더불어, ② 지인에게 도움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도 물었다. 도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상황과 도움 가능/희망 여부 문항 구조를 예시하면 <표 3-6-1>과 같다.

<표 3-6-1> 다섯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및 도움 가능 및 도움 희망 여부 문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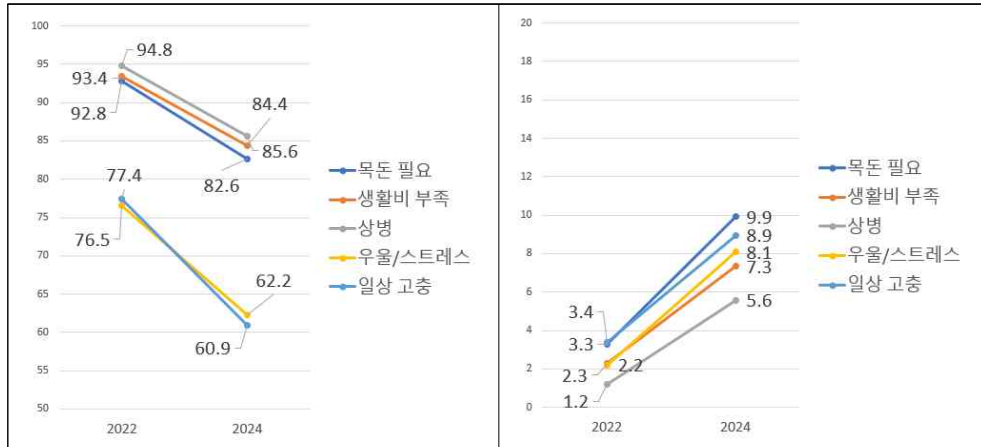
구분	도움 가능 (복수 응답)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5)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의 해당 문항 구조를 단순화해서 예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의 통계와 비교하면, 청년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위축이 확인된다([그림 3-6-2] 참고). 다섯 가지 어려움 가운데 ① 목돈 필요, ② 생활비 부족, ③ 본인 또는 가족 상병의 경우, 2022년 조사에서 청년 가운데 90% 이상이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2024년에는 모두 10%p 정도씩 비율이 줄었다. 또, ④ 우울·스트레스, ⑤ 일상 고충·차별 등에 대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 비율이 2022년 77% 수준에서 나란히 61~62%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다섯 가지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3%에서 일제히 5%를 넘었다.

[그림 3-6-2] 다섯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도움 가능' 비율(좌)과 '도움받을 곳 없다'는 비율(우)  
(단위: %)



n= 15,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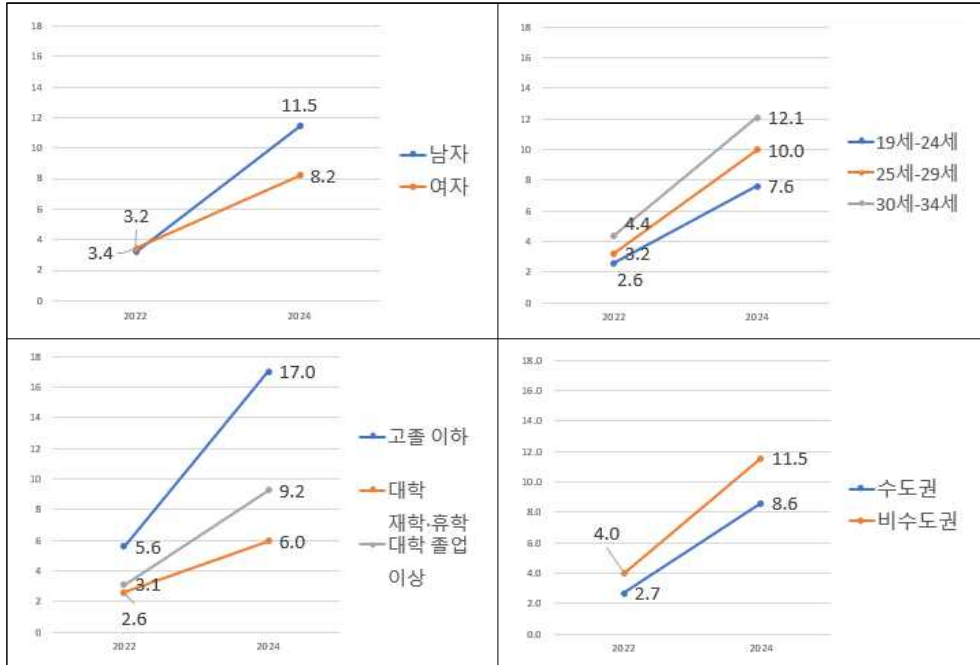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번 절에서는 추이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①~③ 가운데 ‘①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 ④~⑤ 가운데 ‘우울/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두 상황에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움 가능) 여부를 보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이 있는지(도움 희망)도 분석한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이다. 전반적인 관계 단절의 추이가 관찰된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시된 네 가지 집단을 호명한 비율이 모두 줄었다. 가족(92.8% → 82.6%), 지인(33.5% → 17.5%), 공공(10.7% → 7.5%), 민간기관(2.0% → 1.5%) 모두의 영역에서 비율이 줄었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만 증가했다. 2022년 3.3%에서 세 배나 증가해서 2024년에 9.9%였다.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33.5% → 17.5%) 줄었다. 관계의 위축이 가족보다 주변 지인의 네트워크에서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3]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 변화

(단위: %)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청년들을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봤다([그림 3-6-3] 참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차이가 2022년에는 크지 않았지만, 2024년에 남성 청년의 비율은 두 자릿수를 넘었다(11.5%).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별 격차는 2년 사이에 더 벌어졌다. 30~34세에서 비율이 7.7%p(4.4% → 12.1%)로 증가하는 동안, 19~24세 연령대에서는 비율이 5.0%p(2.6% → 7.6%) 증가했다. [그림 3-6-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도움받을 지인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청년 집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관찰됐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도움받을 어떤 사람/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경남(17.7%), 대구(15.4%), 울산(14.9%)에서 높았다. 2022년 조사에서도 울산(14.0%)과

경남(10.6%)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세종과 대전은 2022년 조사에서는 비율이 0.4%로 매우 낮았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각각 14.5%와 11.7%로 크게 증가했다.

〈표 3-6-2〉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022 전체	100.0	92.8	33.5	10.7	2.0	3.3
<b>2024 전체</b>	<b>100.0</b>	<b>82.6</b>	<b>17.5</b>	<b>7.5</b>	<b>1.5</b>	<b>9.9</b>
성별	남자	80.3	20.9	6.8	1.3	11.5
	여자	85.1	13.8	8.1	1.7	8.2
연령	19~24세	87.2	15.8	6.3	1.1	7.6
	25~29세	82.1	18.7	7.7	1.4	10.0
	30~34세	78.5	18.0	8.3	1.9	12.1
지역 1	수도권	84.7	18.6	7.8	1.8	8.6
	비수도권	80.1	16.3	7.0	1.1	11.5
학력	고졸 이하	73.4	19.7	6.4	0.9	17.0
	대학 재학·휴학	89.3	15.2	6.2	0.9	6.0
	대학 졸업 이상	82.9	17.7	8.2	1.8	9.2

n= 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물었다. 청년 집단의 취약성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한 문항이었다(변금선, 김정숙, 2024).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2%였다. 2022년 76.5%에서 낙폭이 컸다. 앞에서 ‘큰돈이 필요한’ 상황(82.6%)보다도 비율이 낮았다. 그 대신, 친구나 이웃 등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3%(2022년 66.0%에서 하락)였다. 이 수치는 ‘큰돈이 필요할 때’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17.5%)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즉, 청

년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가족을 찾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친구를 찾는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가족 혹은 친구가 있는 비율은 모두 줄었다.

우울/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2.2%에서 2024년 8.1%로 크게 늘었다. 특히, 울산(17.0%), 인천(14.9%) 지역에서 비율이 높았고, 고졸 이하 청년(13.2%) 사이에서도 비율이 높았다.

〈표 3-6-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022 전체	100.0	76.5	66.0	6.1	4.0	2.2
<b>2024 전체</b>	<b>100.0</b>	<b>62.2</b>	<b>55.3</b>	<b>3.7</b>	<b>2.3</b>	<b>8.1</b>
성별	남자	61.1	56.1	3.4	1.9	9.3
	여자	63.5	54.4	3.9	2.8	6.8
연령	19~24세	66.8	54.7	3.4	2.2	6.2
	25~29세	59.5	56.9	4.0	2.5	8.9
	30~34세	60.5	54.1	3.6	2.3	9.1
지역 1	수도권	63.5	57.3	4.0	2.4	7.2
	비수도권	60.6	52.8	3.2	2.2	9.2
학력	고졸 이하	52.9	54.9	3.7	1.8	13.2
	대학 재학·휴학	69.4	53.7	3.3	2.1	5.2
	대학 졸업 이상	62.4	55.9	3.8	2.5	7.7

n= 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도움을 희망하는 것은 다르다. 정세정, 김기태(2022)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원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움받을 곳이 있어도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인구 비율

이 한국 성인의 8%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앞의 두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기를 희망하는지, 희망하는 경우 어떤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를 물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원하는 집단을 보면, 가족(71.5%), 공공(16.4%), 지인(5.1%), 민간기관(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집단에게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7%였다. 2022년에는 각각의 비율이 가족(68.8%), 공공(18.7%), 지인(8.5%), 민간기관(1.5%), 없음(2.4%)이었다. 가족의 비율이 소폭이라도 오른 점이 눈길을 끈다.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줄었지만, 가족 도움에 대한 희망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어느 곳의 도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두 배 이상(2.4% → 5.7%) 늘었다. 참고로, 정세정, 김기태(2022)가 19~59세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 결과를 분석했을 때,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1%였다. 청년 집단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설문문의 조사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둔다.

‘큰돈이 필요’해도 도움을 받기 희망하는 곳이 ‘없다’는 비율은 남성(7.3%), 30~34세 집단(6.8%), 비수도권(7.2%), 고졸 이하(9.4%)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남(11.4%), 전북(10.8%)에서 높았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물었다.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43.6%로, 2022년(46.0%)보다 소폭 줄었다. ‘목돈이 필요할 때’(71.5%)보다 가족에게 의지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낮았다. 반면, 지인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39.2%에서 2024년 40.5%로 소폭 늘었다. 주목할 대목이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이라는 비율이 2.7%에서 5.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청년들을 집단별로 나눠보면, 남성(6.7%), 25~29세(6.4%), 비수도권(6.7%), 대전(10.9%), 울산(10.8%) 등에서 비율이 높았다. 고졸 이하 집단에서 비율(9.1%)이 크게 높았다.

우울과 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8.6%였다. 2022년의 9.2%에서 소폭 감소했다. 여성(9.5%) 30~34세(10.6%), 고졸 이하(9.2%)에서 비율이 높았다.

〈표 3-6-4〉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 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022 전체	100.0	68.8	8.5	18.7	1.5	2.4	
<b>2024 전체</b>	<b>100.0</b>	<b>71.5</b>	<b>5.1</b>	<b>16.4</b>	<b>1.4</b>	<b>5.7</b>	
성별	남자	100.0	69.3	6.9	15.2	1.2	7.3
	여자	100.0	73.8	3.1	17.6	1.6	3.9
연령	19~24세	100.0	77.6	4.3	12.6	1.0	4.4
	25~29세	100.0	70.7	5.3	16.8	1.3	5.9
	30~34세	100.0	66.2	5.8	19.5	1.7	6.8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6-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022 전체	100.0	46.0	39.2	9.2	2.8	2.7	
<b>2024 전체</b>	<b>100.0</b>	<b>43.6</b>	<b>40.5</b>	<b>8.6</b>	<b>1.8</b>	<b>5.5</b>	
성별	남자	100.0	42.3	41.5	7.8	1.7	6.7
	여자	100.0	45.0	39.4	9.5	1.8	4.3
연령	19~24세	100.0	46.8	40.7	6.5	1.5	4.5
	25~29세	100.0	41.4	42.0	8.6	1.6	6.4
	30~34세	100.0	42.6	38.9	10.6	2.2	5.7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고립 및 은둔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은 2019년 34만 명에서 2021년 54만 명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성아 외, 2022). 지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을 2.4%로 추산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의 관계 단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①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혹은 ‘②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 중에’, ‘평소에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①은 동거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②는 업무상 접촉 대상은 제외한다.

먼저 ① 문항에 대해서,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이 13.8%였다. 2022년 비율(13.6%)과 유사했다. 고졸 이하 학력 집단(20.3%), 남성(15.7%), 25~29세(14.9%), 비수도권(14.6%)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남(22.9%), 부산(19.9%)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 통계의 해석에서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있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특히 부모 및 형제와 모두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 있는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다음으로 ② 친척 외의 사람 가운데 교류하는 지인이 없는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11.1%였다. 2022년 9.6%에서 1.5%p 증가했다. 남성(12.3%), 30~34세(12.3%), 비수도권(12.2%), 고졸 이하(16.8%)에서 비율이 높았다. 지역을 보면, 경남(18.3%), 세종(17.6%), 제주(17.2%)에서 비율이 높았다. 경남 지역 청년들에서 주변인과 접촉면이 적은 청년의 비율이 높았다.

〈표 3-6-6〉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가족 또는 친척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업무상 접촉은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022 전체	100.0	86.4	13.6	90.4	9.6	
<b>2024 전체</b>	<b>100.0</b>	<b>86.2</b>	<b>13.8</b>	<b>88.9</b>	<b>11.1</b>	
성별	남자	100.0	84.3	15.7	87.7	12.3
	여자	100.0	88.3	11.7	90.3	9.7
연령	19~24세	100.0	86.6	13.4	90.6	9.4
	25~29세	100.0	85.1	14.9	88.6	11.4
	30~34세	100.0	87.0	13.0	87.7	12.3
지역 1	수도권	100.0	86.9	13.1	89.9	10.1
	비수도권	100.0	85.4	14.6	87.8	12.2
학력	고졸 이하	100.0	79.7	20.3	83.2	16.8
	대학 재학·휴학	100.0	88.0	12.0	91.8	8.2
	대학 졸업 이상	100.0	87.4	12.6	89.6	10.4

n= 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청년의 고립·은둔 규모를 확인해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첫 문항은 외출의 빈도를 묻는 것이다. 외출의 빈도를 여덟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물었다. 선택지 여덟 개 가운데, 외출 빈도가 낮은 네 문항의 비율을 합했다. 네 문항은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였다. 네 가지 비율을 합하면 6.5%였다. 이들을 '거의 집에만 있는' 집단으로 명명했다. 2022~2024년 변화를 문항별로 나누어서 보면,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비율이 1.4% → 2.5%로 늘었고,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는 비율이 1.3% → 3.1%로 크게 늘었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와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각각 0.1% → 0.5%, 0.0% → 0.4%로, 전반적으로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집단이 늘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남성(6.5%)과 여성(6.4%)의 비율이 유사했다. 2022년 조사에서 여성(3.1%)의 비율이 남성(2.7%)보다 소폭 높았던 것과 다르다. 25~29세(7.0%)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수도권(6.8%), 고졸 이하(10.1%)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12.6%), 제주(11.5%), 인천(11.5%)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3-6-7〉 외출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외출 빈도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 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 한다	여가 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 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 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22 전체	100.0	70.7	9.1	6.3	11.0	1.4	1.3	0.1	0.0	
<b>2024 전체</b>	<b>100.0</b>	<b>67.9</b>	<b>8.6</b>	<b>6.9</b>	<b>10.1</b>	<b>2.5</b>	<b>3.1</b>	<b>0.5</b>	<b>0.4</b>	
성별	남자	100.0	68.8	8.3	6.7	9.7	2.7	2.8	0.5	0.5
	여자	100.0	67.0	8.9	7.2	10.4	2.2	3.5	0.5	0.2
연령	19~24세	100.0	60.6	14.4	8.2	11.3	2.9	1.9	0.5*	0.3
	25~29세	100.0	70.4	6.6	6.9	9.1	2.5	3.6	0.5	0.5
	30~34세	100.0	72.6	5.0	5.8	9.8	2.1	3.8	0.6	0.3
지역 1	수도권	100.0	69.7	8.8	6.5	8.7	2.1	3.3	0.5	0.3
	비수도권	100.0	65.8	8.3	7.4	11.6	2.9	3.0	0.5	0.4
학력	고졸 이하	100.0	64.3	6.6	7.3	11.6	3.5	5.2	0.9	0.6
	대학 재학·휴학	100.0	59.5	18.6	6.9	9.9	2.6	1.7	0.4*	0.4
	대학 졸업 이상	100.0	71.8	5.8	6.8	9.7	2.1	3.0	0.4	0.3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2024년 결과에서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들에게만 두 가지 질문을 추가했다.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였다. 해당 사례가 소수인 점을 고려해서 지역 통계는 제외하고 살펴본다.

먼저, ‘거의 집에만 있는’ 상태의 지속 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31.5%였다. 2022년 비율이 34.6%에서 줄었다. 6개월~3년의 비율도 53.1%에서 47.2%로 감소했다. 반면, 오랜 기간 집에만 있는 비율은 늘었다. 즉, 3년 이상 현재 상태가 유지됐다는 비율을 합하면, 2022년 12.4%에서 2024년 2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3-6-8〉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비율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2022 전체	100.0	34.6	21.6	31.5	5.8	2.4	4.2	
<b>2024 전체</b>	<b>100.0</b>	<b>31.5</b>	<b>19.7</b>	<b>27.4</b>	<b>10.9</b>	<b>3.4</b>	<b>7.1</b>	
성별	남자	100.0	31.9	18.4	25.9	11.0	4.1	8.8
	여자	100.0	31.1	21.3	29.2	10.7	2.6	5.2
연령	19~24세	100.0	51.8	20.6	16.3	4.0*	1.0*	6.2
	25~29세	100.0	27.2	21.5	31.9	11.7	2.8*	4.9
	30~34세	100.0	19.7	17.2	31.6	15.4	6.0	10.0
지역 1	수도권	100.0	32.2	20.0	28.0	11.4	3.6	4.9
	비수도권	100.0	30.7	19.5	26.7	10.3	3.3	9.5
학력	고졸 이하	100.0	26.3	17.2	28.2	13.0	4.6*	10.8
	대학 재학·휴학	100.0	53.4	21.7	14.8	2.4*	0.3*	7.4*
	대학 졸업 이상	100.0	27.6	20.4	30.8	12.3	3.8	5.1

n= 788

-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2024년 결과에서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거의 집에만 있게 된’ 이유도 물었다. 취업(32.8%), 기타(23.0%), 임신·출산(14.7%), 인간관계(11.1%)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2022년도와 일부 다른데, 당시에는 기타(37.8%)가 가장 큰 이유였고, 취업(29.0%)이 두 번째 이유였다. 은둔의 배경에 취업 문제가 가장 크게 등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5~29세 청년

의 경우, 은둔 사유의 44.2%가 취업이었다. 대학 졸업 이상 청년 가운데서도 비율은 41.6%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실업률이 2017년 이후 계속 떨어져서, 2022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과도 모순된다(통계청, 2024). 다만, 통계의 이면에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거나, 구직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도 관찰된다(박종오, 안태호, 2023.5.3.). 거의 집에만 있는 사유는 집단별로 다소 특징적이다. 이를테면, 고졸 이하 학력 청년들에게는 취업(27.9%)이 가장 큰 은둔의 사유였지만,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들은 기타(47.0%)가 가장 큰 이유였다.

〈표 3-6-9〉 거의 집에만 있는 사유

(단위: %)

구분	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비율	학업의 중단으로	대학 진학의 실패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sup>9)</sup>
2022 전체	100.0	6.5	1.2	29.0	8.3	2.5	14.7	37.8	
<b>2024 전체</b>	<b>100.0</b>	<b>9.7</b>	<b>2.4</b>	<b>32.8</b>	<b>11.1</b>	<b>5.4</b>	<b>14.7</b>	<b>23.8</b>	
성별	남자	100.0	13.1	3.6*	35.1	13.4	5.6	3.9	25.2
	여자	100.0	5.9	1.1*	30.2	8.6	5.1	26.8	22.2
연령	19~24세	100.0	20.6	2.7*	26.9	10.0	3.2*	2.6*	33.9
	25~29세	100.0	5.4	3.0*	44.2	8.3	5.4	11.6	22.1
	30~34세	100.0	5.5*	1.5*	25.6	15.0	7.2	27.6	17.5
지역 1	수도권	100.0	9.3	2.6*	30.7	11.1	5.6	14.1	26.6
	비수도권	100.0	10.2	2.1	35.2	11.2	5.2	15.3	20.7
학력	고졸 이하	100.0	10.1	5.5*	27.9	14.5	9.0	15.3	17.7
	대학 재학·휴학	100.0	26.9	2.5*	11.4	8.2	3.0*	1.0*	47.0
	대학 졸업 이상	100.0	4.5	0.8*	41.6	10.4	4.3	18.4	20.0

n= 78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2024년 결과에서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였다. 지난 2022년의 2.4%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가운데, 사유가

9) 2024년 기타의 값은 2025년 6월 수정되었음.

‘장애 혹은 건강 문제’와 ‘임신·출산’을 제외하는 방식을 택한다. 2022~2024년 사이 고립·은둔의 추정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립·은둔 규모를 추정할 때, 은둔 상태의 지속 기간 조건을 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사이토 다마키(2002; 김혜원 등, 2021, p. 23에서 재인용)의 기준에 따르면, “(자택에 틀어박혀) 사회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은둔의 요소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임신, 출산, 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비율을 보면 고립·은둔 청년은 3.4%로 추정된다.

〈표 3-6-10〉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들의 비율

(단위: %)

구분	합계	매일 외출	주 3~4일	자주 외출	가끔 외출	취미만 위해 외출	인근 편의점	방에 서만 나옴	방도 거의 안 나옴	
2022 전체	100.0	71.1	9.1	6.3	11.0	1.3	1.0	0.1	0.0	
2024 전체	100.0	68.8	8.7	7.0	10.2	2.2	2.4	0.4	0.3	
성별	남자	100.0	69.2	8.4	6.7	9.8	2.5	2.6	0.4	0.5
	여자	100.0	68.4	9.1	7.4	10.7	1.8	2.1	0.4	0.2

n= 788

- 주: 1) 외출이 드문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은둔의 이유가 건강과 임신·출산인 응답자 193명을 제외한 산출값임.  
 2)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3)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5)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6-11〉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의 은둔 기간

(단위: %)

구분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2022 전체	100.0	38.2	20.3	29.6	5.4	2.6	4.0
2024 전체	100.0	35.4	19.4	25.8	10.8	2.6	6.0

n= 78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정치 및 사회 참여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평가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사회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김수정, 오지현, 최셋별, 2020).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집단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정치 및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을 나누어 물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정치에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2.9%로 줄었다. ‘약간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32.7%에서 24.2%로 줄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를테면,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대전의 청년 가운데 정치에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1%였다. 2024년도 대전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비율은 6.6%로 크게 줄었다. 대전 다음으로 정치 관심도가 높은 인천에서도 비율이 7.1%에서 4.8%로 떨어졌다.

〈표 3-6-12〉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매우 관심 있다	약간 관심 있다	그다지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2022 전체	100.0	4.8	32.7	40.0	22.5	
2024 전체	100.0	2.9	24.2	47.8	25.1	
성별	남자	100.0	3.8	26.8	45.9	23.6
	여자	100.0	1.9	21.3	50.0	26.8
연령	19~24세	100.0	2.3	20.0	48.1	29.6
	25~29세	100.0	2.5	25.3	47.9	24.3
	30~34세	100.0	3.8	27.3	47.4	21.5
지역 1	수도권	100.0	2.8	25.5	48.9	22.7
	비수도권	100.0	3.0	22.6	46.5	27.9
학력	고졸 이하	100.0	1.9	19.7	42.8	35.5
	대학 재학·휴학	100.0	2.4	21.9	48.7	27.1
	대학 졸업 이상	100.0	3.3	26.3	48.9	21.5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2024년 결과에서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정치 관심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도 눈길을 끈다. 2022년과 2024년 두 시점에서 모두 정치에 매우 혹은 약간 관심 있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만 보면, 두 시점 모두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두 배 이상이였다. 이러한 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2024년 12월 여의도 집회의 20대 참석자의 성별 비율과 반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관찰되는 ‘여성 청년의 상대적 진보당 지지, 남성 청년의 보수당 지지’(김다래, 2023) 경향에 일정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참여와 연관된다. 청년의 참여 내용 및 빈도에 대해서도 설문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다음의 다섯 영역에서 참여의 내용을 확인했다. 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③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④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직접 제출하기, ⑤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⑥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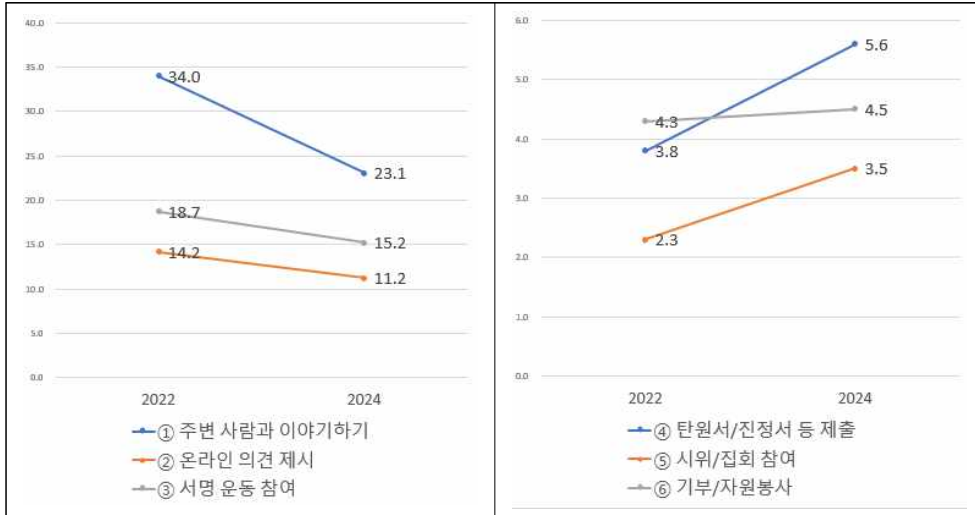
여섯 가지의 유형의 정치·사회 참여 활동은 뒤로 갈수록 관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정도 수준에서 실제로 본인의 시간 혹은 경제력을 사용해서 ⑥ 기부 혹은 자원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활동의 심도는 깊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를 저강도 참여, 후자를 고강도 참여로 나눈다면, 청년 집단에서 이른바 저강도 정치활동 참여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강도 정치활동은 모두 증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①~②의 참여는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고, ③~⑥은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산했다.

지난 2022~2024년 청년들의 저강도·고강도 정치적 참여 경향을 보면, 흥미로운 추이가 발견된다(〔그림 3-6-5〕 참고). 해당 기간에 ①~③의 저강도 정치 참여는 감소한 반면, ④~⑥ 고강도 정치 참여의 비율은 모두 늘었다는 점이다. 청년의 고강도 및 저강도 정치·사회 참여 활동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양상은 해석이 필요하다. 한 가지 확인할 점은 고강도 정치 참여의 비율은 전체 청년의 5% 이하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증가의 원인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 혹은 정치적 양극화 경향에 따른 극단적 정치 활동의 증가일 수 있

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을 고려해서 고강도 및 저강도 참여 가운데 하나씩, ③ 서명 운동과 ⑤ 집회 및 시위 참여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한다.

[그림 3-6-4] 지난 1년 동안 여섯 가지 유형의 정치·사회 참여 경험 비율

(단위: %)



n= 15,098

- 주: 1) ①~②는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고, ③~⑥은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산한 값임.  
 2)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했음.  
 3)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온라인 서명을 포함한 서명 운동 참여 경험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던 비율은 15.2%였다. 지난 2022년 18.7%에서 3.5%p 감소했다. 여성이 18.4%로 남성(12.4%)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남성이 더 높은 반면, 서명 참여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참여 비율이 높아져서 30~34세에서 참여율이 17.2%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15.8%)이 수도권(14.8%)보다 소폭 비율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서명 운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거주 청년의 서명 참여 비율이 24.0%로 가장 높았고, 제주에서도 비율이 20%를 넘었다.

〈표 3-6-13〉 정치, 사회 참여 경험(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사회 참여 경험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2022 전체	100.0	8.4	10.3	15.1	66.1	
2024 전체	100.0	5.6	9.7	16.3	68.4	
성별	남자	100.0	4.2	8.2	14.3	73.3
	여자	100.0	7.1	11.3	18.6	63.0
연령	19~24세	100.0	5.0	8.7	13.8	72.5
	25~29세	100.0	5.6	9.1	16.9	68.4
	30~34세	100.0	6.1	11.1	18.3	64.5
지역 1	수도권	100.0	5.4	9.4	16.4	68.8
	비수도권	100.0	5.8	10.0	16.2	68.0
학력	고졸 이하	100.0	4.4	7.2	12.6	75.8
	대학 재학·휴학	100.0	5.0	9.1	13.6	72.3
	대학 졸업 이상	100.0	6.1	10.6	18.3	65.0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서명 운동이 저강도 참여라면, 집회·시위 참여는 고강도 참여에 속한다.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참여 유형 가운데, 참여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비율로만 보면, 여섯 가지 참여 유형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지난 1년 사이에 1회 이상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3.5%였다. 2022년 2.3%에서 증가했다. 참고로,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계엄령 선포라는, 대규모 집회를 부를 수 있는 사회적 현안이 있었지만, 두 사건 모두 두 번의 청년 삶 실태조사 수행 기간 이후에 발생했다. 그 외에는 두 시기에 청년들의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이끌 사건은 없었다. 즉, 두 시기의 수평적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년을 세부 집단별로 나눠서 보았다. 지난 1년 1회 이상 집회 참여를 기준으로 남성(3.7%)이 여성(3.2%)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2022년과 2024년 조사에서 모두 정

치·사회 참여 비율은 여성이 일관되게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집회 및 시위 참여의 경우에는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30~34세에서 4.0%), 비수도권(3.8%)에서, 학력이 높을수록(대학 졸업 이상에서 3.7%), 지역별로는 충북(7.1%), 제주(5.6%), 전남(5.6%)에서 비율이 높았다.

〈표 3-6-14〉 정치, 사회 참여 경험[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사회 참여 경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2022 전체	100.0	0.7	1.6	8.3	89.4	
2024 전체	100.0	1.2	2.3	8.8	87.8	
성별	남자	100.0	1.4	2.3	7.5	88.7
	여자	100.0	1.1	2.1	10.1	86.7
연령	19~24세	100.0	1.0	2.1	7.2	89.7
	25~29세	100.0	1.1	2.1	9.2	87.6
	30~34세	100.0	1.6	2.5	9.8	86.1
지역 1	수도권	100.0	1.2	1.9	9.9	86.9
	비수도권	100.0	1.2	2.6	7.4	88.8
학력	고졸 이하	100.0	1.0	1.8	6.0	91.3
	대학 재학·휴학	100.0	1.1	2.4	7.9	88.6
	대학 졸업 이상	100.0	1.3	2.3	9.8	86.5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시민이 정치의 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치 효능감이 필요하다. 정치 효능감은 내·외적 효능감으로 구분된다. 내적 효능감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치적 ‘자원’(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한국행정연구원, p. 13)”으로, 외적 효능감은 “정부가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한국행정연구원, p. 13)으로 정의된다. 정치 효능감이 높을 때 시민들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내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외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물었다.

정치의 내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20.1%) 혹은 ‘매우 그렇다’(5.4%)라고 답한 비율은 25.6%였다. 2022년 조사에서는 비율이 23.8%였다. 소폭이지만 상승했다. 남성(27.5%), 30~34세(26.8%), 수도권(27.4%), 대학 졸업 이상(27.6%) 집단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2.5%)이 눈에 띄게 높았고, 서울(29.3%)도 높았다.

〈표 3-6-15〉 정치의 내적 효능감[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22 전체	100.0	15.9	23.0	37.3	19.3
2024 전체	100.0	19.0	22.7	32.7	20.1	5.4	
성별	남자	100.0	17.8	22.2	32.5	21.0	6.5
	여자	100.0	20.2	23.3	33.0	19.2	4.3
연령	19~24세	100.0	20.7	22.9	31.9	18.8	5.6
	25~29세	100.0	18.6	22.3	33.8	20.3	5.1
	30~34세	100.0	17.7	23.0	32.5	21.3	5.6
지역 1	수도권	100.0	18.2	21.8	32.5	22.2	5.2
	비수도권	100.0	19.8	23.8	33.0	17.6	5.7
학력	고졸 이하	100.0	25.2	27.1	30.3	12.5	4.9
	대학 재학·휴학	100.0	18.9	23.3	31.4	20.1	6.3
	대학 졸업 이상	100.0	17.2	21.3	33.9	22.3	5.3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청년 집단의 외적 효능감을 보기 위해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추이를 보았다. 2022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3.8%에서 5.1%로 늘었다. 청년을 세부 집단별로 나눠보면, 흥미롭게도, 내적 효능감과 같은 일부 다른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매우 그렇다 + 그렇다의 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학력 기준으로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에서 23.9%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조사에서도 유사했다.

정치에 대한 내·외적 효능감을 종합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2022년에 비해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늘었다. 다만, 내적 효능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25.6%)보다 부정적 답변 비율(41.7%)이 현격히 높았다는 점도 확인해둔다. 외적 효능감도 긍정(21.6%)보다 부정(45.9%)이 두 배를 넘었다.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6-16〉 정치의 외적 효능감[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효능감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22 전체	100.0	20.5	24.6	36.2	15.0	3.8	
2024 전체	100.0	22.3	23.7	32.4	16.5	5.1	
성별	남자	100.0	22.1	23.3	32.2	16.8	5.6
	여자	100.0	22.4	24.1	32.8	16.3	4.5
연령	19~24세	100.0	22.4	23.8	31.8	16.7	5.4
	25~29세	100.0	22.5	22.9	32.9	16.5	5.2
	30~34세	100.0	21.9	24.3	32.7	16.4	4.6
지역 1	수도권	100.0	20.8	23.3	32.9	18.0	5.0
	비수도권	100.0	24.0	24.1	31.9	14.8	5.2
학력	고졸 이하	100.0	27.8	26.1	28.4	12.3	5.4
	대학 재학·휴학	100.0	20.3	23.6	32.2	18.2	5.7
	대학 졸업 이상	100.0	21.3	23.0	33.7	17.2	4.8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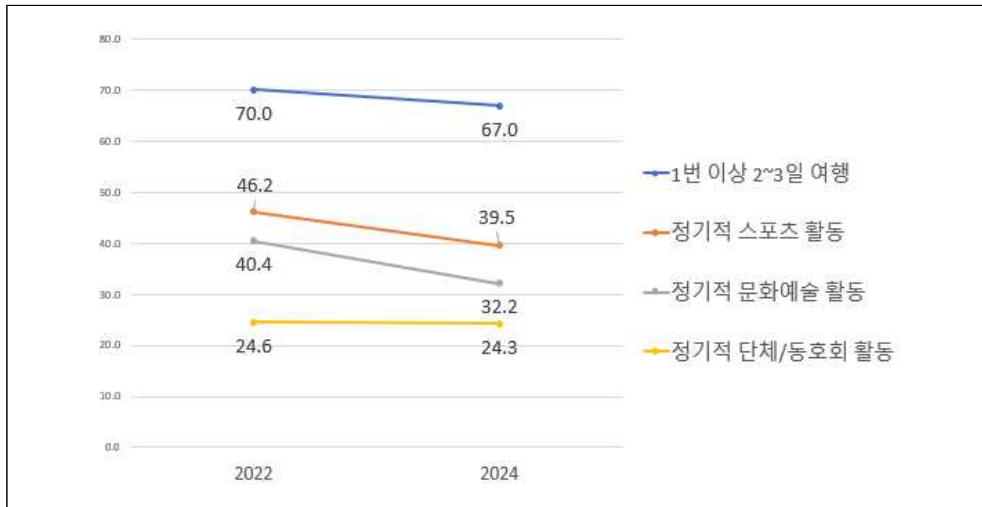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청년기에 문화예술, 스포츠, 단체/동호회 활동, 여행 활동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네 영역에 걸쳐서 ① 해당 활동의 필요성 인식, ② 지난 1년 동안의 해당 활동 경험 여부, ③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를 설문했다. 먼저, 네 가지 영역에서 지난 2022~2024년 사이 참여 비율의 변화를 보았다.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여행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문화예술, 단체/동호회 활동 순서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림 3-6-5] 지난 1년 사이 네 가지 여가 활동의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2022~2024년 기간에 경험한 비율이 감소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수행 기간은 2022년 7월 18일~8월 26일이었다. 당시 코로나19 범유행 확산 추세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였지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시점은 2022년 4월 18일이었다.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이다. 조사 시

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에 1일 최대 확진자 발생(2022년 3월 17일) 등 코로나 확산기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2022년 기준 청년 삶 실태조사 대상 기간은 감염병 확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친다. 네 가지 여가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청년들의 네 가지 여가 활동 참여율이 모두 2022년보다 낮아졌다. 특히, 문화예술(8.2%p)과 스포츠(6.7%p)에서 참여의 낙폭이 컸다. 이번 글에서는 변화의 폭이 컸던 문화예술과 스포츠 영역을 중심으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비율은 17.5%로, 2022년(24.3%)에 비해서 6.8%p 떨어졌다. 반면, 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022년 8.5%에서 2024년 10.9%로 상승했다. ‘꼭 필요하다’와 ‘하면 좋다’를 합한 기준으로 보면, 여성(92.0%)이 남성(86.6%)에 비해, 연령은 높을수록, 수도권(90.5%)이 비수도권(87.5%)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보았다.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32.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2년 40.4%에 비해 8.2%p가 하락했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여건은 개선됐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도 일치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성별, 지역별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로 비교하면, 25~29세 연령대에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33.1%)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6%)에서 참여 비율이 낮았다. 2022년(31.4%)에 비해서도 고졸 이하 청년의 참여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표 3-6-17〉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_하면 좋다)	할 필요가 없다	
2022 전체	100.0	24.3	67.2	91.5	8.5	
2024 전체	100.0	17.5	71.7	89.2	10.9	
성별	남성	100.0	15.5	71.1	86.6	13.5
	여성	100.0	19.7	72.3	92.0	8.0
연령	19~24세	100.0	17.9	70.6	88.5	11.5
	25~29세	100.0	17.2	71.8	89.0	11.0
	30~34세	100.0	17.4	72.6	90.0	10.0
지역	수도권	100.0	17.4	73.1	90.5	9.5
	비수도권	100.0	17.6	69.9	87.5	12.5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6-18〉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

(단위: %)

구분	비율	활동 경험 유무[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했다	안(못)했다	활동 경험을 못한 이유						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공간, 지리적 문제로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2022 전체	100.0	40.4	59.6	17.8	45.1	5.6	2.9	10.8	17.9	
2024 전체	100.0	32.2	67.8	17.0	35.0	8.2	4.4	11.9	23.6	
성별	남자	100.0	30.9	69.1	16.0	32.3	8.6	3.9	12.1	27.1
	여자	100.0	33.6	66.4	18.2	38.1	7.6	4.9	11.8	19.5
연령	19~24세	100.0	31.1	68.9	17.6	30.6	8.6	4.2	11.5	27.5
	25~29세	100.0	33.1	66.9	17.5	34.3	8.6	4.0	12.6	23.0
	30~34세	100.0	32.3	67.7	15.8	40.0	7.3	5.0	11.6	20.3
지역 1	수도권	100.0	33.3	66.7	17.1	35.7	8.4	4.0	10.8	23.9
	비수도권	100.0	30.8	69.2	16.8	34.1	7.9	4.8	13.2	23.2

n= 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꼭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2022년 30.5%에서 2024년 23.2%로 감소했다. 반면, ‘하면 좋다’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63.3%에서 67.4%로 늘었다. 두 비율을 합해서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3.8%에서 90.6%로 3.2%p 감소했다. 문화예술 활동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89.2%)보다는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남녀 차이는 미세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높았다.

‘지난 1년 사이 한 가지 이상의 정기적 스포츠 활동’의 참여 여부도 물었다. 2024년 기준으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9.5%였다. 2022년의 46.2%보다 줄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 참여율(34.0%)이 남성(44.5%)보다 10%p 이상 낮았다. 고졸 이하 학력 청년(29.9%)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다.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라고 답한 비율이 19.2%로, 다른 집단의 비율(17.0%, 13.7%)보다 높았다.

〈표 3-6-19〉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꼭 필요하다	하면 좋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_하면 좋다)	할 필요가 없다	
2022 전체	100.0	30.5	63.3	93.8	6.2	
2024 전체	100.0	23.2	67.4	90.6	9.3	
성별	남성	100.0	24.7	66.0	90.7	9.3
	여성	100.0	21.6	69.0	90.6	9.4
연령	19~24세	100.0	22.4	67.2	89.6	10.4
	25~29세	100.0	23.4	67.4	90.8	9.2
	30~34세	100.0	23.9	67.7	91.6	8.5
지역	수도권	100.0	23.6	67.8	91.4	8.6
	비수도권	100.0	22.8	67.0	89.8	10.2
학력	고졸 이하	100.0	18.1	68.1	86.2	13.8
	대학 재학·휴학	100.0	23.6	66.9	90.5	9.5
	대학 졸업 이상	100.0	24.6	67.4	92.0	8.0

n=15,098

-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6-20〉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단위: %)

구분	비율	활동 경험 유무[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했다	안(못)했다	활동 경험을 못한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공간, 지리적 문제로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2022 전체	100.0	46.2	53.8	16.9	48.4	8.8	3.1	6.2	16.5	
2024 전체	100.0	39.5	60.5	15.5	37.5	12.4	3.7	7.6	23.4	
성별	남자	100.0	44.5	55.5	15.8	37.7	13.1	3.9	6.6	22.9
	여자	100.0	34.0	66.0	15.2	37.2	11.7	3.5	8.6	23.8
연령	19~24세	100.0	37.1	62.9	16.1	31.3	13.3	3.2	8.9	27.2
	25~29세	100.0	41.8	58.2	15.6	37.8	13.4	3.8	7.1	22.3
	30~34세	100.0	39.5	60.5	14.6	43.3	10.5	4.2	6.8	20.5
지역 1	수도권	100.0	39.9	60.1	15.5	38.7	11.6	4.0	6.9	23.3
	비수도권	100.0	39.1	60.9	15.5	35.9	13.3	3.4	8.5	23.5
학력	고졸 이하	100.0	29.9	70.1	19.2	33.4	12.6	3.8	6.3	24.7
	대학 재학·휴학	100.0	40.5	59.5	17.0	30.6	15.0	3.7	8.5	25.2
	대학 졸업 이상	100.0	41.9	58.1	13.7	41.2	11.4	3.7	7.8	22.3

n= 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먼저 문화예술 영역을 보면, 2024년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도 해당 비율이 45.1%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율은 크게 줄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 답한 비율은 2022년(17.8%)과 2024년(17.0%)에 큰 차이가 없었다.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10.8%에서 11.9%로 소폭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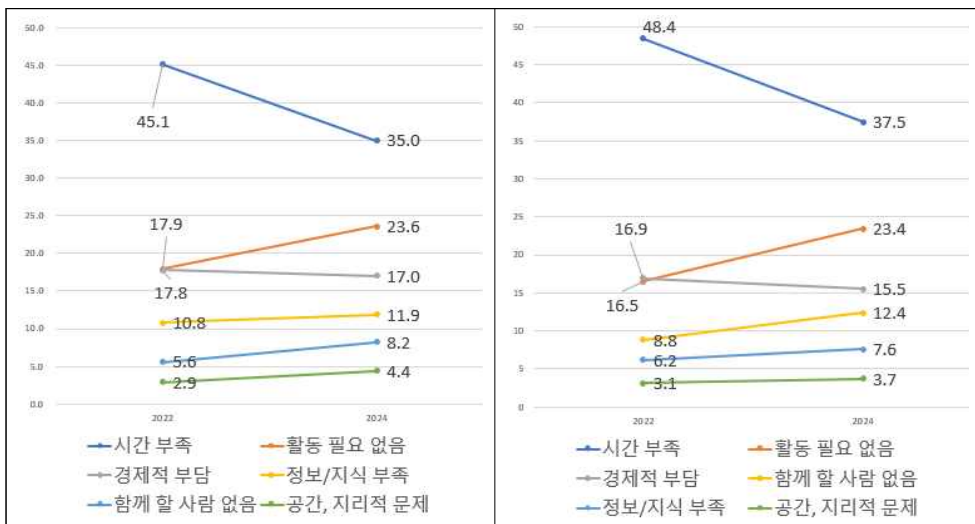
2024년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부상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어서’(2022년 17.9% → 2024년 23.6%)였다. 5.7%p 상승했다. 다른 이유로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도 2년 동안 5.6%에서 8.2%로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60.5% 청년들에게도 그 이유

를 물었다. 이유의 순서는 문화예술 영역과 유사했고, 비율도 유사했다. 즉,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비율은 떨어졌고, 해당 활동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도 유사하게 증가했다. 스포츠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과 응답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였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24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8.2%였고, 스포츠에서는 12.4%였다.

[그림 3-6-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좌) 및 스포츠(우) 활동에 참여 안 한 이유

(단위: %)



n= 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됐음.

2)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소결

이번 절에서는 한국 청년 집단의 사회적 관계, 고립과 은둔의 실태,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수준, 그리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경험을 순서대로 확인했다. 소결에서는 이번 절에서 확인된 내용을 간단히 종합하고, 정책적인 함의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사회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의 비율은 2022~2024년 사이에 10%포인트씩 감소하는 한편,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1~3%에서 5~9%로 늘어났다. 친족 외의 사람 가운데 교류하는 지인이 없다는 비율이 두 자릿수(11.1%)에 이르렀다. 많은 이들이 청년기에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사에서의 주요한 사건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다반사이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무수하다. 목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것 등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그렇지만 사회보장제도도 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애착과 우호, 우정과 연대의 네트워크 위에 공적 사회보장제도도 작동할 수 있다. Hannah Arendt(1951)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 사이 연대의 기반을 부수고, 개인들을 전체주의적 이념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했다.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관계가 약화하는 현상은 청년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뿐더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도 위협한 징후로 해석된다. 청년의 관계 문제는 국가적 의제로서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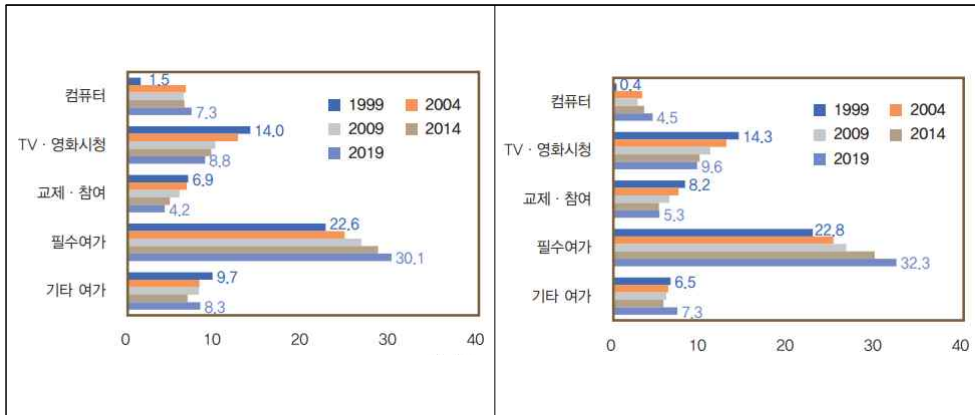
둘째, 청년 집단에서 관계의 양뿐 아니라 질도 악화하고 있다. 고립·은둔 집단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고립의 심도도 깊어졌다.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2024년 조사에서 5.2%로 추정됐다. 지난 2022년의 2.4%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외출 빈도에서도 극단적인 고립에 가까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답변 비율이 2022년 각각 0.1%, 0.0%에서 2024년에는 각각 0.5%, 0.4%로 늘었다.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가운데 그런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도 2022년 6.6%에서 10.5%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고립·은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고립·은둔의 심도가 강화되는 양상도 관찰된다.

셋째,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큰돈이 필요한 경우’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 2.4%에서 5.7%로 늘었다. 다른 네 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줄어

들고 있다. ‘매우 관심 있다’는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2.9%로 줄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였다. 다수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 관찰된 특징은 ‘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17.9%에서 23.6%로 늘었다. 물론, 정서의 흐름이 일방향인 것만은 아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2022년 68.8%에서 71.5%로 소폭이지만 늘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인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도 2022년 39.2%에서 2024년 40.5%로 소폭 늘었다.

[그림 3-6-7] 남성(좌), 여성(우) 청년의 여가시간 사용 추이

(단위: 시간/주)



자료: 조강철, 이하민. (2024). 컴퓨터 관련 여가(recreational computing)와 노동공급. 그림 6과 7 종합.

청년 세대의 관계의 폭과 질의 악화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의 온라인 친화적 여건과 결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철, 이하민(2024)이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 청년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1999년에 주당 1.5시간에서 2019년 7.3시간으로 늘어났다. 그사이 교제 및 참여에 사용한 시간은 6.9시간에서 4.2시간으로 감소했다. 온라인에서 보낸 시간이 오프라인상에서의 관계와 참여의 시간을 대체한 셈이었다.

넷째, 청년 사이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는 2022~2024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받고 싶다는 비율에서 예외 없이 모두 떨어졌다. 2020년대 이후 청년 대상 정책이 적지 않게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마련의 온기가 청년 집단 당사자에게는 체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상 고충 등의 영역에서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기대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청년기는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및 사적인 네트워크가 아직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사적·공적 영역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공적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상담 혹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6-21〉 도움이 필요한 다섯 상황에서 공공기관 도움 가능 생각 비율과 도움 희망 비율

(단위: %)

구분	목돈 필요	생활비 부족	상병	우울/스트레스	일상 고충	
도움 가능	2022	10.7	5.1	6.6	6.1	23.5
	2024	7.5	3.2	4.7	3.7	16.1
도움 희망	2022	18.7	13.7	12.7	9.2	28.0
	2024	16.4	12.4	12.1	8.6	23.7

다섯째, 청년 집단의 교류와 참여의 정도가 인구사회학적인 범주별로도 차이가 컸다. 지역에 따라서도 격차가 컸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청년은 관계 및 참여의 모든 범주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학력, 취약 청년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설계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 제7절 청년의 사회 인식·미래 설계 실태

### 1. 분석 결과

#### 가. 행복과 신뢰

삶의 만족과 행복감, 삶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11점 범위의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우선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6.71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 점수의 차이는 0.01점에 불과하여,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6.90점, 25~29세가 6.53점, 30~34세가 6.70점으로 20대 후반의 삶의 만족 점수가 다소 낮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6.67점, 비수도권이 6.75점으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이 7.00점, 부산이 6.83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는 경우 7.06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이상이 6.73점, 고졸 이하가 6.22점으로 낮다.

평균 행복감은 6.80점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6.78점, 여성이 6.82점으로 여성이 다소 높아보이지만 그 차이는 0.04점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6.96점, 25~29세가 6.63점, 30~34세가 6.82점으로 20대 후반의 행복감 점수가 다소 낮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6.76점, 비수도권이 6.86점으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이 7.10점, 부산이 7.0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는 경우 7.10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이상이 6.83점, 고졸 이하가 6.34점으로 낮다.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식 점수는 평균 6.92점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6.95점, 여성 6.88점으로 여성이 다소 낮지만, 그 차이는 역시 0.07점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7.73점, 25~29세가 6.83점, 30~34세가 6.80점으로 20대 초반 집단에서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6.98점, 비수도권이 6.84점으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이 7.26점, 서울이 7.12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는 경우 7.20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이상이 6.91점,

고졸 이하가 6.61점으로 낮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5.26점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29점, 여성이 5.23점으로 남성이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0.06점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5.40점, 25~29세가 5.18점, 30~34세가 5.21점으로 20대 초반 집단의 신뢰 점수가 다소 높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5.30점, 비수도권이 5.22점으로 비수도권이 0.08점 높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5.70점, 충남이 5.65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는 경우 5.49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이상이 5.26점, 고졸 이하가 5.00점으로 낮다.

〈표 3-7-1〉 삶의 만족, 삶의 행복감 정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삶의 만족	행복감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전체		6.71	6.80	6.92	5.26
성별	남성	6.71	6.78	6.95	5.29
	여성	6.70	6.82	6.88	5.23
연령	19~24세	6.90	6.96	7.13	5.40
	25~29세	6.53	6.63	6.83	5.18
	30~34세	6.70	6.82	6.80	5.21
지역 1	수도권	6.67	6.76	6.98	5.30
	비수도권	6.75	6.86	6.84	5.22
지역 2	서울	6.72	6.81	7.12	5.52
	부산	6.83	7.00	6.98	5.16
	대구	6.80	6.90	6.84	5.14
	인천	6.28	6.46	6.71	4.68
	광주	6.84	6.84	6.82	5.70
	대전	6.65	6.70	6.69	5.02
	울산	6.68	6.73	6.73	4.93
	세종	6.69	6.72	6.78	4.82
	경기	6.71	6.78	6.92	5.25
	강원	7.00	7.10	7.26	5.06
	충북	6.77	6.74	6.80	5.44
	충남	6.85	6.88	6.91	5.65
	전북	6.76	6.86	6.72	4.99

구분		삶의 만족	행복감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전남	6.74	6.84	6.69	5.23
	경북	6.72	6.83	6.93	5.27
	경남	6.60	6.85	6.73	5.12
	제주	6.36	6.59	6.64	5.07
학력	고졸 이하	6.22	6.34	6.61	5.00
	대학 재학·휴학	7.06	7.10	7.20	5.49
	대학 졸업 이상	6.73	6.83	6.91	5.2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갈등 인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가장 많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3.9%, ‘갈등이 매우 많다’가 13.7%, ‘갈등이 거의 없다’가 4.0% 순이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와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2.1%로 청년 10명 중 7명은 세대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이고, 여성은 72.8%로 여성이 세대 간 갈등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 중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로 여성의 11.5%보다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로는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 71.3%, 25~29세 72.2%, 30~34세 72.8%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2.8%이고, 비수도권은 71.3%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4.7%로 수도권의 12.9%보다 약간 많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천이 81.7%, 강원이 81.6%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이 74.0%,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70.5%, 고졸 이하가 67.5%로 학력이 높을 수록 세대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3-7-2〉 갈등 인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단위: %)

구분	비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0	13.7	58.4	23.9	4.0	
성별	남성	100.0	15.7	55.8	23.9	4.6
	여성	100.0	11.5	61.3	23.8	3.4
연령	19~24세	100.0	12.3	59.1	24.8	3.9
	25~29세	100.0	14.0	58.1	23.6	4.3
	30~34세	100.0	14.7	58.1	23.3	3.9
지역 1	수도권	100.0	12.9	59.9	23.9	3.3
	비수도권	100.0	14.7	56.6	23.8	4.9
지역 2	서울	100.0	13.6	58.0	25.5	2.9
	부산	100.0	11.2	56.7	25.1	6.9
	대구	100.0	10.6	55.8	28.7	4.8
	인천	100.0	17.6	64.0	13.2	5.1
	광주	100.0	14.9	61.9	20.4	2.9
	대전	100.0	20.0	58.6	17.3	4.1
	울산	100.0	14.1	54.7	28.0	3.2
	세종	100.0	16.3	61.4	18.2	4.1*
	경기	100.0	11.2	60.7	25.0	3.1
	강원	100.0	17.2	64.4	16.1	2.3
	충북	100.0	12.4	44.8	35.1	7.7
	충남	100.0	10.9	59.8	26.4	3.0
	전북	100.0	31.9	46.8	16.7	4.6
	전남	100.0	13.6	55.4	24.5	6.6
	경북	100.0	11.2	56.4	28.5	3.9
	경남	100.0	14.9	59.3	19.3	6.6
	제주	100.0	13.8	60.4	20.7	5.1
학력	고졸 이하	100.0	13.5	54.0	26.1	6.4
	대학 재학·휴학	100.0	12.2	58.2	25.7	3.9
	대학 졸업 이상	100.0	14.2	59.8	22.6	3.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로 가장 많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0.4%, ‘갈등이 매우 많다’가 23.1%, ‘갈등이 거의 없다’가 3.9% 순이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와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5.7%로 청년 3명 중 2명 정도가 계층 간에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이고, 여성은 77.6%로 여성이 계층 간 갈등을 남성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 74.7%, 25~29세 74.9%, 30~34세 77.4%이고, 30대 초반 집단에서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5.1%이고, 비수도권은 76.3%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가 82.8%, 강원이 82.2%, 인천이 81.7%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이 77.1%,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74.0%, 고졸 이하가 72.6%로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3-7-3〉 갈등 인식: 부유층과 서민층

(단위: %)

구분	비율	부유층과 서민층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0	23.1	52.6	20.4	3.9	
성별	남성	100.0	21.9	52.0	21.6	4.5
	여성	100.0	24.4	53.2	19.1	3.3
연령	19~24세	100.0	20.5	54.2	21.6	3.7
	25~29세	100.0	22.5	52.4	20.7	4.4
	30~34세	100.0	26.2	51.3	19.0	3.6
지역 1	수도권	100.0	22.0	53.1	21.4	3.4
	비수도권	100.0	24.4	51.9	19.2	4.5
지역 2	서울	100.0	19.5	55.2	22.5	2.7
	부산	100.0	18.6	49.8	24.5	7.1
	대구	100.0	30.9	48.9	17.7	2.6

구분	비율	부유층과 서민층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인천	100.0	32.4	49.4	12.6	5.7	
광주	100.0	22.2	60.6	15.0	2.1	
대전	100.0	22.1	49.0	24.8	4.1	
울산	100.0	23.1	51.3	22.5	3.1	
세종	100.0	28.2	50.6	17.4	3.8*	
경기	100.0	21.7	52.2	22.5	3.6	
강원	100.0	22.3	59.9	14.8	2.9	
충북	100.0	17.2	56.4	20.9	5.5	
충남	100.0	23.3	58.0	14.4	4.3	
전북	100.0	39.9	41.7	12.9	5.6	
전남	100.0	24.8	50.2	20.9	4.1	
경북	100.0	22.8	52.3	21.2	3.7	
경남	100.0	25.7	50.0	18.3	6.0	
제주	100.0	28.2	48.6	18.1	5.0	
학력	고졸 이하	100.0	23.4	49.2	21.2	6.2
	대학 재학·휴학	100.0	19.2	54.8	22.7	3.3
	대학 졸업 이상	100.0	24.3	52.8	19.4	3.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많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32.4%, ‘갈등이 매우 많다’가 16.3%, ‘갈등이 거의 없다’가 5.2% 순이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와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2.4%로 청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지역 간에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이고, 여성은 64.9%로 여성이 지역 간 갈등을 남성보다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 61.3%, 25~29세 61.8%, 30~34세 64.2%이고, 30대 초반 집단

에서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이고, 비수도권은 66.1%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북이 77.9%, 광주가 72.7%, 강원이 71.7%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이 64.7%,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60.5%, 고졸 이하가 56.9%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3-7-4〉 갈등 인식: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위: %)

구분	비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0	16.3	46.2	32.4	5.2	
성별	남성	100.0	16.1	44.1	33.8	6.0
	여성	100.0	16.5	48.4	30.8	4.3
연령	19~24세	100.0	14.9	46.4	33.7	5.0
	25~29세	100.0	15.6	46.2	32.1	6.1
	30~34세	100.0	18.2	45.9	31.4	4.5
지역 1	수도권	100.0	13.5	45.9	35.9	4.7
	비수도권	100.0	19.6	46.5	28.1	5.8
지역 2	서울	100.0	12.9	46.0	37.4	3.7
	부산	100.0	15.2	44.0	32.1	8.8
	대구	100.0	18.0	53.0	25.1	3.9
	인천	100.0	21.6	45.8	24.8	7.7
	광주	100.0	19.5	53.2	25.0	2.3
	대전	100.0	16.3	43.5	34.5	5.7
	울산	100.0	22.3	43.4	29.8	4.5
	세종	100.0	26.5	44.1	24.0	5.5
	경기	100.0	12.2	45.8	37.1	4.9
	강원	100.0	17.5	54.2	25.9	2.5
	충북	100.0	12.7	44.4	35.7	7.3
충남	100.0	15.5	45.2	33.9	5.4	

구분	비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북	전북	100.0	35.3	42.6	15.7	6.4
	전남	100.0	19.5	49.1	26.6	4.7
	경북	100.0	20.5	43.8	30.2	5.5
	경남	100.0	25.7	44.0	21.9	8.4
	제주	100.0	17.9	49.4	27.5	5.2
학력	고졸 이하	100.0	14.5	42.4	34.6	8.4
	대학 재학·휴학	100.0	14.8	45.7	34.6	4.9
	대학 졸업 이상	100.0	17.3	47.4	31.0	4.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남성과 여성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로 가장 많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가 28.8%, '갈등이 매우 많다'가 23.9%, '갈등이 거의 없다'가 4.6% 순이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와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6.6%로 3명 중 2명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6.0%이고, 여성은 67.2%로 여성이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을 남성보다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 66.9%, 25~29세 67.1%, 30~34세 65.8%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이고, 비수도권 66.6%로 같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천 77.8%, 세종 77.0%, 강원 75.4% 순이다. 학력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이 68.3%,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67.4%, 고졸 이하가 59.7%이다.

〈표 3-7-5〉 갈등 인식: 남성과 여성

(단위: %)

구분	비율	남성과 여성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0	23.9	42.7	28.8	4.6	
성별	남성	100.0	25.5	40.6	28.6	5.4
	여성	100.0	22.1	45.1	28.9	3.8
연령	19~24세	100.0	24.8	42.1	28.7	4.4
	25~29세	100.0	25.0	42.1	27.6	5.3
	30~34세	100.0	21.8	44.0	30.0	4.2
지역 1	수도권	100.0	23.4	43.1	29.6	3.8
	비수도권	100.0	24.4	42.2	27.7	5.6
지역 2	서울	100.0	21.9	43.6	31.4	3.1
	부산	100.0	24.4	40.1	26.5	9.1
	대구	100.0	24.7	42.1	29.0	4.2
	인천	100.0	40.9	36.9	15.8	6.4
	광주	100.0	13.7	54.6	28.7	3.0
	대전	100.0	29.4	40.3	24.0	6.2
	울산	100.0	31.1	41.1	23.7	4.1
	세종	100.0	44.0	33.0	19.5	3.5
	경기	100.0	20.9	44.1	31.1	3.8
	강원	100.0	23.5	51.9	22.5	2.1
	충북	100.0	20.2	37.3	34.3	8.1
	충남	100.0	13.5	41.9	39.5	5.1
	전북	100.0	28.0	41.5	25.8	4.7
	전남	100.0	20.1	43.4	29.3	7.1
	경북	100.0	27.5	36.5	30.9	5.1
	경남	100.0	30.0	42.1	21.8	6.0
	제주	100.0	27.9	46.9	21.0	4.3
학력	고졸 이하	100.0	20.5	39.2	33.4	6.9
	대학 재학·휴학	100.0	25.1	42.3	28.3	4.3
	대학 졸업 이상	100.0	24.4	43.9	27.6	4.1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고, ‘갈등이 많은 편이다’가 40.1%, ‘갈등이 거의 없다’가 7.8%, ‘갈등이 매우 많다’가 7.0% 순이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와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47.1%로 50%에 미치지 못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이고, 여성은 50.8%로 여성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을 남성에 비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4세 44.7%, 25~29세 46.5%, 30~34세 50.0%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이고, 비수도권은 47.0%로 차이가 거의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북이 60.3%, 광주가 57.2%, 강원이 57.0%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이 48.7%,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43.5%, 고졸 이하가 45.5%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는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3-7-6〉 갈등 인식: 내국인과 외국인

(단위: %)

구분	비율	내국인과 외국인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0	7.0	40.1	45.1	7.8	
성별	남성	100.0	6.9	36.9	46.8	9.4
	여성	100.0	7.1	43.7	43.1	6.1
연령	19~24세	100.0	6.1	38.6	46.7	8.6
	25~29세	100.0	6.6	39.9	45.1	8.4
	30~34세	100.0	8.2	41.8	43.5	6.5
지역 1	수도권	100.0	6.6	40.6	46.3	6.5
	비수도권	100.0	7.4	39.5	43.6	9.4
지역 2	서울	100.0	6.4	41.8	46.9	4.9
	부산	100.0	4.6	34.3	47.0	14.1
	대구	100.0	7.2	35.7	49.7	7.4

구분	비율	내국인과 외국인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인천	100.0	10.0	36.7	41.9	11.3	
광주	100.0	8.1	49.0	38.5	4.4	
대전	100.0	5.1	38.1	42.2	14.6	
울산	100.0	7.7	38.6	46.1	7.5	
세종	100.0	9.1	31.9	46.6	12.4	
경기	100.0	5.9	40.5	46.7	6.8	
강원	100.0	7.3	49.7	35.5	7.4	
충북	100.0	6.2	34.2	48.3	11.3	
충남	100.0	5.0	36.3	51.0	7.7	
전북	100.0	15.1	45.3	32.4	7.3	
전남	100.0	8.4	44.2	37.9	9.5	
경북	100.0	7.8	37.3	47.3	7.6	
경남	100.0	9.1	41.9	39.2	9.8	
제주	100.0	8.1	40.2	43.1	8.5	
학력	고졸 이하	100.0	8.2	37.2	43.1	11.4
	대학 재학·휴학	100.0	5.8	37.7	48.4	8.1
	대학 졸업 이상	100.0	7.0	41.7	44.5	6.7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한국 사회 위협 인식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불평등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높고, ‘매우 영향이 있다’가 20.9%, ‘영향이 없다’가 15.3%, ‘전혀 영향이 없다’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82.7%로 청년 10명 중 8명은 불평등을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4%이고, 여성은 84.1%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

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 25~29세는 82.1%, 30~34세는 82.4%로 20대 초반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83.5%, 비수도권이 81.7%로 수도권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가 90.9%, 충남이 88.4%, 인천이 87.8%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80.3%,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84.4%, 대학 졸업 이상이 82.9% 정도로 나타났다.

〈표 3-7-7〉 한국 사회 위협 인식: 불평등

(단위: %)

구분	비율	불평등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전체	100.0	2.0	15.3	61.7	20.9	
성별	남성	100.0	2.7	15.9	59.8	21.6
	여성	100.0	1.3	14.6	63.8	20.2
연령	19~24세	100.0	2.3	14.2	62.8	20.7
	25~29세	100.0	2.2	15.7	60.9	21.2
	30~34세	100.0	1.6	16.0	61.5	20.9
지역 1	수도권	100.0	1.6	14.9	63.3	20.2
	비수도권	100.0	2.5	15.8	59.9	21.8
지역 2	서울	100.0	1.7	17.5	63.7	17.1
	부산	100.0	3.7	19.5	57.3	19.4
	대구	100.0	3.1	19.9	56.9	20.1
	인천	100.0	1.8	10.5	59.0	28.7
	광주	100.0	0.5*	8.7	72.5	18.4
	대전	100.0	2.6	24.1	49.3	24.0
	울산	100.0	2.0*	13.2	59.5	25.4
	세종	100.0	3.6*	12.4	57.0	27.1
	경기	100.0	1.5	13.8	63.8	20.8
	강원	100.0	1.5*	11.8	62.4	24.3
	충북	100.0	2.2*	25.8	58.8	13.2
	충남	100.0	2.3	9.4	69.2	19.1

구분	비율	불평등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지역	전북	100.0	2.3*	10.7	54.2	32.8
	전남	100.0	1.1*	18.1	58.3	22.5
	경북	100.0	2.3	14.9	61.3	21.5
	경남	100.0	3.8	11.2	61.1	23.8
	제주	100.0	2.2*	15.8	59.3	22.7
학력	고졸 이하	100.0	3.1	16.6	59.2	21.1
	대학 재학·휴학	100.0	2.0	14.1	63.1	20.9
	대학 졸업 이상	100.0	1.8	15.4	62.0	20.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저출생과 고령화가 ‘매우 영향이 있다’가 54.3%로 가장 높고,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9%, ‘영향이 없다’가 19.76.7%, ‘전혀 영향이 없다’가 1.1%의 순으로 나타난다. ‘영향이 있다’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92.1%로 청년 10명 중 9명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저출생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9%이고, 여성은 92.4%로 응답률의 차이가 0.5%포인트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 25~29세는 91.2%, 30~34세는 93.1%로 전체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한국 사회의 위협 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92.1%, 비수도권이 92.1%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가 97.0%, 전북이 96.0%, 울산이 95.9%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90.5%,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92.4%, 대학 졸업 이상이 92.5% 정도로 나타났다.

〈표 3-7-8〉 한국 사회 위협 인식: 저출생·고령화

(단위: %)

구분	비율	저출생·고령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전체	100.0	1.1	6.7	37.9	54.3	
성별	남성	100.0	1.4	6.8	35.3	56.6
	여성	100.0	0.9	6.7	40.8	51.7
연령	19~24세	100.0	1.1	6.8	39.1	53.0
	25~29세	100.0	1.1	7.7	37.4	53.8
	30~34세	100.0	1.2	5.8	37.1	55.9
지역 1	수도권	100.0	0.9	7.0	39.9	52.3
	비수도권	100.0	1.5	6.4	35.5	56.7
지역 2	서울	100.0	0.8	8.5	38.6	52.1
	부산	100.0	1.6	8.9	32.9	56.6
	대구	100.0	0.9*	8.9	32.5	57.7
	인천	100.0	1.4*	3.9	30.8	63.9
	광주	100.0	0.4*	2.7	42.8	54.2
	대전	100.0	1.6*	9.3	31.2	57.9
	울산	100.0	1.4*	2.7	34.2	61.7
	세종	100.0	1.5*	3.0*	20.2	75.3
	경기	100.0	0.8	6.5	42.9	49.9
	강원	100.0	1.2*	4.1	37.8	56.9
	충북	100.0	1.6*	10.9	42.3	45.2
	충남	100.0	1.6	4.0	43.0	51.3
	전북	100.0	0.9*	3.1	28.6	67.4
	전남	100.0	0.8*	9.3	39.2	50.7
	경북	100.0	1.5	3.4	37.0	58.2
	경남	100.0	3.0	6.4	32.8	57.8
	제주	100.0	0.9*	7.9	33.1	58.2
학력	고졸 이하	100.0	1.8	7.7	41.8	48.7
	대학 재학·휴학	100.0	0.7	6.9	38.9	53.5
	대학 졸업 이상	100.0	1.1	6.4	36.4	56.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가장 높고, ‘매우 영향이 있다’가 24.8%, ‘영향이 없다’가 19.7%, ‘전혀 영향이 없다’가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77.6%로 청년 3명 중 2명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이고, 여성은 79.6%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8%, 25~29세는 79.8%, 30~34세는 78.4%로 전체적으로 20대 후반부터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한국 사회의 위협 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78.4%, 비수도권이 76.8%로 수도권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가 90.4%, 전북이 85.9%, 충남이 84.9%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75.8%,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77.9%, 대학 졸업 이상이 78.1% 정도로 대학 이상 집단에서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위협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9〉 한국 사회 위협 인식: 기술-산업구조 변화

(단위: %)

구분	비율	기술-산업구조 변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전체	100.0	2.7	19.7	52.9	24.8	
성별	남성	100.0	3.4	20.7	50.1	25.7
	여성	100.0	1.9	18.5	55.9	23.7
연령	19~24세	100.0	2.7	20.5	53.5	23.3
	25~29세	100.0	3.0	20.7	52.6	23.7
	30~34세	100.0	2.3	18.0	52.5	27.2
지역 1	수도권	100.0	2.5	19.2	53.6	24.7
	비수도권	100.0	2.9	20.3	51.9	24.8

구분	비율	기술·산업구조 변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지역 2	서울	100.0	2.5	20.1	54.1	23.3
	부산	100.0	3.8	28.9	47.8	19.4
	대구	100.0	1.4*	23.9	52.8	21.8
	인천	100.0	3.7	19.6	51.6	25.1
	광주	100.0	0.7*	8.9	59.4	31.0
	대전	100.0	2.8	25.3	45.7	26.1
	울산	100.0	2.8	18.7	53.9	24.6
	세종	100.0	4.1*	18.3	51.3	26.3
	경기	100.0	2.2	18.3	53.7	25.8
	강원	100.0	2.8	17.2	55.0	25.0
	충북	100.0	4.7	21.8	52.2	21.3
	충남	100.0	1.8	13.3	60.9	24.0
	전북	100.0	1.4*	12.7	50.9	35.1
	전남	100.0	4.0	19.3	51.3	25.5
	경북	100.0	2.7	20.8	50.2	26.3
	경남	100.0	4.3	21.1	50.2	24.3
	제주	100.0	4.0	24.7	46.2	25.1
학력	고졸 이하	100.0	4.4	19.8	52.4	23.4
	대학 재학·휴학	100.0	2.1	20.0	54.6	23.3
	대학 졸업 이상	100.0	2.3	19.6	52.4	25.7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국제분쟁이나 통일, 안보 등 테러리즘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고, ‘매우 영향이 있다’가 29.1%, ‘영향이 없다’가 17.4%, ‘전혀 영향이 없다’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79.7%로 청년 5명 중 4명은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테러리즘이 한국 사

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3%이고, 여성은 82.4%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1%, 25~29세는 77.9%, 30~34세는 80.3%다. 지역별로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80.2%, 비수도권이 79.2%로 응답률 차이는 1%포인트 정도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가 92.0%, 강원이 86.3%, 전북이 85.8%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79.4%,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80.7%, 대학 졸업 이상이 79.5% 정도로 나타났다.

〈표 3-7-10〉 한국 사회 위협 인식: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단위: %)

구분	비율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전체	100.0	2.9	17.4	50.6	29.1	
성별	남성	100.0	3.8	18.9	48.9	28.4
	여성	100.0	1.9	15.7	52.5	29.9
연령	19~24세	100.0	2.9	16.0	51.3	29.8
	25~29세	100.0	3.2	18.9	49.3	28.5
	30~34세	100.0	2.6	17.1	51.3	29.0
지역 1	수도권	100.0	2.1	17.6	51.3	28.9
	비수도권	100.0	3.8	17.0	49.8	29.3
지역 2	서울	100.0	1.9	17.4	51.3	29.4
	부산	100.0	4.9	23.9	45.1	26.1
	대구	100.0	2.7	14.6	55.8	26.9
	인천	100.0	3.8	14.7	48.3	33.2
	광주	100.0	0.7*	7.3	59.1	32.8
	대전	100.0	3.6	17.7	40.1	38.6
	울산	100.0	5.3	14.0	53.4	27.2
	세종	100.0	5.4	17.7	46.0	30.9
	경기	100.0	2.0	18.5	52.0	27.5
	강원	100.0	2.8	10.9	46.2	40.2
	충북	100.0	9.1	25.7	40.9	24.2

구분	비율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충남	충남	100.0	2.5	12.1	58.1	27.3
	전북	100.0	1.5*	12.7	47.1	38.7
	전남	100.0	2.0*	17.1	54.3	26.6
	경북	100.0	4.8	20.2	49.6	25.3
	경남	100.0	4.8	18.2	51.7	25.3
	제주	100.0	2.7	20.2	44.9	32.1
학력	고졸 이하	100.0	3.7	17.0	46.9	32.5
	대학 재학·휴학	100.0	2.6	16.7	51.5	29.2
	대학 졸업 이상	100.0	2.8	17.7	51.4	28.1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기후변화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고, ‘영향이 있다’가 43.2%, ‘영향이 없다’가 9.0%, ‘전혀 영향이 없다’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89.2%로 청년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1%이고, 여성은 92.6%로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7%, 25~29세는 87.6%, 30~34세는 90.3%다. 지역별로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이 89.5%, 비수도권이 88.8%로 응답률 차이는 0.8%포인트 정도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기후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거나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주가 95.7%, 전북이 93.4%, 강원이 93.2%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88.2%, 대학 재학 혹은 휴학이 89.5%, 대학 졸업 이상이 89.3% 정도로 나타났다.

〈표 3-7-11〉 한국 사회 위협 인식: 기후변화

(단위: %)

구분	비율	기후변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전체	100.0	1.9	9.0	43.2	46.0	
성별	남성	100.0	2.5	11.4	43.8	42.3
	여성	100.0	1.1	6.2	42.4	50.2
연령	19~24세	100.0	2.0	8.3	45.5	44.2
	25~29세	100.0	2.0	10.4	42.4	45.2
	30~34세	100.0	1.7	8.1	41.6	48.7
지역 1	수도권	100.0	1.7	8.9	43.7	45.8
	비수도권	100.0	2.1	9.1	42.5	46.3
지역 2	서울	100.0	1.7	9.5	45.6	43.2
	부산	100.0	2.6	11.8	45.0	40.6
	대구	100.0	1.5	7.1	42.3	49.1
	인천	100.0	2.2	7.7	40.9	49.2
	광주	100.0	0.8*	3.5	46.0	49.8
	대전	100.0	2.3	9.6	36.5	51.6
	울산	100.0	2.7	7.8	44.7	44.8
	세종	100.0	3.9*	8.5	39.5	48.1
	경기	100.0	1.5	8.6	42.7	47.2
	강원	100.0	0.8*	6.1	38.9	54.2
	충북	100.0	3.6	19.3	40.6	36.5
	충남	100.0	2.5	7.9	47.9	41.7
	전북	100.0	0.8*	5.8	36.1	57.3
	전남	100.0	1.0*	8.6	41.1	49.3
	경북	100.0	2.0	9.0	45.3	43.8
	경남	100.0	3.3	9.6	43.2	43.9
제주	100.0	1.8*	8.8	40.1	49.3	
학력	고졸 이하	100.0	2.6	9.1	43.0	45.3
	대학 재학·휴학	100.0	1.6	8.9	46.7	42.8
	대학 졸업 이상	100.0	1.7	8.9	42.0	47.3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라. 주관적 계층 인식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 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9%이다.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9%, 중상층은 9.5%, 하층은 6.1%, 상층은 0.6%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중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남성의 50.5%보다 다소 높는데, 상층은 여성의 응답률 0.2%보다 남성이 0.8%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 25~29세는 51.6%, 30~34세는 50.5%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는 반면, 중하층이라는 응답률은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2%, 비수도권은 52.6%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 중간층의 응답률은 충남이 61.8%, 강원이 56.7%, 경기가 5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중간층의 응답률은 대학 재학 혹은 휴학한 경우 57.3%, 대학 졸업 이상이 54.6%, 고졸 이하가 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12〉 주관적 계층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전체		100.0	6.1	30.9	52.9	9.5	0.6
성별	남성	100.0	6.7	32.3	50.5	9.7	0.8
	여성	100.0	5.4	29.4	55.5	9.4	0.2
연령	19~24세	100.0	4.8	26.0	56.7	11.6	0.8
	25~29세	100.0	6.9	31.0	51.6	10.2	0.3
	30~34세	100.0	6.6	35.5	50.5	6.8	0.5
지역 1	수도권	100.0	5.6	30.8	53.2	9.9	0.4
	비수도권	100.0	6.7	31.0	52.6	9.0	0.7
지역 2	서울	100.0	6.6	30.8	51.3	10.9	0.5*
	부산	100.0	5.1	29.0	52.3	13.2	0.3*
	대구	100.0	10.0	28.4	52.2	8.1	1.2*
	인천	100.0	7.6	34.2	47.6	9.5	1.0*
	광주	100.0	4.3	30.1	52.4	13.0	0.1*
	대전	100.0	6.2	31.7	53.4	7.1	1.7*

구분		비율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울산	100.0	7.0	29.4	54.3	9.1	0.2*
	세종	100.0	4.4*	22.9	55.4	15.6	1.7*
	경기	100.0	4.4	30.1	56.0	9.3	0.3*
	강원	100.0	6.1	29.3	56.7	7.2	0.7*
	충북	100.0	4.7	37.7	48.8	8.3	0.5*
	충남	100.0	4.4	27.6	61.8	5.7	0.5*
	전북	100.0	7.9	36.6	49.0	5.7	0.7*
	전남	100.0	9.5	35.5	49.3	5.3	0.3*
	경북	100.0	6.9	32.9	52.6	6.9	0.8*
	경남	100.0	8.1	30.1	49.0	11.9	0.9*
	제주	100.0	7.5	30.8	50.7	10.8	0.2*
학력	고졸 이하	100.0	13.9	39.4	41.5	4.6	0.6
	대학 재학·휴학	100.0	4.0	24.1	57.3	13.5	1.0
	대학 졸업 이상	100.0	4.6	30.8	54.6	9.6	0.4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마. 불평등과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불평등과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와 소득 대물림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과 정부 간 역할 인식, 그리고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인식을 확인하였다. 소득 불평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0점부터 ‘매우 심하다’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를 보면, 평균 6.82점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평균 6.73점, 여성이 6.91점으로 여성이 소득 불평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6.69점, 25~29세가 6.76점, 30~34세가 7.00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84점에 비해 비수도권이 6.79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이 7.33점, 인천이

7.07점, 경북이 7.03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70점, 대학 재학 및 휴학이 6.72점, 대학 졸업 이상이 6.88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소득 대물림이 ‘전혀 심하지 않다’ 0점부터 ‘매우 심하다’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는 평균 7.23점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대물림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평균 7.17점, 여성이 7.29점으로 여성이 소득 대물림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7.11점, 25~29세가 7.19점, 30~34세가 7.38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대물림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27점에 비해 비수도권이 7.18점으로 다소 덜 심각하게 나타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이 7.74점, 인천이 7.52점, 경남이 7.42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05점, 대학 재학 및 휴학이 7.22점, 대학 졸업 이상이 7.28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대물림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생계와 복지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0점부터 ‘당사자가 더 책임져야 한다’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는 평균 5.01점으로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평균 5.25점, 여성이 4.76점으로 나타나, 남성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여성은 당사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4.94점, 25~29세가 5.00점, 30~34세가 5.11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00점에 비해 비수도권이 5.04점으로 그 차이가 0.04점 정도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구가 5.38점, 광주가 5.31점, 서울이 5.26점으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전남이 4.47점, 제주가 4.54점, 인천이 4.68점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86점, 대학 재학 및 휴학이 4.98점, 대학 졸업 이상이 5.07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 응답 결과는 평균 6.77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평균 6.61점, 여성이 6.95점으로 여성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6.78점, 25~29세가 6.77점, 30~34세가 6.76점으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9점에 비해 비수도권이 6.8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

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이 7.35점, 전남이 7.20점, 인천이 7.03점으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76점, 대학 재학 및 휴학이 6.77점, 대학 졸업 이상이 6.77점으로 학력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3-7-13〉 불평등과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평균)

(단위: 점)

구분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 대물림 인식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0) 대 정부(10) 역할 인식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
전체		6.82	7.23	5.01	6.77
성별	남성	6.73	7.17	5.25	6.61
	여성	6.91	7.29	4.76	6.95
연령	19~24세	6.69	7.11	4.94	6.78
	25~29세	6.76	7.19	5.00	6.77
	30~34세	7.00	7.38	5.11	6.76
지역 1	수도권	6.84	7.27	5.00	6.69
	비수도권	6.79	7.18	5.04	6.86
지역 2	서울	6.84	7.33	5.26	6.62
	부산	6.55	6.99	5.12	6.60
	대구	6.94	7.30	5.38	6.76
	인천	7.07	7.52	4.68	7.03
	광주	6.69	7.40	5.31	6.89
	대전	6.53	7.11	4.96	6.68
	울산	6.67	7.15	5.11	6.92
	세종	7.02	7.74	4.88	6.93
	경기	6.78	7.17	4.85	6.68
	강원	6.81	6.80	4.83	6.85
	충북	6.30	6.78	5.17	6.38
	충남	7.33	7.20	5.17	7.35
	전북	6.83	7.24	4.97	6.95
	전남	6.87	7.09	4.47	7.20
	경북	7.03	7.35	4.96	6.95
	경남	6.84	7.42	4.93	6.96
제주	6.70	7.19	4.54	7.01	

구분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 대물림 인식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0) 대 정부(10) 역할 인식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
학력	고졸 이하	6.70	7.05	4.86	6.76
	대학 재학·휴학	6.72	7.22	4.98	6.77
	대학 졸업 이상	6.88	7.28	5.07	6.77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바. 공정성 인식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아님’의 응답률이 30.9%로 가장 높고, ‘약간 반대’가 25.9%, ‘약간 동의’가 21.4%, ‘매우 반대’가 16.0%, ‘매우 동의’가 5.8%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41.9%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이 44.7%, 여성은 38.7%로 남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다. 특히 ‘매우 반대’의 응답률이 19.7%로 여성의 11.8%보다 높다. 연령대별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이 19~24세가 39.0%, 25~29세가 43.3%, 30~34세가 43.2%이다. 지역별로는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은 수도권에서 41.3%, 비수도권에서 42.5%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은 세종에서 53.9%, 인천이 50.6%, 광주가 48.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37.1%, 대학 재학 및 휴학이 40.4%, 대학 졸업 이상이 43.7%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표 3-7-14〉 공정성 인식: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

(단위: %)

구분		비율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0	5.8	21.4	30.9	25.9	16.0
성별	남성	100.0	5.5	20.4	29.4	25.0	19.7
	여성	100.0	6.2	22.6	32.5	26.9	11.8
연령	19~24세	100.0	6.0	21.8	33.2	25.7	13.4
	25~29세	100.0	6.2	21.3	29.3	26.6	16.7
	30~34세	100.0	5.2	21.3	30.3	25.4	17.8
지역 1	수도권	100.0	5.8	23.1	29.8	25.4	15.9
	비수도권	100.0	5.8	19.5	32.2	26.4	16.1
지역 2	서울	100.0	3.5	20.1	32.8	29.0	14.6
	부산	100.0	3.2	15.6	37.1	25.0	19.0
	대구	100.0	3.9	13.9	34.9	30.2	17.1
	인천	100.0	4.7	16.9	27.9	29.1	21.4
	광주	100.0	6.8	20.4	24.3	29.6	18.9
	대전	100.0	6.3	21.1	31.2	24.8	16.5
	울산	100.0	4.3	17.6	35.8	26.0	16.3
	세종	100.0	3.6	15.0	27.5	34.0	19.9
	경기	100.0	8.0	26.8	27.7	21.7	15.8
	강원	100.0	6.4	17.1	33.2	25.4	17.8
	충북	100.0	10.4	31.2	27.1	18.5	12.7
	충남	100.0	6.9	23.2	23.8	28.1	18.0
	전북	100.0	3.3	20.8	35.9	30.7	9.4
	전남	100.0	11.8	26.4	28.1	24.4	9.4
	경북	100.0	3.7	17.1	36.6	30.1	12.5
	경남	100.0	6.3	17.5	34.6	22.7	18.9
제주	100.0	6.8	19.8	30.5	26.4	16.5	
학력	고졸 이하	100.0	7.2	23.6	32.1	23.1	14.1
	대학 재학·휴학	100.0	6.2	21.5	31.9	26.5	13.9
	대학 졸업 이상	100.0	5.3	20.8	30.2	26.5	17.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라는 명제에 대해 ‘약간 동의’의 응답률이 40.9%로 가장 높고, ‘매우 동의’ 30.7%, ‘동의도 반대도 아님’ 22.5%, ‘약간 반대’ 4.4%, ‘매우 반대’ 1.3%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을 합하면, 71.7%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이 71.6%, 여성은 71.7%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대별로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이 19~24세가 70.8%, 25~29세가 71.4%, 30~34세가 72.8%이다. 지역별로는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은 수도권에서 70.5%, 비수도권에서 73.1%로 비수도권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은 세종 81.3%, 충남 79.2%, 강원 7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9.8%, 대학 재학 및 휴학이 71.7%, 대학 졸업 이상이 72.2%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표 3-7-15〉 공정성 인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

(단위: %)

구분		비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0	30.7	40.9	22.5	4.4	1.3
성별	남성	100.0	34.2	37.5	21.8	4.8	1.7
	여성	100.0	27.0	44.7	23.3	4.0	0.9
연령	19~24세	100.0	29.4	41.4	23.9	4.0	1.3
	25~29세	100.0	31.1	40.3	22.9	4.2	1.4
	30~34세	100.0	31.7	41.1	20.8	5.1	1.3
지역 1	수도권	100.0	28.6	41.9	23.8	4.5	1.2
	비수도권	100.0	33.4	39.7	21.0	4.3	1.5
지역 2	서울	100.0	26.8	39.2	27.3	5.7	0.9
	부산	100.0	31.7	36.9	25.8	4.1	1.5
	대구	100.0	42.4	35.5	18.2	2.9	1.0*
	인천	100.0	32.9	43.1	19.3	3.3	1.5*
	광주	100.0	32.7	37.9	23.5	4.3	1.6*
	대전	100.0	26.1	39.2	24.0	7.8	2.9
	울산	100.0	31.3	43.6	21.3	2.7	1.1*
세종	100.0	33.3	48.0	12.5	4.6*	1.7*	

구분	비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지역	경기	100.0	29.1	43.8	21.9	3.8	1.4
	강원	100.0	32.0	46.1	19.1	1.5	1.3*
	충북	100.0	22.9	44.8	26.0	5.3	1.0*
	충남	100.0	42.7	36.5	13.8	5.8	1.2*
	전북	100.0	44.3	33.0	17.6	4.4	0.6*
	전남	100.0	26.7	46.3	19.9	6.3	0.7*
	경북	100.0	32.2	41.3	21.3	3.4	1.8
	경남	100.0	31.4	40.3	21.8	3.7	2.7
	제주	100.0	31.6	44.4	19.3	3.7	1.0*
학력	고졸 이하	100.0	31.9	38.0	23.8	4.6	1.8
	대학 재학·휴학	100.0	30.5	41.2	23.0	4.3	1.0
	대학 졸업 이상	100.0	30.5	41.7	22.0	4.4	1.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하다’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아님’의 응답률이 42.4%로 가장 높고, ‘약간 동의’가 27.7%, ‘약간 반대’가 18.4%, ‘매우 반대’가 6.6%, ‘매우 동의’가 4.8%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을 합하면, 32.6%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이 30.8%, 여성은 34.5%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이 19~24세가 33.1%, 25~29세가 32.9%, 30~34세가 31.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응답률은 낮아진다. 지역별로는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은 수도권에서 33.7%, 비수도권에서 31.2%로 수도권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의 합은 충북 40.1%, 광주 37.5%, 전남 36.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31.0%, 대학 재학 및 휴학이 33.7%, 대학 졸업 이상이 32.6%로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다.

〈표 3-7-16〉 공정성 인식: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하다

(단위: %)

구분		비율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0	4.8	27.7	42.4	18.4	6.6
성별	남성	100.0	4.6	26.2	42.2	19.1	7.9
	여성	100.0	5.0	29.5	42.6	17.7	5.2
연령	19~24세	100.0	4.7	28.5	43.1	17.8	6.0
	25~29세	100.0	4.9	28.0	41.2	18.7	7.2
	30~34세	100.0	5.0	26.7	42.9	18.8	6.6
지역 1	수도권	100.0	4.6	29.1	43.4	16.9	6.0
	비수도권	100.0	5.1	26.1	41.1	20.3	7.4
지역 2	서울	100.0	5.1	29.0	46.3	15.9	3.6
	부산	100.0	3.8	23.3	44.7	18.1	10.1
	대구	100.0	5.4	24.2	40.7	24.3	5.4
	인천	100.0	5.5	28.8	37.6	20.9	7.2
	광주	100.0	9.3	28.2	32.8	18.8	10.8
	대전	100.0	4.4	25.8	39.7	23.0	7.1
	울산	100.0	5.8	25.8	45.6	15.9	6.9
	세종	100.0	6.8	26.7	33.9	21.8	10.8
	경기	100.0	3.9	29.3	42.4	16.8	7.6
	강원	100.0	5.3	28.6	41.2	18.5	6.4
	충북	100.0	5.2	34.8	36.9	16.6	6.4
	충남	100.0	4.3	23.1	34.1	29.9	8.6
	전북	100.0	4.5	23.4	43.4	23.9	4.8
	전남	100.0	4.7	31.8	44.6	15.4	3.6
	경북	100.0	2.9	23.5	46.9	19.1	7.7
	경남	100.0	6.7	25.9	42.0	18.1	7.3
	제주	100.0	5.3	27.0	43.8	17.3	6.6
학력	고졸 이하	100.0	5.3	25.7	44.4	16.1	8.5
	대학 재학·휴학	100.0	4.8	28.9	42.5	17.8	6.0
	대학 졸업 이상	100.0	4.7	27.9	41.8	19.3	6.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하다’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아님’의 응답률이 32.0%로 가장 높고, ‘약간 반대’가 28.2%, ‘매우 반대’가 27.9%, ‘약간 동의’가 10.0%, ‘매우 동의’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56.1%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이 55.5%, 여성은 56.7%로 1.2%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이 19~24세가 53.6%, 25~29세가 54.0%, 30~34세가 60.5%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은 수도권에서 58.3%, 비수도권에서 53.3%로 수도권에서 반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의 합은 충남 68.2%, 경기 62.7%, 강원 6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1%, 대학 재학 및 휴학이 54.0%, 대학 졸업 이상이 57.0%로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표 3-7-17〉 공정성 인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하다

(단위: %)

구분		비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0	2.0	10.0	32.0	28.2	27.9
성별	남성	100.0	2.2	10.4	31.9	26.2	29.3
	여성	100.0	1.8	9.5	32.0	30.4	26.3
연령	19~24세	100.0	2.3	10.8	33.3	28.2	25.4
	25~29세	100.0	1.8	10.3	33.9	26.9	27.1
	30~34세	100.0	1.9	8.9	28.8	29.5	31.1
지역 1	수도권	100.0	1.7	9.7	30.3	29.5	28.8
	비수도권	100.0	2.4	10.4	34.0	26.5	26.8
지역 2	서울	100.0	1.5	9.5	35.7	28.2	25.1
	부산	100.0	1.8	9.9	42.8	23.8	21.7
	대구	100.0	2.9	10.8	33.6	29.1	23.5
	인천	100.0	2.4	9.2	30.9	29.7	27.7
	광주	100.0	6.4	13.6	21.8	28.9	29.3
	대전	100.0	1.7	14.2	41.3	23.2	19.5

구분	비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야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울산	100.0	3.5	9.0	43.7	24.6	19.1	
세종	100.0	1.2	14.8	29.5	32.3	22.3	
경기	100.0	1.6	9.9	25.8	30.6	32.1	
강원	100.0	1.8*	4.9	32.5	26.7	34.2	
충북	100.0	1.0*	11.5	39.5	26.7	21.3	
충남	100.0	1.2*	7.7	22.9	22.9	45.3	
전북	100.0	2.8	9.9	27.8	23.0	36.5	
전남	100.0	1.3*	9.9	29.4	26.2	33.1	
경북	100.0	2.2	8.9	35.3	30.2	23.5	
경남	100.0	2.6	11.9	33.0	29.7	22.7	
제주	100.0	2.1*	10.5	36.1	28.1	23.1	
학력	고졸 이하	100.0	2.4	10.2	32.3	26.7	28.4
	대학 재학·휴학	100.0	2.3	10.6	33.2	28.6	25.3
	대학 졸업 이상	100.0	1.8	9.7	31.5	28.4	28.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사. 바라는 삶의 요소

바라는 삶의 요소로 연애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이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다’ 18.1%, ‘매우 중요하다’ 17.6%, ‘전혀 중요하지 않다’ 3.6%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8.3%로 청년 3명 중 2명 정도는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82.2%이고, 여성은 74.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76.8%, 25~29세가 77.0%, 30~34세가 81.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7%, 비수도권이 79.1%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이 83.4%, 광

주가 83.2%, 강원이 81.8%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6.6%,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77.6%, 대학 졸업 이상이 79.1%로 나타났다.

〈표 3-7-18〉 바라는 삶의 요소: 연애

(단위: %)

구분	비율	연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3.6	18.1	60.7	17.6	
성별	남성	100.0	2.4	15.4	61.6	20.6
	여성	100.0	4.9	21.0	59.8	14.3
연령	19~24세	100.0	3.7	19.5	60.4	16.4
	25~29세	100.0	3.6	19.4	59.3	17.8
	30~34세	100.0	3.5	15.3	62.6	18.6
지역 1	수도권	100.0	3.7	18.6	61.2	16.5
	비수도권	100.0	3.5	17.4	60.2	18.9
지역 2	서울	100.0	3.4	18.1	65.5	13.0
	부산	100.0	3.6	15.9	62.3	18.1
	대구	100.0	4.6	17.9	58.0	19.5
	인천	100.0	6.4	13.0	55.5	25.1
	광주	100.0	0.9*	15.8	70.4	12.8
	대전	100.0	6.1	17.8	54.0	22.1
	울산	100.0	3.9	16.4	56.3	23.4
	세종	100.0	4.3	12.3	62.4	21.0
	경기	100.0	3.4	20.2	59.0	17.5
	강원	100.0	2.8	15.4	63.2	18.7
	충북	100.0	1.2*	25.5	53.3	20.0
	충남	100.0	1.8	21.7	60.1	16.3
	전북	100.0	2.5*	16.8	67.2	13.5
	전남	100.0	3.1	17.2	57.8	21.9
	경북	100.0	3.6	16.9	61.9	17.5
	경남	100.0	5.4	14.3	57.0	23.4
제주	100.0	3.2	17.4	60.5	19.0	

구분	비율	연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학력	고졸 이하	100.0	4.0	19.4	58.0	18.6
	대학 재학·휴학	100.0	3.7	18.7	61.0	16.6
	대학 졸업 이상	100.0	3.4	17.5	61.4	17.6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이다. 그 밖에 '매우 중요하다' 26.0%, '중요하지 않다' 20.4%, '전혀 중요하지 않다' 5.1%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4.5%로 청년 4명 중 3명 정도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79.1%이고, 여성은 69.3%로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72.6%, 25~29세가 72.0%, 30~34세가 78.7%로 30대 초반의 응답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4%, 비수도권이 75.7%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2.5%, 충남이 78.8%, 전북이 78.2%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1.9%,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73.6%, 대학 졸업 이상이 75.5%로 나타났다.

〈표 3-7-19〉 바라는 삶의 요소: 결혼

(단위: %)

구분		비율	결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5.1	20.4	48.4	26.0
성별	남성	100.0	3.5	17.4	50.1	29.0
	여성	100.0	7.0	23.7	46.5	22.7
연령	19~24세	100.0	5.3	22.1	49.7	22.9
	25~29세	100.0	5.8	22.2	47.1	24.9
	30~34세	100.0	4.4	16.8	48.5	30.2
지역 1	수도권	100.0	5.2	21.4	48.2	25.2
	비수도권	100.0	5.0	19.2	48.7	27.0
지역 2	서울	100.0	4.6	20.8	49.1	25.5
	부산	100.0	5.5	21.0	46.7	26.8
	대구	100.0	6.5	22.8	44.3	26.3
	인천	100.0	8.5	18.8	43.0	29.7
	광주	100.0	1.2*	16.2	62.5	20.1
	대전	100.0	6.7	19.3	48.3	25.7
	울산	100.0	6.8	20.4	45.6	27.2
	세종	100.0	5.9	16.3	43.7	34.1
	경기	100.0	5.0	22.4	48.6	24.0
	강원	100.0	4.7	17.8	52.4	25.1
	충북	100.0	2.9	19.3	51.3	26.6
	충남	100.0	3.6	17.6	49.8	29.0
	전북	100.0	3.1	18.6	47.4	30.8
	전남	100.0	4.0	18.8	51.2	26.0
	경북	100.0	5.8	17.6	48.5	28.1
	경남	100.0	6.7	18.6	44.4	30.3
제주	100.0	7.5	22.6	47.5	22.4	
학력	고졸 이하	100.0	5.3	22.8	46.8	25.1
	대학 재학·휴학	100.0	5.4	21.0	50.5	23.1
	대학 졸업 이상	100.0	5.0	19.5	48.2	27.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자녀 출산이나 양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이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다' 24.1%, '매우 중요하다' 23.6%, '전혀 중요하지 않다' 7.0%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9.0%로 청년 10명 중 7명 정도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74.2%이고, 여성은 63.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66.2%, 25~29세가 66.6%, 74.0세가 78.7%로 30대 초반의 응답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5%, 비수도권이 71.9%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2.3%, 전남이 76.2%, 경북이 75.4%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5.6%,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67.9%, 대학 졸업 이상이 70.3%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20〉 바라는 삶의 요소: 자녀 출산과 양육

(단위: %)

구분		비율	자녀 출산과 양육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7.0	24.1	45.4	23.6
성별	남성	100.0	4.6	21.2	47.8	26.4
	여성	100.0	9.6	27.2	42.7	20.5
연령	19~24세	100.0	7.3	26.5	45.8	20.4
	25~29세	100.0	7.6	25.8	44.7	21.9
	30~34세	100.0	6.0	20.0	45.6	28.5
지역 1	수도권	100.0	7.5	26.0	44.4	22.1
	비수도권	100.0	6.4	21.7	46.5	25.4
지역 2	서울	100.0	6.8	24.1	47.8	21.3
	부산	100.0	7.7	23.6	44.1	24.6
	대구	100.0	8.2	24.4	43.1	24.3
	인천	100.0	12.3	18.8	41.9	27.0
	광주	100.0	1.4	16.2	63.4	18.9
	대전	100.0	7.9	24.2	40.4	27.5
	울산	100.0	8.7	20.8	44.2	26.3
	세종	100.0	8.7	17.2	42.6	31.5

구분	비율	자녀 출산과 양육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경기	100.0	7.0	29.1	42.1	21.7	
강원	100.0	5.5	20.6	48.6	25.3	
충북	100.0	3.7	22.6	43.5	30.1	
충남	100.0	4.5	26.4	46.9	22.2	
전북	100.0	5.1	21.5	48.0	25.4	
전남	100.0	4.1	19.7	50.4	25.8	
경북	100.0	7.4	17.2	49.7	25.7	
경남	100.0	7.9	20.9	42.6	28.7	
제주	100.0	8.4	22.0	47.2	22.3	
학력	고졸 이하	100.0	7.6	26.8	42.8	22.9
	대학 재학·휴학	100.0	7.3	24.8	47.2	20.6
	대학 졸업 이상	100.0	6.7	23.0	45.5	24.8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높은 학력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이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다’ 34.3%, ‘매우 중요하다’ 10.8%, ‘전혀 중요하지 않다’ 4.9%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0.8%로 청년 5명 중 3명 정도는 높은 학력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60.0%이고, 여성은 61.8%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66.0%, 25~29세가 58.6%, 30~34세가 58.1%로 20대 초반의 응답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6%, 비수도권이 58.7%로 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1.4%, 서울이 67.5%, 충남이 65.0%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4.7%,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70.8%, 대학 졸업 이상이 62.0%로 나타났다.

〈표 3-7-21〉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학력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높은 학력 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4.9	34.3	50.0	10.8	
성별	남성	100.0	5.4	34.7	48.0	11.9
	여성	100.0	4.3	33.9	52.3	9.5
연령	19~24세	100.0	3.9	30.1	53.0	13.0
	25~29세	100.0	5.5	36.0	48.8	9.7
	30~34세	100.0	5.2	36.7	48.4	9.7
지역 1	수도권	100.0	4.6	32.8	51.8	10.8
	비수도권	100.0	5.1	36.1	47.9	10.8
지역 2	서울	100.0	3.7	28.8	56.0	11.4
	부산	100.0	6.3	37.8	46.2	9.7
	대구	100.0	3.9	41.6	45.6	8.9
	인천	100.0	9.2	35.2	45.4	10.1
	광주	100.0	1.2*	17.4	66.2	15.2
	대전	100.0	6.5	35.1	42.4	16.0
	울산	100.0	6.7	37.3	45.3	10.7
	세종	100.0	7.1	36.7	44.0	12.2
	경기	100.0	4.4	35.5	49.7	10.4
	강원	100.0	7.0	41.2	43.9	7.9
	충북	100.0	4.7	32.3	50.1	12.8
	충남	100.0	2.4	32.5	55.4	9.7
	전북	100.0	4.0	44.1	43.8	8.1
	전남	100.0	4.2	32.7	54.3	8.8
	경북	100.0	6.5	34.7	47.1	11.7
	경남	100.0	6.2	38.3	43.7	11.8
제주	100.0	7.5	49.1	37.9	5.5	
학력	고졸 이하	100.0	8.4	46.9	36.9	7.8
	대학 재학·휴학	100.0	3.2	26.0	56.7	14.1
	대학 졸업 이상	100.0	4.4	33.6	51.5	10.5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이다. 그 밖에 '매우 중요하다' 42.7%, '중요하지 않다' 3.5%, '전혀 중요하지 않다' 0.6%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95.9%로 청년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95.6%이고, 여성은 96.1%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96.4%, 25~29세가 95.9%, 30~34세가 95.4%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6.3%, 비수도권이 95.4%로 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과 전남이 97.3%, 인천이 97.0%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94.2%,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96.5%, 대학 졸업 이상이 96.2%로 나타났다.

〈표 3-7-22〉 바라는 삶의 요소: 내가 원하는 일자리

(단위: %)

구분	비율	내가 원하는 일자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0.6	3.5	53.2	42.7	
성별	남성	100.0	0.7	3.7	52.3	43.3
	여성	100.0	0.5	3.3	54.2	41.9
연령	19~24세	100.0	0.7	2.9	51.5	44.9
	25~29세	100.0	0.5	3.6	53.6	42.3
	30~34세	100.0	0.7	3.9	54.5	40.9
지역 1	수도권	100.0	0.6	3.1	53.9	42.4
	비수도권	100.0	0.6	3.9	52.4	43.1
지역 2	서울	100.0	0.3*	3.0	47.8	48.9
	부산	100.0	1.3*	3.5	53.2	42.1
	대구	100.0	0.4*	3.1	52.1	44.5
	인천	100.0	0.7*	2.3	48.3	48.6
	광주	100.0	0.2*	3.1	57.2	39.5
	대전	100.0	1.9*	7.9	49.8	40.4
	울산	100.0	0.3*	3.6	53.3	42.8
	세종	100.0	1.5*	5.2	49.7	43.6
	경기	100.0	0.8*	3.4	60.1	35.7

구분	비율	내가 원하는 일자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강원	100.0	0.0	3.1	57.9	39.1
	충북	100.0	0.3*	4.9	51.1	43.7
	충남	100.0	0.5*	4.1	42.0	53.4
	전북	100.0	0.5*	2.2	53.6	43.8
	전남	100.0	0.2*	2.5	54.6	42.6
	경북	100.0	0.6*	3.1	54.7	41.5
	경남	100.0	0.6*	5.2	50.2	43.9
	제주	100.0	0.0	3.9	62.1	34.0
학력	고졸 이하	100.0	0.9	4.9	56.7	37.5
	대학 재학·휴학	100.0	0.8	2.7	50.0	46.5
	대학 졸업 이상	100.0	0.5	3.4	53.3	42.8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6%이다. 그 밖에 ‘매우 중요하다’ 36.4%, ‘중요하지 않다’ 6.5%, ‘전혀 중요하지 않다’ 0.6%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92.9%로 청년 10명 중 9명 정도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92.4%이고, 여성은 93.4%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93.1%, 25~29세가 91.9%, 30~34세가 93.8%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3%, 비수도권이 92.5%로 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7.2%, 인천이 95.6%, 대구가 95.5%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91.8%,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93.1%, 대학 졸업 이상이 93.2%로 나타났다.

〈표 3-7-23〉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단위: %)

구분		비율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0.6	6.5	56.6	36.4
성별	남성	100.0	0.7	6.9	55.1	37.3
	여성	100.0	0.5	6.1	58.2	35.3
연령	19~24세	100.0	0.7	6.3	55.6	37.5
	25~29세	100.0	0.5	7.6	55.8	36.1
	30~34세	100.0	0.6*	5.6	58.2	35.6
지역 1	수도권	100.0	0.6	6.2	58.1	35.1
	비수도권	100.0	0.6	6.9	54.6	37.9
지역 2	서울	100.0	0.4*	5.4	58.7	35.5
	부산	100.0	0.6*	6.2	56.3	36.9
	대구	100.0	0.5*	4.1	55.6	39.8
	인천	100.0	0.8*	3.6	53.7	41.9
	광주	100.0	0.3*	2.5	63.1	34.1
	대전	100.0	1.2*	14.3	47.8	36.7
	울산	100.0	0.3*	6.4	51.8	41.5
	세종	100.0	1.2*	5.8	54.0	39.1
	경기	100.0	0.7*	7.3	58.6	33.3
	강원	100.0	0.5*	10.3	60.6	28.7
	충북	100.0	0.7*	9.2	52.1	38.1
	충남	100.0	0.4*	5.8	44.0	49.8
	전북	100.0	0.6*	6.0	58.2	35.2
	전남	100.0	0.2*	7.2	58.9	33.8
	경북	100.0	0.6*	5.3	57.4	36.7
	경남	100.0	0.8*	7.5	51.8	40.0
제주	100.0	0.4*	9.3	57.1	33.2	
학력	고졸 이하	100.0	0.7	7.5	56.3	35.5
	대학 재학·휴학	100.0	0.9	6.0	55.1	38.0
	대학 졸업 이상	100.0	0.4	6.4	57.1	36.1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5%이다. 그 밖에 '매우 중요하다' 43.2%, '중요하지 않다' 4.8%,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94.7%로 청년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94.6%이고, 여성은 94.8%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95.0%, 25~29세가 94.0%, 30~34세가 95.2%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4.7%, 비수도권이 94.7%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8.1%, 전북이 97.2%, 인천이 97.0%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93.4%,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95.6%, 대학 졸업 이상이 94.8%로 나타났다.

〈표 3-7-24〉 바라는 삶의 요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단위: %)

구분	비율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0.5	4.8	51.5	43.2	
성별	남성	100.0	0.6	4.7	51.6	43.0
	여성	100.0	0.3	4.9	51.4	43.4
연령	19~24세	100.0	0.5	4.4	50.3	44.7
	25~29세	100.0	0.3	5.7	51.0	43.0
	30~34세	100.0	0.6*	4.3	53.2	41.9
지역 1	수도권	100.0	0.4*	4.9	53.9	40.8
	비수도권	100.0	0.5	4.7	48.6	46.1
지역 2	서울	100.0	0.3*	5.3	55.1	39.4
	부산	100.0	0.5*	4.8	47.1	47.6
	대구	100.0	0.5*	4.3	47.6	47.6
	인천	100.0	0.5*	2.6	39.7	57.3
	광주	100.0	0.2*	1.8*	61.2	36.8
	대전	100.0	1.2*	9.5	42.8	46.5
	울산	100.0	0.8*	2.5	46.3	50.4
	세종	100.0	1.2*	5.3	38.8	54.8
	경기	100.0	0.5*	5.1	56.1	38.3

구분	비율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강원	100.0	0.5*	3.7	53.0	42.8
	충북	100.0	0.5*	9.2	51.5	38.7
	충남	100.0	0.6*	5.6	41.4	52.4
	전북	100.0	0.3*	2.5	59.3	37.9
	전남	100.0	0.1*	4.2	51.2	44.5
	경북	100.0	0.6*	3.5	49.1	46.8
	경남	100.0	0.7*	4.3	43.8	51.2
	제주	100.0	0.1*	3.9	46.8	49.2
학력	고졸 이하	100.0	0.6	6.0	54.1	39.4
	대학 재학·휴학	100.0	0.6	3.8	50.3	45.2
	대학 졸업 이상	100.0	0.4	4.8	51.2	43.6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사회 기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이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다’ 25.5%, ‘매우 중요하다’ 13.0%, ‘전혀 중요하지 않다’ 2.7%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1.8%로 청년 10명 중 7명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70.6%이고, 여성은 73.2%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 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71.6%, 25~29세가 71.0%, 30~34세가 72.9%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2.8%, 비수도권이 70.7%로 비수도권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6.0%, 서울이 77.4%, 경북이 75.8%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6.2%,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72.8%, 대학 졸업 이상이 73.1%로 나타났다.

〈표 3-7-25〉 바라는 삶의 요소: 사회 기여

(단위: %)

구분		비율	사회 기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2.7	25.5	58.8	13.0
성별	남성	100.0	3.3	26.1	56.2	14.4
	여성	100.0	2.0	24.8	61.7	11.5
연령	19~24세	100.0	2.9	25.5	57.7	13.9
	25~29세	100.0	2.8	26.2	58.1	12.9
	30~34세	100.0	2.3	24.8	60.5	12.4
지역 1	수도권	100.0	2.3	24.9	60.5	12.3
	비수도권	100.0	3.1	26.2	56.7	14.0
지역 2	서울	100.0	1.3	21.3	64.1	13.3
	부산	100.0	4.9	30.8	51.3	13.0
	대구	100.0	2.2	29.6	56.7	11.5
	인천	100.0	3.4	25.8	58.2	12.6
	광주	100.0	2.4	11.6	69.4	16.5
	대전	100.0	2.9	29.1	52.5	15.6
	울산	100.0	3.5	25.1	57.4	13.9
	세종	100.0	4.1	29.5	53.7	12.8
	경기	100.0	2.9	27.6	58.1	11.4
	강원	100.0	4.5	27.2	55.4	12.9
	충북	100.0	1.2*	26.6	57.5	14.7
	충남	100.0	2.0	33.8	51.3	12.9
	전북	100.0	4.6	26.9	56.6	11.8
	전남	100.0	3.2	23.3	61.2	12.3
	경북	100.0	3.5	20.8	61.2	14.6
	경남	100.0	2.0	24.1	56.2	17.7
	제주	100.0	2.9*	24.3	58.8	14.1
학력	고졸 이하	100.0	3.6	30.2	53.7	12.5
	대학 재학·휴학	100.0	2.6	24.6	58.9	13.9
	대학 졸업 이상	100.0	2.4	24.5	60.2	12.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삶의 요소로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2%이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다' 32.1%, '매우 중요하다' 12.0%, '전혀 중요하지 않다' 5.7%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2.2%로 청년 10명 중 6명은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은 62.5%이고, 여성은 61.8%로 남성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에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률의 합이 64.8%, 25~29세가 61.6%, 30~34세가 60.2%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2%, 비수도권이 63.4%로 비수도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5.9%, 충남이 71.9%, 서울이 67.7%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7.1%, 대학 재학이나 휴학이 66.6%, 대학 졸업 이상이 62.1%로 나타났다.

〈표 3-7-26〉 바라는 삶의 요소: 명예와 권력

(단위: %)

구분	비율	명예와 권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5.7	32.1	50.2	12.0	
성별	남성	100.0	6.4	31.0	49.2	13.3
	여성	100.0	4.9	33.3	51.2	10.5
연령	19~24세	100.0	4.7	30.5	51.0	13.8
	25~29세	100.0	5.8	32.6	49.6	12.0
	30~34세	100.0	6.6	33.1	50.0	10.2
지역 1	수도권	100.0	6.2	32.7	49.8	11.4
	비수도권	100.0	5.2	31.4	50.7	12.7
지역 2	서울	100.0	3.3	28.9	56.4	11.4
	부산	100.0	7.3	34.4	46.1	12.2
	대구	100.0	4.3	29.8	54.2	11.8
	인천	100.0	5.8	36.9	43.3	14.0
	광주	100.0	1.2*	13.0	67.3	18.6
	대전	100.0	6.3	36.4	44.6	12.8
	울산	100.0	5.8	30.8	51.1	12.3
	세종	100.0	9.2	39.8	41.6	9.4
	경기	100.0	8.6	34.8	45.8	10.8

구분	비율	명예와 권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강원	100.0	5.7	38.2	46.4	9.7
	충북	100.0	3.9	34.4	50.7	11.1
	충남	100.0	3.1	24.9	58.0	13.9
	전북	100.0	8.7	33.3	48.7	9.3
	전남	100.0	5.3	35.0	49.8	9.9
	경북	100.0	3.8	30.0	52.1	14.1
	경남	100.0	4.9	33.3	46.2	15.5
	제주	100.0	6.4	33.5	49.2	11.0
학력	고졸 이하	100.0	7.1	35.8	43.9	13.2
	대학 재학·휴학	100.0	4.4	29.0	53.5	13.1
	대학 졸업 이상	100.0	5.8	32.1	50.9	11.3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아.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

본인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라는 미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5.7%이다.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86.7%로 대다수이고,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7.6% 정도이다.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85.2%, 여성이 88.4%로 여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지만,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연령대에 따라 19~24세에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7.3%, 25~29세는 5.2%, 30~34세는 4.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은 낮아진다. 유사하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의 응답률은 점차 낮아지고,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점차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의 응답률이 수도권 4.9%, 비수도권 6.7%로 비수도권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충북이 10.6%, 부산이 9.8%, 울산이 9.5%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울산이 11.3%, 경북이 10.9%, 경남이 10.7%이다. 학력별로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고졸 이하가 13.7%, 대학 재학 및 휴학이 4.1%, 대학 졸업 이상이 7.1%이다.

〈표 3-7-27〉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

(단위: %)

구분		비율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전체		100.0	7.6	86.7	5.7
성별	남성	100.0	8.3	85.2	6.6
	여성	100.0	6.9	88.4	4.7
연령	19~24세	100.0	5.2	87.5	7.3
	25~29세	100.0	8.1	86.6	5.2
	30~34세	100.0	9.4	85.9	4.6
지역 1	수도권	100.0	7.4	87.7	4.9
	비수도권	100.0	7.9	85.5	6.7
지역 2	서울	100.0	6.7	88.9	4.4
	부산	100.0	5.9	84.2	9.8
	대구	100.0	9.8	85.6	4.6
	인천	100.0	8.2	85.7	6.1
	광주	100.0	5.6	88.2	6.1
	대전	100.0	7.1	87.2	5.7
	울산	100.0	11.3	79.2	9.5
	세종	100.0	5.6	85.4	9.0
	경기	100.0	7.8	87.1	5.1
	강원	100.0	5.7	89.2	5.1
	충북	100.0	7.8	81.6	10.6
	충남	100.0	4.7	91.4	3.8
	전북	100.0	8.1	87.6	4.4
	전남	100.0	6.6	89.5	3.9

구분		비율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경북	100.0	10.9	84.0	5.1
	경남	100.0	10.7	80.6	8.7
	제주	100.0	8.8	83.7	7.4
학력	고졸 이하	100.0	13.7	80.8	5.5
	대학 재학·휴학	100.0	4.1	88.2	7.8
	대학 졸업 이상	100.0	7.1	87.8	5.0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22.3%, '중요하지 않다'는 15.1%,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9%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83.0%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5%이고, 여성은 84.6%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 25~29세 82.8%, 30~34세 82.7%이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1%이고 비수도권은 81.7%로 수도권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1.7%, 세종이 87.9%, 전남이 86.1%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80.0%,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85.3%, 대학 졸업 이상은 83.1%이다.

〈표 3-7-28〉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경제력

(단위: %)

구분		비율	부모의 경제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1.9	15.1	60.7	22.3
성별	남성	100.0	2.6	15.8	58.8	22.7
	여성	100.0	1.2	14.2	62.8	21.9
연령	19~24세	100.0	1.6	14.8	63.6	20.0
	25~29세	100.0	2.2	15.1	60.0	22.7
	30~34세	100.0	2.0	15.3	58.5	24.2
지역 1	수도권	100.0	1.9	14.0	60.9	23.2
	비수도권	100.0	2.0	16.3	60.5	21.2
지역 2	서울	100.0	1.5	13.3	58.9	26.3
	부산	100.0	2.2	16.7	61.3	19.9
	대구	100.0	1.3*	13.7	62.9	22.1
	인천	100.0	3.0	12.2	59.7	25.1
	광주	100.0	0.6*	7.8	65.9	25.7
	대전	100.0	3.9	21.7	54.3	20.1
	울산	100.0	3.7	14.6	58.8	23.0
	세종	100.0	1.4*	10.7	56.3	31.6
	경기	100.0	2.0	15.1	62.7	20.3
	강원	100.0	3.0	26.1	53.2	17.7
	충북	100.0	1.7*	18.6	57.8	21.9
	충남	100.0	0.9*	18.4	62.2	18.4
	전북	100.0	1.7*	16.0	63.5	18.8
	전남	100.0	1.1*	12.7	63.7	22.4
	경북	100.0	2.4	13.7	64.7	19.3
	경남	100.0	1.9	16.5	57.3	24.3
제주	100.0	3.4	18.9	57.5	20.3	
학력	고졸 이하	100.0	3.1	17.0	57.3	22.7
	대학 재학·휴학	100.0	1.1	13.6	63.6	21.6
	대학 졸업 이상	100.0	1.9	15.0	60.7	22.4

n=15,098

-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5%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33.6%, '매우 중요하다'는 12.9%,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4.9%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1.5%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고, 여성은 62.5%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 25~29세 61.6%, 30~34세 60.4%이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이고 비수도권은 57.9%로 수도권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0.2%, 전남이 67.1%, 세종이 66.2%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8.7%,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63.5%, 대학 졸업 이상은 61.6%이다.

〈표 3-7-29〉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부모의 교육 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4.9	33.6	48.5	12.9
성별	남성	100.0	5.3	34.1	47.0	13.6
	여성	100.0	4.4	33.1	50.3	12.2
연령	19~24세	100.0	4.8	32.7	49.6	12.9
	25~29세	100.0	4.9	33.5	48.6	13.0
	30~34세	100.0	4.9	34.6	47.5	13.0
지역 1	수도권	100.0	4.6	32.6	49.9	13.0
	비수도권	100.0	5.3	34.9	46.9	12.9
지역 2	서울	100.0	4.4	31.7	48.3	15.6
	부산	100.0	5.7	37.5	44.4	12.4
	대구	100.0	5.4	39.7	42.8	12.1
	인천	100.0	7.2	34.3	43.1	15.4
	광주	100.0	1.1*	18.7	65.3	14.9
	대전	100.0	6.5	33.3	44.8	15.4
	울산	100.0	7.1	31.7	46.5	14.6
	세종	100.0	4.9	28.9	46.3	19.9

구분	비율	부모의 교육 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역	경기	100.0	4.1	32.9	52.6	10.4
	강원	100.0	7.8	44.9	37.1	10.3
	충북	100.0	3.8	38.1	46.6	11.5
	충남	100.0	2.6	48.1	39.7	9.6
	전북	100.0	5.3	38.3	44.0	12.4
	전남	100.0	6.2	26.7	54.5	12.6
	경북	100.0	6.6	30.5	50.7	12.2
	경남	100.0	5.2	29.3	50.5	15.1
	제주	100.0	7.3	33.4	45.1	14.2
학력	고졸 이하	100.0	6.2	35.1	45.0	13.8
	대학 재학·휴학	100.0	4.3	32.2	50.8	12.6
	대학 졸업 이상	100.0	4.7	33.7	48.8	12.8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나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26.5%, '중요하지 않다'는 11.5%,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1%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87.4%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나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이고, 여성은 89.3%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나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2%, 25~29세 87.0%, 30~34세 85.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아진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나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이고 비수도권은 85.7%로 수도권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4.2%, 세종이 91.2%, 울산이 89.8%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6.4%,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92.5%, 대학 졸업 이상은 88.8%이다.

〈표 3-7-30〉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나의 교육 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1.1	11.5	60.9	26.5	
성별	남성	100.0	1.4	12.9	58.5	27.1
	여성	100.0	0.7	10.0	63.6	25.7
연령	19~24세	100.0	0.7	9.1	60.6	29.6
	25~29세	100.0	1.2	11.7	61.4	25.6
	30~34세	100.0	1.3	13.7	60.7	24.3
지역 1	수도권	100.0	1.1	10.2	62.5	26.3
	비수도권	100.0	1.1	13.2	59.0	26.7
지역 2	서울	100.0	0.7*	10.9	59.9	28.5
	부산	100.0	0.8*	15.6	55.7	27.9
	대구	100.0	0.9*	15.6	56.4	27.1
	인천	100.0	2.0	9.5	56.5	32.1
	광주	100.0	0.3*	5.6	69.5	24.7
	대전	100.0	1.8*	14.1	53.6	30.4
	울산	100.0	2.4*	7.8	61.1	28.7
	세종	100.0	0.4*	8.4	50.1	41.1
	경기	100.0	1.2	9.7	65.9	23.2
	강원	100.0	2.5	16.9	58.9	21.7
	충북	100.0	0.6*	16.4	55.5	27.5
	충남	100.0	0.5*	16.0	60.3	23.3
	전북	100.0	2.5*	11.4	66.2	19.9
	전남	100.0	0.4*	11.5	60.6	27.4
	경북	100.0	0.8*	14.6	59.9	24.7
	경남	100.0	1.0*	9.5	58.8	30.7
제주	100.0	1.8*	13.3	58.8	26.1	
학력	고졸 이하	100.0	2.4*	21.1	56.8	19.6
	대학 재학·휴학	100.0	0.5*	7.0	60.3	32.3
	대학 졸업 이상	100.0	0.9	10.3	62.3	26.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이다. '중요하다'는 42.6%, '중요하지 않다'는 2.0%,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0.3%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97.7%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5%이고, 여성은 98.0%로 그 차이는 0.5%포인트 정도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8.2%, 25~29세 97.4%, 30~34세 97.6%이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9%이고 비수도권은 97.6%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99.5%, 대구가 99.0%, 인천이 98.5%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96.9%,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98.1%, 대학 졸업 이상은 97.9%이다.

<표 3-7-31>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노력

(단위: %)

구분		비율	나의 노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0.3	2.0	42.6	55.2
성별	남성	100.0	0.3	2.2	41.3	56.2
	여성	100.0	0.2	1.7	44.0	54.1
연령	19~24세	100.0	0.3	1.5	42.0	56.2
	25~29세	100.0	0.3	2.3	43.2	54.2
	30~34세	100.0	0.3*	2.1	42.5	55.1
지역 1	수도권	100.0	0.2*	1.9	43.1	54.8
	비수도권	100.0	0.4	2.1	42.0	55.6
지역 2	서울	100.0	0.3*	1.6	38.8	59.2
	부산	100.0	0.6*	1.9	40.4	57.1
	대구	100.0	0.0	1.0*	34.6	64.4
	인천	100.0	0.2*	1.3*	32.2	66.3
	광주	100.0	0.4*	1.3*	56.1	42.2
	대전	100.0	1.0*	5.2	38.6	55.2
	울산	100.0	0.3*	1.3*	38.2	60.2
	세종	100.0	0.2*	1.9*	29.2	68.7

구분	비율	나의 노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역	경기	100.0	0.1*	2.2	48.9	48.7
	강원	100.0	0.0	2.8	41.3	55.9
	충북	100.0	0.1*	3.4	40.3	56.2
	충남	100.0	0.4*	2.0	45.4	52.1
	전북	100.0	0.5*	1.0*	48.3	50.2
	전남	100.0	0.0*	0.5*	46.2	53.4
	경북	100.0	0.4*	1.9*	42.0	55.7
	경남	100.0	0.5*	2.3	40.6	56.5
	제주	100.0	0.3*	1.7*	41.2	56.9
학력	고졸 이하	100.0	0.5	2.6	47.4	49.5
	대학 재학·휴학	100.0	0.2*	1.7	39.9	58.1
	대학 졸업 이상	100.0	0.2	1.9	42.1	55.8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40.0%, ‘중요하지 않다’는 4.7%,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0.5%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94.8%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7%이고, 여성은 94.9%로 그 차이는 0.2%포인트 정도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0%, 25~29세 94.5%, 30~34세 94.9%이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7%이고 비수도권은 95.0%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9.4%, 인천이 97.1%, 제주가 97.1%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93.4%,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95.8%, 대학 졸업 이상은 94.8%이다.

〈표 3-7-32〉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단위: %)

구분		비율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0.5	4.7	54.8	40.0
성별	남성	100.0	0.6	4.6	54.0	40.7
	여성	100.0	0.3	4.8	55.6	39.3
연령	19~24세	100.0	0.5	4.5	54.6	40.4
	25~29세	100.0	0.4	5.2	54.1	40.4
	30~34세	100.0	0.7*	4.4	55.6	39.3
지역 1	수도권	100.0	0.5	4.9	56.4	38.3
	비수도권	100.0	0.5	4.5	52.8	42.2
지역 2	서울	100.0	0.5*	5.8	56.3	37.4
	부산	100.0	0.6*	4.5	51.1	43.9
	대구	100.0	0.2*	4.8	48.7	46.3
	인천	100.0	0.5*	2.4	43.5	53.7
	광주	100.0	0.1*	0.5*	65.6	33.8
	대전	100.0	1.5*	7.6	49.0	41.9
	울산	100.0	0.3*	3.0	53.6	43.1
	세종	100.0	0.2*	6.5	43.8	49.5
	경기	100.0	0.4*	4.7	59.3	35.6
	강원	100.0	0.2*	5.7	57.0	37.1
	충북	100.0	0.5*	8.4	54.2	36.9
	충남	100.0	0.6*	3.2	53.0	43.2
	전북	100.0	0.7*	3.1	60.2	36.1
	전남	100.0	0.0	4.4	53.9	41.7
	경북	100.0	0.2*	5.3	51.5	43.0
	경남	100.0	1.1*	3.6	46.9	48.4
제주	100.0	0.2*	2.6*	52.2	44.9	
학력	고졸 이하	100.0	1.1	5.5	55.0	38.4
	대학 재학·휴학	100.0	0.3*	3.9	54.3	41.6
	대학 졸업 이상	100.0	0.4*	4.8	54.8	40.0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26.8%, '중요하지 않다'는 9.5%,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2%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89.3%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7%이고, 여성은 91.0%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7%, 25~29세 88.3%, 30~34세 89.9%이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7%이고 비수도권은 88.8%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0.9%포인트 정도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97.7%, 제주가 91.8%, 충남이 91.6%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89.8%,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89.5%, 대학 졸업 이상은 89.1%이다.

〈표 3-7-33〉 바라는 미래 실현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정부의 정책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0	1.2	9.5	62.5	26.8	
성별	남성	100.0	1.5	10.8	61.7	26.0
	여성	100.0	0.9	8.0	63.3	27.8
연령	19~24세	100.0	1.1	9.2	63.0	26.7
	25~29세	100.0	1.3	10.4	62.5	25.8
	30~34세	100.0	1.3	8.8	61.9	27.9
지역 1	수도권	100.0	1.1	9.3	64.3	25.4
	비수도권	100.0	1.4	9.8	60.2	28.6
지역 2	서울	100.0	0.9	9.0	63.9	26.2
	부산	100.0	1.6	11.5	64.6	22.3
	대구	100.0	1.2*	10.4	60.6	27.8
	인천	100.0	1.2	9.3	62.9	26.5
	광주	100.0	0.6*	1.7	68.6	29.1
	대전	100.0	2.5	16.7	53.4	27.5
	울산	100.0	1.8*	9.3	59.4	29.5
	세종	100.0	2.9*	13.2	59.8	24.1

구분	비율	정부의 정책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역	경기	100.0	1.2	9.4	64.9	24.4
	강원	100.0	2.2*	11.5	58.2	28.2
	충북	100.0	1.1*	13.3	55.6	30.0
	충남	100.0	1.2*	7.2	51.8	39.8
	전북	100.0	1.4*	7.3	57.3	34.0
	전남	100.0	1.1*	9.5	64.7	24.7
	경북	100.0	1.1*	7.9	64.0	27.0
	경남	100.0	1.3	9.6	60.7	28.4
	제주	100.0	0.6*	7.5	61.9	29.9
학력	고졸 이하	100.0	1.5	8.8	63.4	26.4
	대학 재학·휴학	100.0	1.0	9.5	62.1	27.4
	대학 졸업 이상	100.0	1.2	9.7	62.3	26.7

n=15,098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차.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이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37.8%,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6.7%,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4.2%이다. ‘갖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55.6%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6%이고, 여성은 55.6%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0%, 25~29세 54.5%, 30~34세 49.5%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이고 비수도권은 55.1%로

지역별 차이는 0.8%포인트 정도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 67.2%, 전남 62.5%, 부산 6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3.0%,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66.2%, 대학 졸업 이상은 55.5%이다.

〈표 3-7-34〉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경제력

(단위: %)

구분		비율	부모의 경제력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0	6.7	37.8	51.3	4.2
성별	남성	100.0	6.8	37.6	50.6	5.0
	여성	100.0	6.5	37.9	52.1	3.4
연령	19~24세	100.0	4.1	33.0	57.4	5.5
	25~29세	100.0	7.5	38.1	50.6	3.9
	30~34세	100.0	8.4	42.1	46.1	3.4
지역 1	수도권	100.0	6.4	37.6	51.6	4.3
	비수도권	100.0	7.0	37.9	51.0	4.2
지역 2	서울	100.0	6.3	37.8	50.9	5.0
	부산	100.0	6.3	31.7	58.3	3.8
	대구	100.0	8.5	37.9	49.6	4.1
	인천	100.0	9.4	40.7	45.7	4.2
	광주	100.0	5.1	37.7	53.4	3.8
	대전	100.0	8.3	39.3	47.6	4.7
	울산	100.0	7.7	34.9	50.3	7.1
	세종	100.0	5.8	27.0	59.1	8.1
	경기	100.0	5.9	36.8	53.5	3.8
	강원	100.0	7.4	33.5	54.9	4.2
	충북	100.0	5.1	38.8	50.7	5.4
	충남	100.0	4.8	47.3	45.6	2.3
	전북	100.0	7.7	42.3	46.7	3.2
	전남	100.0	4.3	33.2	60.2	2.3*
	경북	100.0	7.4	46.0	43.8	2.8
	경남	100.0	9.4	35.4	49.1	6.1
제주	100.0	8.8	37.7	49.5	4.0	

구분	비율	부모의 경제력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학력	고졸 이하	100.0	13.1	43.9	39.6	3.4
	대학 재학·휴학	100.0	3.2	30.6	60.8	5.4
	대학 졸업 이상	100.0	6.0	38.4	51.4	4.1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부모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이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29.4%,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6.7%,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4.3%이다. ‘갖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66.4%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이고, 여성은 66.0%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0.7%포인트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 25~29세 65.8%, 30~34세 58.9%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4%이고 비수도권은 65.1%로 지역별 차이는 0.7%포인트 정도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부산 72.7%, 세종 72.3%, 서울 6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0.9%,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78.3%, 대학 졸업 이상은 66.7%이다.

〈표 3-7-35〉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부모의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부모의 교육 수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0	4.3	29.4	59.6	6.7	
성별	남성	100.0	4.3	29.0	59.0	7.7
	여성	100.0	4.2	29.8	60.3	5.7
연령	19~24세	100.0	2.2	23.2	65.6	8.9
	25~29세	100.0	4.7	29.5	59.5	6.4
	30~34세	100.0	5.8	35.2	54.0	4.9
지역 1	수도권	100.0	3.9	28.6	60.5	6.9
	비수도권	100.0	4.6	30.3	58.6	6.5
지역 2	서울	100.0	3.7	28.2	59.9	8.2
	부산	100.0	4.9	22.4	65.7	7.0
	대구	100.0	5.5	29.7	57.8	7.0
	인천	100.0	6.4	30.9	55.2	7.6
	광주	100.0	3.8	31.7	60.5	4.0
	대전	100.0	5.5	30.8	55.5	8.2
	울산	100.0	6.4	27.7	57.7	8.2
	세종	100.0	5.9	21.8	61.4	10.9
	경기	100.0	3.6	28.5	62.1	5.8
	강원	100.0	3.8	31.2	58.5	6.5
	충북	100.0	3.0	35.4	55.0	6.6
	충남	100.0	1.9	34.3	59.1	4.6
	전북	100.0	3.3	28.8	62.7	5.2
	전남	100.0	2.3	30.6	63.1	4.0
	경북	100.0	6.5	42.5	45.1	5.9
	경남	100.0	6.5	25.8	59.9	7.8
	제주	100.0	4.2	30.5	57.7	7.6
학력	고졸 이하	100.0	8.7	40.4	45.5	5.4
	대학 재학·휴학	100.0	1.8	19.9	69.5	8.8
	대학 졸업 이상	100.0	3.8	29.5	60.3	6.4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나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9%이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25.5%,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6.3%,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2.2%이다. ‘갖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2.3%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나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이고, 여성은 73.8%로 여성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나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 25~29세 70.9%, 30~34세 71.2%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나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0%이고 비수도권은 71.4%로 수도권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 77.1%, 전남 76.2%, 서울 75.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2.7%,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79.6%, 대학 졸업 이상은 78.1%이다.

〈표 3-7-36〉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나의 교육 수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0	2.2	25.5	65.9	6.3
성별	남성	100.0	2.3	26.7	64.2	6.7
	여성	100.0	2.0	24.2	67.9	5.9
연령	19~24세	100.0	1.7	23.4	68.5	6.4
	25~29세	100.0	2.5	26.6	64.5	6.4
	30~34세	100.0	2.4	26.5	64.9	6.2
지역 1	수도권	100.0	2.3	24.6	66.6	6.5
	비수도권	100.0	2.0	26.6	65.2	6.2
지역 2	서울	100.0	2.5	21.7	68.1	7.7
	부산	100.0	2.1	22.6	69.9	5.3
	대구	100.0	2.4	29.7	61.9	6.0
	인천	100.0	3.9	29.2	60.7	6.2
	광주	100.0	1.7	23.4	70.7	4.2
	대전	100.0	3.2	27.6	59.3	9.9
	울산	100.0	2.3*	28.4	62.5	6.8
	세종	100.0	3.2*	21.9	68.2	6.8

구분	비율	나의 교육 수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지역	경기	100.0	1.8	26.0	66.6	5.5
	강원	100.0	1.6*	26.7	67.2	4.5
	충북	100.0	0.7*	31.6	59.2	8.6
	충남	100.0	1.2*	27.2	66.4	5.2
	전북	100.0	1.8*	21.1	71.8	5.3
	전남	100.0	0.8*	23.0	72.1	4.1
	경북	100.0	2.1	35.1	59.1	3.7
	경남	100.0	2.9	24.7	62.5	9.9
	제주	100.0	2.1*	27.7	66.2	4.0
학력	고졸 이하	100.0	6.3	51.0	39.1	3.7
	대학 재학·휴학	100.0	1.1	19.3	72.9	6.8
	대학 졸업 이상	100.0	1.4	20.5	71.2	6.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이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22.5%,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11.0%,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1.8%이다. ‘갖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5.7%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2%이고, 여성은 75.1%로 남성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4%, 25~29세 74.9%, 30~34세 77.7%로 30대 초반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이고 비수도권은 75.9%로 지역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는 0.4%포인트 정도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 81.0%, 충남 78.4%, 부산 78.1%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8.6%,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73.6%, 대학 졸업 이상은 78.4%이다.

〈표 3-7-37〉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나의 노력

(단위: %)

구분	비율	나의 노력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0	1.8	22.5	64.7	11.0	
성별	남성	100.0	1.9	21.9	64.0	12.2
	여성	100.0	1.7	23.2	65.4	9.7
연령	19~24세	100.0	1.6	24.0	64.6	9.8
	25~29세	100.0	2.0	23.1	64.0	10.9
	30~34세	100.0	1.8	20.4	65.4	12.3
지역 1	수도권	100.0	1.8	22.8	63.7	11.8
	비수도권	100.0	1.9	22.2	65.9	10.0
지역 2	서울	100.0	2.0	22.0	60.5	15.5
	부산	100.0	2.4	19.6	67.4	10.7
	대구	100.0	2.0	27.1	62.4	8.5
	인천	100.0	3.4	23.0	63.1	10.5
	광주	100.0	0.8*	21.6	71.6	5.9
	대전	100.0	3.1	24.1	59.8	13.0
	울산	100.0	3.4	23.2	61.2	12.3
	세종	100.0	2.3*	23.7	66.3	7.8
	경기	100.0	1.2	23.4	66.3	9.1
	강원	100.0	1.0*	22.9	67.3	8.8
	충북	100.0	0.8*	22.7	63.1	13.4
	충남	100.0	1.0*	20.6	69.0	9.4
	전북	100.0	1.4*	22.6	67.4	8.6
	전남	100.0	0.7*	18.3	72.3	8.8
	경북	100.0	1.2*	21.8	67.4	9.6
	경남	100.0	3.2	21.3	63.8	11.7
제주	100.0	3.0*	27.1	61.8	8.1	
학력	고졸 이하	100.0	3.4	28.0	59.3	9.3
	대학 재학·휴학	100.0	1.3	25.1	63.7	9.8
	대학 졸업 이상	100.0	1.6	20.1	66.5	11.8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갓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1%이다. ‘갓추고 있지 않다’는 22.6%,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는 10.4%, ‘전혀 갓추고 있지 않다’는 1.9%이다. ‘갓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75.5%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갓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2%이고, 여성은 75.8%로 그 차이는 0.6%포인트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갓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 25~29세 75.4%, 30~34세 74.1%로 20대 초반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갓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1%이고 비수도권은 77.1%로 비수도권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 80.2%, 세종 79.1%, 제주 79.0%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9.0%,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76.4%, 대학 졸업 이상은 77.0%이다.

〈표 3-7-38〉 갓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단위: %)

구분		비율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전혀 갓추고 있지 않다	갓추고 있지 않다	갓추고 있다	완벽하게 갓추고 있다
전체		100.0	1.9	22.6	65.1	10.4
성별	남성	100.0	2.1	22.7	63.8	11.4
	여성	100.0	1.7	22.6	66.5	9.3
연령	19~24세	100.0	1.5	21.5	65.9	11.0
	25~29세	100.0	1.8	22.8	64.8	10.7
	30~34세	100.0	2.3	23.6	64.6	9.5
지역 1	수도권	100.0	2.0	23.8	63.9	10.2
	비수도권	100.0	1.7	21.2	66.5	10.6
지역 2	서울	100.0	2.2	23.2	65.1	9.5
	부산	100.0	1.9	20.9	66.7	10.6
	대구	100.0	1.4	21.8	67.2	9.7
	인천	100.0	4.1	20.7	62.4	12.8
	광주	100.0	1.2	20.9	72.4	5.5
	대전	100.0	2.2	23.3	64.0	10.6
	울산	100.0	2.9	18.3	65.9	12.9
	세종	100.0	2.6*	18.3	65.9	13.2

구분	비율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지역	경기	100.0	1.4	25.0	63.3	10.2
	강원	100.0	1.5*	23.9	64.1	10.5
	충북	100.0	0.6*	23.3	63.3	12.8
	충남	100.0	0.6*	20.8	69.8	8.8
	전북	100.0	1.3*	22.6	65.8	10.3
	전남	100.0	2.2*	17.7	71.8	8.4
	경북	100.0	1.2*	23.3	64.4	11.0
	경남	100.0	3.4	18.9	63.8	14.0
	제주	100.0	1.8*	19.2	68.1	10.9
학력	고졸 이하	100.0	3.5	27.5	59.5	9.5
	대학 재학·휴학	100.0	1.4	22.3	65.8	10.6
	대학 졸업 이상	100.0	1.6	21.4	66.4	10.6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정부가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이다. ‘갖추고 있다’는 30.3%,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12.2%,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3.1%이다. ‘갖추고 있다’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33.4%이다. 성별에 따라 남성 중 정부가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이고, 여성은 32.6%로 그 차이는 1.5%포인트 정도이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중 정부가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 25~29세 33.3%, 30~34세 30.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 정부가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다’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이고 비수도권은 35.5%로 비수도권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45.9%, 광주 45.2%, 제주 36.9%로 높은 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9.7%,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36.7%, 대학 졸업 이상은 33.3%이다.

〈표 3-7-39〉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정부의 정책 지원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가추고 있지 않다	가추고 있다	완벽하게 가추고 있다	
전체	100.0	12.2	54.4	30.3	3.1	
성별	남성	100.0	13.1	52.8	30.4	3.7
	여성	100.0	11.2	56.2	30.2	2.4
연령	19~24세	100.0	10.3	52.9	33.6	3.1
	25~29세	100.0	12.1	54.7	30.3	3.0
	30~34세	100.0	14.2	55.5	27.2	3.1
지역 1	수도권	100.0	12.1	56.3	28.9	2.7
	비수도권	100.0	12.3	52.1	32.1	3.5
지역 2	서울	100.0	9.2	55.7	31.9	3.1
	부산	100.0	14.6	49.6	33.6	2.2
	대구	100.0	12.7	57.1	27.1	3.1
	인천	100.0	18.8	54.9	23.4	2.9
	광주	100.0	6.0	48.7	43.0	2.2
	대전	100.0	12.0	51.4	33.5	3.1
	울산	100.0	15.8	49.0	31.4	3.9
	세종	100.0	15.9	48.7	32.6	2.8*
	경기	100.0	13.0	57.0	27.7	2.4
	강원	100.0	12.2	60.5	25.0	2.3
	충북	100.0	6.1	48.0	40.6	5.3
	충남	100.0	6.8	59.6	29.6	3.9
	전북	100.0	19.7	45.9	30.7	3.7
	전남	100.0	15.8	50.8	31.0	2.4*
	경북	100.0	9.6	54.7	32.5	3.3
	경남	100.0	14.4	51.1	28.2	6.2
제주	100.0	16.3	46.7	33.9	3.0	
학력	고졸 이하	100.0	14.3	56.0	26.3	3.4
	대학 재학·휴학	100.0	10.7	52.6	33.7	3.0
	대학 졸업 이상	100.0	12.1	54.5	30.3	3.0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카.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정책 45.7%, 일자리 정책 33.5%, 복지 및 문화 정책 14.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책은 5.5%, 참여 및 권리 정책은 1.2%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주거 정책 응답률이 1.2%포인트 높고, 일자리 정책은 5.1%포인트 낮다. 복지 및 문화 정책은 3.2%포인트 높다. 연령대별로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9~24세 28.5%, 25~29세 51.3%, 30~34세 56.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반면 일자리 정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고, 복지 및 문화 정책은 13~15%대를 유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 정책의 응답률이 50.9%인데, 비수도권은 39.3%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일자리 정책은 수도권의 30.5%보다 비수도권의 응답률이 37.1%로 높다. 복지 및 문화 정책 또한 수도권의 12.5%보다 비수도권이 16.1%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주거 정책의 응답률이 서울 54.4%, 인천 52.9%, 경기 47.7%로 수도권에서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일자리 정책은 광주가 47.8%로 현저히 높은 편이고, 복지 및 문화 정책은 충북과 강원이 각각 20.5%, 20.3%로 높은 편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주거 정책의 응답률이 대학 졸업 이상이 52.7%, 고졸 이하가 47.3%, 대학 재학 및 휴학이 23.5%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일자리 정책은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에서 51.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40〉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교육 정책	복지문화 정책	참여 및 권리 정책
전체		100.0	33.5	45.7	5.5	14.1	1.2
성별	남성	100.0	35.9	45.1	5.1	12.6	1.2
	여성	100.0	30.8	46.3	6.0	15.8	1.1
연령	19~24세	100.0	47.1	28.5	9.6	13.8	1.0
	25~29세	100.0	31.1	51.3	2.8	13.5	1.2
	30~34세	100.0	22.6	56.7	4.3	15.1	1.3
지역 1	수도권	100.0	30.5	50.9	4.8	12.5	1.2
	비수도권	100.0	37.1	39.3	6.4	16.1	1.1

	구분	비율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교육 정책	복지문화 정책	참여 및 권리 정책
지역 2	서울	100.0	30.4	54.4	3.8	10.6	0.8
	부산	100.0	37.0	38.4	8.3	15.1	1.1*
	대구	100.0	39.7	38.4	7.2	13.3	1.4*
	인천	100.0	27.8	52.9	4.3	12.6	2.4
	광주	100.0	47.8	30.7	4.9	16.4	0.3*
	대전	100.0	35.2	46.7	5.1	11.1	2.0*
	울산	100.0	33.4	48.1	4.5	13.3	0.7*
	세종	100.0	29.2	44.8	8.5	17.3	0.2*
	경기	100.0	31.2	47.7	5.8	14.1	1.3
	강원	100.0	37.4	36.7	4.6	20.3	0.9*
	충북	100.0	30.8	39.2	8.3	20.5	1.2*
	충남	100.0	38.5	38.0	8.3	13.9	1.2*
	전북	100.0	36.6	41.1	4.4	17.0	0.9*
	전남	100.0	38.9	34.5	6.2	17.9	2.4*
	경북	100.0	39.6	36.7	5.1	17.5	1.1*
	경남	100.0	34.1	41.5	6.1	17.3	0.9*
	제주	100.0	27.4	47.1	5.9	18.6	1.0*
학력	고졸 이하	100.0	31.8	47.3	4.0	15.8	1.1
	대학 재학·휴학	100.0	51.0	23.5	13.0	11.5	1.1
	대학 졸업 이상	100.0	28.0	52.7	3.5	14.6	1.2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 타. 연애와 결혼, 출산

현재 연애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6.2%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35.1%, 여성의 37.5%가 연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7-41〉 현재 연애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그렇다, 연애하고 있다	아니다, 연애하지 않고 있다
전체		100.0	36.2	63.8
성별	남성	100.0	35.1	64.9
	여성	100.0	37.5	62.5
연령	19~24세	100.0	28.7	71.3
	25~29세	100.0	40.2	59.8
	30~34세	100.0	42.4	57.6
지역 1	수도권	100.0	37.0	63.0
	비수도권	100.0	35.2	64.8
학력	고졸 이하	100.0	34.9	65.1
	대학 재학·휴학	100.0	28.0	72.0
	대학 졸업 이상	100.0	40.2	59.8

n=12,967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3.1%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67.8%, 여성 청년은 57.5%가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3-7-42〉 향후 결혼 계획

(단위: %)

구분		비율	있다	없다
전체		100.0	63.1	36.9
성별	남성	100.0	67.8	32.2
	여성	100.0	57.5	42.5
연령	19~24세	100.0	62.3	37.7
	25~29세	100.0	63.6	36.4
	30~34세	100.0	63.6	36.4
지역 1	수도권	100.0	63.7	36.3
	비수도권	100.0	62.4	37.6

구분		비율	있다	없다
학력	고졸 이하	100.0	56.5	43.5
	대학 재학·휴학	100.0	63.6	36.4
	대학 졸업 이상	100.0	64.8	35.2

n=12,967

주: 1) 결락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락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59.3%로 절반 이상이다. 반면, 40.7%는 조사 시점 기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65.1%, 여성이 52.8%로 남성이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30~34세에서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61.0%로 가장 높고, 25~29세 60.1%, 19~24세 5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58.8%로 비수도권 59.9%보다 다소 낮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광주 69.8%, 전북 64.1%, 경북 6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이 61.2%, 대학 재학이나 휴학은 59.4%, 고졸 이하는 52.4%이다.

〈표 3-7-4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있다	없다
전체		100.0	59.3	40.7
성별	남성	100.0	65.1	34.9
	여성	100.0	52.8	47.2
연령	19~24세	100.0	56.7	43.3
	25~29세	100.0	60.1	39.9
	30~34세	100.0	61.0	39.0
지역 1	수도권	100.0	58.8	41.2
	비수도권	100.0	59.9	40.1

구분		비율	있다	없다
지역 2	서울	100.0	61.7	38.3
	부산	100.0	57.6	42.4
	대구	100.0	54.7	45.3
	인천	100.0	58.7	41.3
	광주	100.0	69.8	30.2
	대전	100.0	61.0	39.0
	울산	100.0	55.9	44.1
	세종	100.0	61.6	38.4
	경기	100.0	56.4	43.6
	강원	100.0	61.9	38.1
	충북	100.0	58.5	41.5
	충남	100.0	58.1	41.9
	전북	100.0	64.1	35.9
	전남	100.0	58.8	41.2
	경북	100.0	62.2	37.8
	경남	100.0	59.3	40.7
제주	100.0	61.0	39.0	
학력	고졸 이하	100.0	52.4	47.6
	대학 재학·휴학	100.0	59.4	40.6
	대학 졸업 이상	100.0	61.2	38.8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소결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를 조사했을 때,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 범위에서 평균 만족 수준은 6.71점, 행복감 6.82점, 자유로운 선택 6.92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6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나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다.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현세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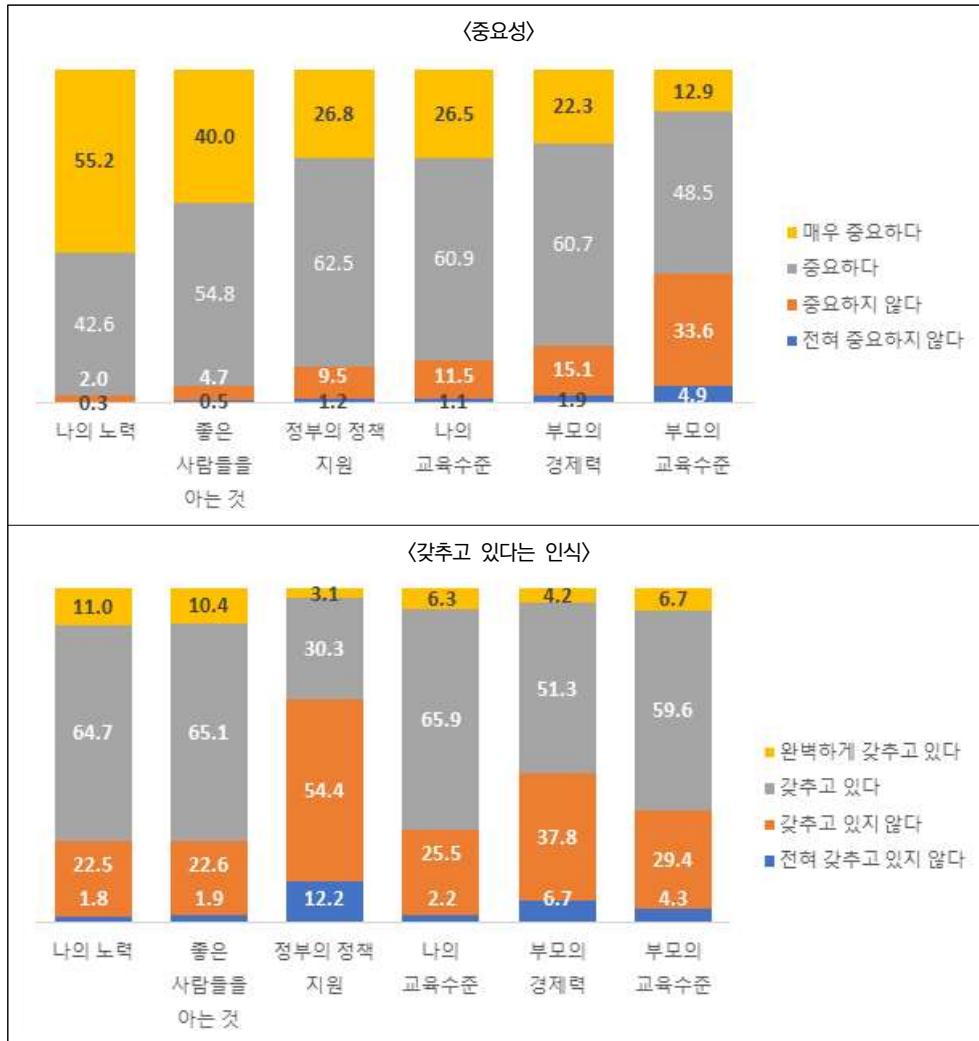
의 행복 수준에서 다수의 청년은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청년들도 5.8% 정도 존재한다.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이나 1점을 선택한 청년도 약 1.4% 정도 있다.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보고하는 청년은 7.6%이다. 보통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삶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에 행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 청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은 72.1%, 계층 갈등은 75.7%, 지역 갈등은 62.4%, 성별 갈등은 66.6%, 국적에 따른 갈등은 47.1%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서 불평등은 82.7%, 저출생·고령화는 92.1%, 기술·산업구조 변화는 79.7%, 테러리즘은 79.7%, 기후변화는 89.2%가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나 소득 대물림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도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였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양상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청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97.7%로 가장 높다.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도 94.8%로 매우 높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89.3%, 나의 교육 수준 87.4%, 부모의 경제력 83.0%, 부모의 교육 수준 61.5% 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향은 달랐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4.3%이다.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5%인데, 정부가 정책 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66.6%에 달한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계승하는 귀속 자본이나 나의 노력, 혹은 인맥이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원을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청년에게 가닿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 정책(45.7%), 일자리 정책(33.5%), 복지 및 문화 정책(14.1%)을 필요로 하는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때다.

[그림 3-7-1]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요성과 갖추고 있다는 인식

(단위: %)



## 제8절 청년의 경제 실태

### 1. 분석 결과

#### 가. 생활비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생활비의 기준은 2022년과 다르다. 2022년에는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포함한 총지출을 조사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세금, 사회보험료,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소비지출에 한정하여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생활비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상태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2023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213만 원, 중위값은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년의 가구 생활비가 남성 청년의 가구 생활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생활비는 평균 148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로 보면 19~24세 청년의 가구 생활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연령대의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활비를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비가 높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는 220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 206만 원보다 높으며,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인 청년 가구의 생활비가 236만 원으로 가장 높는데, 이 역시 대학 재학·휴학 상태인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학 졸업 이상의 순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의 생활비는 185만 원으로 가구주가 청년이 아닌 가구의 생활비 264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 148만 원, 가구주가 청년이 아닌 경우 147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표 3-8-1〉 월평균 가구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생활비(비균등화)		가구 생활비(균등화)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213	200	148	141
성별	남성	209	200	148	141
	여성	217	200	148	141
연령	19~24세	225	200	143	140
	25~29세	203	190	145	141
	30~34세	213	200	155	145
지역 1	수도권	220	200	151	144
	비수도권	206	200	145	141
지역 2	서울	212	200	148	141
	부산	215	200	152	141
	대구	208	200	143	141
	인천	211	200	147	143
	광주	213	190	145	141
	대전	199	200	141	141
	울산	228	200	154	150
	세종	230	200	154	150
	경기	228	200	153	150
	강원	202	180	145	141
	충북	213	200	152	144
	충남	209	200	150	141
	전북	227	200	160	150
	전남	192	180	137	140
	경북	194	190	139	134
	경남	190	160	133	130
제주	209	200	145	141	
학력	고졸 이하	197	180	143	141
	대학 재학·휴학	236	200	145	141
	대학 졸업 이상	211	200	150	144
가구주	청년 가구주	185	160	148	141
	비청년 가구주	264	250	147	144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균등화 가구 생활비는 생활비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생활비에서 청년의 특성 파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조사 항목으로 제시된 일곱 가지의 생활비를 더한 금액이 총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포함된 항목은 식료품비, 월세, 주거 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오락·문화비이다.

항목별로 보면 2023년 청년 가구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식료품비 80만 원, 월세 13만 원, 주거 관리비 15만 원, 교육비 10만 원, 통신비 14만 원,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연령대로 보면 19~24세 연령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비수도권 청년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월세, 주거 관리비, 교육비, 오락·문화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 청년 가구의 교육비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학 재학·휴학 청년 가구의 식료품비도 높는데, 이는 부모 동거 비율이 높아 가구원 수가 많은 현상으로 판단된다. 가구주가 청년이 아닌 가구의 경우 대체로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에 비해 항목별 생활비가 높는데, 이는 가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월세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독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3-8-2〉 항목별 월평균 가구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식료품비	주거비 (월세)	주거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오락· 문화비	
전체	80	13	15	10	14	22	18	
성별	남성	79	13	15	9	14	22	17
	여성	80	13	16	11	14	22	18
연령	19~24세	83	13	15	22	15	23	16
	25~29세	76	15	15	5	13	20	18
	30~34세	80	12	16	5	13	22	19
지역 1	수도권	82	14	16	11	14	21	19
	비수도권	77	12	14	10	14	22	16

구분	식료품비	주거비 (월세)	주거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오락· 문화비
지역 2	서울	82	17	16	11	14	19
	부산	78	15	14	11	14	18
	대구	74	13	15	12	13	21
	인천	80	14	17	8	13	18
	광주	72	10	15	11	13	23
	대전	84	16	16	10	13	22
	울산	76	14	14	11	14	20
	세종	80	10	22	13	12	20
	경기	83	12	16	11	14	23
	강원	79	12	14	8	14	25
	충북	71	15	16	12	14	24
	충남	79	11	16	9	12	22
	전북	76	11	15	11	15	28
	전남	71	8	12	8	15	28
	경북	77	11	12	7	12	22
	경남	79	11	14	8	13	20
제주	79	20	10	9	15	21	
학력	고졸 이하	73	17	13	5	14	20
	대학 재학·휴학	87	12	16	30	16	23
	대학 졸업 이상	79	13	16	6	13	22
가구주	청년 가구주	67	18	13	6	11	18
	비청년 가구주	103	5	19	19	19	29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소득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소득에 대한 조사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같은 소득원천별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 개인의 소득만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의 소득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가구 총소득은 2022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공적 이전소득 중 청년과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주요 공적 급여를 가구와 청년 개인에 대해 수급 금액을 조사하였던 것을 2024년에는 청년 개인의 수급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소득은 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023년 청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5,14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 기준으로 4,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5,203만 원으로 남성 청년 가구 5,076만 원보다 높았지만, 가구 규모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 총소득은 반대로 남성 청년 가구가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높은 연령대에서 가구 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5,394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총소득 4,893만 원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에도 수도권의 소득이 높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균등화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는 대학 재학·휴학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가장 낮았다.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와 청년이 아닌 가구의 총소득은 차이가 크다. 하지만 균등화 가구 총소득을 보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 가구 총소득 3,442만 원, 비청년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 가구 총소득 3,692만 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2023년 청년 개인의 총소득은 2,625만 원, 중위값은 2,820만 원으로 나타난다. 남성 청년의 총소득이 2,785만 원으로 여성의 2,448만 원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 총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청년의 개인 총소득은 2,752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개인 총소득 2,472만 원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820만 원, 대학 졸업 이상 3,161만 원인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에는 878만 원으로 낮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개인 총소득은 3,285만 원으로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의 개인 총소득 1,931만 원보다 매우 높았다.

〈표 3-8-3〉 연간 총소득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총소득(비균등화)		가구 총소득(균등화)		청년 개인 총소득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140	4,500	3,530	3,394	2,625	2,820
성별	남성	5,076	4,500	3,561	3,464	2,785	3,000
	여성	5,203	4,500	3,500	3,300	2,448	2,640
연령	19~24세	4,917	4,300	3,020	2,887	1,307	780
	25~29세	5,049	4,200	3,556	3,378	2,897	3,000
	30~34세	5,436	4,800	3,960	3,705	3,630	3,600
지역 1	수도권	5,394	4,800	3,658	3,500	2,752	3,000
	비수도권	4,893	4,200	3,406	3,205	2,472	2,580
지역 2	서울	5,510	4,800	3,805	3,600	2,722	3,000
	부산	4,533	3,900	3,166	3,000	2,324	2,400
	대구	4,683	4,200	3,208	3,000	2,326	2,400
	인천	4,772	4,000	3,299	3,051	2,948	3,000
	광주	5,109	4,000	3,438	3,120	2,211	2,500
	대전	4,724	4,378	3,297	3,182	2,421	2,520
	울산	5,630	5,000	3,776	3,536	2,693	2,640
	세종	5,639	5,000	3,863	3,889	3,034	3,000
	경기	5,448	5,000	3,628	3,500	2,734	3,000
	강원	4,848	4,000	3,457	3,182	2,496	2,600
	충북	4,786	3,900	3,385	3,323	2,756	3,000
	충남	5,302	4,800	3,734	3,464	2,692	3,000
	전북	5,353	4,560	3,729	3,562	2,325	2,435
	전남	4,528	3,700	3,162	2,970	2,405	2,600
	경북	4,833	4,270	3,409	3,240	2,508	2,600
	경남	4,964	4,500	3,457	3,349	2,578	2,760
제주	4,470	3,630	3,025	2,828	2,317	2,400	
학력	고졸 이하	4,530	3,960	3,274	3,118	2,820	3,000
	대학 재학·휴학	4,926	4,500	2,909	2,700	878	481
	대학 졸업 이상	5,386	4,800	3,787	3,560	3,161	3,240
가구주	청년 가구주	4,335	3,660	3,442	3,300	3,285	3,360
	비청년 가구주	6,629	6,000	3,692	3,465	1,931	1,600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균등화 가구 총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소득원천별로 청년의 개인 소득을 조사하였다. 2023년 청년 개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2,451만 원, 재산소득은 34만 원, 사적 이전소득은 94만 원, 공적 이전소득은 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데 비해, 공적 이전소득은 여성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19~34세가 연간 193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는데, 이는 대체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판단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청년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높으나,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비수도권 청년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015만 원, 고졸 이하 청년이 2,679만 원이며, 대학 재학·휴학 청년은 592만 원으로 낮았다.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은 연간 252만 원으로 다른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적 이전소득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3,068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 1,802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 또한 연간 127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 59만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의 공적 급여 수급 경험을 조사하였다. 2023년 청년 중 3.2%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 관련 수당 2.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7.2%,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6.2%,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2.0%의 수급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성별 수급률의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공적 급여는 여성 청년의 수급률이 남성 청년의 수급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취업지원 관련 수당은 30~34세의 경우 20대보다 수급률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은 30~34세 수급률이 14.8%로 20대보다 크게 높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수도권 청년의 수급률이 높은 반면, 나머지 공적 급여는 비수도권 청년의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청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률이 11.7%로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수급률이 9.5%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수급률 2.7%보다 크게 높다.

〈표 3-8-4〉 청년 개인의 소득원천별 연간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전체		2,451	34	94	45
성별	남성	2,608	40	102	34
	여성	2,278	28	85	57
연령	19~24세	1,066	23	193	26
	25~29세	2,750	40	63	45
	30~34세	3,495	40	30	64
지역 1	수도권	2,594	30	89	38
	비수도권	2,279	39	100	53
지역 2	서울	2,568	22*	98	34
	부산	2,130	45	113	36
	대구	2,162	25	91	48
	인천	2,826	49	28	39
	광주	2,016	69	92	34
	대전	2,180	39	150	52
	울산	2,507	34	67	85
	세종	2,807	62	112	53
	경기	2,564	33	95	42
	강원	2,285	35	93	83
	충북	2,670	23	43	21
	충남	2,488	22	144	37
	전북	2,143	40	103	40
	전남	2,228	26	87	60
	경북	2,297	28	131	53
	경남	2,357	63	61	98
제주	2,087	60	100	71	
학력	고졸 이하	2,679	28	53	59
	대학 재학·휴학	592	16	252	18
	대학 졸업 이상	3,015	42	52	50
가구주	청년 가구주	3,068	34	127	55
	비청년 가구주	1,802	35	59	34

n=15,098

주: 1) 결핍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핍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RSE가 30% 이상인 경우 \* 표기함.

〈표 3-8-5〉 공적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실업급여	취업지원 관련 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전체		3.2	2.9	7.2	6.2	2.0
성별	남성	2.4	2.5	6.6	3.7	2.0
	여성	4.2	3.4	7.9	8.9	2.0
연령	19~24세	1.8	3.4	7.4	0.5	2.8
	25~29세	4.5	3.6	7.7	3.2	2.0
	30~34세	3.4	1.7	6.6	14.8	1.4
지역 1	수도권	2.9	2.6	6.8	5.6	2.3
	비수도권	3.7	3.2	7.7	6.9	1.7
지역 2	서울	3.2	2.4	4.4	4.5	1.0
	부산	4.2	2.6	7.1	4.3	0.9
	대구	4.2	3.6	7.5	5.7	0.8
	인천	4.0	2.9	11.0	4.8	0.9
	광주	2.8	2.1	3.8	5.3	4.1
	대전	3.2	3.7	7.6	7.7	1.5
	울산	3.0	3.9	8.0	13.7	1.0
	세종	5.8	3.7	4.8	10.9	2.1
	경기	2.4	2.7	7.9	6.6	3.6
	강원	3.5	2.3	7.6	8.9	0.7
	충북	3.7	2.4	3.1	4.4	0.8
	충남	2.6	1.6	3.7	5.4	2.0
	전북	1.6	2.6	8.6	7.5	0.4
	전남	1.6	2.6	7.3	9.3	6.5
	경북	3.5	5.1	8.9	8.2	1.2
	경남	6.5	4.9	14.6	6.9	2.2
	제주	5.0	5.0	14.2	10.7	0.7
학력	고졸 이하	4.3	2.4	11.7	7.8	2.2
	대학 재학·휴학	1.1	1.8	6.7	0.5	2.2
	대학 졸업 이상	3.7	3.4	6.2	7.7	1.9
가구주	청년 가구주	3.7	2.0	8.0	9.5	1.9
	비청년 가구주	2.8	3.8	6.4	2.7	2.2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부채 및 재산

2024년 조사에서는 부채와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청년 개인의 상태만 조사하고, 가구 상태에 대한 조사는 제외하였다. 이것 역시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 가구의 부채와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가구의 부채총액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22년 조사에 없었던 재산총액을 가구와 청년 개인에 대해 모두 추가하였다. 또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부채와 재산에 대한 세부 항목은 청년의 특성 파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부채총액은 3,884만 원,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1,637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부채총액은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다소 높지만, 개인 부채총액은 남성이 1,895만 원으로 여성 1,351만 원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와 개인 부채총액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진다. 특히 30~34세 청년의 개인 부채총액은 3,2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의 부채총액도 가구와 개인 모두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구의 부채총액은 청년의 학력이 높을수록 커지지만, 개인의 부채총액은 대학 재학·휴학의 경우 낮게 나타난다.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 개인 부채총액은 2,790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 개인 부채총액 424만 원과 차이가 크다.

청년 개인의 부채를 주요 용도별로 보면, 학자금 부채가 68만 원, 자산투자 목적의 부채가 73만 원,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 생활비 부채가 35만 원으로 나타난다. 자산투자 부채와 주택 관련 부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또한 학자금 부채를 제외하면 모든 용도의 부채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청년의 생활비 부채가 80만 원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청년의 월평균 이자 지출은 9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이자 지출이 10만 원으로 여성 8만 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 지출이 커진다. 수도권 청년의 이자 지출은 10만 원으로 비수도권 8만 원보다 다소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이자 지출이 1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6〉 부채

(단위: 만 원)

구분	부채총액		청년 개인의 용도별 부채액				월평균 이자	
	가구	청년 개인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전체	3,884	1,637	68	73	1,166	35	9	
성별	남성	3,836	1,895	69	115	1,343	39	10
	여성	3,931	1,351	68	27	969	32	8
연령	19~24세	2,976	271	60	9	151	11	4
	25~29세	3,275	1,339	97	70	833	36	6
	30~34세	5,341	3,265	48	139	2,487	58	17
지역 1	수도권	4,546	1,780	82	54	1,300	33	10
	비수도권	3,241	1,464	51	96	1,003	39	8
지역 2	서울	4,478	1,781	65	55	1,279	29	7
	부산	2,919	1,235	63	52	806	24	11
	대구	3,213	1,443	66	41	1,212	40	8
	인천	4,566	2,257	81	46	1,624	71	12
	광주	2,123	684	27	30	454	17	3
	대전	2,373	1,132	63	35	602	29	5
	울산	5,006	2,660	47	116	1,681	114	12
	세종	8,456	3,877	91	187	2,993	28	17
	경기	4,592	1,674	97	56	1,246	27	12
	강원	3,013	1,211	42	32	809	77	7
	충북	3,528	1,885	61	234	1,245	33	11
	충남	4,419	1,758	29	276	1,210	12	5
	전북	2,966	1,164	39	29	680	39	7
	전남	2,127	1,034	28	17	709	47	5
	경북	2,182	1,273	24	209	834	40	6
	경남	4,191	1,806	87	73	1,374	22	9
제주	3,163	1,644	33	30	1,024	143	9	
학력	고졸 이하	2,804	1,553	18	90	1,038	80	12
	대학 재학·휴학	3,354	261	69	3	142	10	3
	대학 졸업 이상	4,363	2,126	82	92	1,548	31	10
가구주	청년 가구주	3,710	2,790	63	112	2,100	48	13
	비청년 가구주	4,206	424	74	32	182	22	5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2억 4,505만 원,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재산총액은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인 부채총액은 남성이 5,635만 원으로 여성의 4,321만 원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구 재산총액은 청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개인의 재산총액은 청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3억 1,625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 1억 7,580만 원과 차이가 크며, 청년의 개인 재산총액도 수도권이 5,606만 원으로 비수도권 4,291보다 크게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청년 가구 재산총액은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가 가장 높으나, 청년 개인 재산총액은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재산총액은 1억 3,724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 4억 4,451만 원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개인 재산총액은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이 7,526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의 2,365만 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의 재산을 주요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금융재산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주식에는 채권과 펀드가 포함된다. 2023년 말 기준 청년은 1,378만 원의 금융재산, 240만 원의 주식, 28만 원의 가상자산, 795만 원의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으나,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유형의 재산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금융재산과 주식은 수도권 청년이 높은 반면, 가상자산과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비수도권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모든 유형의 재산이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7〉 재산

(단위: 만 원)

구분	재산총액		청년 개인의 유형별 재산액				
	가구	청년 개인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전체	24,505	5,012	1,378	240	28	795	
성별	남성	24,320	5,635	1,356	309	38	1,015
	여성	24,685	4,321	1,402	165	17	551
연령	19~24세	28,133	1,398	540	73	9	165
	25~29세	23,237	4,374	1,420	237	27	612
	30~34세	22,586	9,166	2,148	407	48	1,592
지역 1	수도권	31,625	5,606	1,429	276	22	720
	비수도권	17,580	4,291	1,316	197	36	886
지역 2	서울	39,803	5,830	1,613	336	23	573
	부산	19,343	3,750	1,014	135	30	1,042
	대구	18,745	3,848	1,401	171	22	631
	인천	20,869	4,946	1,042	263	27	926
	광주	19,824	3,598	1,108	152	22	476
	대전	18,946	4,577	1,410	390	76	620
	울산	19,855	5,494	1,224	201	28	790
	세종	34,470	8,093	1,872	634	30	2,663
	경기	27,896	5,569	1,364	231	19	796
	강원	15,978	3,653	1,380	72	24	914
	충북	16,270	5,037	1,519	230	92	988
	충남	17,415	4,897	1,508	214	24	1,252
	전북	16,234	3,616	1,365	103	6	651
	전남	15,299	3,801	1,351	164	39	1,102
경북	14,347	4,653	1,440	186	29	966	
경남	17,168	4,397	1,234	245	54	675	
제주	16,384	4,048	1,039	180	10	1,168	
학력	고졸 이하	15,811	4,195	1,116	162	29	894
	대학 재학·휴학	31,711	1,135	382	57	4	163
	대학 졸업 이상	25,047	6,552	1,788	324	36	981
가구주	청년 가구주	13,724	7,526	1,553	301	34	1,314
	비청년 가구주	44,451	2,365	1,193	176	23	249

n=15,098

주: 1)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3)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 모든 결괏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소결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경제 파트에서는 생활비, 소득, 부채, 재산을 조사하였다. 2022년 조사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구의 세부 사항에 대한 문항을 일부 삭제하는 변화가 있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지출로 한정된 2023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균등화한 가구 생활비는 1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생활비는 표면적으로는 청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생활비 항목별로 보면, 2023년 청년 가구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식료품비 80만 원, 월세 13만 원, 주거 관리비 15만 원, 교육비 10만 원, 통신비 14만 원,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에 특히 높아 독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을 보여준다.

2023년 청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5,140만 원(균등화한 가구 총소득은 3,530만 원), 청년 개인의 총소득은 2,625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총소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이 수도권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개인 총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 및 사업 소득 2,451만 원, 재산소득 34만 원, 사적 이전소득 94만 원, 공적 이전소득 4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 가지의 주요 공적 급여 수급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청년 중 실업급여는 3.2%, 취업지원 관련 수당은 2.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7.2%,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은 6.2%,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2.0%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부채총액은 3,884만 원,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1,6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2,7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부채를 용도별로 보면,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주택 관련 부채가 2,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은 월평균 9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월평균 13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다.

2023년 말 기준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2억 4,505만 원,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청년 개인 재산총액은 7,5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개인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재산 1,378만 원, 주식 240만 원, 가상자산 28만 원, 기타 부동산 및 재산 795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으나,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상태를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청년은 가구 내에서 평균적으로 148만 원을 소비하며, 연간 2,625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연간 소득의 대부분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451만 원을 차지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5,012만 원의 재산과 1,637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 중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체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시해보자.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경제적 상태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은 가구 내에서 평균적으로 148만 원을 소비하며, 연간 3,285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연간 소득의 대부분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068만 원을 차지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7,526만 원의 재산과 2,79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 중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2,1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경제적 상태에 있어서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청년의 연령대별, 학력별, 가구주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이라는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청년 가구주에 속한 청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소비지출과 소득에서보다 자산과 부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7,526만 원의 개인 재산총액과 2,790만 원의 개인 부채총액, 주택 관련 부채 2,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청년 주거 정책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상과 같이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청년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연령대나 전체 인구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방법이나 기준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결과는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청년 집단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경제 파트에서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소득, 지출, 재산 같은 경제적 상태는 항상 측정 단위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를 경제적 단위로 보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가구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부채,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 단위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향후에는 소비지출(생활비)에서도 개인 단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제4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2024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제2절 조사 발전을 위한 검토

제3절 제언



## 제4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2024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여기서는 2024년과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2024 청년 삶 실태조사는 두 번째 조사로 시간에 따른 변화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연해 둔다. 통상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점

- 전국 약 15,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19세~34세 청년 15,098명을 대상으로 2024. 6. 24.~8. 30.(68일)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
- 결괏값은 모수 가중치(개인)를 적용하여 산출됐으며, 경제 영역의 가구값은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 통계정보는 KOSIS 등록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음.
-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방법, 조사 시점, 조사 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증감(비율(%), ~배)은 표에 제시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됨.
- 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은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KOSIS에 제시하는 통계표 중 RSE가 30% 이상인 경우 \*표시하였으며, 반드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1. 일반 사항

가구원 수는 3인(26.5%), 4인(25.6%), 1인(23.8%), 2인(18.2%), 5인 이상(5.8%)의 순이며,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이 2년 전 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3인(28.8%), 4인(25.5%), 1인(22.6%), 2인(17.5%), 5인 이상(5.6%)의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은 51.2%로 2022년에 비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가구주 가구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청년(1.2%포인트 ↑), 청년 부부 가구의 청년(1.3%포인트 ↑), 청년과 그 자녀로 이뤄진 가구의 청년(0.5%포인트 ↑),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청년 비율(4.7%포인트 ↑)이 모두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은 42.9%,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57.0%였다. 2024년의 조사 결과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72.0%가 부모가 가구주인 가구에 속하고, 고졸 이하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30~40%대였다. 또한 고졸 이하 청년 중 60.4%가 청년 가구주 가구,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56.8%, 대학 재학·휴학은 27.3%만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했다.

한부모 가구(3.6%, 2022년 1.5%)와 자립 준비 청년 가구(0.7%, 2022년 0.2%)에 해당하는 청년은 2022년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0.5%포인트가 증가했다. 2022년에 비해 한부모 청년 가구 및 자립 준비 청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행정통계 등을 활용한 다차원적 검토 및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은 1.6%(2022년 0.9%)로 2년 전보다 증가했다. 2022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 중이라 응답한 경우는 0.9%,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가족 돌봄 청년은 1.5%(주 돌봄 0.6%포인트 + 돌봄 참여 0.9%포인트)이고,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 돌봄 청년은 2022년의 0.6%와 유사했다.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 81.0%, 배우자 있음 18.3%, 이혼·별거·사별 0.7%였으며, 2022년에 비해 초기(19~24세), 중기(25~29세) 청년이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조사에서는 19~24세의 1.1%가, 25~29세의 12.1%가, 30~34세의 41.2%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대비,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은 0.8%포인트 증가, 미혼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2022년은 19~24세의 9.8%가 배우자

가 있었으며, 25~29세는 11.9%, 30~34세는 43.1%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 2. 주거

먼저, 부모 동거 여부와 독립 계획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54.4%로 2022년 57.5% 대비 3.1%포인트 감소했으며,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8.0%로 2022년 32.3%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55.4%)이 여성(53.4%)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은 19~24세(78.1%), 25~29세(56.0%), 30~34세(29.9%)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80.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고, 고졸 이하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청년(41.1%)이 수도권 청년(35.5%)보다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는 지역 이주 의사 혹은 주거비 차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독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주된 이유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47.4%,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 22.0%,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18.4%,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11.7%,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0.4%(2022년 0.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에 비해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2022년 40.7%),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라는 응답이 2022년에 비해 각각 6.7%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증가 폭이 크고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는 청년들의 독립 의사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 의사에 대한 인식 변화는 청년정책 방향, 추진 과제 설정과도 연관할 수 있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이유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60.5%, 2022년 56.6%), 특별한 이유 없음(22.9%, 2022년 20.0%),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14.1%, 2022년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미하지만 생계나 가사 등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어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4년 1.9%로 2022년의 1.2%에 비해 증가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독립한 기간과 독립한 이유를 분석하면, 독립한 기간은 5년 이상(40.0%), 3~5년 미만(22.2%), 1~2년 미만(15.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독립한 기간은 2022년의 34.4%

에 비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5.7%포인트 증가했으며, 평균 개월 수 또한 6 개월이 증가했다. 평균 개월 수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독립한 기간이 길었다. 또한 최종 학력 이후(고졸 또는 대졸) 독립생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거주 주택 선택의 이유로는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라는 응답이 39.2%, 주거비가 저렴해서 29.7%, 내부환경이 좋아서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증가한 현재 거주 주택 선택의 이유로는 주거비가 저렴해서(3.8%포인트 ↑),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1.1%포인트 ↑) 내부환경이 좋아서(0.6%포인트 ↑), 자연환경이 좋아서(0.3%포인트 ↑)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주택의 공급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2022년에 비해 주거비 저렴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점(2022년 25.9% → 2022년 29.7%)은 저렴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상존함을 시사한다. 참고로 2022년에는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42.3%, 주거비가 저렴해서 25.9%, 같은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8.3%의 순이었다.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는 2022년 대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주거 독립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8.5%포인트나 증가하여 36.3%를 차지했으며, 만 19세 이후라는 응답도 0.7%포인트 증가한 4.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주거 독립을 할 수 있는 현실을 시사한다.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27.8%, 취업 이후 27.2%,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16.7%로 응답했다.

기숙사, 향토학사 거주 경험은 2022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한 25.5%,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은 2022년 5.6%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7.0%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봤다는 응답이 많았다(2022년 19~24세 공공임대주택 경험은 3.5%, 25~29세 5.8%, 30~34세 7.9%). 이러한 결과는 청년주거 정책으로 기숙사 확대,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49.6%(부모님 명의일 경우 자가로 응답하도록 했음), 전세 23.8%, 보증금 있는 월세 23.8%의 순이었으며, 자가는 2022년 대비 6.2%포인트 감소, 보증금 있는 월세는 4.8%포인트, 전세는 2.3%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54.6%)이 수도권(45.5%)에 비해 자가 응답이 많았다.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경

우 자가율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자가 55.8%, 전세 21.5%, 보증금 있는 월세 19.0%였다.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는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6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2%포인트 감소했으며, 본인 자금은 24.2%,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은 6.8%로 각각 2022년 대비 2.7%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에 본인 자금은 21.5%, 민간금융기관 자금은 6.5%였다. 단, 해당 문항은 자금의 출처이며, 금액이 많은 순서로 2개를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은 2022년과 보기가 다르다. 2024년은 아파트(56.0%), 단독주택·다가구 주택(19.7%), 연립주택·영업 겸용 단독주택(16.7%)의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아파트 62.8%, 다가구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22.5%, 일반단독주택 5.8%의 순이었다.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는 반지하·지하·옥상·옥탑이 1.0%로 2022년의 0.9%와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4%, 비수도권은 0.4%,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0%, 대학 졸업 이상 0.8%, 대학 재학·휴학 0.5% 순으로, 반지하·지하·옥상·옥탑에 거주하는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에 비해서도 1.0%포인트가 높았다.

2024년의 거주 주택 평균 면적은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방의 면적은 독립된 침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계산했으므로, 2022년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2024년 주택 전체는 77.8㎡, 본인 방은 15.8㎡였으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주택 전체 면적과 본인 방(침실)의 면적이 모두 넓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1순위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31.3%(2022년 41.0%), 전세 자금 대출 25.0%(2022년 23.9%), 주거비 지원 20.7%(2022년 17.3%)의 순이었는데, 1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지만 그 비율은 9.7%포인트 감소하고, 전세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같은 정책 수요가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41.0%, 전세 자금 대출 23.9%, 주거비 지원 17.3%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등의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수급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7천 가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71.7%로 2022년의 63.2% 대비 8.5%포인트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25~29세 76.1%, 19~24세 72.9%, 30~34세 66.1%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75.1%, 비수도권 67.5%였다. 여기에는 지역별 주거 여건 차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높다는 점은 청년용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6%로 2022년의 91.3%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22년 대비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이 소폭 하락한 것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하락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29.3%),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20.3%),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14.0%)의 순이었으며, 2022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2.1%포인트 ↑), 노후 보장을 위해서(2.5%포인트 ↑)가 있다.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75.7%로 2022년의 73.1% 대비 2.6%포인트 증가했으나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계속 거주 의사가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거주 의사가 높았으며, 대학 재학·휴학 청년들이 고졸 이하 청년과 대학 졸업 이상 청년에 비해 계속 거주 의사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종 학교 졸업 이후에 일자리 등에 따라 거주지 변화의 유동성이 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4년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31.6%),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20.2%), 더 나은 문화를 위해(19.5%)의 순이었으며, 2022년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29.6%),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20.5%),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18.1%)의 순이었다. 2024년은 모든 연령에서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3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서(4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지역 이주 의사는

일자리, 주거, 문화와 관련이 높고, 이는 다시 지역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 3. 건강

청년의 현재 흡연율은 23.5%로 2022년의 20.1%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37.7%, 여성 7.7%, 연령별로는 25~29세 구간에서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흡연율이 42.6%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로 정의한다.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고위험 음주율을 계산할 경우, 남성 12.7%, 여성 9.3%로 나타났으며, 연령 집단별로 남성은 30~34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5~29세 집단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았다.

청년 중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청년의 33.4%이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39.2%, 여성 27.1%였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7.9%, 여성 24.2%로 2022년의 남성 22.7%, 30.3%와 비교하여 각각 4.8%포인트, 6.1%포인트 감소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졌으며, 최근 러닝, 피트니스 등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청년 전체의 운동실천율은 32.6%였다.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49.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1.9%), 비용이 부담돼서의 순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대비,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53.3%),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4.2%)는 각각 4.3%포인트, 1.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외식 및 매식 빈도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회상 기간(변경 전: 1년, 변경 후: 1달)과 보기 항목을 수정했으므로, 2022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 한 달 동안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22.9%는 '대체로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중 24.9%, 여성 중 20.7%가 대체로 혼자 식사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 25~29세 연령 집단(25.9%), 고졸 이하 학력에서 혼자 식사하는 비율(25.9%)이 높았다. 2024년 3월 관계부처합동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450만 명분)에게 아침 식사비 1천 원 추가 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 중 절반 이상(50.6%)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한다는 청년의 비율이 10.0%이며, 성별로는 여성(8.8%)에 비해 남성(11.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집단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비율이 1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2022년 20.2% 대비 감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17.5%)보다는 여성(22.5%)에서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높았다(19~24세 집단에서 22.2%).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집단이 24.8%로 스마트폰 의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의 번아웃(소진) 경험을 살펴보면, 청년의 32.2%는 최근 1년 동안 소진을 경험하여 2022년 33.9% 대비 미세하나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28.6%)에 비해 여성(36.2%)의 소진 경험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34.8%)에서,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34.1%) 집단에서 소진 경험률이 높았다.

청년의 소진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9.1%),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가 과중해서’(18.4%),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15.6%),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와 삶의 불균형 때문에’(11.6%),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이유 중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은 19~24세 연령 집단(54.8%)과 대학 재학·휴학인 학력 집단(56.3%)에서 가장 많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는 30~34세 연령 집단(22.2%)과, 대학 재학·휴학 집단(2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에는 진로에 대한 불안 37.6%,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21.1%,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 14.0% 등의 순이었다.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년은 8.8%로 2022년의 6.1%와 비교하여 2.7%포인트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10.7%로 여성의 우울 증상 경험률이 3.5%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에서 10.1%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11.8%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2024년 3월 관계부처합동 「청년정책 추진 계획」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 연령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본인부담금 0~40%)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청년의 6.3%(2022년 5.6%)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남성(3.7%)에 비해 여성(9.0%)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7.3%)에서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6.9%)에서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로는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가 38.6%로 가장 높고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17.7%),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15.3%),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11.7%)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 27.5%,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 20.0%,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22년에 비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상담받을 시간이 없어서,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로 2022년의 2.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0%(2022년 1.8%), 여성 3.9%(2022년 3.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았고, 연령별로는 19~24세 2.1%, 25~29세 3.3%, 30~34세 3.2%로 유사했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4.7%로 높게 나타났는데, 2022년의 고졸 이하 3.2%와 비교하여 1.5%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중 약물 사용 경험은 수면제 4.2%, 신경안정제 4.2%, 각성제 1.2%, 마약성 진통제 1.0%, 식이·체중 조절 약물 5.1%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약물 사용이 더 많았는데, 특히 여성의 9.3%가 식이·체중 조절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면제 47.2%, 신경안정제 61.3%, 각성제 58.8%, 마약성 진통제 40.1%, 식이·체

중 조절 약물 60.3%로 조사되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의사의 처방 없이 혹은 처방보다 많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로 2022년의 12.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러한 오남용 경험은 인구집단별로는 남성 6.2%, 19~24세 8.0%, 대학 재학·휴학 12.4%에서 약물 오·남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의 평생 약물 경험은 신경안정제 4.3%, 수면제 3.8%, 각성제 1.0%였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식이·체중 조절 약물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평가한 청년은 61.1%로 2년 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2022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은 54.5%)했다. 여성(56.1%)보다는 남성(65.7%)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고졸 이하 청년 중 4.7%가 제한이 있다고 응답)로 2022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한 이유는 중복 응답하도록 했으며,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 44.7%, 근골격 질환 30.8%, 소화기 질환 19.4%의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에서는 성 건강과 관련된 의료 분야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성 건강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관련 정책을 개발·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 매개 질환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2024년 조사에서는 성 건강 관련 문항을 포함했다. 성 경험이 없거나 성관계가 없는 청년을 제외하고 성관계 시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41.9%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항상 피임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항상 피임하는 비율(40.3%)과 대부분 피임하는 비율(40.4%)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항상 피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19~24세에서 항상 피임하는 비율은 51.8%였다.

피임하지 않은(못한) 이유로는 피임을 하거나 성 경험이 없거나 성관계 상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임신을 원해서’(35.1%)가 가장 많았고, ‘피임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16.2%,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11.9%,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8.7%,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7.8% 등으로 조사되었다. ‘피임도구 사용

이 불편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11.3%)보다 남성(20.6%)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피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4. 교육·훈련

청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82.2%, 특성화고 8.7%, 자율고 3.7% 순이었으며, 2022년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등이었다.

고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0.4%,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5.4%,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11.7% 순으로 나타나 고졸 청년들의 일자리의 양과 질의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2년의 분석 결과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30.8%,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6.8%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직업계고 중심으로 지자체-지역대학-기업이 협업하여 지역 고졸 인재를 육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생 및 대졸자의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 유형은 일반 4년제 대학 78.2%, 2~3년제 대학 18.8%, 교육대학 0.6%, 기능대학 0.6%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일반 4년제 대학 비율이 82.1%, 25~29세는 77.2%, 30~34세는 75.1%였다.

대학생 및 대졸자의 주 전공 계열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8.0%, 보건 및 복지 14.6%, 예술 및 인문학 14.4%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공학, 제조 및 건설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보건 및 복지라는 응답이 20.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과 예술 및 인문학이 각각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은 공학, 제조 및 건설 19.3%, 보건 및 복지 18.0%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공학, 제조 및 건설 18.2%, 보건 및 복지 14.8%, 예술 및 인문학 14.6%의 순이었다.

대학 습득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5%로 2022년 대비 7.4%포인트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가 72.0%, 25~29세 61.8%, 30~34세 59.8%였으며,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 72.6%, 대학 졸업 이상 61.9%였다.

취업을 하려고 대학(학부) 교육 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0%로 연령별로는 25~29세 31.8%, 30~34세 29.7%, 19~24세 22.5%였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 30.9%, 대학 재학·휴학 19.3%였으며, 2022년은 32.4%, 2024년은 28.0%로 4.4%포인트 감소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받은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71.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2022년 71.2%와 유사했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73.5%, 25~29세가 72.1%, 30~34세 68.0%였다.

청년들이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 특정 직종 관련 직업 훈련 22.6%,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3%, 어학 교육 14.6%, 고용 상담 12.1%, 받고 싶지 않음 21.6%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22.0%),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20.5%), 어학 교육(17.1%) 순(받고 싶지 않음 16.2%)이었고, 25~29세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3.2%,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5%, 어학 교육 14.1% 순(받고 싶지 않음 22.8%)이었다. 30~34세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3.9%,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16.5%), 창업 교육 13.0%(받고 싶지 않음 25.5%)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는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6.3%,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0%, 창업 교육 13.5%(받고 싶지 않음 26.1%), 대학 재학·휴학은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21.4%, 어학 교육 20.1%,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19.5%(받고 싶지 않음 14.2%), 대학 졸업 이상은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22.5%,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8.7%, 어학 교육 15.0%(받고 싶지 않음 22.8%)였다.

## 5. 노동

취업자 비율은 67.7%로 2022년의 67.4%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체 청년 중 남성, 비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청년에서 상승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67.5%(2022년 대비 0.3%포인트 ↑), 여성이 67.9%(2022년 대비 0.3%포인트 ↑)였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가 4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학업 참여가 높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5~29세는 75.7%, 30~34세는 80.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9.3%, 비수도권에서 65.8%로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높은 경제활동 기회 및 직장 밀집도가 원인일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취업 경험의 격차도 명확했다. 대학 졸업 이상은 77.0%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은 33.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이 학업 병행으로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고졸 이하 청년층은 75.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 휴직을 나타내는, 지난주(24.6.9.~6.15.)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7.1%로, 연령별로는 30~34세(19.3%)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8.7%)이 남성(5.6%)보다 더 높았다. 2022년 일시 휴직 비율은 3.5%였다.

일시 휴직의 주된 이유는 '휴가 및 연가'가 53.0%로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 '육아' 22.3%, '교육 및 훈련'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한 휴직이 36.9%로 남성(2.1%)보다 월등히 높아,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노동시장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휴가·연가 40.3%, 육아 23.6%, 기타 14.2% 등의 순이었다.

복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 비율은 5.5%로 2022년(3.9%)에 비해 일자리가 여러 개인 청년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5.9%로 남성(5.1%)보다 약간 높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6.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에 비해 비수도권(6.3%)에서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고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복수 일자리는 청년들의 부수익 창출을 통해 더 많은 노동소득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자리 질이 낮아서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청년들이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복수의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에서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소득(세금 공제 전)은 198만 원, 복수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의 일자리 소득(세금 공제 전)은 270만 원이었다. 비수도권, 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복수 일자리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중 임금근로자는 90.7%이며, 상용근로자가 70.7%, 임시근로자가 14.3%, 일용근로자가 5.8%였다.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 비중이 높았다.

지금 하는 일이 일 경험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3.7%로 2022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9~24세의 일 경험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는 3.4%, 30~34세는 1.9%였다(2022년 조사, 19~24세 8.1%, 25~29세 5.0%, 30~34세 2.8%).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3.8%,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 8.9%, 대학 졸업 이상 2.9%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일 경험 비율이 4.0%로 수도권 3.5%에 비해 0.5%포인트 높았다(2022년 비수도권 5.2%, 수도권 4.8%). 정부는 2024년 3월 관계부처합동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 지역의 일 경험 확대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일 경험 비율은 고졸 이하 5.5%, 대학 재학·휴학 5.6%, 대학 졸업 이상 4.8%였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12.9%), 도매 및 소매업(10.8%), 숙박 및 음식점업(9.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 고용의 약 33.4%가 전통적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과 정보통신업(6.2%) 등도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17.4%)과 도매 및 소매업(10.8%)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전통적으로 남성 고용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3%), 숙박 및 음식점업(11.1%), 교육서비스업(11.1%)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고용이 활발한 서비스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21.4%)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고용 형태가 이 연령대에서 많음을 시사한다. 25~29세, 30~34세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제조업(11.2%), 도매 및 소매업(12.1%)이 주요 고용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업(8.0%)의 비율도 비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제조업(15.0%)과 숙박 및 음식점업(10.3%),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4%)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관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일하는 곳(직장(사업체))의 규모는 10~29명 규모의 직장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0~99명(17.4%), 5~9명(16.5) 규모의 직장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직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

우 중대형 직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중규모 이상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2~4명의 영세 소규모 직장 비율(22.2%)이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서 10~29명(22.3%) 및 30~99명(20.0%) 규모의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직장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10~29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직장의 재직 기간은 1년 미만 28.1%(2022년 32.7%), 1~3년 미만 32.3%(2022년 31.7%), 3년 이상이 39.7%(2022년 35.6%)이며, 평균 근속 기간은 35개월(2022년 31.6개월)이었다. 현재 직장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2년 대비 4.6%포인트 하락, 3년 이상은 4.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근속 기간은 2022년 대비 3.4개월 증가했다. 재직 기간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19~24세 청년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57.1%로 가장 높고, 25~29세는 1~3년 미만 재직 비율이 39.1%로 가장 높으며, 30~34세는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기 취업연령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이 쌓이며 장기 근속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1.2%로 여성(37.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1년 미만 재직 비율이 30.1%로 남성(26.2%)보다 높아, 여성의 경력 초기 단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1.0%로 비수도권(37.9%)보다 높아, 수도권에서 장기 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 1~3년 미만 비율(32.1%) 및 3년 이상 비율(39.2%)로 나타나며,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의 1년 미만 비율이 68.2%로 학업 병행으로 인한 단기 근로가 많은 특징을 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 청년은 3년 이상 재직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 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30대 청년층에서 장기 근속 비율이 증가하여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안정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무 자율성은 일하는 순서(69.8%), 일의 내용(59.6%), 일의 양(56.3%), 일하는 시간(44.8%), 일하는 장소(34.0%)의 순이었다. 일하는 순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은 2022년 대비 감소하고, 일의 양, 일하는 장소, 일의 내용의 자율성은 증가했다(2022년에 일하는 시간 45.3%, 일하는 장소 33.1%, 일의 양 53.3%, 일의 순서 87.2%, 일의

내용 56.8%). 일의 내용과 양은 시간과 장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업무 자율성에서 더 높은 자율성을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업무 자율성이 조금씩 증가하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으며, 제약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의 내용, 시간, 장소, 양, 순서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나 사회의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환경 변화와 청년들의 관점에서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은 18.0%(2022년 18.2%), 기술 변화로 인해 사라질 일이라는 응답은 18.2%(2022년 14.4%),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응답은 7.8%(2022년 5.7%)였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기술 변화로 인해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3.8%포인트 ↑),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2.1%포인트 ↑), 비슷한 일 찾을 수 없음(0.2%포인트 ↓)의 순이었다. 정부는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주도의 청년 맞춤형 훈련 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 일함)는 80.4%로 2022년 78%에서 2.4%포인트 상승했고 시간제는 19.6%로 2022년 22%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청년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83.9%)이 여성(76.5%)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여성 근로자의 23.5%는 36시간 미만 근로하여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짧은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36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89.5%로 가장 높았고, 19~24에서 51.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0.9%)과 비수도권(79.7%)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의 36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88.2%로, 다른 학력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가 근로 희망 여부의 경우, '다른 일도 하고 싶음' 12.8%,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11.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9.1%로, 2022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추가 근로 희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은 비율이 1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연령대에서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추가 소득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주에 추가 근로를 희망한 청년 중 실제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46.3%,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53.7%였다. 이는 추가 근로를 희망한 청년 중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의 구직 경험 비율이 42.4%로 여성(49.0%)보다 낮게 나타나며, 추가 근로를 위한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대의 청년들이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비율이 5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구직 경험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활동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추가 근무 주당 평균 횟수는 0.7회이며, 이 중 71.8%가 추가수당을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는 평균 0.2회였으며, 76.2%가 추가수당을 수급받았다. 남성의 추가 근무 횟수(0.8회)가 여성(0.6회)보다 높았으며, 추가수당 수급 비율도 남성(73.4%)이 여성(6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 청년층에서 추가수당 수급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고, 휴일 근무 수당 수급 비율도 82.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6.5%)보다 비수도권(77.7%)의 추가수당 수급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청년들이 추가 근로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군에서 추가수당 수급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아, 고졸 이하에서 근로시간 외 보상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은 14%로, 2022년 13.2%에서 0.8%포인트 상승했다.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2022년 평균 4.8개월보다 1.7개월 증가했다. 구직자는 2022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것에 반해, 구직활동 기간은 1.7개월이 길어졌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7개월(2022년 5.1개월), 비수도권은 5.8개월(2022년 4.5개월)이었다. 지난주 직장(일)을 희망했다는 응답은 7.6%로 2022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참고로 구직 활동 기간은 2022년, 2024년의 보기 문항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이 57.9%로 2022년의 48.5%에 비해 9.4%포인트나 상승하여 청년들의 고용 여건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고용 안정성(9.9%)과 근로시간(7.6%)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2022년

에는 임금(48.5%), 고용 안정성(12.8%), 장기적 진로 설계(8.4%), 근로시간(7.2%) 순). 더불어 본인의 장기적인 진로 설계 역시 5.4%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성은 59.5%, 여성은 56.1%로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근로시간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9.2%로 남성의 6.2%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들이 임금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아 학력 수준에 따른 경제적 우선순위 차이가 드러났다. 고졸 이하 청년들은 임금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대졸 이상은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및 학력 수준에 따라 구직 시 고려하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과거 취업 경험은 41.5%가 있다고 응답했고 2022년에는 46.2%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45.5%)이 남성(37.9%)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 대학 재학·휴학에 비해 취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취업 경험 비율이 55.3%, 대학 재학·휴학자는 15.6%, 대학 졸업 이상은 46.4%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대부분이 2019년 이후부터 최근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6.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10.7%, 그리고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가 9.2%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18.9%로 여성의 15.6%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의 응답 비율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육아 및 가사 부담'이 14.6%로 남성의 0.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학업을 계속 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22.1%로 높았으며, 30~34세에서는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의 비율이 17.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응답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응답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20.0%)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근무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17.3%),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유지

하는 데 있어 적성과 근무 환경이 주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특별히 없었음(47.4%)을 제외하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이 9.7%,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이 6.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점에 유사하게 응답했으나, 여성은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의 비율이 6.2%로 남성의 1.0%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층에서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의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반면, 25~34세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후 생계와 재취업 관련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및 기회 부족 문제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참고로 2022년 대비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4.2%포인트 증가했다.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 중 23.8%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2년 19.6%에 비해 4.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3%, 여성이 27.0%로, 여성의 수급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 비율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2.6%, 비수도권에서 25.2%로 비수도권의 수급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에서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대학 재학·휴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로 80.1%를 차지했으며, 이어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는 3.9%,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는 3.4%로 응답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76.1%, 여성은 84.1%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에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돼서'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 대상이 아니

어서'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받지 못한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주요 수급 장애 요인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청년층의 고용 형태와 제도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층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비율이 높은 것은 육아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해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년간 근로 경험은 90.8%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도권 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교 재학 중인 경우보다 졸업한 경우 근로 경험이 미세하게 더 많았다.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이유로 쉰 경험은 15.6%로 2022년 대비 4.1%포인트가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성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쉰 비율이 16.1%, 여성은 15.0%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쉰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층에서 14.5%로 가장 낮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소득 없이 쉰 경험은 학력 수준이 낮거나 19~24세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계층의 원치 않는 소득 공백 경험이 늘어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는 32.4%(2022년 30.6%)만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3.7%, 여성은 31.1%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도 남성(43.5%)이 여성(42.9%)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정책 인식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34세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19~24세는 55.7%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책 인식에서 연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직장 경험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이상의 응답자는 37.8%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휴학자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3.2%로 가장 높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 작동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54.0%는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으며, 직장에서 괴롭힘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면, 23.6%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 중 55.3%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52.4%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괴롭힘 사실을 직장이 알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3.5%)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5.0%) 나타났다. 이는 여성 응답자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나 대응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51.7%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6.7%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응답은 수도권(17.8%)이 비수도권(10.0%)보다 높아, 지역별로 괴롭힘 대응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한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각 항목에 대해 주 2회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은 14.3%였다.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20.3%, 과중한 업무 14.3%, 성과와 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8.1%,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5.6%,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5.6%, 안전·보호장비 미비 2.9%로 나타났으며, 2022년은 2024년에 보기 문항을 변경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 6. 관계 및 참여

어려울 때 각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가족 82.6%, 지인 17.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9.9%, 공공기관 7.5%, 민간기관 1.5%의 순이었고, 같은 응답에 대해 2022년에는 가족 92.8%, 지인 33.5%, 공공기관 10.7%,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3.3%, 민간기관 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한 비율은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차이가 2022년에는 크지 않았지만, 2024년에 남성 청년의 비율은 두 자릿수를 넘었다(11.5%).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별 격차는 2년 사이에 더 벌어졌다. 30~34세에서 비율이 7.7%p(4.4% → 12.1%)로 증가하는 동안, 19~24세 연령대에서는 비율이 5.0%p(2.6% → 7.6%) 증가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가족 84.4%, 지인 20.2%,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7.3%, 공공기관 3.2%, 민간기관 0.9%였고, 2022년에는 가족 93.4%, 지인 33.3%, 공공기관 5.1%,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3%, 민간기관 1.0%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앓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는 가족 85.6%, 지인 24.3%,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6%, 공공기관 4.7%, 민간기관 1.5%로 나타났으며, 동일 문항에 대해 2022년에는 가족 94.8%, 지인 41.1%, 공공기관 6.6%, 민간기관 2.1%,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1.2%였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는 가족 62.2%, 지인 55.3%,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8.1%, 공공기관 3.7%, 민간기관 2.3%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문항에 대해 2022년 조사 결과 가족 76.5%, 지인 66.0%, 공공기관 6.1%, 민간기관 4.0%,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2%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2%로 2022년 76.5%에서 낙폭이 컸다. 앞에서 '큰돈이 필요한 상황(82.6%)보다도 비율이 낮았다. 그 대신, 친구나 이웃 등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3%(2022년 66.0%에서 하락)였다. 이 수치는 '큰돈이 필요할 때'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17.5%)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는 가족 60.9%, 지인 46.0%, 공공기관 16.1%,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8.9%, 민간기관 3.8%였다. 또한 2022년에는 가족 77.4%, 지인 53.3%, 공공기관 23.5%, 민간기관 5.0%,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3.4%였다.

다음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가족 71.5%, 공공기관 16.4%,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7%, 지인 5.1%, 민간기관 1.4%였으며, 2022년에는 가족 68.8%, 공공기관 18.7%, 지인 8.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4%, 민간기관 1.5%였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원하는 집단을 보면, 가족(71.5%), 공공(16.4%), 지인(5.1%), 민간기관(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집단에게도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7%였다. 2022년에는 각각의 비율이 가족(68.8%), 공공(18.7%), 지인(8.5%), 민간기관(1.5%), 없음(2.4%)이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는 가족 73.8%, 공공기관 12.4%, 지인 7.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3%, 민간기관 1.0%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가족 72.8%, 공공기관 13.7%, 지인 10.4%,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2%, 민간기관 0.9%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가족 72.7%, 공공기관 12.1%, 지인 10.3%,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1.5%, 민간기관 1.1%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가족 73.6%, 공공기관 12.7%, 지인 10.8%,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1.5%, 민간기관 1.4%로 나타났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는 가족 43.6%, 지인 40.5%, 공공기관 8.6%,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5%, 민간기관 1.8%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가족 46.0%, 지인 39.2%, 공공기관 9.2%, 민간기관 2.8%,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7%였다.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는 가족 42.8%, 지인 26.0%, 공공기관 23.7%,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5.2%, 민간기관 2.3%였으며, 2022년에는 가족 46.1%, 공공기관 28.0%, 지인 20.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2.9%, 민간기관 2.5%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7.1%로 2022년 37.5%에 비해 10.4%포인트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31.1%), 25~29세(27.8%), 19~24세(22.3%)였다.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그다지 관심 없다 40.0%, 약간 관심 있다 32.7%, 전혀 관심 없다 22.5%, 매우 관심 있다 4.8%로 나타났다.

한편,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는 25.6%(2022년 23.8%),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5.8%(2022년 37.0%),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6%(2022년 18.8%)로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치·사회 참여활동 경험 중에서 2022년 대비 증가한 경험은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직접 제출하기 5.6%(2022년 3.8%),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3.5%(2022년 2.3%),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4.5%(2022년 4.3%)였다. 지난 2022~2024년 청년들의 저항도·고강도 정치적 참여 경향을 보면, 흥미로운 추이가 발견된다. 해당 기간에 저항도 정치적 참여는 감소한 반면, 고강도 정치 참여의 비율은 모두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면 좋다 71.7%, 꼭 필요하다는 인식 17.5%, 할 필요가 없다 10.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 비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는 하면 좋다 67.2%, 꼭 필요하다 24.3%, 할 필요가 없다 8.5%였다.

지난 1년간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면 좋다 67.4%, 꼭 필요하다 23.2%, 할 필요가 없다 9.3%였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연령은 19~24세가 가장 높고, 25~29세, 30~34세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하면 좋다 63.3%, 꼭 필요하다 30.5%, 할 필요가 없다 6.2%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여행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면 좋다 59.4%, 꼭 필요하다 34.9%, 할 필요가 없다 5.7%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폭 높았고, 연령별로는 비슷했다. 2022년에는 하면 좋다 53.2%, 꼭 필요하다 44.0%, 할 필요가 없다 2.8%였다.

지난 1년간 여가 관련 단체, 동호회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면 좋다 70.8%, 할 필요가 없다 15.4%, 꼭 필요하다 13.8%였다. 2022년에는 하면 좋다 65.4%, 할 필요가 없다 19.6%, 꼭 필요하다 15.0%였다.

지난 1년간 경험한 문화여가 활동 경험은 여행 67.0%, 스포츠 활동 39.5%, 문화예술 활동 32.2%,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24.3%였다. 문화예술 활동 경험 여부는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와 그 이상과의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경험은 성별 차이와 학력별 차이가 비교적 컸다. 2~3일 정도의 여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력별로 고졸 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의 경험 여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네 가지 영역에서 지난 2022~2024년 사이에 참여 비율은 변화를 보였는데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여행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문화예술, 단체/동호회 활동 순서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35.0%, 할 필요가 없어서 23.6%,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17.0%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45.1%, 할 필요가 없어서 17.9%,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17.8%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37.5%, 할 필요가 없어서 23.4%,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15.5%라 응답했고, 2022년

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48.4%,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16.9%, 할 필요가 없어서 16.5%였다.

지난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행 활동을 못 한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36.8%,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32.9%, 할 필요가 없어서 15.1%의 순이었고, 2022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49.4%,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29.6%, 할 필요가 없어서 8.9%였다.

지난 1년간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31.1%, 할 필요가 없어서 30.0%,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3.2%였으며, 2022년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34.7%, 시간이 부족해서 33.1%,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11.3%였다.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대면,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해서는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은 13.8%로 2022년 13.6%와 유사했고,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근소하게 증가했다. 고졸 이하 학력 집단(20.3%), 남성(15.7%), 25~29세(14.9%), 비수도권(14.6%)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만 외출하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청년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또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한 고립·은둔 청년은 5.2%(2022년 2.4%)였다.

평소 외출 빈도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평소 외출 빈도를 산출한 것이다. 현재의 외출 상태가 지속된 이유와 지속 기간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외출하는 경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경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했다. 2022년에 비해 지속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22년에 비해 증가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 이유는 2022년에 비해, 학업의 중단, 대학 진학의 실패,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다.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2022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이유로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3.8%포인트), 학업의 중단으로(3.2%포인트),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2.8%포인트), 대학 진학의 실패로(1.2%포인트)였다.

## 7. 사회 인식·미래 설계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2022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1점, 행복감 6.80점, 자유로운 선택 6.92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6점이고, 2022년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2점, 행복감 6.89점, 자유로운 선택 6.9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는 5.20점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고졸 이하나 대학 졸업 이상에 비해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았다.

집단 사이의 갈등 인식은 202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여, 부유층과 서민층의 계층 갈등은 75.7%,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갈등은 72.1%,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갈등은 66.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갈등은 62.5%,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갈등은 47.1%로 나타났다. 갈등 인식에 있어서는 학력별로 차이가 눈에 띄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이상 74.0%, 대학 재학·휴학 70.4%, 고졸 이하 67.5%의 순이었다. 부유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이상 77.1%, 대학 재학·휴학 74.0%, 고졸 이하 72.6%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이상 64.7%, 대학 재학·휴학 60.5%, 고졸 이하 56.9%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인식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이상 68.3%, 대학 재학·휴학 67.4%, 고졸 이하 59.7%였다. 한편,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별 인식에 있어 다른 갈등과 비교하여 조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학 졸업 이상 48.7%, 고졸 이하 45.4%, 대학 재학·휴학 43.5%. 성별로는 여성(50.8%)이 남성(43.8%)에 비해 높고, 연령별로는 30~34세 50.0%, 25~29세 46.5%, 19~24세 44.7%였다.

성별, 연령, 지역, 학력에 따른 갈등 인식 정도는 당사자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유관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59.4%, 비수도권은 66.1%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갈등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갈등 인식은 성별 차이가 작아서(여성은 67.2%, 남성은 66.1%),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더불어 긍정적인 시각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성(50.8%)이 남성(43.8%)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

시장, 계층, 정치적 문제 등에서 갈등이 유발되거나 갈등이 다뤄지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술·산업구조 변화, 테러리즘,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22년 대비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안별 위협 인식이 심각한 순서로는 저출생·고령화 92.2%, 기후변화 89.2%, 불평등 82.6%, 테러리즘 79.7%, 기술·산업구조 변화 77.7%였고, 기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은 2022년 대비 1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중간층 52.9%(2022년 56.5%), 중하층 30.9%(2022년 26.5%), 중상층 9.5%(2022년 11.6%), 하층 6.1%(2022년 4.7%), 상층 0.6%(2022년 0.7%) 순으로 나타나 2022년 대비 중하층과 하층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상층과 상층이라고 여기는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19~24세가 25~29세, 30~34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중상층 혹은 상층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고졸 이하나 대학 졸업 이상에 비해 중상층 혹은 상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6.82로 작년 대비 소폭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대물림은 7.23으로 강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매우 소폭 상승한 5.01점,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6.77).

2022년에는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 6.94, 소득 대물림 인식 7.16,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대 개인 역할 인식 4.92,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이 6.83점이었다.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정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물림 인식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대 개인 역할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정도가 소폭씩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서는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는 2022년 대비 증가(27.2%)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어릴수록,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동의 정도는 2022년 대비 감소한 71.6%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소폭씩 높았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한 동의 정도는 202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로 2022년 대비 연애, 자녀 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 수준, 내가 원하는 일자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감소했다. 그리고 결혼, 명예와 권력은 증가했다. 사회 기여는 동일했다. 2022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 감소하거나 증가한 쪽은 그리 크지 않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합했을 때의 비율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95.9%,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93.0%, 연애 78.3%, 결혼 74.4%, 사회 기여 71.8%, 자녀 출산과 양육 69.0%, 명예와 권력 62.2%, 높은 학력 수준 60.8%이었다. 이 중에서 높은 학력 수준과 명예와 권력만 제외하고 2022년과 순서가 동일하다. 2022년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97.4%,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95.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93.7%, 연애 80.9%, 결혼 74.2%, 사회 기여 71.8%, 자녀 출산과 양육 69.3%, 높은 학력 수준 61.8%, 명예와 권력 59.1%의 순이었다. 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의 의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92.4%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슷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2022년 5.2%에서 2024년 7.6%로 증가했다.

집단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고졸 이하 청년의 13.7%가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에는 ‘전혀 실현할 수 없다’ 5.2%,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87.6%,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7.2%로 나타났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나의 노력 97.8%,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94.8%, 정부의 정책 지원 89.3%, 나의 교육 수준 87.4%, 부모의 경제력 83.0%, 부모의 교육 수준 61.4%였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 증가와 더불어, 사회자본, 부모세대로부터 이전되어 온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커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년에는 나의 노력 98.6%,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95.0%, 나의 교육 수준 88.4%, 정부의 정책 지원 86.8%, 부모의 경제력 80.3%, 부모의 교육 수준 55.3%로 분석됐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갖추고 있음’과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합했을 때, 나의 노력 75.7%,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75.5%, 나의 교육 수준 72.2%, 부모의 교육 수준 66.3%, 부모의 경제력 55.5%, 정부의 정책 지원 33.4%였다. 2022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력 61.6%, 부모의 교육 수준 70.1%, 나의 교육 수준 76.4%, 나의 노력 78.7%,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76.0%, 정부의 정책 지원 32.3%이었다. 모든 항목이 2022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은 소폭(1.1%포인트)나마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주거 정책 45.7%, 일자리 정책 33.5%, 복지·문화 정책 14.1%, 교육 정책 5.5%, 참여·권리 정책 1.2%로 나타났으며, 19~24세와 대학 재학·휴학의 경우에는 일자리 정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경제

월평균 생활비와 연간 소득은 2023.1.1.~2023.12.31. 기준으로 조사했고, 부채 및 재산은 2023.12.31. 기준으로 조사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생활비의 기준은 2022년과 다르다. 2022년에는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포함한 총지출을 조사했으나 2024년에는 세금, 사회보험료,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소비지출에 한정하여 생활비를 조사했다. 또한 조사 항목으로 제시된 일곱 가지의 생활비를 더한 금액이 총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에 따르면, 가구 총생활비는 월평균 213만 원이고, 중위 200만 원이었다. 항목별 가구 지출은 식료품비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 주거관리비 15만 원, 교통비 22만 원, 통신비 14만 원, 주거비(월세) 13만 원, 교육비 10만 원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19~24세 청년의 가구 생활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비를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비가 높았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는 220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생활비 206만 원보다 높으며,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인 청년 가구의 생활비가 236만 원으로 가장 높는데, 이 역시 대학 재학·휴학 상태인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학 졸업 이상의 순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의 생활비는 185만 원으로 가구주가 청년이 아닌 가구의 생활비 264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균등화 가구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 148만 원, 가구주가 청년이 아닌 경우 147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소득에 대한 조사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같은 소득원천별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 개인의 소득만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청년이 가구

주가 아닌 경우 가구의 소득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가구 총소득은 2022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공적 이전소득 중 청년과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주요 공적 급여를 가구와 청년 개인에 대해 수급 금액을 조사하였던 것을 2024년에는 청년 개인의 수급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연간 총소득은 가구 5,140만 원 청년 개인 2,625만 원으로 2022년 대비, 가구 소득은 감소하고 청년 개인 소득은 증가했다.

가구 소득의 감소는 조사 대상 중 2024년 청년 가구주 가구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5,140만 원이며, 중위값 기준으로 4,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5,203만 원으로 남성 청년 가구 5,07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가구 규모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 총소득은 반대로 남성 청년 가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높은 연령대에서 가구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5,394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총소득 4,893만 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할 경우에도 수도권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균등화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는 대학 재학·휴학 청년 가구의 총소득이 가장 낮게 분석됐다.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와 청년이 아닌 가구의 총소득은 차이가 컸다. 하지만 균등화 가구 총소득을 보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 가구 총소득 3,442만 원, 비청년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 가구 총소득 3,692만 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청년 개인의 총소득은 평균 2,625만 원, 중위값은 2,82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의 총소득이 2,785만 원으로 여성 2,448만 원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 총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의 개인 총소득은 2,752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개인 총소득 2,472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820만 원, 대학 졸업 이상 3,161만 원인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에는 878만 원으로 낮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개인 총소득은 3,285만 원으로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의 개인 총소득 1,931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451만 원, 사적 이전소득 94만 원, 공적 이전소득 45만 원, 재산소득 34만 원 순으로 2022년 대비, 전 항목(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에서 증가하였다. 청년의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 보면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데 비해, 공적 이전소득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19~34세가 연간 193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는데, 대체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청년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높으나,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비수도권 청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105만 원, 고졸 이하 청년이 2,679만 원이며, 대학 재학·휴학 청년은 592만 원으로 낮았다. 대학 재학·휴학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은 연간 252만 원으로 다른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적 이전소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3,068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 1,802만 원보다 크게 높았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 또한 연간 127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사적 이전소득 59만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적 급여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7.2%,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장려금 6.2%, 실업급여 3.2%, 취업지원 관련 수당 2.9%,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2.0%이었다. 30~34세는 연령 특성상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장려금 지급 비율(14.8%)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은 고졸 이하 청년의 지급 비율이 11.7%로 다른 학력 상태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성별 지급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공적 급여는 여성 청년의 지급률이 남성 청년의 지급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취업지원 관련 수당은 30~34세의 경우 20대보다 지급률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수도권 청년의 지급률이 높은 반

면, 나머지 공적 급여는 비수도권 청년의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수급률이 9.5%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의 수급률 2.7%보다 크게 높았다.

2024년 조사에서는 부채와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청년 개인의 상태만 조사하고 가구 상태에 대한 조사는 제외하였다. 이것 역시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의 부채와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가구의 부채총액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22년의 조사에 없었던 재산총액을 가구와 청년 개인에 대해 모두 추가하였다. 또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부채와 재산에 대한 세부 항목은 청년의 특성 파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의 부채총액은 가구는 3,884만 원, 청년 개인은 1,637만 원으로 2022년 대비 가구는 감소하고 개인은 증가했다. 가구 기준으로 학력과 총부채는 비례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부채 수준도 증가했다. 개인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채가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 수준도 높아졌으며, 30~34세의 경우에는 3,265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많이 났다.

수도권 청년의 부채총액도 가구와 개인 모두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부채총액은 청년의 학력이 높을수록 커지지만, 개인 부채총액은 대학 재학·휴학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 개인'의 부채총액은 2,790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 개인 부채총액 424만 원과 차이가 컸다.

유형별 청년(개인) 부채액은 모든 항목에서 부채 수준이 증가했다. 학자금 부채는 68만 원,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는 73만 원, 주택 관련 부채 1,166만 원, 생활비 부채 35만 원이었다. 이는 저소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는 햇살론유스의 지속 공급과 함께 부채 경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관리 제공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택 관련 부채는 30~34세가 2,487만 원으로 25~29세, 19~24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 개인의 부채를 주요 용도별로 보면, 학자금 부채가 68만 원, 자산투자 목적의 부채가 73만 원,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 생활비 부채가 35만 원으로 나타났

다. 자산투자 부채와 주택 관련 부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학자금 부채를 제외하면 모든 용도의 부채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청년의 생활비 부채가 80만 원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0.6%였는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2.1%로 나타났다. 단, 2022년에는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산총액을 살펴보면, 가구 기준 2억 4,505만 원, 개인 기준 5,012만 원이었다. 가구 재산총액은 청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개인 기준으로 보면 19~24세는 1,398만 원, 25~29세 4,374만 원, 30~34세 9,166만 원으로 연령과 비례했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3억 1,625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 1억 7,580만 원과 차이가 크며,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도 수도권이 5,606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4,291만 원보다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은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가 가장 높으나, 청년 개인의 재산총액은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재산총액은 1억 3,724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청년 가구의 재산총액 4억 4,451만 원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개인 재산총액은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청년이 7,526만 원으로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의 2,365만 원보다 높았다. 재산총액은 2024년의 신규 문항이다.

청년(개인) 보유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재산 1,378만 원, 주식 240만 원, 가상자산 28만 원, 기타 부동산 및 재산 795만 원으로 2022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금융재산과 주식은 감소하고, 가상자산과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소폭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금융재산 1,415만 원, 주식 259만 원, 가상자산 25만 원, 기타 부동산 및 재산 760만 원이었다. 금융재산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주식에는 채권과 펀드가 포함된다. 금융재산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으나,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재산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액수가 커졌다. 지역별로는 금융재산과 주식은 수도권 청년이 높은 반면, 가상자산과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비수도권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모든 유형의 재산이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순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조사 발전을 위한 검토

### 1.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 정확성 제고 검토: 청년 삶 실태조사의 소득 정보를 중심으로

#### 가. 행정 자료 연계의 유용성

조사 자료는 응답자의 기억(회고),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자가 문항에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할지 확답하기 어렵다.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우호적인 응답자라 하더라도, 많은 조사 문항으로 인한 피로, 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문항의 순서나 배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도 응답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Nelson & Oxley, 1999; Fernández-Albertos & Kuo, 2018), 이는 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영, 김진교, 2006). 게다가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표본)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확률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원진, 2024, p.1).

객관적으로 수량화되는 소득에 한해 살펴보더라도 응답자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차적으로는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Bublitz, 2022; Fernández-Albertos & Kuo, 2018). 예컨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은 월 단위로 계좌로 입금된 세후 급여 수준만을 알고 있다. 비정형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이 세전 소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조사에 매우 협조적인 응답자라 하더라도 많은 실태조사에서 요구하는 원천별 소득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응답자 입장에서는 조사가 어렵기에 대략적인 값을 응답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히핑(heap) 현상(Gideon, Helppie-McFall & Hsu, 2017)이라 일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논의되기도 한다(홍민기, 배기준, 이상호, 2014; 박승환, 2022; 이혜정, 2022; Drechsler

& Kiesl, 2016; Zinn & Würbach, 2016).

그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고소득층은 과소 보고, 저소득층은 과대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김낙년, 김종일, 2013; 김낙년, 2020; Cifaldi & Neri, 2013). 설문 문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부정확한 응답으로 인한 측정오차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겠지만, 설문 문항 축소는 알고자 하는 현상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한다.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 간에 일종의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득에 한해서는 총소득 수준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지만,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세부 항목별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을 세분화하여 물어야만 한다.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결합하는 것은, 양질의 정보가 가지는 두 요건, 정확성과 충분성의 상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Penner & Dodge, 2019; Cole, S, Dhaliwal, I., Sautmann, A. & Vilhuber. L., 2022). 응답자에게 응답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일부 객관적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 자료로 대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행정 자료 활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유종성 외, 2020; Cole, S, Dhaliwal, I., Sautmann, A. & Vilhuber. L., 2022). 그리고 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 산출의 기초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정보의 비정확성을 국세청 행정 자료와 연계하여 이를 일정 부분 보정하였다(김낙년, 2020). 실태조사와 행정 자료 연계 사례도 늘고 있다(천재영 외, 2023;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조사되는 「청년 삶 실태조사」는 19~34세 약 15,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표본 수가 비교적 큰 조사이다. 전수 조사인 행정 조사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표본 조사로는 상당히 큰 편으로, 청년의 세부 특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다. 하지만 총 8개 영역(일반 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 인식·미래 설계, 경제) 500여 문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조사이므로 응답자가 한 번에 응답하기는 녹록지 않은 조사이다. 소득에 한해서만 살펴더라도, 세부 항목별 응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제2장의 <표 2-2-9> ‘조사 내용에서 변동된 내역 요약 H. 경제’에서와 같이, 2024년 조사에서는 2022년

조사보다 질문을 간소화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는 조사 특성 상, 조사된 소득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정세정 외(2022)에서도 청년 통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제언으로 소득이나 공적 사회보장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정세정 외, 2022, pp. 448-449).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행정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하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국세청 소득 정보 자료가 연계된 사회보장 행정 자료를 비교하여 행정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개선 효과와 결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2022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보장 행정 자료와 실태 파악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현재, 공개된 2기 사회보장 행정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소득과 관련해 청년 삶 실태 조사는 작년(t-1)의 연간 소득을 파악하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1년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3년의 소득 정보를 조사한다. 이에 2기 사회보장 행정 자료와 소득 정보 시점이 동일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해 행정 자료와 비교한다.

#### 나. 행정 자료 결합을 통한 청년 삶 실태조사 개선 효과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무응답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경제 부문 중 소득에서 비교적 그 수가 많은 편이나 <표 4-2-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1% 이내에 그친다. 가구 단위의 연간 소득에 대한 무응답자가 5,4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3%에 달하나, 청년 1인 가구의 가구 결측을 청년 개인 소득으로 대체하면 무응답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 1인 가구 소득을 대체하더라도 가구 소득의 결측이 더 많아 개인 단위 조사에서 가구 수준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비가구주 청년들은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개인 소득으로 가구 소득을 대체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무응답인 95명 중 과반인 55명은 미혼으로 부모(가구주)와 함께 사는 청년이다.

〈표 4-2-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소득 항목별 무응답 수

(단위: 명)

구분	청년을 제외한 가구 연간 소득		청년(개인) 연간 소득
	원자료	1인 가구 청년 개인 소득으로 대체	
근로 및 사업 소득	5,438	95	48
재산소득	5,438	95	48
사적 이전소득	5,438	95	48
공적 이전소득	5,438	95	48
실업급여	5,438	95	48
취업지원 관련 수당	5,438	95	4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438	95	48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5,438	95	48
기타 공적 이전소득	5,438	95	48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5,438	95	48
총소득	5,438	95	48

이에 비해, 항목별 소득에 대해 음수 값으로 응답하거나 '0'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다소 큰 편이다. 〈표 4-2-2〉에서 보면, 청년 개인 수준에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3,30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22.1%에 달한다. 이들의 절대 다수인 2,793명은 미혼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다. 가구 수준에서는 소득이 없거나 음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적어, 원자료에서는 188명, 청년 1인 가구를 개인 소득으로 대체하면 270명으로 각각 1.3%, 1.8% 수준이다. 조사원에 의한 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횡단면 조사로 진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응답이 충실하게 이뤄진 경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응답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행정 자료와의 결합은 정확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소득 항목별 '0' 응답 혹은 음수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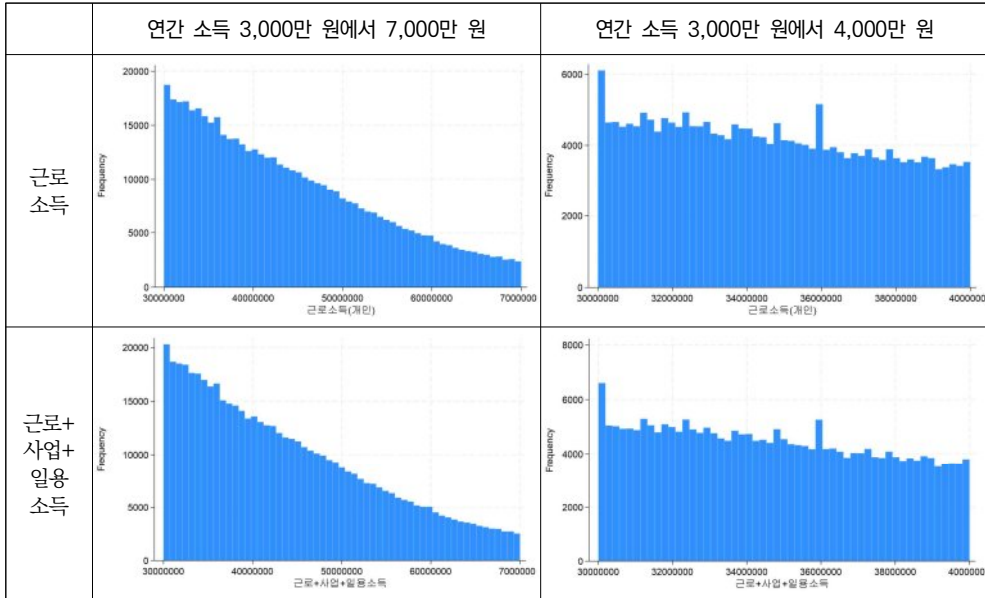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청년을 제외한 가구 연간 소득		청년(개인) 연간 소득
	원자료	1인 가구 청년 개인 소득으로 대체	
근로 및 사업 소득	551	1,740	5,059
재산소득	7,936	12,994	14,167
사적 이전소득	8,976	12,665	12,612
공적 이전소득	8,132	12,923	13,527
실업급여	9,405	14,683	14,733
취업지원 관련 수당	9,494	14,774	14,76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9,205	14,325	14,440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8,995	14,338	14,918
기타 공적 이전소득	9,234	14,469	14,643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9,509	14,806	14,764
총소득	188	270	3,307

행정 데이터는 대표성이 높고 무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하다. 국세청 소득 정보 자료와 연계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이현주 외, 2023, pp. 81-82). 고소득층의 과소 보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근로소득에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행정 자료의 정확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 소득은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근로소득은 다수가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연속형 변수의 속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4-2-1]과 같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근로소득 및 근로+사업+일용 소득 자료는 일정 구간 내에서 소득 값이 빠짐없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정 값에서는 빈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간 소득 수준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 소득자 중에서 3,000만 원, 3,600만 원 소득자의 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그런 경우이다.

[그림 4-2-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기) 내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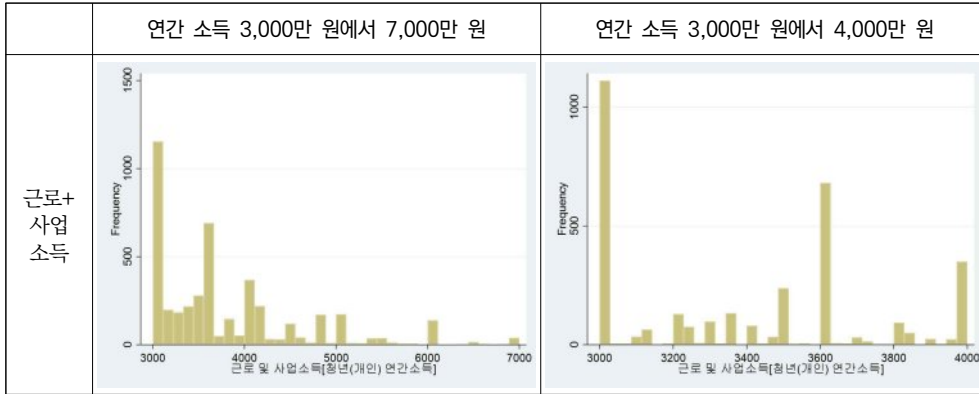


주: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이에 비해서, [그림 4-2-2]와 같이, 조사 자료는 특정 값에 응답이 쏠리는 현상이 선명하다. 조사 자료는 행정 자료보다 응답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 구간 내에서의 빈도 값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값에 치중된 응답 분포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림 4-2-1]의 행정 자료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3,000만 원, 3,600만 원에서 응답자 수가 많은 편이고, 4,000만 원이라는 응답자도 그 수가 많은 편이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은 행정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삶 실태 조사 자료에서의 소득 정보는 히핑 현상이 뚜렷하다. [그림 4-2-3]과 같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천 59명은 개인 수준에서의 근로 소득이 없거나 음수라고 응답하였고, 3,000만 원, 2,400만 원, 3,600만 원에 이어 4,00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 응답은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단위에서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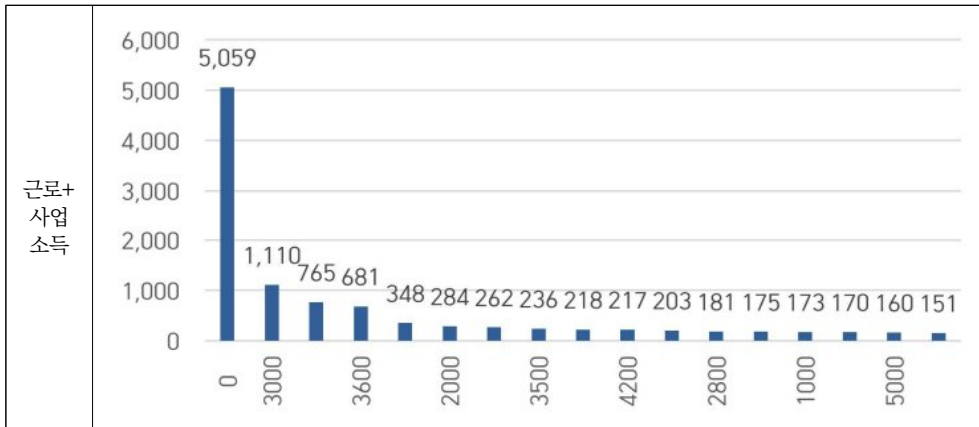
[그림 4-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단위: 명)



[그림 4-2-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근로소득(개인) 분포

(단위: 명)



이처럼 조사 자료는 응답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의 대략적인 수준의 값을 응답한다. 그래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려면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김낙년, 2020). 행정 자료는 공적 이전소득 포착에서 특히 유용성을 가진다(이현주 외, 2023, pp. 81).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공적 이전소득과 결합 시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응답이 확인되고, 과소 보고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 개인과 청년 개인을 제외한 가구로 나누어

소득을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 각각 물었다.<sup>10)</sup> 총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해당 값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은 세부 항목의 합과 일부 다른 응답이 확인된다. 청년 개인 수준에서는 전체 공적 이전소득 액수와 실업급여를 비롯한 하위 항목의 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362명, 가구 수준에서는 328명이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공적 이전소득 총액이 더 크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기타 항목을 두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합계 금액을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음에도 총액을 더 많이 응답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면서 공적 이전소득이 더욱 다양해지면 문항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응답의 정확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적 이전소득 액수에 대한 응답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보장 수급 여부도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조사 자료에서 적은 편이다. <표 4-2-3>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 대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대상인 19~34세의 청년들의 사회보장 수급 비중이 적은 편이어서, 2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서도 청년층에 한해 살펴보면, 맞춤형 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대의 2% 수준이다. 생계급여에 한해서 살펴보면, 약 1% 수준이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이보다 적어서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1%, 생계급여 수급자는 0.6% 수준에 그친다.

10) 2024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항목별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수급 여부에 대해서만 물었음.

〈표 4-2-3〉 맞춤형 급여 수급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2020 청년 삶 실태조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2기	
	원자료		가구 가중치 적용		가구 가중치 적용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맞춤형 급여 수급자	151	(1.01)	161	(1.08)	41,696	(2.09)
생계급여 수급자	87	(0.58)	89.6	(0.60)	20,241	(1.01)
생계급여 수급액이 0원 이상인 경우					18,783	(0.94)

주: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기),” 자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비중은 청년층(19~34세) 대비 수급자의 비중임.

2) 가구 단위로 급여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처럼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조사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자료로 소득 조사를 전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층의 주요 소득원인 사적 이전소득은 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데이터에서의 소득은 조세 당국에 보고된 소득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가구 간 이전소득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표 4-2-4>와 같이, 행정 자료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원천별 소득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소득 원천은 사적 이전소득이다. [그림 4-2-4]에서 [그림 4-2-5]와 같이, 청년 1인 가구 소득의 약 10% 정도가 사적 이전소득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도 그 수가 1천 명이 넘어 적지 않은데 [그림 4-2-6]에서 [그림 4-2-7]처럼 이들의 평균 소득의 90% 이상이 사적 이전소득이다.

<표 4-2-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소득 정의

근로소득(일자리사업 임금 + 자활근로 임금 포함)	1차 소득	시장소득 (생성 불가)	가처분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일용소득			
사적 이전소득(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 급여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n.d.)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코드북(2기\_2021년기준).

〈표 4-2-5〉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가구 유형별 분포

구분	가구원 수		구분	가구 유형	
	가구	%		가구	%
1인 가구	5,343	(35.93)	청년 독거 가구	5,343	(35.93)
2인 가구	2,008	(13.50)	청년 부부 가구	501	(3.37)
3인 가구	4,158	(27.96)	청년+자녀 가구	477	(3.21)
4인 가구	2,780	(18.70)	부모 동거 가구	395	(2.66)
5인 가구	507	(3.41)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317	(2.13)
6인 가구	74	(0.50)	부모(가구주) + 미혼 청년 가구	7,288	(49.01)
			부모(가구주) + 기혼 청년 가구	54	(0.36)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495	(3.33)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그림 4-2-4〕 가구원 수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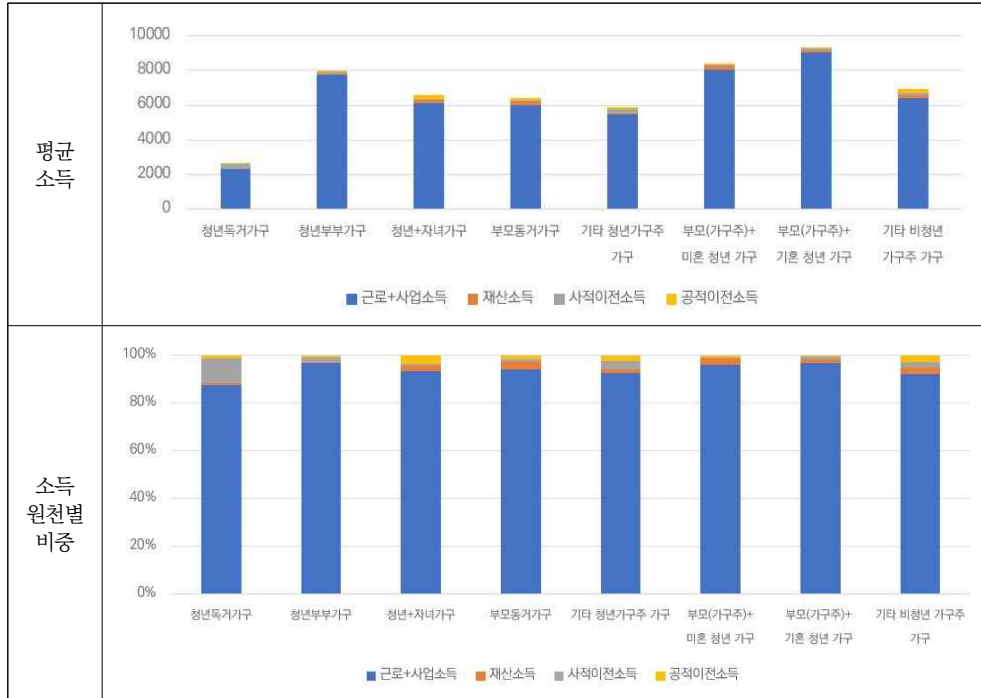
(단위: 원, %)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그림 4-2-5] 가구 유형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

(단위: 원, %)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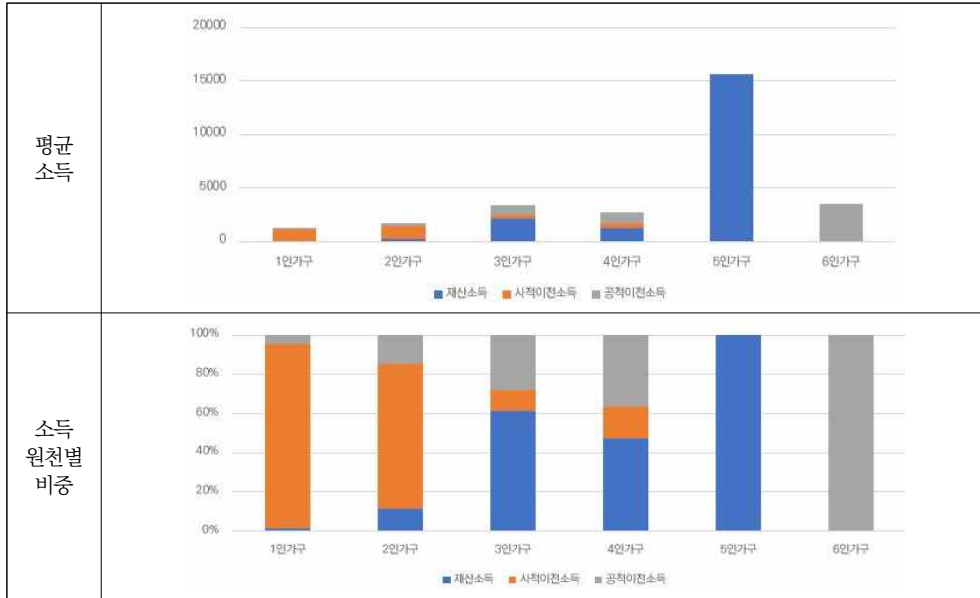
<표 4-2-6>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가구 유형별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구분	가구원 수		구분	가구 유형	
	가구	%		가구	%
1인 가구	1,189	(90.90)	청년 독거 가구	1,189	(90.90)
2인 가구	69	(5.28)	청년 부부 가구	2	(0.15)
3인 가구	39	(2.98)	청년+자녀 가구	9	(0.69)
4인 가구	6	(0.46)	부모 동거 가구	3	(0.23)
5인 가구	4	(0.31)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23	(1.76)
6인 가구	1	(0.08)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63	(4.82)
			부모(가구주)+기혼 청년 가구	19	(1.45)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그림 4-2-6] 가구원 수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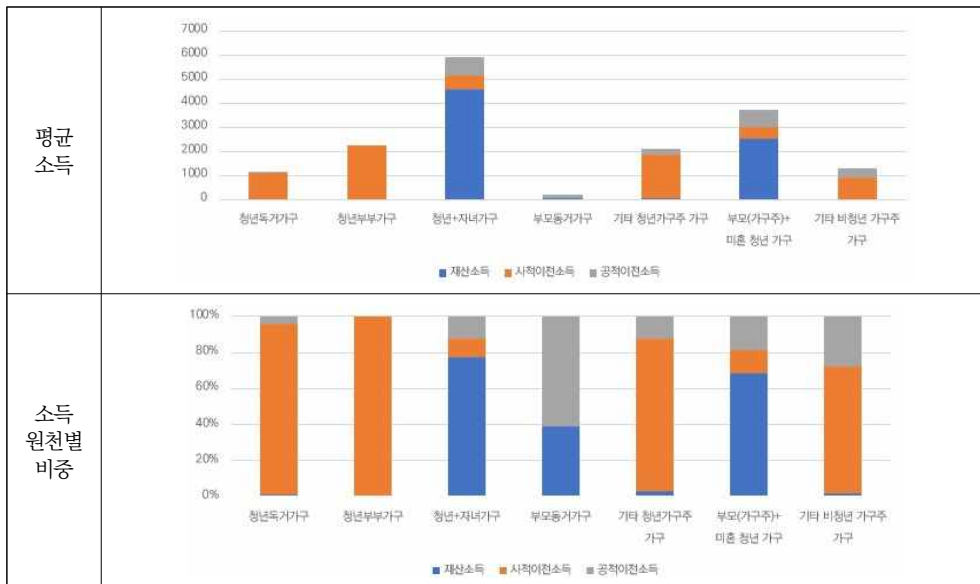
(단위: 원, %)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그림 4-2-7] 가구 유형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 분포(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

(단위: 원, %)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적 이전소득이 청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하면, 향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소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소득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행정 자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행정 자료와 연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다. 청년 삶 실태조사와 행정 자료 결합 시 유의 사항

서로 다른 자료를 연계, 결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두 자료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 비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2기)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2020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동일하다. 다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1기는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2기는 2021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절에서는 2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와 비교하였는데, 모집단에서 차이가 있으나, 조사하는 정보가 2021년으로 같아 이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소득에 대한 정보가 2021년 연간 정보로 같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모집단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으나, 청년 삶 실태조사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인구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정의가 유사하다. 다만, 다른 행정데이터와의 결합 시 가구 정의가 다르면 소득을 비롯한 다른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이현주 외, 2023, pp. 74-75). 예컨대, 청년통계등록부는 외국인 가구와 집단 시설 가구도 포함하여, 가구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다.

모집단은 유사하나, 표본 추출에서는 두 자료 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행정 데이터는 해당자 전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표본'이 없으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그 자체가 여러 자료원을 결합한 데이터로 지역과 주거 형태,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층화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에 사용된 기준들은 가중치를 통해서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로 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과 가구원 수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연령 및 성별을 사후 보정하였다. 다만, 분류의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가구원 수를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로 세분하였으나,

청년 삶 실태조사는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로 나누었으므로 분류 지표 적용 방식이 다르다. 또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19~34세가 2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빠른 생일자 1인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등으로 행정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아닌, 전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상기한 표본 추출과 관련된 문제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과정에서의 애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떤 정보를 연계할지에 관한 사항이다. 행정 데이터와 연계하는 것이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실익을 따져볼 문제이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제반 행정 사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보원마다 취합하는 시기가 달라서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소득 자료와 관련해, 사회보장 제도별로 소득조사의 시점과 내용이 달라, 실제 소득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결합할 것인지, 왜 결합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것을 명확히 한 이후에 중요한 점은 결합할 때 연계키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고유하게 식별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률적 문제로 쉽지 않다. 그래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비롯하여, 노동패널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시스템 연계 등, 여러 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대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을 결합키로 사용한다. 이 경우 중복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들이 연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 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한 탐색적 차원의 항목무응답 진단

설문조사 시 조사 문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응답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문항으로 인해 응답하기를 꺼려하여 항목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소득, 자산 등의 금액 관련 문항, 학력, 혼인 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문항, 회고를 요하는 문항에서 항목무응답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혜정 외, 2023). 항목무응답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를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항목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다면, 즉 무응답 분포가 응답 분포와 같지 않다면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

생하여 잘못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듯 조사데이터에서 항목무응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대한 무응답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 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의 항목무응답 현황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항목무응답이 발생한 문항은 경제 영역에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은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 및 자산으로 구성되며, 가구와 개인 기준으로 해당 영역 문항에 대한 금액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목무응답 비율을 살펴보았다.

### 1) 월평균 가구 생활비

월평균 가구 생활비의 경우 12개의 항목무응답률은 모두 동일한 0.18%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표 4-2-7〉 참조). 첫 번째 문항인 총생활비를 무응답한 응답자는 식료품비부터 마지막 문항인 비영리단체 이전지출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4-2-7〉 월평균 가구 생활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총생활비	27	0.18	
식료품비	27	0.18	
주거비	월세	27	0.18
	주거 관리비	27	0.18
교육비	27	0.18	
통신비	27	0.18	
교통비	27	0.18	
오락문화비	27	0.18	
세금	27	0.18	
공적연금·사회보험료	27	0.18	
가구 간 이전지출	27	0.18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27	0.18	

## 2) 가구 및 개인 연간 소득

가구 연간 소득의 경우 10개의 항목무응답률은 모두 동일한 36.34%로 꽤 높은 편이었다(〈표 4-2-8〉 참조). 첫 번째 문항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총소득은 10개의 문항을 응답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므로, 10개 문항을 모두 무응답하면 동일한 항목무응답률(36.34%)로 나타났다.

〈표 4-2-8〉 가구 연간 소득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근로 및 사업 소득	5,438	36.34	
재산소득	5,438	36.34	
사적 이전소득	5,438	36.34	
공적 이전소득	5,438	36.34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실업급여	5,438	36.34
	취업지원 관련 수당	5,438	36.3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438	36.34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5,438	36.34
	기타 공적 이전소득	5,438	36.34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5,438	36.34
총소득	5,438	36.34	

〈표 4-2-9〉를 보면 청년(개인)의 연간 소득의 경우 10개의 항목무응답률은 모두 동일한 0.3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총소득의 항목무응답률도 0.32%이었다. 앞에서 가구 연간 소득의 항목무응답률인 36.34%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년 응답자가 가구 연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목무응답률과 첫 번째 문항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4-2-9〉 청년(개인) 연간 소득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근로 및 사업 소득	48	0.32	
재산소득	48	0.32	
사적 이전소득	48	0.32	
공적 이전소득	48	0.32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실업급여	48	0.32
	취업지원 관련 수당	48	0.3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8	0.32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48	0.32
	기타 공적 이전소득	48	0.32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48	0.32
총소득	48	0.32	

### 3) 가구 및 개인 부채

가구 부채의 경우 6개의 항목무응답률은 모두 동일한 39.03%로 꽤 높은 편이었다 (〈표 4-2-10〉 참조). 앞의 가구 연간 소득의 항목무응답률(36.34%)에 비해 2.6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문항인 ‘부채총액’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월평균) 이자’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4-2-10〉 가구 부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부채총액	5,841	39.03
학자금 부채	5,841	39.03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5,841	39.03
주택 관련 부채	5,841	39.03
생활비 부채	5,841	39.03
(월평균) 이자	5,841	39.03

〈표 4-2-11〉을 보면 청년(개인)의 부채의 경우 6개의 항목무응답률이 모두 동일한 3.85%로 꽤 높은 편이었다. 앞의 가구 부채의 항목무응답률(39.03%)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첫 번째 문항인 ‘부채총액’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월평균) 이자’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보였다.

〈표 4-2-11〉 청년(개인) 부채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부채총액	576	3.85
학자금 부채	576	3.85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576	3.85
주택 관련 부채	576	3.85
생활비 부채	576	3.85
(월평균) 이자	576	3.85

#### 4) 가구 및 개인 자산

가구 재산의 경우 4개의 항목무응답률이 모두 동일한 37.32%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표 4-2-12〉 참조). 앞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의 항목무응답률(0.18%)보다는 높은 반면에, 가구 연간 소득과 가구 부채의 항목무응답률(각각 36.34%, 39.03%)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 문항인 ‘금융재산’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기타 부동산 및 재산’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보였다.

〈표 4-2-12〉 가구 재산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금융재산	5,586	37.32
주식	5,586	37.32
가상자산	5,586	37.32
기타 부동산 및 재산	5,586	37.32

〈표 4-2-13〉을 보면 청년(개인)의 재산의 경우 4개의 항목무응답률이 모두 동일한 0.8%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앞의 가구 부채의 항목무응답률(37.32%)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첫 번째 문항인 ‘금융재산’을 무응답한 응답자는 마지막 문항인 ‘기타 부동산 및 재산’까지 모두 무응답한 패턴을 보였다.

〈표 4-2-13〉 청년(개인) 재산에 대한 항목무응답률

(단위: 명, %)

변수명	빈도	항목무응답률
금융재산	119	0.80
주식	119	0.80
가상자산	119	0.80
기타 부동산 및 재산	119	0.80

#### 나. 항목무응답 패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앞의 내용에서 문항별 항목무응답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제별로 문항 구조는 총금액과 세부 항목 금액을 질문하는데, 총금액이 무응답이면 세부 항목 금액도 모두 무응답이었다. 단, 재산의 경우는 총금액에 대한 문항이 없다. 이에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의 총금액과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항목무응답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월평균 가구 생활비를 제외하고 연간 소득, 부채, 재산은 가구와 청년(개인) 기준으로 질문하므로 각각 고려하였고, 항목무응답 패턴은 총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항목무응답 패턴은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다. 해당 문항에서 무응답이면 ‘1’, 응답이면 ‘0’으로 정의한 다음에, 월평균 가구 생활비, 가구 연간 소득, 개인 연간 소득, 가구 부채, 개인 부채, 가구 재산, 개인 재산의 순서로 붙여주었다. 예를 들면 항목무응답 패턴이 ‘0000000’인 경우는 7개 문항을 모두 응답한 것이고, ‘0101010’인 경우는 가구 기준 문항(연간 소득, 부채, 재산)을 무응답하고 나머지 문항은 응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목무응답 패턴은 총 33개로, ‘0000000’이 59.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0101010’이 34.36%였고, ‘0001100’<sup>11)</sup>이 2.08%였다(〈부표 1-1〉 참조). 나머지 항목무응답 패턴의 비율은 1%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항목무응답 패턴의 특성은 가구

11) 가구와 개인 부채만 무응답이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응답함.

기준 문항을 모두 무응답한 경우와 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한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표 4-2-14>와 같이 항목무응답 패턴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문항을 모두 응답한 집단은 59.71%이고, 가구 기준 문항을 무응답한 집단은 34.36%이고,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은 5.93%이었다.

<표 4-2-1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분포

(단위: 명, %)

집단	빈도	비율
0   해당 문항 모두 응답	8,936	59.71
1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142	34.36
2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888	5.93
전체	14,966	100.00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경제학적 등 다양한 특성 변수에 대해 3개 집단 간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2-15>는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로, 응답자의 성별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개 집단 간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동질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48.42%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낮았다(해당 문항 모두 응답: 54.21%,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51.91%).

<표 4-2-15>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자	여자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4,092	4,844	8,936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2,652	2,490	5,142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427	461	888
전체	7,171	7,795	14,966

$\chi^2$  통계량=43.748(p-value<.0001)

〈표 4-2-16〉은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로,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19~24세의 비율이 52.18%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25세 이상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무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표 4-2-16〉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4,663	2,424	1,849	8,936
	52.18	27.13	20.69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2,119	1,846	1,177	5,142
	41.21	35.9	22.89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413	279	196	888
	46.51	31.42	22.07	
전체	7,195	4,549	3,222	14,966

$\chi^2$  통계량=172.669(p-value<.0001)

다음은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학력 분포로, 응답자의 학력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7〉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대학 재학/휴학의 비율이 34.68%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고졸 이하 및 대학 졸업 이상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2-17〉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학력 분포

(단위: 명, %)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학 졸업 이상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1,223	3,099	4,614	8,936
	13.69	34.68	51.63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717	1,403	3,022	5,142
	13.94	27.29	58.77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144	232	512	888
	16.22	26.13	57.66	
전체	2,084	4,734	8,148	14,966

$\chi^2$  통계량=101.514(p-value<.0001)

다음은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혼인 상태 분포로, 응답자의 혼인 상태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8〉 참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97.8%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 83.57%,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86.62%). 한편,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은 1.05%로 나타나,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였다(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 15.72%,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12.5%).

〈표 4-2-18〉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혼인 상태 분포

(단위: 명, %)

	배우자 있음	미혼	이혼·별거·사별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1,405	7,468	63	8,936
	15.72	83.57	0.71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4	5,029	59	5,142
	1.05	97.8	1.15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111	771	6	888
	12.5	86.82	0.68	
전체	1,570	13,268	128	14,966

$\chi^2$  통계량=756.196(p-value<.0001)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9〉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58.7%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 73.78%,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68.69%). 이에 반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비율은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취업자인 경우 해당 문항을 모두 응답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표 4-2-19〉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단위: 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5,245	331	3,360	8,936
	58.70	3.70	37.60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3,794	143	1,205	5,142
	73.78	2.78	23.43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610	27	251	888
	68.69	3.04	28.27	
전체	9,649	501	4,816	14,966

$\chi^2$  통계량=334.488(p-value<.0001)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0〉 참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의 경우 ‘상용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9.39%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였다(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 76.15%,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75.9%). 이를 제외한 다른 종사상지위에 대한 비율의 경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이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2-20〉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명, %)

	상용 임금근로자	임시 임금근로자	일용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체
0	3,994	785	104	119	243	5,245
	76.15	14.97	1.98	2.27	4.63	
1	3,012	495	38	81	168	3,794
	79.39	13.05	1.00	2.13	4.43	
2	463	90	12	18	27	610
	75.9	14.75	1.97	2.95	4.43	
전체	7,469	1,370	154	218	438	9,649

$\chi^2$  통계량=24.651(p-value=0.0018)

주: 표의 열에서 0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1은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2는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를 의미함.

다음은 취업자의 평균 근속 기간에 대해 3개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1〉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평균 근속 기간은 28.01개월로,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28.69개월로,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은 27.99개월로, 3개 집단 모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2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근속 기간 분포

(단위: 개월)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r > F
해당 문항 모두 응답	5,245	28.01	30.58	0.62	0.536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3,794	28.69	28.2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610	27.99	31.83		

다음은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에 대해 3개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2〉 참조).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평균 구직 기간이 5.48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이 4.80개월이고,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3.78개월이었다. 추가로 3개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 간에 차

이<sup>12)</sup>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과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구직 기간 분포

(단위: 개월)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Value	Pr > F	집단 간 차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331	4.80	4.43	3.44	0.033	**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143	3.78	3.5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27	5.48	6.68			

응답자의 거주지를 수도권 여부로 구분하였고, 수도권 여부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3〉 참조).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55.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이 32.56%이었고,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이 29.91%이었다.

〈표 4-2-23〉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수도권 여부 분포

(단위: 명, %)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2,910	6,026	8,936
	32.56	67.44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1,538	3,604	5,142
	29.91	70.09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490	398	888
	55.18	44.82	
전체	4,938	10,028	14,966

$\chi^2$  통계량=220.566(p-value<.0001)

12) 튜키 검정(Tukey’s Test)을 통해 다중 비교 검정을 함.

다음은 응답자의 거주지를 17개 시도로 살펴본 결과로, 17개 시도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4〉 참조). 서울 거주지의 비율은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과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각각 25.56%, 16.45%)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9.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2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17개 시도 분포

(단위: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0	824	567	576	682	413	440	363	192	1,404	472	339	429	440	445	510	567	273	8,936
	9.22	6.35	6.45	7.63	4.62	4.92	4.06	2.15	15.71	5.28	3.79	4.8	4.92	4.98	5.71	6.35	3.06	
1	846	449	270	272	250	283	214	143	420	181	306	301	269	169	322	372	75	5,142
	16.45	8.73	5.25	5.29	4.86	5.5	4.16	2.78	8.17	3.52	5.95	5.85	5.23	3.29	6.26	7.23	1.46	
2	227	3	20	16	13	26	3	3	247	7	79	75	11	47	22	7	82	888
	25.56	0.34	2.25	1.8	1.46	2.93	0.34	0.34	27.82	0.79	8.9	8.45	1.24	5.29	2.48	0.79	9.23	
전체	1,897	1,019	866	970	676	749	580	338	2,071	660	724	805	720	661	854	946	430	14,966

$\chi^2$  통계량=1198.223(p-value<.0001)

주: 표의 열에서 0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1은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2는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를 의미함.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5〉 참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모든 응답자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가구주의 비율이 34.8%이고,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은 11.36%였다. 응답자가 가구주인데도 불구하고 가구 기준 문항을 무응답한 것은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25〉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분포

(단위: 명, %)

	가구주 아님	가구주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7,921	1,015	8,936
	88.64	11.36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0	5,142	5,142
	0	10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579	309	888
	65.2	34.8	
전체	8,500	6,466	14,966

$\chi^2$  통계량=10,478.361(p-value<.0001)

응답자의 가구원 수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6〉 참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모든 응답자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가구주의 비율이 23.99%이고,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은 0%였다.

〈표 4-2-26〉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가구원 수 분포

(단위: 명, %)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0	1,871	3,915	3,150	8,936
	0	20.94	43.81	35.25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142	0	0	0	5,142
	100	0	0	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213	163	271	241	888
	23.99	18.36	30.52	27.14	
전체	5,355	2,034	4,186	3,391	14,966

$\chi^2$  통계량=14,267.464(p-value<.0001)

추가로 응답자의 가구 유형 분포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구 유형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7〉 참조).

〈표 4-2-27〉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가구 유형 분포

(단위: 명, %)

	1	2	3	4	5	6	7	8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0	462	445	374	288	6,849	51	467	8,936
	0	5.17	4.98	4.19	3.22	76.65	0.57	5.23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142	0	0	0	0	0	0	0	5,142
	100	0	0	0	0	0	0	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213	43	35	27	42	494	3	31	888
	23.99	4.84	3.94	3.04	4.73	55.63	0.34	3.49	
전체	5,355	505	480	401	330	7,343	54	498	14,966

$\chi^2$  통계량=14,285.478(p-value<.0001)

주: 표의 행에서 1은 청년 독거 가구, 2는 청년 부부 가구, 3은 청년+자녀 가구, 4는 부모 동거 가구, 5는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6은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7은 부모(가구주)+기혼 청년 가구 (이혼, 별거, 사별 포함), 8은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응답자의 거주 주택 유형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8〉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76.24%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꽤 높은 편이었다(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 21.39%,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54.84%). 이에 반해 주택과 기타의 비율은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과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2-28〉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거주 주택 유형 분포

(단위: 명, %)

	주택	아파트	기타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1,977	6,813	146	8,936
	22.12	76.24	1.63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2,741	1,100	1,301	5,142
	53.31	21.39	25.3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342	487	59	888
	38.51	54.84	6.64	
전체	5,060	8,400	1,506	14,966

$\chi^2$  통계량=4522.412(p-value<.0001)

주: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기타는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숙사, 향토학사 등을 포함함.

응답자의 주거 점유 형태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9〉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74.23%로 나머지 2개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 10.42%,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 53.15%). 반면에 전세, 월세와 기타의 비율은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과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4-2-29〉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주거 점유 형태 분포

(단위: 명,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6,633	1,367	783	153	8,936
	74.23	15.3	8.76	1.71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36	1,057	3,111	438	5,142
	10.42	20.56	60.5	8.52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472	210	177	29	888
	53.15	23.65	19.93	3.27	
전체	7,641	2,634	4,071	620	14,966

$\chi^2$  통계량=6,271.259(p-value<.0001)

주: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를 포함하고, 기타는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무상 거주를 포함함.

다음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분포에 대해 살펴본 결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0〉 참조).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12.27%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7.88%이고,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6.87%이었다.

〈표 4-2-30〉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명, %)

	비미달 가구	미달 가구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8,232	704	8,936
	92.12	7.88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4,789	353	5,142
	93.13	6.87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779	109	888
	87.73	12.27	
전체	13,800	1,166	14,966

$\chi^2$  통계량=31.082(p-value<.0001)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1〉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면적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0.51%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의 경우 면적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1.44%이고,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은 1.24%로 나타났다.

〈표 4-2-3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명, %)

	비미달 가구	미달 가구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8,890	46	8,936
	99.49	0.51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068	74	5,142
	98.56	1.44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877	11	888
	98.76	1.24	
전체	14,835	131	14,966

$\chi^2$  통계량=33.579(p-value<.0001)

시설 기준 미달 가구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2〉 참조).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의 경우 면적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4.88%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시설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9.68%이고,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6.03%이었다.

〈표 4-2-32〉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시설 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명, %)

	비미달 가구	미달 가구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8,500	436	8,936
	95.12	4.88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4,832	310	5,142
	93.97	6.03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802	86	888
	90.32	9.68	
전체	14,134	832	14,966

$\chi^2$  통계량=38.818(p-value<.0001)

마지막으로 침실 기준 미달 가구 분포에 대해 3개 집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3〉 참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침실 기준 미달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과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경우 침실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각각 2.89%와 2.82%로 유사한 편이었다.

〈표 4-2-33〉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침실 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명, %)

	비미달 가구	미달 가구	전체
해당 문항 모두 응답	8,678	258	8,936
	97.11	2.89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5,142	0	5,142
	100	0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863	25	888
	97.18	2.82	
전체	14,683	283	14,966

$\chi^2$  통계량=151.003(p-value<.0001)

항목무응답 패턴에 따른 3개 집단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준거집단은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명 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거주지, 거주 주택 유형이고, <표 4-2-34>는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해당 문항 모두 응답’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사용한 설명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응답자가 여자(기준변수: 남자)인 경우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일 가능성(오즈)이 1.11배 증가하며, 응답자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142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 재학/휴학(기준변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1.220배 증가하고,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준변수: 미혼) 0.028배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기준변수: 비경제활동)인 경우 1.530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가 수도권(기준변수: 비수도권)인 경우 0.592배 감소하고, 거주 주택 유형이 주택(기준변수: 아파트)인 경우는 8.584배 증가하고, 기타인 경우는 66.713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학력이 대학 재학/휴학(기준변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일 가능성은 0.759배 감소하고,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준변수: 미혼) 0.679배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기준변수: 비경제활동)인 경우에 1.238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가 수도권(기준변수: 비수도권)인 경우 2.297배 증가하고, 거주 주택 유형이 주택(기준변수: 아파트)인 경우는 2.324배 증가하고, 기타인 경우는 4.810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34〉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 결과

변수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coefficient(b)	SE	exp(b)	coefficient(b)	SE	exp(b)
상수항	-5.214(***)	0.203	-	-3.505(***)	0.322	-
성별_여자						
남자	0.105(**)	0.045	1.111	0.091	0.073	1.095
연령	0.133(***)	0.007	1.142	0.019	0.012	1.019
학력_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하	-0.079	0.069	0.925	0.013	0.105	1.013
대학 재학/휴학	0.199(***)	0.068	1.220	-0.275(**)	0.112	0.759
혼인 상태_미혼						
배우자 있음	-3.559(***)	0.157	0.028	-0.387(***)	0.126	0.679
이혼·별거·사별	0.202	0.210	1.223	-0.240	0.435	0.787
경제활동 상태_비경제활동						
취업자	0.425(***)	0.056	1.530	0.213(**)	0.089	1.238
실업자	-0.103	0.130	0.902	-0.166	0.217	0.847
거주지_비수도권						
수도권	-0.524(***)	0.049	0.592	0.832(***)	0.072	2.297
거주 주택 유형_아파트						
주택	2.150(***)	0.047	8.584	0.843(***)	0.076	2.324
기타	4.200(***)	0.100	66.713	1.571(***)	0.163	4.810

주: coefficient에서 ( ) 안의 값은 p-value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며 (\*\*\*)은 1%,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음.

#### 다. 경제 영역의 조사 문항에 대한 항목무응답 처리 방안

경제 영역의 조사 문항(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 및 재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항목무응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항목무응답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제 영역의 문항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 영역의 문항은 재산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의 경우 세부 문항과 전체 문항(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항목무응답 대체는 세부 문항별로 실시한 다음에, 전체 문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문항 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월평균 가구 생활비, 연간 소득, 부채 및 재산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개별 문항으로 항목무응답을 대체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함께 대체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항목무응답을 대체할 때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이면서 가구주인 5,142명(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은 개인 기준 경제 영역의 문항은 모두 응답하였다. 즉,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인 경우는 해당하는 개인 기준의 문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항목무응답(기타 집단)'인 경우는 가구주와 가구원 수의 분포가 <표 4-2-35>와 같다. 1인 가구이면서 가구주인 213명의 경우는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가구 기준 문항 무응답' 집단과 같이 개인 기준의 문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구주이면서 2인 이상 가구인 96명은 가구주이면서 1인 가구인 경우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다인 가구의 특성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구주가 아니면서 2인 이상 가구인 579명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일 확률이 높으므로, 일반 가구의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합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2-35〉 기타(해당 문항 중에서 하나 이상 무응답) 집단의 가구주 및 가구원 수 분포

(단위: 명)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체
가구주 아님	0	109	237	233	579
가구주	213	54	34	8	309
전체	213	163	271	241	888

세 번째, 항목무응답에 대해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균 대체, 핫덱 대체, 회귀 대체, predictive mean matching(PMM)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사 문항의 항목무응답 비율과 활용 가능한 보조 정보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제 영역 조사 문항에서 나타나는 항목무응답에 대해 현황 파악 및 진단을 수행하였고, 항목무응답 처리 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확장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는 등의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항목무응답을 대체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실시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경제 영역은 2022년 조사에 비해 가구 기준 문항의 질문이 간소화되었다. 즉 세부 문항은 삭제되고 총액만 조사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가구 기준 문항의 총액에 대해서는 개인 기준 문항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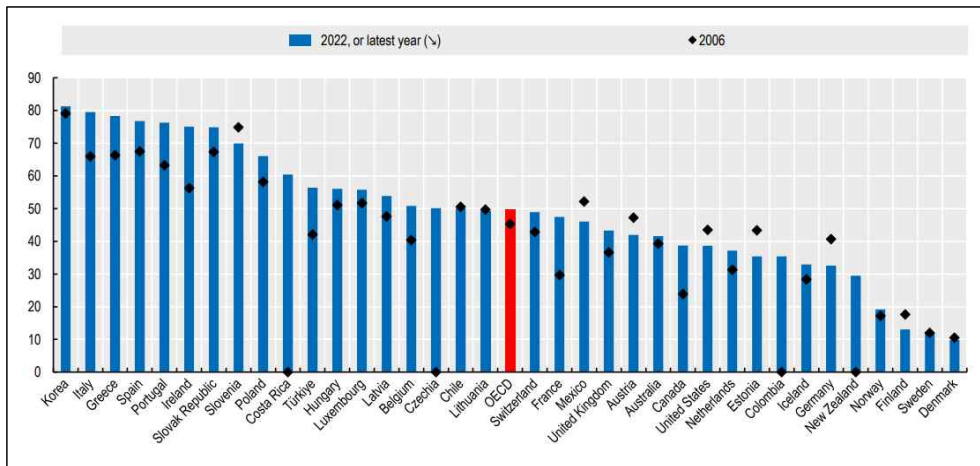
## 제3절 제언

### 1. 정책적 차원

첫째, 청년의 독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OECD(2024b)는 여러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은 그 비율이 약 8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4b). OECD(2024b)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에서 이르면,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선택(choice,) 자아 실현(self-actualisation) 같은 비물질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져서 가족 형성은 상대적으로 연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4-3-1]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20~29세)의 비율



자료: OECD (2024b),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18d8db3-en>. p.34.

이러한 현상은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 가구는 증가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중에서도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38.0%로 2022년 32.3%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독립하려는 이유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증가 폭이 크고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적절한 시기를 물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이하 ‘자산’)가 36.3%였고, 독립을 하려는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60.5%, ‘특별한 이유 없음’도 22.9%라고 응답해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의 여건과 관련된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2022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7.0%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 독립, 혼인 등의 이유 또는 청

년 주거 정책을 통해 기숙사 확대,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부담자 1순위는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6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2%포인트 감소했고, 본인 자금은 24.2%,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은 6.8%로 각각 2022년 대비 2.7%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다는 점도 청년 주거 정책의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설계 시 참조할 점으로 청년들의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는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 의사는 증가했으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수요는 2022년 대비 감소하고, 전세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와 같은 정책 수요가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주택에 있어 '부동산 소유'의 욕구보다 '거주'의 욕구와 인식이 높아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정책은 자산 증식의 수단보다는 청년들이 사회적 이행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변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접근해야 하며, '거주, 삶의 터전'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 주택 소유 필요 이유'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승의 압박(2022년 11.9% → 2024년 14.0%)이 증가한 점과 '필요한 주거 정책'에서 주거비 지원(2022년 17.3% → 2024년 20.7%)이 증가한 점에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노후 보장(2022년 9.6% → 2024년 12.1%)이 증가한 점에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지 선택 이유 1순위: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라는 응답이 39.2%, 주거비가 저렴해서 29.7%, 내부환경이 좋아서 8.3%의 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일자리의 균형 있는 분포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의 지역 이주 의사는 일자리, 주거, 문화와 관련이 높고, 이는 다시 지역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청년의 이주 의사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3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서'(4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75.7%로 2022년의 73.1% 대비 2.6%포인트 증가했으나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계속 거주 의사가 높았고,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의 삶의 질이 비수도권 청년의 삶의 질에 비해 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수도권 청년의 취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고, 임금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나지만, 수도권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6.67과 6.76점으로 비수도권 청년에 삶의 만족도(6.75)와 삶의 행복감(6.86)에 비해 낮다.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는 수도권 청년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의 17.5%가, 비수도권 청년은 19.2%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으나 수도권 청년의 삶은 주거 불안정성과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원론적이나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성 해소와 심화된 경쟁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대학 비진학 청년(고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뿐 아니라 졸업하기 전부터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절반 이상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40.4%), 혹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5.4%)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2~4명의 영세 소규모 직장 비율이 높았으며, 임금 수준은 고졸 이하 청년은 262만 원, 대졸 이상 청년은 290만 원으로 이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고졸 이하 청년의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80.1%로 고졸 이하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 63.3%에 비해 16.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건강 측면에서도 고졸 이하 청년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흡연율(42.6%)과 우울 증상 유병률(11.8%), 고위험 음주, ‘혼밥’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낮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았다. 관계, 사회 인식·미래 설계에 있어서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진학 청년들에 비해 취약한 경향이 있었다. ‘청년 삶 실태조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표본 조사 이기는 하지만 2024년 조사에 포함된 대학 비진학 청년의 표본 수는 2,710명이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세밀한 분포까지 본 조사 자료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통계 같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해당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의 담지자이다. 청년 담론은 청년들이 마주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당사자의 문제, 즉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현실을 통해 드러내고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기했던 이슈의 일부는 정책 개혁의 발판이 되기도 했고, 일부는 청년정책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청년들이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향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고, 도움받고 싶은 집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자 희망의 불씨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관찰된 도움받을 수 있거나, 도움받고 싶은 집단 중 아무 데도 없다는 응답의 증가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사 자료 활용 및 향후 조사 관련 차원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가치는 무엇보다 대규모의 표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한다는 데 있다. 물론, 다른 승인 통계를 통해서도 청년 연령대를 추출하여 청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타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조사 내에서 다른 연령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타 승인 통계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한 청년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청년의 규모가 15,000명이므로 한 세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KOSIS 공표 범위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로 다른 승인 통계보다 구체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자료를 활용하면 가구의 특성(가구주, 노인, 아동, 돌봄 필요 가구원 같은 특정 가구원의 유무)에 따른 고용, 주거, 경제 등의 실태와 관련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담지자인 청년 세대가 자신과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

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가 지닌 이러한 가치는 실태조사가 단순히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가 아닌 가구의 특성, 영역별 실태, 웰빙, 인식과 태도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향후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원의 검토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통계등록부 또는 사회보장 행정통계와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지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통계와 연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점의 일치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유효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행정통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적 이적소득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삶 실태조사의 쓸모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청년 삶의 질 지표를 포함하여 각종 승인 통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통계 등에 대해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혹은 부처와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고등학교, 대학교) 자체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웰빙, 유다이모니아, 사회 인식 영역의 보완, 경제 영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주요 이슈(경제 영역, 소진,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는 문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증감 혹은 변화의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와 같은 검토는 충분한 기간과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므로 청년 삶 실태조사가 아닌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청년 건강의 차원에서는 주관적 건강과 신체활동, 스마트폰 의존 정도는 2022년 대비 개선되어,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평가한 청년은 61.1%(2022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은 54.5%)였으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는 최근 러닝, 피트니스 등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은 청년은 19.9%로 2022년의 20.2% 대비 감소했다.

대학 습득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는 2022년 57.1%, 2024년 64.5%로 7.4%포인트 증가했으며, 현재 직장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2년 대비 4.6%포인트 감소, 3년 이상은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의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술·산업구조 변화, 테러리즘, 기후 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은 감소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불평등은 82.6%(2022년 90.1%), 저출생·고령화는 92.2%(2022년 95.7%), 기술·산업구조 변화 77.7%(2022년 90.1%), 테러리즘 79.7%(2022년 81.9%), 기후변화는 89.2%(2022년 92.4%)로 분석됐다.

청년의 소득은 총소득(2,625만 원) 및 근로 및 사업 소득(2,451만 원), 재산소득(34만 원), 사적 이전소득(94만 원), 공적 이전소득(45만 원) 모두 2022년 대비 증가했다(단, 가구 소득과 재산의 감소는 조사 대상 중 2024년 청년 가구주 가구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한편, 주관적 건강과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 행위와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의 흡연율은 23.5%로 지난 2022년의 20.1%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흡연율이 42.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중 32.2%는 최근 1년 동안 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살 생각에 있어서는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9%(2022년 2.4%)로 여성이 3.9%, 남성 2.0%였으며, 고졸 이하의 ‘자살 생각’ 비율이 4.7%(2022년 3.2%)로 2022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하여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 소진 경험(36.2%)과 우울 증상(10.7%)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평생식이·체중 조절 약물 사용 비율은 9.3%로 분석됐다.

지금 하는 일이 일 경험(인턴, 현장실습,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3.7%로 2022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 청년은 9.1%, 다른 일도 하고 싶은 청년은 12.8%,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은 청년은 11.0%로 2022년 대비 모두 상승했으며,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경험 또한 46.3%에 이른다는 점은 별도의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용근

로자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 비중이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이 기술 변화로 인해 사라질 일이라는 응답은 18.2%(2022년 14.4%)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응답은 7.8%(2022년 5.7%)로 두 가지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대해 청년들이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단,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가 미래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22년 대비 감소했으며, 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인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고졸 청년의 가구 유형, 주거, 건강, 대학 비진학 이유, 미래 설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면, 고졸 청년의 일, 삶의 질 등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피임을 하거나 성 경험이 없거나 성관계 상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성관계 시 피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로는 '임신을 원해서'(35.1%)가 가장 많았고, '피임 도구 사용이 불편해서' 16.2%,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11.9%,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8.7%, '상대방이 피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7.8% 등으로 조사되었다.

고졸 청년의 40.4%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2023년,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고졸 청년 취업 지원 내실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SNS,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훈련 경험의 높은 도움 인식 정도에 주목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청년 교육·훈련 정책 공급,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받고 싶은 교육·훈련은 '특정 직종 관련 직업 훈련' 22.6%,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19.3%, '어학 교육' 14.6%, '고용 상담' 12.1%, '받고 싶지 않음' 21.6%이며, 연령별과 교육 수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여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와 정규 근로일 외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각각 71.8%, 76.2%가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3.9%,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3.4%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홍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는 32.4%(2022년 30.6%)만 있다고 응답했으며, '어려울 때 각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각 집단에서 대체로 감소했으며, '도움받고 싶은 어떤 사람/집단도 없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외출 빈도, 은둔 상태의 지속 기간, 은둔의 주된 이유로 산출한 고립·은둔 청년은 5.2%로 2022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하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차원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뿐 아니라 전체 청년의 객관적, 주관적 웰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여가 활동은 202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안(못)한 이유로는 모든 항목에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여가 관련 단체(동호회)활동 제외) 나타났다.

문화·여가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별, 연령, 지역, 학력에 따른 갈등 인식 정도는 당사자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유관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은 59.4%, 비수도권 청년은 66.1%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갈등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배우 청년의 향후 결혼 계획은 63.1%(2022년 75.0%)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59.3%(2022년 63.3%)였으며, 결혼과 출산의 사 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적 상태를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청년은 가구 내에서 평균적으로 148만 원을 소비하며, 연간 2,625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소득의 대부분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451만 원을 차지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5,012만 원의 재산과 1,637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 중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즉,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에 한정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은 가구 내에서 평균적으로 148만 원을 소비하며, 연간 3,285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 연간 소득의 대부

분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것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068만 원을 차지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7,526만 원의 재산과 2,79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2,1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경제적 상태에 있어서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청년의 연령대별, 학력별, 가구주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모두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청년 가구주에 속한 청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소비지출과 소득에서보다 자산과 부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7,526만 원의 개인 재산총액과 2,790만 원의 개인 부채총액, 주택 관련 부채 2,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청년 주거 정책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관계부처합동. (2020. 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021~2025).
- 관계부처합동. (2024. 3).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4. 3. 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국가지표체계. (2023). 선거투표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에서 2023.2.2. 인출.
-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64.
-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39-61.
- 김다래. (2023). 2030 청년 유권자의 젠더갈등과 정당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아, 김문길, 김기태,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오지현, 최셋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83-318.
- 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건. (2021). 은둔형 외톨이.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23. 1. 1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통계청. (2024. 2).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5호. (2023).
- 문옥륜, 최재욱, 손애리, 김경희, 이영숙, 최영준. (2020). 건강위해요인 관리 방안 연구. 한국건강위해감축연구회.
- 박경민. (2024. 5. 16.). 달콤한 연기에 속지 마세요...액상담배 속 유해물질 한눈에.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40515/124949399/1>
- 박은자, 전진아, 김남순, 최승아, 송은솔, 박주현. (2022).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해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승환. (2022). 자기기입 조사자료에 대한 히핑 현상 보정 방안 연구. 통계연구, 27(4), 30-46.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종오, 안태호. (2023. 5. 3.). 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0319.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0319.html)에서 2024.12.18. 인출.
- 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 정신건강의 관계-서울 청년의 이주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67-108.
- 법제처. (n.d.).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D%91%9C%EB%B3%B8%EC%84%A4%EA%B3%B0%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admRulId=54359&efYd=>
- 서한기. (2023. 10. 3.). 우울증환자 100만 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8032700518>
- 심예은. (2024. 3. 27.). 청소년 향정신성의약품 장기복용시 부작용 4가지. 헬스경향.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72>
- 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27(1), 5-37.
- 이지영, 김진교. (2006). 온라인 패널 조사와 오프라인 대인면접 조사 간 데이터 품질 비교: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심으로.
- 이현주, 강희정, 오욱찬, 이원진, 이혜정, 이병재, 한겨레, 이상정, 류정희, 성재민, 이길제, 이재원. (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정. (2022). 조사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및 관리 방안: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13, 59-74.
- 이수민. (2024.12.12.). 여의도 탄핵 집회,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10명 중 3명은 '2030 여성'.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503011>에서 2024.12.17. 인출.
- 윤선정, 김혜영. (2022).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지식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Women Health Nurs* 28(4):286-295 <https://doi.org/10.4069/kjwhn.2022.11.28.1>
- 이승엽. (2020). 소진증후군의 이해와 대처.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9(2):105-114.
- 장수미, 경수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18-546.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755/journal-33-4-518.pdf>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지식센터. (2024. 7.). 신종담배의 건강영향-액상형 및 쉐련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담배폐해 얹. [https://www.kdca.go.kr/filepath/boardDownload.es?bid=ATT&list\\_no=723971&seq=8](https://www.kdca.go.kr/filepath/boardDownload.es?bid=ATT&list_no=723971&seq=8)
- 질병관리청. (2023). 2022년 국민건강통계.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
- 조강철, 이하민. (2024). 컴퓨터 관련 여가(recreational computing)와 노동공급. BOK 이슈 노트, 2024-16호. 한국은행.
- 천재영, 배재운, 남기철, 손창균, 윤강재, 김난주, ..., 윤열.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홍민기, 배기준, 이상호. (2014). 조사방법과 히핑(heaping)과의 관계. *조사연구*, 15(2), 123-147.
- 통계청. (2024. 10. 4.).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218&list\\_no=433106&seq=6](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218&list_no=433106&seq=6)
- 통계청. (2021. 12. 29). 다양한 고용형태 측정을 위해 통계분류 개성한다.-한국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보도자료].
- 통계청. (2024). 청년 실업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sCd=2&idxCd=5028>에서 2024.12.18.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눈으로 보는 건강: 덜 유해한 담배는 없다! 가열담배도 담배다. 더 건강 Vol. 3. [https://www.khepi.or.kr/webzine/vol\\_03/cnt\\_2\\_1.jsp](https://www.khepi.or.kr/webzine/vol_03/cnt_2_1.jsp)
- Bublitz, E. (2022). Mis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s: Cross-country evidence from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 *Socio-Economic Review*, 20(2), 435-462.
- Cifaldi, G., & Neri, A. (2013). Asking income and consumption questions in the same survey: what are the risks. Bank of Italy Temi di Discussione (Working Paper) No, 908.
- Cole, S., Dhaliwal, I., Sautmann, A. & Vilhuber. L. (2022). Using Administrative Data for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y: An Introduction. In: Cole, Dhaliwal, Sautmann, and Vilhuber (eds), *Handbook on Using Administrative*

- Data for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y, Version v1.1. Accessed at <https://admindatahandbook.mit.edu/book/v1.1/intro.html> on 2024-12-11.
- Drechsler, J., & Kiesl, H. (2016). Beat the heap: An imputation strategy for valid inferences from rounded income data. *Journal of Survey Statistics and Methodology*, 4(1), 22-42.
- Fernandez-Albertos, J., & Kuo, A. (2018). Income perception, inform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1), 83-110.
- Gideon, M., Helppie-McFall, B., & Hsu, J. W. (2017). Heaping at round numbers on financial questions: The role of satisficing. In *Survey research methods*, Vol. 11, No. 2, 189. NIH Public Access.
- ILO. (202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18) Manual.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 OECD. (2019). Social Cohesion Indicators.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soc\\_glance-2016-30-en.pdf?expires=1734336657&id=id&accname=ocid177525&checksum=DD36B0EC0EE31A7CC214E6149A189D86](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soc_glance-2016-30-en.pdf?expires=1734336657&id=id&accname=ocid177525&checksum=DD36B0EC0EE31A7CC214E6149A189D86)
- OECD. (2024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에서 2024.12.16. 인출.
- OECD. (2024b),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18d8db3-en>.
- Penner, A. M., & Dodge, K. A. (2019). Using administrative data for social science and policy.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5(2), 1-18.
- Zinn, S., & Wurbach, A. (2016). A statistical approach to address the problem of heaping in self-reported income data.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43(4), 682-703.



### [부록 1] 항목무응답 패턴에 대한 분포

항목무응답 패턴	빈도	비율
0000000	8,936	59.71
0000010	131	0.88
0000011	19	0.13
0000100	2	0.01
0001000	64	0.43
0001010	8	0.05
0001011	1	0.01
0001100	312	2.08
0001110	10	0.07
0001111	34	0.23
0100000	15	0.10
0100010	5	0.03
0100011	2	0.01
0101000	6	0.04
0101010	5,142	34.36
0101011	32	0.21
0101100	14	0.09
0101110	152	1.02
0101111	16	0.11
0110000	4	0.03
0111010	8	0.05
0111100	14	0.09
0111110	2	0.01
0111111	10	0.07
1000000	10	0.07
1011100	1	0.01
1100000	1	0.01
1101010	5	0.03
1101110	1	0.01
1111010	1	0.01
1111100	1	0.01
1111110	2	0.01
1111111	5	0.03

## [부록 2]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



응답자 ID



2024년

#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24년 1월 1일) 현재 19~34세(1989년 1월 2일 ~ 2005년 1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작성기관		조사수탁 (용역)기관	주관	 HankookResearch
			수행	
문의처	한국리서치 자료조사본부 콜센터		☎ 02-3014-0905/02-3014-0132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 _____ 길 (구주소) _____ 동 _____ 번지		
	건물명 _____ 아파트, 빌라 _____ 동 _____ 호		

응답일시	월 일 시 분	응답 총 소요시간	① 40분 이내    ② 40분 ~ 60분 ③ 60분 ~ 80분   ④ 80분 이상
------	---------	-----------	---

조사원 ID	조사원 성명
--------	--------

▶ 연락처는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 일반 사항 (2024년 1월 1일 기준 19~34세)**

**A1** 귀 가구에 함께 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 2024년 1월 1일 기준,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포함  
 \* 혈연관계(친·인척, 가족 등)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에 포함  
 \* A2 문항의 보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

가구원수: (    )명

가구원 번호	이름 * 주민등록기준	A2 조사대상과의 관계 * 유형의 보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	A3 가구원 성별 * 주민등록기준	A4 생년월일 * 주민등록기준		
	가구원 이름	관계 코드	① 남 ② 여	생년	생월	생일
1 (조사대상)		① 조사대상 본인(청년)				
2						
3						
4						
5						
6						
7						
8						
9						

- 1) 조사대상과의 관계 A2
- ① 조사대상 본인(청년)
  - ② 청년의 배우자
  - ③ 청년의 자녀
  - ④ 청년의 부모
  - ⑤ 청년 배우자의 부모
  - ⑥ 청년의 조부모
  - ⑦ 청년 배우자의 조부모
  - ⑧ 청년의 형제자매 또는 청년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⑨ 기타

**A2-1**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이하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A5-1** 귀하의 현재 재학 상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A6**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A6-1 부의 최종학력	A6-2 모의 최종학력
① 해당 없음(부모 불명)	① 해당 없음(부모 불명)
① 무학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석사) 졸업	⑦ 대학원(석사) 졸업
⑧ 대학원(박사) 졸업	⑧ 대학원(박사) 졸업

**A7** 귀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한부모 가구
- ②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가구
- ③ 해당 없음

※ 한부모 가구: 부모 중 어느 한쪽과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인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예) 청년(19~34세)인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 자녀, 부 또는 모 +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였거나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19~34세 청년

**A8** 귀하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또는 맞춤형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수급 중 → A8-1 항목으로 이동
- ②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음 → A9 항목으로 이동
- ③ 수급 경험 없음 → A9 항목으로 이동

**A8-1**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

A8-1-1 생계급여	A8-1-2 의료급여	A8-1-3 주거급여	A8-1-4 교육급여
① 수급	① 의료급여 1종	① 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② 의료급여 2종	② 비수급	② 비수급
(가구원 일부 수급 포함)	③ 비수급		

※ 조사대상 청년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A9** 귀하는 가구에서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A9-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다 → **A11** 항목으로 이동

**A9-1**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누구입니까? (가구원 번호: ) (가구원 번호: ) (가구원 번호: )  
→ **A10** 항목으로 이동

- A10** 귀하께서는 주돌봄자이십니까?  
① 그렇다 → **A1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다 → **A11** 항목으로 이동

- A11** 귀하는 장애가 있으십니까?  
① 해당 없음  
①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 정도가 심함 (기존 장애 1~3급)  
②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 (기존 장애 4~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 등록 장애인 포함)  
④ 기타

**A12** 귀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① 대한민국(남한)                      ② 북한                      ③ 그 외 외국

**A12-1** 귀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 ① 대한민국 → **A12-1-1** 항목으로 이동  
 ② 그 외 외국 → **A12-2** 항목으로 이동  
 ③ 국적이 없음 → **A12-2** 항목으로 이동

**A12-1-1** 귀하는 한국으로 귀화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이다.

**A12-2** 귀하의 부모님 중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곳(북한, 외국 등)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A12-2-1**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모두 대한민국(남한)에서 태어나셨다. → **A12-2-1** 항목으로 이동  
 ③ 해당없음 → **A13** 항목으로 이동

**A12-2-1** 귀하의 부모님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복수국적은 '있다'에 응답)

- ① 있다 → **A13**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다. → **A12-2-2** 항목으로 이동

**A12-2-2** 귀하 부모님 중 한 분이이라도 귀화한 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한국 국적이다.

A13 다음 중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A13-1 항목으로 이동
- ② 미혼 → B1 항목으로 이동
- ③ 이혼 → B1 항목으로 이동
- ④ 별거 → B1 항목으로 이동
- ⑤ 사별 → B1 항목으로 이동

A13-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학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석사) 졸업
- ⑧ 대학원(박사) 졸업



**B1-2-2** (부모 비동거)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주거비(월세 또는 보증금)가 저렴해서
- ② 내부환경이 좋아서
- ③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 ④ 개인공간이 보장되어서 (방 크기, 1인실 등)
- ⑤ 이 지역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 ⑥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⑦ 편의 시설·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 ⑧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 ⑨ 기타( )

**B2** 귀하는 1) 기숙사, 향토 학사나 2)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포함하며, 본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①있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②없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1) 기숙사, 향토 학사에 거주한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2)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한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B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① 부모
- ② 본인
- ③ 배우자
- ④ 친인척
- ⑤ 기타 ( )

**B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이 있는 집이 부모님 소유라면 자기로 응답합니다. 무상거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 ① 자가 → B4-1
- ② 전세 → B4-2 항의 1)로 이동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B4-2 항의 2)로 이동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B4-2 항의 3)으로 이동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B4-2 항의 3)으로 이동
- ⑥ 일세 → B4-2 항의 4)로 이동
- ⑦ 무상 거주 → B5











**C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C3 항목으로 이동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정도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C2-1 항목으로 이동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⑦ 평생 술을 마신 적 없다 → C3 항목으로 이동

---

**C2-1**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

**C2-2** (남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7잔 (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C15** 귀하는 현재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십니까?

- ① 항상 한다 → **C16** 항목으로 이동
- ② 대부분 하는 편이다 → **C16** 항목으로 이동
- ③ 하지 않는 편이다 → **C15-1** 항목으로 이동
- ④ 전혀 하지 않는다 → **C15-1** 항목으로 이동
- ⑤ 성 경험 없음 → **D1** 항목으로 이동
- ⑥ 상대 없음 → **C16** 항목으로 이동

**C15-1** 귀하가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C16** 항목으로 이동

- ① 내가 임신을 원해서
- ② 나의 건강에 좋지 않아서
- ③ 내가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 또는 불임 등)
- ④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 ⑤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 ⑥ 내가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 ⑦ 내가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 ⑧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 ⑨ 임신 중이어서
- ⑩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 ⑪ 기타( )

**C16** 피임과 관련된 결정(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 후 **D1** 항목으로 이동

- ① 주로 내가 결정 한다
- ②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 한다
- ③ 주로 상대방이 결정 한다

## D. 교육·훈련

### 공통

**D1**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③ 과학고·영재학교  
 ④ 외국어고·국제고    ⑤ 예술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특성화고  
 ⑧ 대안학교(각종학교)    ⑨ 기타(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 해외고교, 검정고시 등)  
 ⑩ 비해당 → **D3** 항목으로 이동

**D2**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⑱ 해외

**D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각 항목별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① 있다'로 응답하시고, 도움 정도를 응답)

**D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D3 도움 받은 경험	D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 다	별로 도움 이 안 되었 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 이 되었 다	매우 도움 이 되었 다
1) 학교(상담 교사, 교사, 지도 교수 등)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2) 공공 기관(고용 센터, 청년 소년 상담 복지 센터 등)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3) 사설 기관(사설 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5) 친구, 선배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6) 온라인 커뮤니티/SNS, 유튜브	① 있다 → <b>D3-1</b>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고졸이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정규 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인 경우에, 응답해주세요.

**D6**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에, 졸업 후를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 ⑦ 기타( )

※ 조사 대상자가 받은 정규 교육이 전문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 여러 개의 대학을 다닌 경우,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재학·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D7**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 4년제 대학                      ② 2~3년제 대학                      ③ 산업 대학
- ④ 교육 대학                              ⑤ 방송통신대학                      ⑥ 사이버(디지털) 대학
- ⑦ 기능 대학(폴리텍)                      ⑧ 기타( )

**D7-1** 귀하의 주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교육학, 유아교육, 사범계열 포함)    ② 예술 및 인문학(예술, 인문학, 어문학 포함)
- ③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④ 경영, 행정 및 법학
- ⑤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⑥ 정보통신기술(컴퓨터 공학, 전산학 포함)
- ⑦ 공학, 제조 및 건설(건축학 포함)                      ⑧ 농림어업 및 수의학
- ⑨ 보건 및 복지(의약학 및 보육, 복지, 상담학 포함)
- ⑩ 서비스(체육학 및 관광, 여가, 위생, 경비학 포함)

**D7-2**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졸업한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⑰ 세종                      ⑱ 해외

**D8** 귀하가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중이거나,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D9** 귀하는 취업을 하려고 대학 교육 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D9-1**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E1** 항목으로 이동

**D9-1** 귀하가 받은 사교육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 E. 노동

- '지난주'는 2024.6.9.(일) ~ 2024.6.15.(토)을 말합니다.  
- '지난 4주'는 2024.5.19.(일) ~ 2024.6.15.(토)을 말합니다.

**E1**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① 예 → **E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1** 항목으로 이동

**E1-1**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① 예 → **E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1-1** 항목으로 이동

**E1-1-1** 지난주에 일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E1-1-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미취업자 문항 **E15** 항목으로 이동

**E1-1-2**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E2** 로 이동

- ① 일시적 병, 사고    ② 휴가, 연가                      ③ 교육, 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⑥ 노사분규  
⑦ 사업 부진, 조업 중단                      ⑧ 기타(                      )

**E2** 평소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직장(일)이 두 개 이상입니까?

※ 프리랜서로 같은 일을 여러 곳(장소, 업체, 고객)에서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일로 보고 응답합니다. 다만, 일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일로 보고 응답합니다.

- ① 예 → **E2-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2-1-1** 항목으로 이동

**E2-1**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 응답 후 **E2-1-1** 항목으로 이동

총 \_\_\_\_\_ 개

**E2-1-1**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부터 순서대로 응답해주세요.

※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일을 할 경우 응답해주세요.

	1)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십니까 ?	2)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3) 이 일자리에 "세금 공제 전" 소득은 얼마입니까?	4) 어떤 일을 합니까?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⑧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종사자 ⑩군인
첫 번째 일자리	_____일	_____시간	월 _____만원		
두 번째 일자리	_____일	_____시간	월 _____만원		
세 번째 일자리	_____일	_____시간	월 _____만원		

→ 응답 후 **E3** 항목으로 이동

단, **E1-1** 이 '①'이고, **E2-1-1** 근로시간이 일주일 18시간 미만인 경우 응답 후

**E15** 항목으로 이동

※ 직업 분류 참조

- ① 관리자 : 기업 고위 임원, 행정 관리자, 연구 관리자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연구원, 개발자, 기술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교수, 교사 등
- ③ 사무 종사자 : 행정 사무원, 은행원, 고객 상담 안내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 : 경찰관, 소방관, 미용사, 승무원, 요리사 등
- ⑤ 판매 종사자 : 영업원, 판매사원,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 ⑥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 재배원, 낙농업 종사원, 임업 채취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 제방사, 정육가공원, 제단사, 한복 제조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 수리공 등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공장 기계 조작원, 철도 기관사, 자동차 운전원(기사), 중장비 기사 등
-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접 단순 종사원, 집배원, 택배원, 청소원, 건물 관리인, 기사 도우미 등
- ⑩ 군인 : 직업 군인

※ 다음 E3 ~ E13 번 문항은 지난주 일한 일자리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 일자리에서 일한 경우, 주된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E3**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 E3-1 항목으로 이동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E5 항목으로 이동
- ② 임시근로자 → E3-1 항목으로 이동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E5 항목으로 이동
- ③ 일용근로자 → E3-1 항목으로 이동      ⑥ 무급가족종사자 E6 항목으로 이동

**E3-1** 이 일자리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총 고용예상기간은 일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 응답자 개인 사정에 의한 예상 기간(예를 들어, 본인이 그만두고 싶은 기간 등이 아니라, 프로젝트 종료, 사업의 완료 등 구체적인 사건에 의한 예상 기간)을 유의

① 정하였음	②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p><b>E3-1-2</b> 고용계약기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개월 미만</li> <li>② 1개월 ~ 3개월 미만</li> <li>③ 3개월 ~ 6개월 미만</li> <li>④ 6개월 ~ 1년 미만</li> <li>⑤ 1년</li> <li>⑥ 1년 초과 ~ 2년</li> <li>⑦ 2년 초과 ~ 3년</li> <li>⑧ 3년 초과(기한 한정)</li> </ul>	<p><b>E3-1-3</b> 총 고용예상기간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개월 미만</li> <li>② 1개월 ~ 3개월 미만</li> <li>③ 3개월 ~ 6개월 미만</li> <li>④ 6개월 ~ 1년 미만</li> <li>⑤ 1년</li> <li>⑥ 1년 초과 ~ 2년</li> <li>⑦ 2년 초과 ~ 3년</li> <li>⑧ 3년 초과(기한 한정)</li> <li>⑨ 기한 제한 없음(정년제 포함)</li> </ul>

**E3-2** 이 일자리에서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형태는 무엇입니까?

※ 고정된 보수(기본급)과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가 혼재된 경우 주된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 ①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 등)
- ② 고정된 보수(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E3-3**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계약 형태는 무엇입니까?

※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응답

- ① 근로계약
- ② 근로계약 이외(위임·위탁·위촉·도급계약·프리랜서계약 등)

**E3-4** 귀하는 임금(급여)을 일한 직장(일)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 ① 직장 (지난주 일한 곳)
- ②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E3-5**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의 '일 경험'에 해당합니까?

- ① 인턴      ② 현장실습      ③ 수습기간      ④ 해당 없음

**E4** 귀하는 일자리에서 주휴수당을 받습니까?

→ 응답후 **E6** 항목으로 이동

※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함

- ① 받음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음      ③ 대상자가 아님(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5** 지난주 귀하의 보수나 귀하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은 주로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 보기 참조

1. 다른 사업체 또는 기관(본사): 프랜차이즈 점주로 가격결정의 권한이 본사에 있는 경우,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보험설계사로 보험상품의 가격과 계약수수료 등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경우 등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본인이 조정할 권한이 거의 없는 경우 해당
2. 고객: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번역,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후원수익을 보수로 하는 경우, 텃 등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우 등 본인의 권한이 거의 없고 고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해당
3. 본인(시장가격):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협에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가 아닌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자의 옷가격 책정, 푸드트럭 자영자의 음식값 책정 등 동종업종과의 가격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격책정에 있어 본인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 해당
4. 관련제도(정부, 지자체 등): 택시 요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법률 등 관련 제도에 따라 결정된 경우 해당

- ① 다른 사업체 또는 기관(본사)      ② 고객  
 ③ 본인(시장가격)      ④ 관련제도(정부, 지자체 등)



**E11**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 번	전혀 하지 않음
1)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①	②	③	④	⑤
2)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①	②	③	④	⑤
3) 타인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회사(조직)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①	②	③	④	⑤

**E12** 귀하는 일자리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습니까?

※ 자율성을 가진다는 뜻은 본인이 원할 때 일하는 시간, 장소, 양 등을 본인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1) 일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2) 일하는 장소	①	②	③	④
3) 일의 양	①	②	③	④
4) 일하는 순서	①	②	③	④
5)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E13** 귀하는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14** (현재 일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지난 주에 36시간 이상 일하십니까?

① 예 → **E18** 항목 이동

② 아니요 → **E14-1** 항목 이동

**E14-1**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③ 더 많은 시간 일 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E14-2**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E14-3**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응답 후 **E18** 항목 이동)







**E19-3**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 ③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 ④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 ⑤ 이전 직장 경력으로 인해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음
- ⑥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 ⑦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 ⑧ 기타( )
- ⑨ 특별히 없었음

**E19-4**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까?

- ① 예 → 아래의 **SQ1** 항목으로 이동
- ② 아니요 → **E19-4-1** 항목으로 이동

**E19-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 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실업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실업 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 ④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실업 급여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 )

**SQ1**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E20** 항목으로 이동
- ② 없다 → **E23** 항목으로 이동

**E20** 귀하는 현재 일자리와 이전 일자리를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① 경험한 적 있음
- ② 경험한 적 없음



**SE1** 부모님의 지난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무엇입니까?

※ 동시에 여러 개 일자리에서 일한 경우,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

SE1-1 부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SE1-2 모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① 해당 없음(부모 불명)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자) ⑧ 비경제 활동 인구(주부, 학생, 연로자, 산정대인 구직단념자)	① 해당 없음(부모 불명)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자) ⑧ 비경제 활동 인구(주부, 학생, 연로자, 산정대인 구직단념자)

## F. 관계 및 참여

**F1**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1-1** 과 **F1-2**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5)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F2**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관심 있다
- ② 약간 관심 있다
- ③ 그다지 관심 없다
- ④ 전혀 관심 없다

**F3** 귀하는 정치·사회 문제에 관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①	②	③	④
3)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①	②	③	④
4)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직접 제출하기	①	②	③	④
5)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6)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①	②	③	④

**F4** 귀하는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족이나 친분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F5** 다음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b>F5-1</b> 귀하가 생각하기에	<b>F5-2</b> 지난 1년간	<b>F5-3</b> 안(맞)한 주된 이유는?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할 필요가 없다	① 했다 → <b>F6</b> ② 안(맞)했다 → <b>F5-3</b>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② 시간이 부족해서 ③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④ 공간, 지리적 문제로 ⑤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⑥ 할 필요가 없어서
1)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2)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4)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F6**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F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G1** 항목으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F8** 항목으로 이동

**F8**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F9**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의 중단으로
- 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
-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⑦ 기타( )

## G. 사회인식 · 미래설계

### 사회인식

G1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G2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G3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G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G5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구분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2) 부유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3) 수도권과 비수도권	①	②	③	④
4)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④
5) 내국인과 외국인	①	②	③	④

G6 귀하는 다음의 상황들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1) 불평등	①	②	③	④
2) 저출생·고령화	①	②	③	④
3) 기술·산업구조 변화	①	②	③	④
4)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①	②	③	④
5) 기후 변화	①	②	③	④

G7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G8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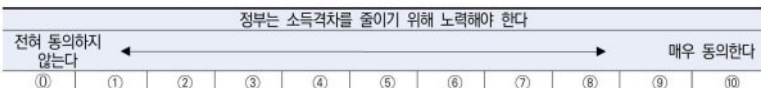
G9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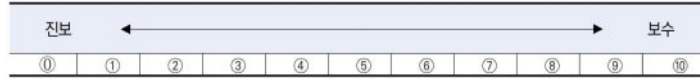
G10 귀하는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G11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G12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G13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반대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사회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사회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사회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미래설계**

G14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자녀 출산과 양육	①	②	③	④
4) 높은 학력수준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일자리	①	②	③	④
6)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①	②	③	④
7)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8) 사회 기여	①	②	③	④
9) 명예와 권력	①	②	③	④

G15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G16**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부모의 경제력	①	②	③	④
2) 부모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3) 나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4) 나의 노력	①	②	③	④
5)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①	②	③	④
6) 정부의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G17**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1) 부모의 경제력	①	②	③	④
2) 부모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3) 나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4) 나의 노력	①	②	③	④
5)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①	②	③	④
6) 정부의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G18** 다음 중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 정책
- ② 주거 정책
- ③ 교육 정책
- ④ 복지문화정책
- ⑤ 참여권리 정책

**<현행 청년 정책>**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영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 국민취업지원 제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청년전용 창업자금
- 청년테크스타보증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디딤돌/버팀목 대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학자금 대출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4.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도약계좌
- 햇살론유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문화누리카드
- 알뜰교통카드

5. 참여·권리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DB
- 청년마을
-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G19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께서는 현재 연애하고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연애하고 있다      ② 아니다, 연애하지 않고 있다

G20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께서는 향후 결혼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G21 귀하를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주시고,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H. 경제

- ※ 가구의 생활비, 소득, 재산, 부채는 가구주 또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소득, 재산, 부채는 조사 대상 청년이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주로 마련하는 사람
- ※ 만 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적음 (예: 11만 5천 원의 경우에는 12만 원으로 적고, 없으면 0으로 적음)

### 🔧 월평균 가구 생활비 (기준 시점: 2023. 1. 1. ~ 2023. 12. 31.)

**H1** 다음은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기간(2023. 1. 1. ~ 2023. 12. 31.) 모든 가구원이 지출하신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주세요.

- ※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하고, 경상지출(매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 찬안책, 이모(신구 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한 물품의 경우 월 할부금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예) 2023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한 경우 월 생활비에 50만원을 포함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b>H1-1</b> 총생활비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통신비 + 교통비 + 오락문화비 + 이외의 소비지출(광열수도비, 의료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사용품비 등)) ※ 제외 항목: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예, 저금, 저축성보험료),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예, 주택부금상환, 할부, 빌린 돈(이자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b>H1-2</b> 식료품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식비는? ※ 가정 소비(식재료 구입비, 간식, 직영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외식, 뷔페서 먹는 음식 비용 등	천 백 십 일 만원	
<b>H1-3</b>	<b>H1-3-1</b> 월세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지대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 ※ 보증금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천 백 십 일 만원
	<b>H1-3-2</b> 주거 관리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 주택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단,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광열수도비 제외)	천 백 십 일 만원
<b>H1-4</b>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 교육서비스 등	천 백 십 일 만원	
<b>H1-5</b> 통신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TV/유선방송, OTT 구독료 등	천 백 십 일 만원	
<b>H1-6</b> 교통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통비는? ※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자동차 구입비 제외)	백 십 일 만원	
<b>H1-7</b> 오락·문화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오락·문화비는? ※ 운동, 공연, 단체여행비, 취미용품(TV, 오디오, 컴퓨터, 사진기 등 포함) 등에 대한 지출	백 십 일 만원	

**가구 및 개인 연간 소득 (기준 시점: 2023. 1. 1. ~ 2023. 12. 31.)**

**H2** 다음은 가구소득 및 조사대상 청년의 개인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퇴직금, (민간)보험금 받은 것,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은 제외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가구 연간소득	청년(개인) 연간소득				
<b>H2-1</b>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 시정임금근로, 자영업 등에서 받아들이는 소득을 의미 ※ 사업소득은 순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	/	만원	천	백	십	일
<b>H2-2</b> 재산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퇴직연금+기타 재산소득+(주식)배당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 득, 임대소득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만원	천	백	십	일
<b>H2-3</b> 사적 이전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종교단체,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민간·비영리 기관 및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만원	천	백	십	일
<b>H2-4</b> 공적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 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만원	천	백	십	일
<b>H2-5</b> 총소득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 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 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만원	천	백	십	일

**H3** 귀하는 2023년 1년간 다음의 공적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내용
1) 실업급여	① 있다    ② 없다
2) 취업지원 관련 수당(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① 있다    ② 없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① 있다    ② 없다
4)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① 있다    ② 없다
5)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① 있다    ② 없다

**가구 및 개인 부채 및 재산 (기준 시점: 2023. 12. 31.)**

H4 2023. 12. 31. 기준 귀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명의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

구분	해당항목	가구 기준					청년(개인) 기준				
		십억	천	백	십	억	십억	천	백	십	억
H4-1 부채총액	2023. 12. 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미이너스통장, 미상환금 모함),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할부구입, 외상, 기타부채					만원					만원
H4-2 학자금부채	2023. 12. 31. 기준 학자금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공교육 혹은 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한 부채액										만원
H4-3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2023. 12. 31. 기준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주식, 채권,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등에 투자를 목적으로 인한 부채액										만원
H4-4 주택관련 부채	2023. 12. 31. 기준 주택관련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H4-5 생활비 부채	2023. 12. 31. 기준 생활비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H4-6 (월평균)이자	2023년 지출한 월평균 이자는 얼마입니까?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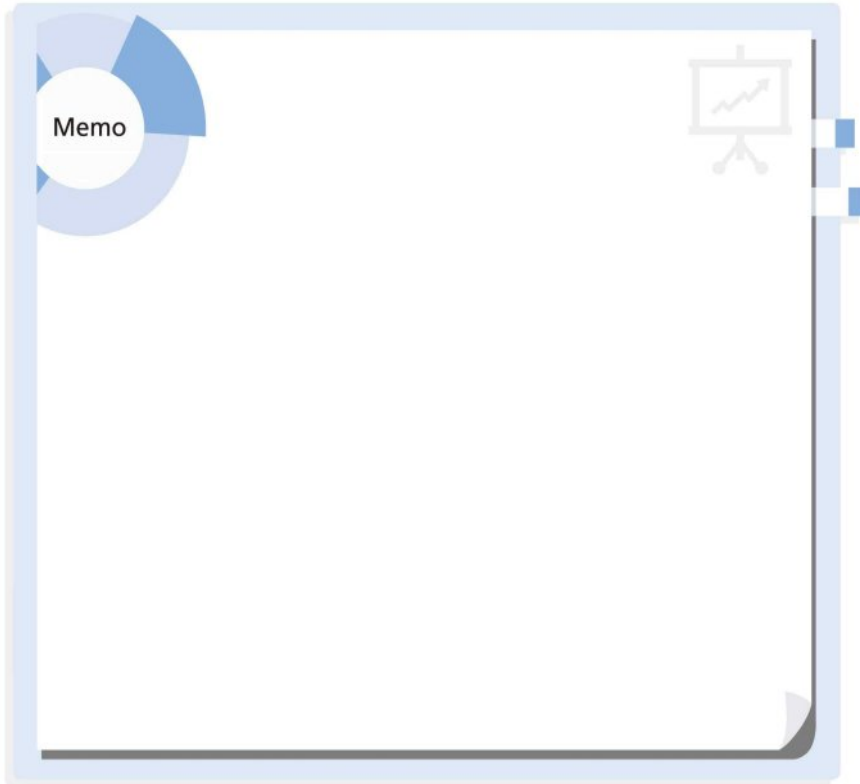
H5 2023. 12. 31. 기준으로 조사대상 청년이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H6 2023. 12. 31. 기준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명의기준, 가구원 명의의 사업장(가게)도 포함

구분	해당항목	가구 기준					청년(개인) 기준					
		십억	일억	천	백	십	억	십억	일억	천	백	십
H6-1 재산총액	2023. 12. 31. 기준 총재산은 얼마입니까? ※ 실물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및 금융재산					만원						만원
H6-2 금융재산	2023. 12. 31. 기준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빌려준 돈, 낸 갚돈(타지 않은 금액) 등 ※ 주식, 채권, 펀드, 가상자산 제외											만원
H6-3 주식	2023. 12. 31. 기준 주식과 채권은 얼마입니까? ※ 직접 투자한 주식 및 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을 통한 펀드 포함											만원
H6-4 가상자산	2023. 12. 31. 기준 가상재산은 얼마입니까? ※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도그코인 등)											만원
H6-5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23. 12. 31. 기준 가꾸어지고 있는 집과 금융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은 얼마입니까? ※ 소유부동산(가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시가 기준임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예: 회원권 등) ※ 농기계, 자동차 등은 시세 혹은 중고가액 가격 기준임											만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별 문의처 〉

조사관리부	연락처
서울/경기/강원	☎ 02-3014-0905
서울/인천/경기	☎ 02-3014-0132
부산/울산/경남	☎ 051-464-2238
대구/경북/제주	☎ 053-425-4372
대전/세종/충남/충북	☎ 042-253-6796
광주/전남/전북	☎ 062-226-4633